30th ANNIVERSARY

KOREAN SYMPHONY ORCHESTRA

2015

강국에 약음없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30년사

KOREAN SYMPHONY ORCHESTRA | 1985-2015





©DAYLIGHT studio_ Cho Nam Ryong · Kim Sung Ryong

30th ANNIVERSARY
KOREAN SYMPHONY ORCHESTRA
2015

강국에 약음없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30년사

KOREAN SYMPHONY ORCHESTRA | 1985-2015



[창단연주회 1985. 3. 30_지휘 **홍연택**]



제194회 정기연주회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

Korean Symphony Orchestra the 30th Anniversary Concert

지휘 임헌정 | Hun-Joung Lim, Conductor
바리톤 염경묵(돈조반니) | Kyung-Mook Yum, Baritone (Don Giovanni)
바리톤 공병우(레포렐로) | Paul Kong, Baritone (Leporello)
소프라노 강혜정(체를리나) | Hye-Jung Kang, Soprano (Zerlina)

W. A. Mozart Opera <Don Giovanni> Highlights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주요 아리아

P. I. Tchaikovsky <Swan Lake> Suite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조곡

G. Mahler Symphony No. 9 in D Major - IV. Adagio
말러 교향곡 제9번 D장조 – 4악장

2015. 1. 22(목) 8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I 예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주관 I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I 후원 I 티켓 R석 6만원 / S석 4만원 / A석 2만원 / B석 2만원 / C석 1만원 할인 I 조기예매(2014년 12월 22일까지, 단체 10장이상 구입시 최대30% 할인
예매 I 예티켓 www.sacticket.co.kr 02.580.1300, 인터파크, 예스24, 옥션티켓, 티켓링크, 하나티켓, 클럽발코니 I 문의 I 코리안심포니 www.koreansymphony.com 02.523.6258

[창단30주년연주회 2015. 1. 22_지휘 **임헌정**]

강국에 약음없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30년사

펴낸날 _ 2016년 11월 15일
펴낸이 _ 이원철 (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30년사 T/F팀 _ 경영관리팀 추찬호 (팀장) · 공연기획팀 송종준 (팀장)
편집팀 _ 공연기획팀 장민애, 하가영, 장민정, 김예진
편집기획 _ 배석호 (음악칼럼니스트. 객석 기자, 월간음악 편집장, CD가이드 편집인을 역임했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예술사업부장, 전주세계소리축제 프로그래머를 지내며
30년간 음악계와 공연예술계를 뛰어다녔다.)
디자인 _ 안미나

펴낸곳 _ 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우편번호 06757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4층
TEL 02-523-6258 FAX 02-523-6259
홈페이지 www.koreansymphony.com
유튜브 youtube.com/koreansymphony
트위터 twitter.com/koreansymphony
페이스북 facebook.com/koreansymphony
이메일 kosym1@daum.net

편집 인쇄 _ 학사넷

ⓒ 2016 Korean Symphony Orchestra 비매품

Contents

발간사 | **이원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30년간의 팡파르 12

IDENTITY

법인 이사회 18
후원회 19
조직, 경영, 대표이사 20
사무국 21
경영구도, 미션 22
창단 이후 법인의 변화, 역대 음악(예술)감독, 역대 이사장 23
임헌정, 예술감독 상임지휘자 24
상주작곡가 26
오케스트라, 단원 30
전용 연습실 38

PROLOGUE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태동 이전에 44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1985 (준비에서 창단까지) 47

HISTORY

한 눈으로 보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30년 54
제1부 | 홍연택 지휘자의 초창기와 중흥기 (1985~2000) 58
제2부 | 재단화와 예술의전당 (2001~2006) 115
제3부 | 음악감독들의 시대 (2007~2014) 135
제4부 | 예술조직과 경영조직의 분리 (2015~현재) 158

SUPPLEMENT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연혁 170
주요지휘자 / 출연자 레퍼토리 리스트 227

| 일러두기 |

1. 고유명사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오케스트라**'와 '**교향악단**' '**관현악단**' '**악단**' 등은 특별한 구분없이 혼용해서 사용했다.
2.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공연기록은 자료실에 보관된 공연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했다.
3. 이 책에 실린 사진의 모든 저작권은 특별히 저작권자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촬영한 사진작가에 있다.
4. 이미 발표된 사진자료에 사진작가의 이름이 없는 경우 저작권자를 표기하지 않았다.
5. 출처를 알 수 없거나 정확히 출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 악단이름 약어표기 |

1.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코리안심포니**' 또는 '**코심**'
2. 시립교향악단 – '**시향**' (예컨대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서울시향**'으로 표기함).
3. 국립교향악단 – '**국향**'
4. KBS교향악단 – '**KBS향**'



©DAYLIGHT studio_ Cho Nam Ryong · Kim Sung Ryong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30년간의 팡파르

코리안심포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지난 30년 동안 음악가들과 음악애호가들에게 최선의 음악을 들려줬다. 홍연택 선생의 열정에서 출발한 코리안심포니는 30년 동안 격동의 한국 공연문화계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여 왔다.

어느 단체나 30년을 넘게 되면 나름대로의 스토리텔링을 갖게 마련이다. 코리안심포니 30년은 한국문화예술계에서 민 · 관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면에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코리안심포니는 한국 교향악계에 30년동안 팡파르를 울리면서 변모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것은 한국 음악계에 울려 퍼진 아우성이었으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변화시킨 팡파르였다. 현세대에서 30년 전의 출발점을 되돌아보고 기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창조경제 시대에, 창조의 원천인 예술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생성되는 과정은 문화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자산이기도 하다.

30년이란 세월은 여러 모로 의미가 있다. 인생으로 보면, 서른 나이를 뜻하는 이립(而立)은 마음이 정해져 모든 기초가 확립되는 시기이다. 사회 · 문화적인 나이로 보면 세대가 바뀌는 햇수이기도 하다. 유행도 30년이 지나면 복고 바람이 다시 슬슬 불어오기 시작한다. 코리안심포니 30년도 음악적으로, 음악사 연표(年表) 속의 사조(思潮)만큼이나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 그것은 창조적 변화였다.

코리안심포니는 순수 민간악단으로 출범했지만 그 뿌리는 국립교향악단이었다. '경제개발'이 총체적으로 전개되던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 국가의 음악적 역량이었던 국립교향악단이 그 변화의 시초다. 당시 국립교향악단 지휘자였던 홍연택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새마을노래'를 음악적으로 다듬어 전국민의 부르는 애창곡이 되게 했으며 그것은 결국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부르는 계기가 되었다.

지휘자 홍연택은 제5공화국 시작과 함께 자신이 10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국향을 KBS로보내게 된다. 언론통폐합 이후 거대 공영방송이 된 'KBS'는 '국향'을 그리 탐탁치 않게 여겼다. 하지만 '5공'은 힘이 세어 어쩔 수 없었다. 졸지에 국향과 멀어진 홍연택은 와신상담 사재를 털어 코리안심포니를 창단했다. 이 악단에 참여한 국향출신 단원들이 40여명이나 되었으니 코리안심포니의 뿌리는 국향이라고 할 수 있다.

코리안심포니는 국립오페라단과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등의 무대예술에서 관현악을 전속적으로 맡으면서 멀티 프로페셔널 교향악단으로 자리 잡게 된다. 오늘날 세계 유수의 악단들은 오페라나 발레단의 극장 오케스트라들이다. 코리안심포니는 일찍이 30년 전 창단 때부터 오늘날까지 국고로 운영되는 극장 오케스트라의 토대를 만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문화 창조시대의 선구적 혜안을 가지고 강력한 사운드를 구축하는 교향악단의 몫을 해내며 한국과 세계의 음악애호가들과 동행하고 있다. 그것은 홍연택, 김민, 박은성, 최희준, 임헌정 등 다섯분으로 이어져온 마에스트로 계보와 함께 혼신의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들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급 악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는 하지만, 코리안심포니가 울려온 30년 동안의 팡파르는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 코리안심포니 30년은 새로운 30년의 팡파르를 울려야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 지나온 30년의 발자취를 담은 것도 그와 같은 연유다.

30년 동안 이 음악여정에서 함께 걸어온 전,
현직 단원들에게 감사하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준
정부의 문화관련 부처, 이사회와 후원회
그리고 사무국에서 불철주야로 뛰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원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IDENTITY

법인 이사회
후원회
조직, 경영, 대표이사
사무국
경영구도, 미션
창단 이후 법인의 변화, 역대 음악(예술)감독, 역대 이사장
임헌정, 예술감독 상임지휘자
상주작곡가
오케스트라, 단원
전용 연습실





©DAYLIGHT studio_ Cho Nam Ryong · Kim Sung Ryong

법인 이사회

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01년 2월 문화관광부 산하단체로 승인되었으며 이사회가 구성됐다. 재단법인의 법적 의사결정기관이자 집행기관인 이사회는 현재 각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며 코리안심포니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사장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감사



이경희

이사



이원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



김지은
MBC 심의국장



박광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박종일
전 IBK시스템 대표이사



임병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2015.3 현재)



피호영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후원회

예술단체의 후원은 삶을 아름답게 하고 가치를 높여준다. 그중에서도 오케스트라 후원은 가장 만족도가 높은 후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세계의 유명 오케스트라들처럼 후원회를 통해 예술가들과 애호가들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며, 장기적인 연주 플랜을 계획하고 있다.

구분	연회비	우대 및 혜택	공통혜택
KSO CHAIRMAN	500만원이상	실내악 로비음악회 연 1회 제공(서울한정) 프로그램북 지면광고 연 1회 제공 예술아카데미 연 1회 제공 정기연주회시 R석4매 제공 정기연주회시 VIP룸 서비스 정기연주회시 무료주차권 제공 정기연주회시 프로 그램북 제공 정기연주회시 추가구매시 30%할인	뉴스레터 이메일 발송 정기연주회 프로그램북 및 홈페이지 명단기재 코리안심포니 기념품 증정
KSO GOLD PATRON	300만원 이상	예술아카데미 연 1회 제공 정기연주회시 R석2매 제공 정기연주회시 VIP룸 서비스 정기연주회시 무료주차권 제공 정기연주회시 프로그램북 제공 정기연주회시 추가구매시 30%할인	
KSO PATRON	100만원 이상	정기연주회시 R석2매 제공 정기연주회시 VIP룸 서비스 정기연주회시 무료주차권 제공 정기연주회시 프로그램북 제공 정기연주회시 추가구매시 30%할인	
KSO SUPPORTERS	5만원이상	정기연주회시 A석2매 제공 정기연주회시 프로그램북 제공 정기연주회시 추가구매시 30%할인	
KSO FRIENDS	후원금액 자유	코리안심포니 순수 기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회 (2016년 10월 현재)

· 후원회장 문대원

· KSO CHAIRMAN 연회비 500만원 이상
김성식 사장(㈜벽산), 김연호 회장(삼화제지㈜)
김일곤 이사장(대원문화재단), 문대원 회장(동화개발산업㈜)
박재구 사장(㈜비지에프리테일), 이한용 대표(풍국주정공업㈜)
지동현 대표(삼화모터스㈜), 홍석조 회장(㈜비지에프리테일),

· KSO GOLD PATRON 연회비 300만원 이상
강종수 사장(㈜아이피케이), 김영진 회장(㈜한독)
김영호 회장(일신방직㈜), 변동준 회장(삼영전자공업㈜)

· KSO PATRON 연회비 100만원 이상
박영주 회장(이건산업㈜), 손봉락 회장(㈜티씨씨동양 서울사무소)
신성수 회장(대양개발㈜), 최훈학 대표(한국가구)
황구연 대표(동일알루미늄㈜)



문대원
코리안심포니 후원회장

조직

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이사장외 대표이사와 6인의 이사로 구성된 법인이사회 (감사 포함), 사무국, 오케스트라, 후원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활동한다.
오케스트라는 상임지휘자가 예술감독을 겸하여 총괄하며 상주작곡가와 단원들로 구성되어있다.

경영

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는 경영조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대표이사와 사무국을 중심으로 악단의 제반 행정관리와 공연기획, 공연홍보, 마케팅, 공익공연, 예술공연 계획 및 실시, 공연진행, 공연결산 등이 이뤄진다. 대표이사는 오케스트라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며 악단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대표이사는 문화예술계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대외업무를 통해 악단을 성장시키고 행정을 감독한다.

대표이사

2015년 5월 11일 취임한 이원철 대표이사는 법인의 유일한 상임이사로 실질적인 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이원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경력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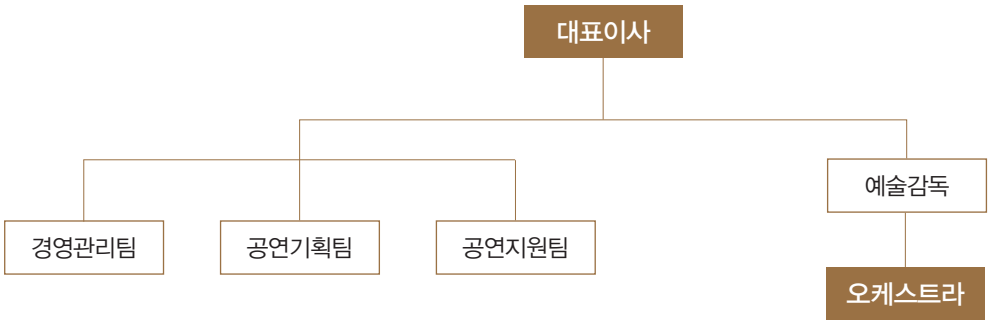
2015.05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2014 ~ 2015.05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본부장
2009 ~ 2013	서울시립교향악단 경영본부 본부장
2007 ~ 2009	안양문예회관 관장
2005 ~ 2007	성남문화재단 공연, 극장운영부 부장
2002 ~ 2004	굿윌코퍼레이션 대표
1991 ~ 2001	문화일보 문화사업부 부장
1988 ~ 1991	동부그룹

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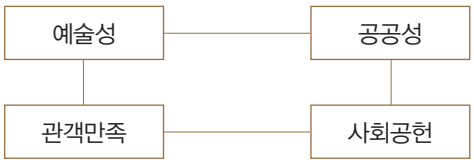
공연을 기획하고 행정의 실무를 담당함으로써 오케스트라가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한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사무국은 소수정예 3팀으로 조직되어 수많은 일을 감당해내는 기적을 창출해내고 있다.

소 속	직 책	이 름
경영관리팀	팀장	 추찬호
	과장	 조정분
공연기획팀	팀장	 송종준
	사원	 장민애
	사원	 하가영
공연지원팀	과장	 김태식
	사원	 박재균

경영구도



미션 MISSION



코리안심포니의 미션을 예술성과 공공성에 두고 운영하고 있다. 그것은 관객만족, 사회공헌 등을 통해 한국 공연예술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교향악단의 역할을 다하자는 것이다. 또한 코리안심포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역량에 집중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으로 미래를 향해 더 높이 도약하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였다.

이원철 대표이사가 밝힌 향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비전은 이렇다.

첫째, 국내 최고의 교향악단의 위상을 확립하도록 한다.
둘째, 영상화, 음원화, 해외투어 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한다.
셋째, 국내 최고의 교향악단이라는 위상 위에 World Class Orchestra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
넷째, 자랑스러운 코리안심포니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간다.
다섯째, 철저히 관객 중심의 오케스트라가 되도록 한다.

창단 이후 법인의 변화

1989년
사단법인 등록
이사장 전봉초

2001년 02월
재단법인 전환
초대이사장 이영조

2001년 06월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예술법인 지정

역대 음악(예술)감독

1985년 03월 30일
창단/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 홍연택

2005년 01월 25일
제2대 음악감독
김민 취임

2007년 12월 01일
제3대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
박은성 취임

2011년 01월 26일
제4대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
최희준 취임

2014년 01월 26일
제5대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
임헌정 취임

2015년 05월 11일
대표이사 이원철 취임(초대)

역대 이사장

사단법인

1989년
사단법인 등록
이사장 전봉초

1995년 02월 01일
제2대 이사장 이세중

재단법인

2001년 02월
재단법인 전환
초대이사장 이영조

2003년 02월 26일
제2대 이사장 김민

2005년 01월 25일
제3대 이사장 김용배

2007년 05월 03일
제4대 이사장 신현택

2008년 07월 14일
제5대 이사장 신홍순

2009년 12월 18일
제6대 이사장 김장실

2010년 06월 28일
제7대 이사장 김희근

임헌정, 예술감독 상임지휘자

2014년 1월 26일 취임한 임헌정 상임지휘자는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 등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부분의 공연을 지휘한다. 예술감독을 겸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수준을 책임지고 있다.

지휘자 임헌정은 1974년 제14회 동아음악콩쿠르의 대상 수상자 중에 유일하게 작곡 부문에서 수상한 음악인으로 서울대학 재학시절 작곡가로서 남다른 상상력과 비범한 시각의 소유자임을 보여주었다. 서울대 음대 졸업 이후 미국 메네스 음대와 줄리아드 음대에서 작곡과 지휘를 공부하였고 1985년 귀국과 동시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지휘전공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31년째 재직 중이다. 임헌정은 1989년부터 25년간 부천필의 상임지휘자를 역임하며 음악단체로는 처음으로 한국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호암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2014년 1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제5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해 한국 교향악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상상력이 결여된 채 정형화된 기교만이 중시되어가는 현재 음악계에 교육자이자 음악가로서 임헌정의 음악적 고집과 고민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어진 '말러 교향곡 전곡 시리즈'를 통해 말러의 불황지였던 한국에서 '말러 신드롬'이라는 열풍을 일으켰다. 말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확산은 클래식 음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작업이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 부임 이후 그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 연주를 진행 중에 있다. 이는 또 다른 모험적 도전이다. 장대한 여정 같은 대작곡가 말러와 브루크너의 교향곡 전곡연주는 한 작곡가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과 연주로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켰다. 이러한 그의 열정적인 도전은 음악계의 모범사례로 꼽히며 한국 교향악단의 음악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임헌정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창단30주년을 맞은 악단을 이끌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와 함께 오스트리아 린츠의 브루크너 페스티벌 유럽투어연주를 성공리에 끝마쳤다. 유럽 현지에서 큰 호응을 받으며 한국오케스트라의 위상과 인지도를 확대하였다.
끊임없이 정진하는 임헌정의 음악은 철저한 분석을 통한 해석과 창조적 상상력으로 다듬어진 균형 잡힌 표현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국 클래식음악계의 모범으로 자리잡았다.

임헌정
제5대 코리안심포니 예술감독상임지휘자
(2014.01 ~)





©DAYLIGHT studio_ Cho Nam Ryong

상주작곡가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서, 해외공연, 정기공연, 기획연주시에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화된 창작작품을 초연하여 클래식 한류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의 주요 오케스트라들은 비슷한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상주작곡가 제도를 실시해왔다. 코리안심포니 역시 세계 수준에 발맞추는 동시에 필요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모를 통한 상주작곡가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김택수에 이어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수연을 위촉하여 코리안심포니는 더욱 격을 갖춘 교향악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택수

상주작곡가

월간객석이 서양작곡 분야에서 최초로 공연예술계를 이끌 10인의 유망주(2011)로 선정한 김택수(1980)는 제 32회 중앙음악콩쿠르 1위 (2006), 제 2회 국제 윤이상 작곡상 특별상 (2009), OSSIA New Music Composition Prize 및 C4 Commissioning Competition (2014 미국)을 수상하였으며, Aspen Music Festival and School, Minnesota Orchestra Institute Composer(2012 미국), 통영국제음악제 Asian Composers Showcase (2013), Gamma–UT Conference and Concert 및 Mizzou International Composers Festival (2014 미국) 등에 참여 작곡가로 선발되었다. 작품은 Ensemble Modern(2012 독일), 서울시립교향악단(2011), Ensemble TIMF(2007) 등에 의해 위촉 초연되었다. 그외에도 NOTUS: IU Contemporary Vocal Ensemble(2014 미국), Ensemble Reconsil Vienna(2013 오스트리아), Contemporary Directions Ensemble(2013 미국), Ensemble Intercontemporain(2012 프랑스 및 독일), 원주시립교향악단(2010), 및 부천시립교향악단(2006) 등이 그의 작품을 연주하였다.

작곡가뿐 아니라 편곡자로도 활발히 활동해온 김택수는 소프라노 조수미가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그녀의 음반 'Libera'(2011), 'Ich Liebe Dich'(2010), 및 'Missing You'(2009)에 편곡으로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소프라노 신영옥(2012), 하피스트 곽정(2011), 대금 연주자 김정승(2011)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2010), 피아니스트 손열음(2008) 등의 음반에 편곡자로 참여하였다. 지금도 꾸준히 연주되는 그의 편곡은 소치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2014 러시아), Insbrook Music Festival(2013 미국), Peace & Piano Festival(2012), 김대진의 음악교실(2009) 등에서, 또 New York Classical Players(2014 미국), Ensemble Mode(2012 미국), 금호체임버뮤직 소사이어티(2011), Opus 5(2008), Ola Viola Sound(2007) 등의 연주단체에 의해서 연주된 바 있다.

국제 화학 올림피아드(1998 호주)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김택수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작곡과 및 동 대학원을 작곡 전공으로 졸업하였으며, Claude Baker, Sven–David Sandstrom, David Dzubay, 진은숙, 전상직, 서정은을 사사하였다.

현재는 Indiana University Jacobs School of Music에서 작곡전공(음악이론 및 전자음악 부전공)으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으며, Associate Instructor in Music Theory(음악이론과 강의조교) 및 President of Student Composer Association(작곡과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수연
상주작곡가

Paul Yeon Lee(이수연)은 한국계 미국인 작곡가로서 2012년 스트링지가 선정한
“현악계를 한층 더 발전시킬 25인의 작곡가”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는 미국문학예술아카데미로부터 Walter Hinrichesen Awards(2005)을 수상하였으며
더불어 Charles Ives Scholarship(1999)을 받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
Flushing Town Hall의 상주작곡가, 뉴욕시 Con Edison 작곡 프로그램의 상주음악가(2011)로도 활동하였다.
뉴욕한국문화원과 Fort Worth Symphony Orchestra Composer Workshop, ACO Whitaker New Music Reading Session, Symphony in C Young Composers’ Competition(1988–1999)과
미국작곡가협회 ASCAP Plus Awards에서 수상 하는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자연사박물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Festival Luna, 2014년에는 Experience Korea, 2015년에는 Spotlight Asia: Big Cat에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Symphony Space Festival, 뉴욕의 SONiC FESTiVAL, 파리 Maitrise de Radio France, 시카고 Trail Mix Chamber Concerts World Music Festival Millennium Park, 뉴질랜드 Taranaki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 Arts, 10th Adam Chamber Music Festival, Cutting Edge Concerts Festival, American Composers Alliance’s Festival of American Music, MacDowell Colony, Atlantic Center for the Arts,
SCI National Annual Conference in New York 등 다수의 회의와 페스티벌에서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
미국음악가협회(ASCAP)의 일원으로 활동중인 폴연리는 산호세 주립대학교 (San Jose State University) 에서 작곡을 전공,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in Ann Arbor)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Leslie Bassett, Bright Sheng, William Bolcom, Pablo Furman 그리고 Allen Strange를 사사하였다.

"…stormed the heavens with sweeping melodic gestures, romantic yearning" –The Washington Post–

"… put an emphasis on shimmering, shivering effects" –The New York Times–

"… deserves many more performances… It’s a perfect example of how lyrical and richly textured a modern work can be" –Strings Magazine–

"… mystical atmosphere" –Fanfare Magazine–

"… stunning coloristic effects" . –San Francisco Classical Voice–

"… scintillating piece… deserves critical attention and establishes Lee as a composer to watch"
–Times Herald–Record–

"… showstopper… A towering, often ferocious work… genuine… Lee is keeping an old flame very, very alive while fueling it with something that could only have been invented in this century."
–Lucid Culture–.





©DAYLIGHT studio_ Cho Nam Ryong · Kim Sung Ryong



(2015.3 현재)

악 장


이정일


김민균

제1바이올린


이지수
(수석)


이유민
(부수석)
(2016.2 입단)


조진원


이주영


이은정


손수현


김나정


송은지


허명식


김 령


현효진


윤보영



(2015.3 현재)

제2바이올린


박진희 (수석)


박나은 (부수석)


신은진


조진이


최은주


진한나


김정년


문재원


강은미


나까하라 교코


김은숙


김영신


이정민



(2015.3 현재)

비올라



여수은 (수석)



이무열 (부수석)



유상미



정인경



원영석 (총무)



김성은



김리경



양지선



변진원



(2015.3 현재)

첼로


윤지원 (수석)


노설아 (부수석)


예지현


심은주


박혜진


구민주


한혜미


문수현



(2015.3 현재)

더블베이스



이재준(수석)



손치호(부수석)



장인영



정지선



홍석진



정선애



(2015.3 현재)

플루트


이미선 (수석)


신주연 (부수석)


김지혜

오보에


전미영 (수석)


최 정 (부수석)


김대건

클라리넷


박정환 (수석)


장재경 (부수석)


박시내

바순


표규선 (수석)


김건철 (부수석)


주장현



(2015.3 현재)

호른



윤승호 (수석)



김정완 (부수석)



김동균



김기범



신지현

트럼펫



이응우 (부수석)



김성중

트롬본



정대환 (부수석)



고영석



(2015.3 현재)

튜바  박윤근

하프  윤혜순 (수석)

팀파니  김한규 (수석)

타악기  김은정

 조성호

창단 당시 2관 편성 60명의 단원으로 출발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현재 악장 2명, 제1바이올린 12명, 제2바이올린 13명 비올라 9명, 첼로 8명, 더블베이스 6명, 플루트 3명, 클라리넷 3명, 오보에 3명, 바순 3명, 호른 5명, 트럼펫 2명, 트럼본 1명, 베이스트롬본 1명, 튜바 1명, 팀파니 1명, 퍼커션 2명, 하프 1명의 3관 편성 76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객원단원들이 편성되어있다.

지금까지 코리안심포니를 거쳐간 단원들은 약 200여명을 헤아리며, 교향악 외에 독주와 실내악 부문에서도 다양한 활약을 하고 있다. 창단 당시부터 30년간 코리안심포니를 지켜온 단원도 있다. 플루트 수석 이미선과 타악기 조성호가 바로 코리안심포니의 살아있는 역사다.

전용 연습실

2000년 서양음악 중심의 국립단체들인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이 재단법인으로 독립하면서 국립극장을 떠나 예술의전당 상주단체로 입주했다. 그들의 전속 반주계약을 담당했던 코리안심포니는 1년간 다소 애매한 입장으로 국립극장에 남아있다가 이듬해 예술의전당 상주 오케스트라로 입주하게 된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내에 사무공간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시설인 오케스트라 연습실을 제공받기는 했으나 원래 오케스트라 연습실로 설계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음악당에 오케스트라 리허설룸으로 설계된 곳이 있기는 했으나 이 공간은 대관용이었기 때문에 코리안심포니가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전용연습공간에 대한 수요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뿐만이 아니었다.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과 국립현대무용단 역시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음향과 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연습공간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공동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어 2011년 4월 예술의전당 국립예술단체 전용연습동이 개관되었다. 이 건물 2층에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전용연습실이 마련되었고,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및 발레 출연진이 함께 공동으로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종합 대형연습실까지 갖추었다.








경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개관
축

PROLOGUE





©DAYLIGHT studio_ Cho Nam Ryong · Kim Sung Ryong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태동 이전에

교향악단은 그 나라 문화수준과 힘을 재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강국(强國)에 약음(弱音)없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오케스트라 수준이 높다. 7~80년대 해외유학에서 돌아온 음악도들은 한국에서 교향악단 주자가 되길 꺼려했다. 그래서 한때 한국인 음악유학생들은 교향악단 단원이 되려하기보다 모두 솔리스트가 되기만을 꿈꾼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중앙집권 정부체제에서 경제부흥에 주력해야 했던 한국은 문화예술분야에 지원할 여력이 그리 많지 않았다. 아직 가난했고, 한국 교향악단들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다. 국향(국립교향악단)과 서울시향(서울시립교향악단)은 한국의 양대 교향악단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잦은 체제개편을 겪었다. 지방에도 몇몇 도시에 시향(시립교향악단)들이 결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예산은 극히 미미했다. 상임단원 수도 적었고 연주가 있을 때면 절반 이상, 비상임 단원들로 채우는 경우도 많았다.

국향은 1972년 홍연택을 상임지휘자로 맞이했다. 미국 유학 중이던 홍연택을 부른 것은 국향 단원들이었다. 단원들은 직접 투표를 하여 홍연택을 선택했다. 미국의 교향악단들을 보며 지휘자의 길을 걷고 있었던 홍연택은 한국 교향악단 발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귀국했다. 그는 레퍼토리 영역을 넓히고 작곡가의 악보에 충실한 정확한 연주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매우 열성적으로 국향을 키워냈다. 아니 지켜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 모른다. 1979년 국향은 최초로 미국 순회공연을 가졌다. 그해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미국 21개 도시를 순회한 후 귀국길에 일본에 들려 도쿄에서 연주했다. 한국 교향악단이 미국에서 연주한다는 것은 연주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친선의 차원이었다. 예컨대 문화사절단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단원들에게는 악기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했다. 20년 월부상환 조건으로 문예진흥원에서 융자를 받아 대부분의 단원들이 악기를 교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9년의 국향은 비운의 해로 기억된다. 그해 10.26과 12.12 사태를 겪으면서 80년대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새정부(제5공화국)는 국가차원의 정책적 구상에 따라 소위 세계적 교향악단으로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국향을 다시 KBS로 이관했다. 국향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고 KBS교향악단이 되었다. 홍연택은 사임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1971년부터 정재동이 바통을 잡고 있었다. 1974년 상임지휘자가 된 정재동은 이듬해 4관 편성의 110명 단원으로 확대했다. 1977년엔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5개국 순회연주를 가졌다. 1978년에는 서울시 문화공보관실에서 세종문화회관으로 단체운영권이 이관되어 세종문화회관 산하단체로 80년대를 맞이한다. 서울시향은 1982년 미국 서부지역을 순회 연주했는데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이었다.

지방에는 인천시향, 부산시향, 대구시향, 광주시향, 전주시향, 청주시향이 1980년대 이전부터 활동했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시향들이 속속 창단됐다. 수원시향, 대전시향, 부천시향, 춘천시향, 강릉시향, 마산시향, 진주시향, 제주시향 등이 80년대에 창단된 시향들이다. 하지만 이 시기 지방의 시향들은 대체로 청중들이 빈 공허한 극장에서 질이 낮은 악기로 연주했다. 빈약한 예산이나마 시에서 받다보니 활동에 제약이 많이 따랐다. 공무원들과 마찰 또한 심해서 담당공무원이나 시장이 바뀔 때마다 존폐 위기에 시달렸다.

한국 청중들의 음악적 갈증을 채워준 것은 해외 유명악단들이었다. 국내 악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사운드를 갖고 있던 외국 악단들은 음악을 그리워하는 한국청중들을 매료시켰다. 값비싼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표는 늘 매진이었다. 197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기념으로 에리히 라인스도르프가 지휘하는 뉴욕필 초청공연이 이뤄졌다. (레너드 번스타인은 1979년 다시 뉴욕필을 이끌고 내한했다.) 물론 최초의 해외악단 공연은 아니었다. 이미 70년대만 하더라도 조지 셀의 클리블랜드오케스트라, 앙드레 프레빈의 런던심포니,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빈필, 볼프강 자발리슈의 스위스로망드, 베르나르도 하이팅크의 암스테르담콘세르트헤바우, 유진 오먼디의 필라델피아오케스트라가 내한한 바 있다. 이 악단들은 1980년대 한국 공연계 누비며, 해외악단으로 물들이는 촉매가 되었다. 더욱이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공연계는 흥행산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88올림픽 이후 동구권문화의 개방과 함께 동구권 오케스트라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다.(다음 페이지의 도표 '1980년대 내한한 해외오케스트라들'을 참고할 것)

한편 국향에서 이관된 KBS교향악단은 1981년 재창단되면서 총감독제를 도입했다. 초대 총감독은 이강숙이었다. 새로운 지휘자는 금난새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상임지휘자가 아닌 전임지휘자라는 명칭이 부여됐다. 그러는 한편 독일 본오페라극장 음악감독과 카라얀 밑에서 잘츠부르크음악제 부지휘자를 지낸 발터 길레센을 수석객원지휘자로 영입했다. 이강숙은 진보적으로 악단을 개혁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단원 교체에 따른 혼란과 정기적인 오디션 평가 도입 등에 반발하는 단원들, 방송국 집행부와 견해차로 내홍을 겪었다. 결국 1982년 임기만료와 함께 사임하고 1983년부터 원로 지휘자였던 김만복을 총감독으로 세웠다.

국향 해단 이후, 악단을 잃은 홍연택은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된다. 민간직업교향악단을 만드는 일이었다. 민간교향악단이 생소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까지 모든 교향악단은 국공립 악단이냐 민간악단이냐로 이분화되어 있었다. 이 무렵 민간악단이란 동호인 중심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 인식돼 있었다. 학교 오케스트라가 있었지만 이 역시 아마추어 범주라 할 것이다. 오늘날처럼 직업적 스케일을 갖고 있는 민간악단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1980년대 내한한 해외 오케스트라들

1980년
워싱턴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미국)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 (영국)
베를린방송교향악단 (독일)
빈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
런던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영국)

1981년
BBC심포니오케스트라 (영국)
필라델피아오케스트라 (미국)

1982년
프랑스국립관현악단 (프랑스)
로스엔젤레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 (미국)
도쿄교향악단 (일본)

1983년
워싱턴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미국)

1984년
파리오케스트라 (프랑스)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 (미국)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독일)
로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영국)

1985년
필라델피아오케스트라 (미국)
잘츠부르크모차르테움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

1986년
도쿄도(東京都)교향악단 (일본)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 (홍콩)
부다페스트방송교향악단 (헝가리)
슈투트가르트방송교향악단 (독일)

86아시안게임이있었던 해.
최초로 동구권
오케스트라가 초청되었다.

1987년
빈오페른볼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
로테르담필하모닉오케스트라 (네덜란드)
멜버른심포니오케스트라 (캐나다)

1988년
보르도오케스트라 (프랑스)
대만성오케스트라 (대만)
빈슈트라우스레하르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
모스크바필하모닉오케스트라 (소련)
런던페스티벌오케스트라 (영국)
잘츠부르크모차르테움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

88서울올림픽이열렸던 해.
최초로 구소련의 악단이
초청되었다.

1989년
레닌그라드심포니오케스트라 (소련)
통킨스트러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
모스크바필하모닉오케스트라 (소련)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 (미국)
함부르크모차르트오케스트라 (독일)
크라코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폴란드)
몬트리올심포니오케스트라 (캐나다)
프라하심포니오케스트라 (체코)

88올림픽 이후 구소련를
비롯한 동구권 오케스트라들이
주로 초청되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1985
(준비에서 창단까지)

교향악단 체제 논리에 관한 담론이 싹트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담론의 핵심은 독립채산제에 관한 것들이었다. 오늘날 이러한 논제들은 대체로 실현되었다. 물론 3대 악단인 KBS향, 서울시향, 코리안심포니가 모두 재단법인화 되었다는 면에서 보면 말이다. 그중에서도 관이 주도하지 않은, 민간 주도의 코리안심포니가 문화부 산하의 공익법인형태의 재단법인으로 바뀐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KBS향은 국립에서 공영방송을 거쳐 재단법인이 되었고 서울시향은 시립에서 재단법인으로 독립되었지만, 코리안심포니는 민간에서 자생하고 정부에서 재단법인으로 승화된 케이스다. 이는 오늘날 가장 이상적인 공공경영 형태인 '거버넌스' (governance)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1985년 이전까지 문화예술계에서 거버넌스를 꿈꾸는 단체는 없었다. 홍연택과 코리안심포니는 30년 후를 꿈꿨다. 그렇다면, 30년 전 그들은 어떤 팡파르를 울렸는가.

1985년은 광복 40주년이 되는 해였다. 86아시안게임이 다가왔고 88서울올림픽 준비로 기대에 차있는 있는 해였다. 한국 음악계는 서양음악이 들어온 지 100주년을 기념했고, 서양에서는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 탄생 300주년을 기념했다. 한해 전엔 상업성을 지닌 두 종류 음악잡지가 각각 대기업과 신문사에 의해 창간됐다. 1984년 3월호로 창간된 주식회사 예음의 '객석'과 4월호로 창간된 동아일보사의 '음악동아'는 한국에 음악의 비즈니스 시대를 예고했다. 클래식 전문 공연기획사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서구의 연주가들의 내한 연주가 러시를 이뤘다. 그중 다수는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

국향의 KBS향 이관 이후 한국 교향악계도 운영체제에 관한 새로운 담론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 주로 국, 공립에 의해 운영되고 있던 한국 교향악단에 대한 문제점과 반성은 새로운 담론들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독립채산제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유력한 교향악단들은 재단법인화 되어 독립채산제가 실현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참으로 요원한 숙제였다. 국공립 악단의 독립채산제가 어려울 경우, 국공립이 아닌 악단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민간악단밖에는 없었다. 홍연택의 구상도 결국 민간 교향악단 창설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어둠이 짙을수록 오히려 새벽은 가깝다고 했던가. 군사정권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경제는 3저 호재 속에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역시 조용히 자라났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80년대는 시립합창단들과 시립교향악단들의 창단이 광역시(당시 직할시)와 도청소재지를 넘어 중소도시들까지 확대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관 주도의 교향악단 운영은 음악가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어려운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고, 양은 늘어나지만 질은 답보상태인 답답한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다.

1984년 3월 한양대 음대 학장 임기를 마친 홍연택 곁에는 국향 시절부터 그의 오직 음악만을 향한 올곧은 열정에 감복한 음악의 동지들이 있었다. KBS교향악단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악단을 떠난 이들이 주축이 된 그들은 지난 일에 대한 불만으로 날을 보내기보다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5대 교향악단은 모두 민간에서 만든 필하모니협회들이 주축이 된 뉴욕필, 보스턴심포니, 시카고심포니, 클리블랜드심포니, LA필이고 영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들 역시 BBC심포니나 로열필보다는 런던필, 런던심포니, 필하모니아 같은 민간교향악단이다. 민간의 음악가와 애호가들이 연합하여 일구어낸 오케스트라가 도시의 얼굴이 되고 나라의 대표가 되어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고 있지 않은가? 예외가 있다면 당시엔 소련이라고 불렸던 러시아와 국가의 큰 정책이 '예술'이었던 프랑스뿐이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민족의 문화적인 수준의 상징이 되는 교향악단을 향한 꿈은 홍연택과 백운창을 비롯한 40여명의 음악친구들에 의해 다시 세워졌다. 그들의 연이은 만남은 꿈을 계획으로 구체화시켰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남은 이어졌고, 만남이 거듭될수록 실현은 구체화 되어갔다. 나무젓가락 한 개는 부러뜨리기 쉬워도 한묶음은 부러뜨리기 어렵다고 하지 않는가. 40여명의 일치된 생각과 의지는 만나고 이야기를 더할수록 더 강해졌다. 홍연택은 설레임과 부담감으로 다시 의욕을 불태우기 시작했고 그의 두 번째 분신을 만들겠다는 결심은 지금껏 겪어왔던 그 어떤 수난이라도 받아들일 결단을 내리게 했다. 그는 무모한 도전 'The Impossible Dream'에 남은 생을 던졌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광복의 기쁨을 맞은 지 40주년이 되는 1985년 아직은 싸늘한 공기와 봄의 도래를 알리는 바람이 교차하던 3월 30일이 다가왔다. 어둠이 깔린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 사람들의 구성은 실로 다양했다.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던 악단도 늘 허덕거렸는데 전적으로 자체운영을 내세운 민간 프로페셔널 오케스트라가 가당키나 한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단공연은 축하해줘야 한다는 사람들, 예전 홍연택을 바라보며 '재야의 국향'을 기대한 사람들, 심지어는 그날 저녁의 우아한 데이트를 위해 온 젊은 남녀까지...당시 학생석 3천원부터 최고급 S석 2만원까지 매겨진 가격 또한 매력적이었다.

다시 지휘봉을 잡은 홍연택의 힘찬 스트로크를 따라 스메타나의 '몰다우'로 시작된 창단연주는 피아니스트 신수정의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제17번 협연을 지나 베토벤 제3번 교향곡 '에로이카'로 마무리 지었다. 객석은 환호와 탄식을 지나 커튼콜과 앙코르로 화답했다. 이 힘든 여정에 나선 오케스트라 원정대에 음악계 선후배들과 애호가들의 뜨거운 성원이 담긴 기부금들이 답지했다. 한국 교향악의 기둥 임원식 선생은 그를 부둥켜 안고 "훌륭하네, 큰 일을 시작했어." 하며 봉투를 홍연택의 안주머니에 넣어주었다. 평소 음악회에 잘 보이지 않던 친지들도 찾아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유력 신문들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창단과 연주회에 대해 그리고 지도자 홍연택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한국 오케스트라 운동의 선구자", "우리 문화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 "결코 웃을 수 없는 현실과 대결하고 있는 힘센 승부사". 여기

에 오재경 후원회장, 김성태 운영위원장, 명예지휘자로 홍연택의 스승인 조셉 로젠슈톡, 전속 지휘자로 모리 타다시가 힘을 보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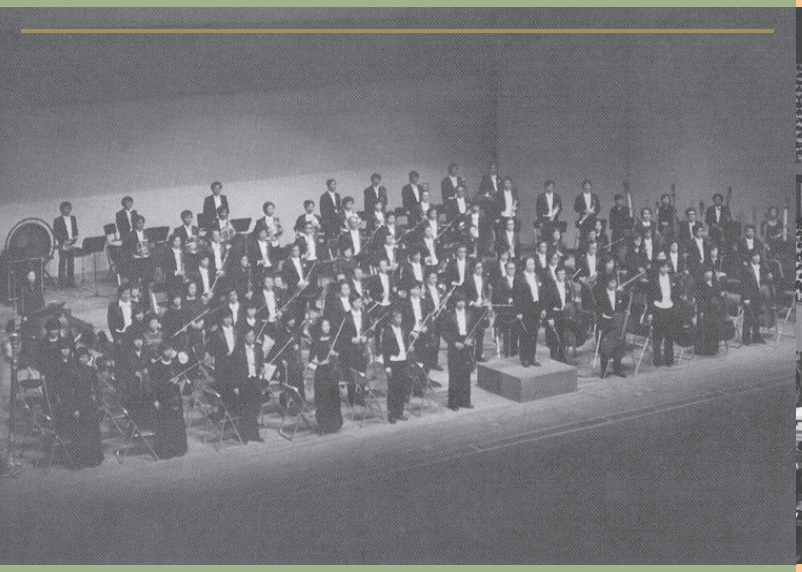
홍연택은 1991년 객석 3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창단되기 전까진 경제적인 여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직업 오케스트라의 꿈은 생각지 못했지요. 그저 오케스트라에 관심이 많고,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악을 만들어보자는 것뿐이었지요. 매년 봄가을로 2~3번 정도 만나서 연주를 하며... 그런데 의외의 성과를 거둔 것이지요. 처음에 40여명쯤 모여서 출발했는데, 청중들의 호응을 받으며 민간 오케스트라가 설 땅의 가능성을 제시받은 것이에요."
불사조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무서운 불길에 자기 몸을 내맡겨야 한다. 남김없이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래야 찬란한 날개를 펼쳐 공중으로 비상할 수 있다. 이름을 잃고 사라져버린 국립교향악단, 홍연택이 열정을 불살랐던 첫 번째 분신의 잿더미 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름을 가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렇게 새로운 탄생을 선언했다.

사실 오케스트라는 민간에서 시작하는 게 순리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시작해야 한다. 그들의 연주에 대한 반응이 좋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 때 관이나 단체가 개입해서 육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케스트라 앞에 주로 붙이는 '필하모니'라는 이름이 그것을 말해준다. 심포니 오케스트라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든 여기엔 원초적으로 '음악을 사랑해서 모였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처음부터 국가나 관이 주도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면 관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우선 관은 모든 예산을 직접 감당해야 한다. 결국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절감을 하다보면 질적으로 떨어지는 교향악단이 될 수밖에 없다.

홍연택은 일본 음악잡지 PIPERS(1989년 9월호)와 인터뷰에서 창단구상을 이렇게 밝혔다.
첫째, 젊은 연주자들이 연구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 당시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기존의 양대 오케스트라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둘째, 당시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양대 오케스트라의 활동에 노력과 정진을 통해서 자극제가 되겠다는 의도였다.
이 잡지는 이어서 그해 코리안심포니와 말러 교향곡 제5번을 지휘하고 돌아온 일본 지휘자 소송일언(小松一彦) 씨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
"사리사욕을 버린 홍연택 씨의 격한 정열과 노력에 단원들이 의욕적으로 따르는 것을 보고 아주 신선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의욕에 비해 아직 미숙한 점은 있지만 단원들의 순수한 열정을 짜릿하게 느꼈습니다. 바이올린 섹션에는 여성들이 많았지만 아주 열심히 연주했고 소리도 잘 내줬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코리안심포니 창단의 원동력이었고 미래에 대한 잠재력이었던 것이다.

HISTORY

제1부 | 홍연택 지휘자의 초창기와 중흥기 (1985~2000)
제2부 | 재단화와 예술의 전당 (2001~2006)
제3부 | 음악감독들의 시대 (2007~2014)
제4부 | 예술조직과 경영조직의 분리 (2015~현재)



창단연주회 | 1985.3.30|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지휘 **홍연택**



제1회 5000명 대합창 연주회 | 1989.12.2| 잠실실내체육관 | 지휘 **홍연택**



코리안심포니와 친구들 | 1998.8.25|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지휘 **정명훈**



창단20주년 기념음악회 | 2005.12.15|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지휘 **이대욱**



아시아투어 | 태국 국립극장(2013.11.2| 싱가포르 에스플라나드 콘서트홀(2013.11.4 | 지휘 **최희준**



임헌정 예술감독 취임식 | 2014.2.12|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컨퍼런스홀



창단 10주년 기념 행사 | 1995.3.30| 인터컨티넨탈 호텔



제100회 정기연주회 | 1997.7.11|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지휘 **정치용**



창단 25주년 기념음악회 | 2010.3.3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지휘 **박은성**



미국순회 공연 | 뉴욕 카네기홀 (2010.6.1) | 로스앤젤레스 세리토스홀 (2010.6.7) | 지휘 **박은성**



임헌정 예술감독 취임기념 음악회 (제191회 정기연주회) | 2014.6.19|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지휘 **임헌정**



대한민국 가을예술축제 폐막공연 [가을음악소풍] | 2014.10.25| 올림픽공원 내 88잔디마당홀 | 지휘 **카를로 팔레스키**

한 눈으로 보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30년

홍연택 지휘자의 초창기와 중흥기 (1985~2000)

1985년
3.30 창단연주회
정기 5회, 오페라·발레반주 12회 청소년음악회 2회

1986년
02.15~18 한일오페라페스티벌 노르마, 나비부인
10.03~06 아시안게임 개막예술제 시집가는 날
정기 7회, 오페라·발레반주 39회 청소년음악회 2회 특별 기타연주 7회

1987년
01.27 문공부 신년음악회
08.03 수재의연금모금 대음악회
정기 6회, 오페라·발레반주 33회 청소년음악회 10회 특별 기타연주 13회

1988년
08.17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개막연주회
09.20 올림픽 평화의날 기념연주회
정기 9회, 오페라·발레반주 33회 청소년음악회 9회 특별 기타연주 16회

1989년
07.21~29 제1회 용평 서머 음악캠프 · 페스티벌
12.02 제1회 5천명 대합창연주회
정기 8회, 오페라·발레반주 47회 청소년음악회 6회 특별 기타연주 8회

1990년
09.25 평화의날 수상기념 음악회
10.22 올림픽 기념음악회
10.27 제2회 5천명 대합창연주회
정기 10회, 오페라·발레반주 36회 청소년음악회 6회 특별 기타연주 13회

1991년
03.11~12 국립오페라단 모차르트 서거 200주년 기념 모차르트 오페라 갈라
한국명가곡선집, 성가의밤 연주실황, 한국찬송가대전집 출반
정기 10회, 오페라·발레반주 36회 청소년음악회 6회 특별 기타연주 18회

1992년
10.05 서울평화상 시상식 연주
정기 7회, 오페라·발레반주 33회 청소년음악회 9회 특별 기타연주 18회

1993년
02.23 예술의전당 전관개관 기념연주회 오페라 시집가는 날
정기 7회, 오페라·발레반주 41회 청소년음악회 8회 특별 기타연주 20회

1994년
07.18 20 23 조수미 독창회
정기 7회, 오페라·발레반주 41회 청소년음악회 8회 특별 기타연주 20회

1995년
03.01 삼일절 기념음악회(국립중앙박물관)
03.01 코심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05.16 IPI총회 연주회
08.29~30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연주회
정기 10회, 오페라·발레반주 42회 청소년음악회 9회 특별 기타연주 36회

1996년
지방순회연주 사랑의 음악여행 광주 08.31 울산 09.07
정기 9회, 오페라·발레반주 49회 청소년음악회 5회 특별 기타연주 23회

1997년
지방순회연주 사랑의 음악여행 대전 05.10 동해 05.31
정기 8회, 오페라·발레반주 30회 청소년음악회 4회 특별 기타연주 23회

1998년
02.15 예술의전당 개관 10주년 기념음악회
04.18 한국 오페라 50주년 기념음악회
08.25 코리안심포니와 친구들
정기 9회, 오페라·발레반주 45회 청소년음악회 1회 특별 기타연주 15회

1999년
12.04 호세 카레라스 내한연주회
정기 4회, 오페라·발레 56회 특별 기타연주 8회

2000년
10.13~21 예술의전당 오페라축제
10.22 신영옥 독창회
정기 5회, 오페라·발레 50회 특별 기타연주 14회

재단화와 예술의 전당 상주 (2001~2006)

2001년
06.22 3테너 콘서트(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
정기 6회, 오페라·발레 40회

2002년
06.12 알라냐 게오르규 듀오콘서트
정기 6회, 오페라·발레반주 59회 특별 기타연주 26회

2003년
정기 6회, 오페라·발레 합창반주 55회 특별 기타연주 18회

2004년
02.05 07 바비 맥퍼린 콘서트
08.07 08 덕수궁 가족음악회
09.19 대전예술의전당 개관기념음악회
정기 6회, 오페라·발레 합창반주 60회 특별 기타연주 15회

2005년
11.15 적십자 창립 100주년 기념음악회
12.15 창단 20주년 기념 연주회(149회 특별정기연주회)
정기 4회, 오페라·발레 합창반주 59회 특별 기타연주 31회

2006년
04.04 충무아트홀 개관1주년 기념연주
10.03 05 아시아페스티벌(일본)
12.16 중국 심양 초청연주회
정기 3회, 오페라·발레 합창반주 53회 특별 기타연주 41회

음악감독들의 시대 (2007~2014)

2007년
09.15~16 윤이상평화재단 윤이상국제음악제
정기 4회, 오페라·발레 합창반주 38회 특별 기타연주 33회

2008년
03.18 박은성 음악감독 취임기념연주회
10.1 29 대학탐방 연주회(고려대, 한양대)
정기 4회, 오페라·발레 합창반주 21회 특별 기타연주 28회

2009년
01.13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공연
05.12 호세 카레라스 내한공연
10.30 서울국제음악제
11.15 한러수교 20주년 기념음악회
정기 5회, 오페라·발레 합창반주 44회 특별 기타연주 23회

2010년
03.20 창단 25주년 기념 연주회
06.01 07 미국순회공연 (뉴욕 카네기홀 LA 세리토스홀)
정기 6회, 오페라·발레 합창반주 38회 방방곡곡 4회, 특별 기타연주 16회

2011년
03.30 최희준 예술감독 취임연주회
정기 기획연주회 7회 오페라·발레 합창반주 43회 방방곡곡 7회, 특별 기타연주 27

2012년
11.17 라두 루푸 내한공연
정기·기획연주회 10회 오페라·발레 합창반주 43회 방방곡곡 14회, 특별 기타연주 21회

2013년
11.02 04 아시아 투어 (태국, 싱가포르)
02.25 대통령 취임식 연주
정기·기획연주회 9회 오페라·발레 합창반주 41회 방방곡곡 10회, 특별 기타연주 19회

2014년
06.19 임헌정 예술감독 취임연주회
11.21 예술의전당 브루크너 시리즈 I
정기·기획연주회 9회, 오페라·발레 합창반주 47회 방방곡곡 5회, 특별 기타연주 26회

예술조직과 경영조직의 분리 (2015~)

2015년
05월 11일 대표이사 이원철 임명
09월 30일 ~10월 4일 창단30주년 유럽투어(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정기·기획연주회 3회, 해외연주회 3회, 오페라·발레반주 47회, 방방곡곡 5회, 특별 기타연주 16회





©DAYLIGHT studio_ Cho Nam Ryong · Kim Sung Ryong

제1부 | 홍연택 지휘자의 초창기와 중흥기 (1985~2000)

한국교향악의 여명이 밝아오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탄생은 대한민국 교향악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오늘날 한국 교향악단 발전의 분수령이 되었다.

코리안심포니의 아버지 홍연택은 위대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여럿이 함께 꾸도록 이끌었다. 마침내 대한민국 민간 교향악운동의 새벽을 깨웠고 음악의 태양이 떠올랐다. 자신을 음악의 제단에 바친 지휘자는 교향악단을 오직 음악을 향한 음악가들의 신전으로 만들었다. 코리안심포니는 KBS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에게는 아름다운 경쟁자인 동시에 음악애호가들에게는 화려한 동반자가 되었다.

옛 시인은 이렇게 읊었다.

踏雪野中去 (답설야중거)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不須胡亂行 (불수호난행)	함부로 가지 마라
今日我行跡 (금일아행적)	오늘 내가 남긴 행적이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나중 오는 자의 길잡이가 되나니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첫 10년동안, 코리안심포니는 가는 길마다 최초의 발자취가 되는 개척자의 의무를 성심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갔다. 국내 최초의 오페라 · 발레 전문 오케스트라, 국제수준의 여름음악제, 5천명 대합창, 세계 최초의 찬송가 전곡녹음과 출반 등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 나갔다.
먼 길을 가는데 필요한 친구도 생겼다. 1989년에는 그룹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쌍용그룹에서 조건없이 거액을 후원하는 행운이 생겼고 외환위기를 맞아 그룹이 해체의 운명을 맞이할 때까지 10년 동안 동행했다.

첫 국제수준 악단 국립교향악단의 흥망

국립교향악단의 역사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년간 22회의 정기연주회를 열었던 육군교향악단이 그 모체다. 1956년 해체됐던 육군교향악단의 단원들을 받아들여 중앙방송국 교향악단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4.19혁명 후에는 장면 정권에 의해 방송국을 떠나는 시련도 겪어야 했다. 이들은 방송국을 쫓겨 나와서도 한국교향악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민간악단으로 활동했다. 5.16 이후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향악단은 다시 방송국으로 돌아온다.
1969년 박정희 정부는 악단의 운영을 국립극장으로 이관하며 명칭을 국립교향악단으로 변경한다. 조직 이관과 명칭변경은 국립교향악단이 방송전속으로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음악도 해야 했던 제약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교향악을 주로 연주하는 악단으로 발돋움했다.

국립교향악단의 비상은 지휘자 홍연택이 시작했다. 그는 1963년 36살의 나이로 오스트리아의 빈(Wien)으로 유학을 떠났다.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로젠슈톡 교수에게 지휘를 사사한 홍연택은, 국립교향악단 단원들의 투표에 의해 상임지휘자로 결정되었고, 1972년 귀국과 동시에 국향을 맡게 되었다.

가끔 볼 수 있었던 안익태와 외국의 객원 지휘자들 못지않은 본고장 수준의 지휘를 통해 우리 교향악의

수준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은 홍연택은 기존 악단의 답보적인 상식을 벗어난 운영으로 보답했다. 최소한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집요한 요구를 통해 개인의 연주기량은 물론 협주력도 높여 눈에 띄게 종합적인 합주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1979년 초 국립교향악단은 뉴욕 카네기홀과 LA 세리토스 홀을 포함한 21개 도시 주요공연장에서 연주했다. 그전 해에 홍연택과 단원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절치부심한 연습은 관계당국조차 감동시켜 국립교향악단 보유악기의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고, 당시로서는 어려운 나라살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예산을 편성해 미국 순회연주에 나설 수 있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던 해외각국의 평가는 대한민국의 정치뿐 아니라 문화에도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홍연택의 국립교향악단은 이 해외연주를 통해 그 편견을 일순에 뒤집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제 미국 주류언론의 격찬까지 받아낸 국립교향악단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 같았다.

20세기에 가장 다이내믹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던가. 그해 후반기 10.26과 12.12사태로 정국이 요동쳤고 6.25 이후 민족의 최대비극이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지나 전두환 정권이 출범했다. 1982년 전두환 정권은 세계수준의 오케스트라를 육성한다며 발전적 해체라는 명목 아래 국립교향악단을 다시 KBS로 이관시켰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상임지휘자 홍연택은 악단을 떠나야했다.
홍연택의 부인 김영환 교수에 의하면 홍연택은 평소 국향은 10년만 할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식보다 더한 애정으로 길러낸 국향을 타의에 의해 하루아침에 떠나게 된 충격은 컸다. 당시 한양대 음대 학장직을 겸하며 백남음악관 건립에도 힘을 쏟고 있던 그는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초유의 일까지 경험하게 된다.

불사조와 같은 꿈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출범

1985년

3월 3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창단연주회 지휘 홍연택 피아노 신수정 스메타나 몰다우,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7번,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
6월 18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제2회 정기연주회 지휘 모리 타다시
7월 14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제3회 정기연주회 지휘 홍연택
8월 17일~18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서울오페라단 제16회 정기공연 '마녀사냥'
8월 21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청소년 하계음악회 시온합창단 제17회 정기연주회
8월 24일	한양대학교 백남음악관 국제하계음악학교 코리안심포니 선발학생 협연
10월 4일~8일	국립극장 소극장 국립오페라단 제42회 정기공연 창작오페라 '결혼'
12월 15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송년음악 제5회 정기연주회

창단 이후 홍연택과 코리안심포니는 말러 · 브루크너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바그너 등 당시 관객에게 낯선, 또 난해해서 여느 오케스트라도 시도하기를 꺼려한 작품들을 사명감을 갖고 꾸준히, 완벽에 가깝게 연주해냈다. 기존 고전과 낭만 초중기에 주로 치우쳤던 한국 교향악 레퍼터리들이 극적으로 확대된 것은 코리안심포니가 관객의 호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지평을 넓혀 관객을 개척하겠다는 의지에 힘입은 바 적지 않다. 적극적으로 연주회 예고와 홍보를 하고 곡 해설을 미리 제공해 알리는 노력도 코리안심포니가 앞장섰다. 이래도 저래도 월급은 나오는 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안 심포니는 연주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홍연택은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 연주자뿐 아니라 때에 따라 일본 등지에서 현지 오디션을 통해 연주자를 섭외했다. 어려운 재정임에도 당시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호른, 팀파니 등 국내에서 그의 기대수준에 합당한 연주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악기는 일본이나 유럽, 동구권 연주자로 채웠다. 외국인 단원을 거느린 상설 교향악단 역시 코리안심포니가 처음이었다.

87년 봄에 나온 공연 팜플렛에 실린 것이기는 하지만 '창단취지'가 공식적인 인쇄물에 언급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므로 여기에 옮겨본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창단취지

1.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5년 3월 30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창단공연을 가졌습니다.
2.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국내유일의 민간직업교향악단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는 오랫동안 민간교향악단의 창단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한 여망이 모여 85년 3월에 창단한 것이 바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입니다. 그간 매월 거르지 않은 정기공연, 청소년음악회, 발레협연, 오페라협연, 금오음악회를 통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낯익은 이름이 된 것입니다. 창단 이후 코리안심포니의 음악은 정체되어 있던 우리나라 음악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믿습니다.
3. 코리안심포니는 스폰서십으로 운영되는 여러분의 교향악단입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창단한 지 1년 반 동안 연주회수가 80회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민간오케스트라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한 음악팬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민간오케스트라의 운영은 외국의 경우처럼 국가의 지원 20%, 민간기업 혹은 개인 등의 후원이 30%, 그리고 나머지가 티켓팅 등을 통한 자체조성이 이루어질 때 정상화됩니다. 전체예산의 50% 그것이 바로 뜻있는 여러분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운영에 참여해 주셔야 하는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4.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실천하겠습니다.
   스폰서십을 통해 모여진 기금은 재단을 구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앞으로 5년간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나라에 유일한 음악재단을 창설케 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이식자금을 통해 꾸준한 연주활동이 보장될 때 우리는 가까운 벗과 같은 교향악단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우선 500평 대지에 건평 300평 정도의 심포니 연습실과 사무실을 위한 심포니회관 건립을 구상중입니다. 밤낮으로 오직 음악연습에만 몰두할 수 있는 절대공간의 건립,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최고의 자질을 지닌 우리나라의 젊은 연주가를 키워내겠습니다. 외국으로 음악유학을 보내지 않아도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5.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음악의 생활화를 추구합니다.
   늘 닫혀있는 피아노가 집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피아노 한 대를 사들이면서 많은 분들은 세계적인 음악가의 탄생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음악의 생활화가 피아노를 사들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닫혀져 있는 여러분 댁의 피아노 뚜껑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음악이 흐르는 생활, 그것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추구하는 문화사회의 목표입니다.

클래식음악 보급운동 '금오음악회'를 시작하다

창단 첫해 6번의 정기연주회와 오페라 반주 등으로 첫걸음마를 뗀 신생 악단답지 않게 바쁜 나날을 보낸 코리안심포니는 두 번째 해를 맞았다. 이해 코리안심포니는 창단 1년 만에 새로운 야심찬 기획 '금오음악회'를 선보였다. 그 취지문의 일부를 들여다본다.

"...금년 3월부터 매월 한번씩 금요일 오후를 택하여 음악회를 오고 싶어도 공연이 모두 저녁이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음악회에 특별히 기획된 것은 교향곡과 협주곡을 갖고, 각 악장마다 구성된 곡 해석을 부분별로 모두 오케스트라가 실제 소리를 내주면서 자세한 해설을 해드리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려는데 그 특색이 있습니다. 해설을 곁들이면서 차원높고 순수한 작품을 갖고 많은 청중과 음악애호가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유일무이한 민간 오케스트라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창단 1년만에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이 사회에 처음 생긴 순수 민간오케스트라(직업적)를 음악인만이 아니고 교향악운동에 깊은 이해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청중과 음악애호가들의 절대적인 성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발기인으로 김성태, 김성진, 방우영, 오재경, 이성재, 이영세, 이해랑, 이효익, 장정자, 전봉초, 정한모, 허규, 홍연택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이루어진 첫 공연은 전문공연장을 벗어나 음악의 무대를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친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배어있었다. 당시 힐튼호텔이 속한 대우그룹은 김우중 회장, 정희자 여사도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후에 이들은 최초의 민간 프로페셔널합창단 대우합창단을 창단하는데, 코리안심포니의 금오음악회에서 일정 부분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의 수많은 전문공연장들이 저녁에 공연장 오기 힘든 주부 등의 팬들을 위한 마티네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열어 안정된 수입원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다. 발레의 경우 역시 지난 세기말부터 꾸준히 '해설이 있는 발레' 시리즈 공연을 통해 성공적으로 팬 층을 넓혀왔다. 미국에서는 번스타인이 이끄는 뉴욕필이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 시리즈로 클래식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이 시리즈는 TV 프로그램으로도 방송되어 절찬을 받았다.

코리안심포니는 그 해 7번의 금오음악회를 열었다. 나중에 장소를 세종문화회관으로 변경하지만 당시로서는 클래식의 엄숙주의를 벗어나 청중에게 접근성의 편의를 제공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시도였다. 지금 같으면 '고객은 왕'이므로 모든 것을 고객에게 맞추는 마케팅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당시 클래식음악의 대중화는 참으로 대담한 시도였다. 클래식음악가인 테너 박인수가 대중음악 가수 이동원과 함께 "향수"를 불러 논란을 일으킨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1986년

1월 5일	국립극장 대극장 86 새해맞이 가곡과 오페라 대공연
3월 28일	힐튼호텔컨벤션센터 제1회 정기 금오음악회 지휘 해설 홍연택, 피아노 이경숙, 베이스 오현명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
글린카 루슬란과 루드밀 라 서곡

3월 28일 베르디 돈 카를로 중 '나 홀로 잠들리'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모음곡

4월 8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제7회 정기연주회
지휘 타나카 요시카즈, 첼로 조영창

10월 3일~6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제10회 서울 아시안게임 문화예술축전 서울국제음악제

창작오페라 시집가는 날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86서울아시안게임이 열렸다. 80년 모스크바와 84년 LA 올림픽은 냉전시기 동서 양대 세계의 블록화를 증명하는 사례를 남겼다. 이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같은 행사는 단순한 스포츠대회를 넘어 국가적 역량을 드러내는 이벤트로 인정받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이 대회는 전두환 정권에는 1936년의 베를린올림픽처럼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장으로서의 의미 또한 없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시안게임 문화예술축전의 주요 공연단체들은 모두 자의반 타의반으로 무대에 나섰다.
그해의 서울국제음악제는 서울 아시안게임 문화예술축전 행사로 통합되어 열렸고, 아시아 5개국 6개의 오케스트라가 참여해 연주회를 하는 거창한 행사가 되었다. 그러나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종합예술인 오페라였다.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홍연택에게 위촉되어 창작된 '시집가는 날'은 홍연택의 원래 전공이 작곡이었던 만큼 작곡과 지휘를 두루 섭렵한 그의 음악적 역량이 총집결된 작품이었다. 그의 분신과도 같은 코리안심포니가 오케스트라로 참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당대를 대표하는 성악가들과 국립합창단이 참여하여 최고 수준의 작품을 공연했다는 호평이 나왔다.

1986년과 1987년 두 해를 연이어 국립극장 신년음악회를 해낸 코리안심포니의 역량이 이미 증명단계에 이르렀고, 국가적 행사에도 호응하여 수준 높은 음악성을 선보이자 국립교향악단의 역할을 할 만한 단체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향한다는 KBS교향악단은 아직 안정단계라고 보기에는 이른 시점이었고 외부행사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 역시 그다지 편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이미 코리안심포니는 가장 많은 국가행사 연주와 오페라 오케스트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연간 공연실적을 놓고 보면 정통 교향악 연주회보다 오페라, 발레, 합창의 반주가 더 많았다. 대한민국에는 오스트리아의 빈 국립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 스칼라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 러시아의 볼쇼이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와 같은 오페라-발레 극장 전속 오케스트라는 없었으나 이에 버금갈 만큼 오페라-발레에서 관현악 반주를 많이 하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은 더 많은 팬들을 만나는 기회로도 작용했다.

1987년도는 국립극장에서 발레단, 무용단, 창극단, 오페라단 등 4개 전속단체가 창단 25주년을 맞는 해였다. 총 78편의 작품을 국내외 무대에 올리기로 한 국립극장은 88올림픽 행사에 연극, 창극, 무용, 발레, 야외공연 등 5개 분야가 참여키로 되어서 극단의 '팔곡병풍', 창극의 '춘향가', 무용의 '하얀 초상', 발레의 '왕자 호동' 등을 완성시키고 야외공연 작품은 따로 개발팀을 구성, 가무극을 만들어내기로 했다. 이처럼 공연 대부분이 음악 반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초에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전속계약을 맺기에 이른다. 여기에는 극단 민예의 연출가 출신으로 국립극장을 맡고 있던 허규 극장장의 노력이 컸다.

이전에 주로 피아노 반주로 공연하여 정통 합창대곡을 연주하기에 조건이 부족했던 국립합창단이나 녹음된 반주음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던 국립발레단의 경우에는 대작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맞아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창작작품이 많아 음악을 새로 작곡하는 일이 더 많았던 국립무용단의 경우에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존재는 공연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외부의 오페라단들과 새로 창립된 유니버설발레단의 경우에도 이미 오페라와 발레에 특화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굳이 다른 곳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전속계약과 동시에 국립극장 대극장 아래층에 전용연습실이 확보되어 코리안심포니는 연주력 향상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다. 국립교향악단 시절부터 같이 해온 나이든 단원들은 6년만에 국립극장에 귀환하는 감격을 누렸다.

역사와 함께 국민과 함께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87년의 약사에서 특이하게 나타난 행사는 수재의연금 모금 대음악회다. 8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과 7시 두 차례 공연된 이 행사는 태풍 셀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MBC와 국립극장이 함께 마련한 행사였다. 80년대는 자연재해도 참 많았다.
1984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 동안 태풍 준으로 인한 한강 대홍수 – 이때 북한이 수재물자를 보내줬고 이를 계기로 남북한경제회담이 열렸다 – 그리고 1986년 8월 27일 태풍 베라를 지나 1987년에는 7월 15일부터 이틀간 태풍 셀마가 남동부 지방을 휩쓸어 무려 9만 9570명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망 실종 345명에 5천965억원의 물적 피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다. 수재의연금 모금 대음악회는 태풍 셀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공연으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국민과 음악 팬들의 아픔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국민 오케스트라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1987년

1월 27일
국립극장 대극장 문화공보부 신년음악회
지휘 홍연택 합창지휘 나영수 창 안숙선
장일남 교향시 '한강', 한국민요, 말러 교향곡 제2번 5악장

2월 12일~13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해외 한국인성악가 초청 오페라아리아의 밤 대공연
지휘 홍연택 소프라노 김영미, 김영애, 박정원, 형진미,
테너 신동호, 바리톤 장유상
레온카발로 '팔리아치' 프롤로그, 마이어베어 '아프리카의 여인' 오 낙원이여,
푸치니 '나비부인' 어떤 갠 날,
베르디 '리골레토' 그는 훌륭한 분, 언젠가는 모르지만 외

2월 16일
국립극장 대극장 국제문화협회 창립15주년 기념
해외 성악가 오페라 아리아 연주회

3월 20일
중앙국립극장 대극장 제14회 정기연주회
지휘 타나카 요시카즈 피아노 백미영
박정선 NEXUS IX(초연), 프랑크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교향적 변주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

4월 4일
포항 효자음악당 포항제철 창립 제19주년 및 신사옥 준공기념 초청음악회
지휘 홍연택 소프라노 곽신형, 테너 박성원, 바리톤 박수길,
피아노 박은희, 바이올린 조영미

바그너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서곡, '로엔그린' 간주곡 외

6월 2일 코오롱 구미공단 복지관 구미수출산업공단 초청 특별연주회

8월 3일 국립극장 대극장 수재의연금 모금 대음악회
지휘 홍연택 합창지휘 나영수 소프라노 송광선 이규도 정영자 정은숙
메조소프라노 방현희, 테너 박성원 안형일 이병두
바리톤 김관동 박수길 조창연
안익태 '코리아 환타지', 김희조 '농촌풍경', 가곡 보리밭, 고향의 노래,
그대 있음에, 산촌, 그리운 금강산 외

10월 29일 인하대학교 본관 강당 인하대학교 초청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회

11월 24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제1회 우리 노래 고운 노래 연말대회

"정기연주회를 월 1회 정도 가지며, 1회 정기공연시마다 700여만 원의 적자가 난다. 이 적자를 80~90여 회의 엑스트라 연주회를 통한 수입으로 메워 정기연주회를 많이 가질 수 없는 것이 고충이다"

('매일경제' 1987년 11월 23일)

매달 막대한 적자 운영비를 조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이겨내면서도 관 주도 교향악단과 달리 '부단한 연습과 좋은 연주만이 살길'이라는 홍연택과 코리안심포니는 교향악단의 본질에 충실해 말러 · 브루크너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바그너 등 당시 관객에게 낯선, 또 난해해서 어느 오케스트라도 시도하기를 꺼려한 작품들을 사명감을 갖고 꾸준히, 완벽에 가깝게 연주해냈다. 그리고 고난의 세월 후에는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창단 2년 만인 1987년, 코리안심포니는 당시 문화부 소속의 국립극장과 첫해 5000만 원에 계약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1억 원, 그리고 매년 조금씩 증액되어 창단 10년차에는 교향악단 경상비의 1/3 정도에 해당되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 셈이었다.
당시 KBS교향악단과 서울시향의 연 예산은 각각 20억여 원과 10억여 원이었다. 행정기관에서 보증하지 않는 민간 교향악단이 국립극장과 전속 계약을 한다는 것은 실력과 가능성에 대한 인정을 방증하는 것이었다. 공연 하나하나가 계약 연장을 위한 오디션 자리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고 단원들은 매번 연주를 절박하게 매달렸다.
오페라와 발레 음악을 연주하던 좁아빠진 오케스트라 피트는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단단한 체질을 갖추는 체력 단련실이나 다름없었다. 특히 오페라를 위해 내한한 해외 유명 지휘자들의 각기 다른 지휘봉은 코리안심포니를 더욱 강력하게 훈련시켰다. 어느 지휘자가 와서 지휘봉을 잡아도 빠르게 적응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호흡을 보여줄 수 있다고 자부하는 내공은 다양한 반주와 수많은 지휘자들에게 적응하면서 두텁게 쌓여 지금도 코리안심포니의 저력이 되고 있다.

여성후원회 발족과 후원회 운동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1987년 공연연보를 보면, 4월 4일 포항제철 창립 19주년 겸 신사옥 준공기념 초청음악회가 보인다. 공연장소인 효자음악당은 포항의 대표기업이자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대표기업 포항제철(현재의 포스코)이 포항시민들을 위해 문화적 사회공헌을 내걸고 세운 음악전문 공연장이었다. 이날 공연은 관현악은 물론 성악과 피아노, 바이올린 협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민들과 기업의 근로자

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두 달 후에는 구미수출산업공단에서 연주회를 했다. 금오음악회에 이어 기존의 음악팬들뿐만 아니라 평소 클래식 관현악을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찾아가는 개척활동이었다. 한번 움직일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교향악단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재정적 필요와 교향악 저변의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청중과 장소와 환경을 가리지 않았다.
1987년의 공연 팜플렛에는 흥미있는 내용 하나가 등장한다. 여성후원회 발족 안내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를 후원하기 위하여 여성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회장 김순옥, 부회장 신소춘 변주선
이사 양영자 한옥수 최리나 정호정 전은선 우양규 이영자 남상순 이열자 최덕자 박순아 이명희

· 우리 국민의 재능과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86아시안게임의 성공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는 체육은 물론 문화, 교육,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더욱 큰 성과를 향해 국민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우리는 세계 1등 국민이 되기 위하여 문화예술의 꽃을 우리 생활 속에 활짝 피우고, 또 알차게 열매를 맺어 보다 윤택한 삶을 누려보려는 기운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화예술의 모체가 되는 교향악운동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세계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민간 오케스트라 육성이 우리나라에서도 절실히 요청됩니다.
·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민간 오케스트라인 코리안심포니는 그 운영난에 있어서 고통을 겪고 있어 우리 여성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도와보려는 취지로 이 모임을 가지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음악예술을 사랑하는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협조자세 3가지

1. 우리 여성의 따뜻한 힘을 모아 한 오케스트라를 육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다.
2. 우리 주부들이 생활비를 조금씩 절약하여 음악예술 활동에 이바지한다는 기쁨을 가져봅시다.
3. 찬조하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문제 삼지 말고, 스스로 참여하는데 보다 큰 뜻을 가져봅시다.

(재외 성악가 초청 오페라 아리아의 밤 팜플렛 29쪽)

87년 초 당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회는 김성태 위원장과 전봉초, 박용구, 조상현, 윤치오, 양재표, 홍연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후원회는 오재경(회장), 김성진, 조중건, 정희자, 이웅희, 장영신, 이효익, 박영일, 김인규, 김필식, 권옥연, 박노희, 신영환, 강성모, 전봉초, 김장환이 고문으로 이영세, 정희석, 박민종, 김흥교, 이재옥, 이봉수 등으로 위촉되어 있었다. 당시 500만원 이상 특별후원회원은 8명이었고, 30만원 이상 일반후원회원은 80명이 명단에 올라있었다.

85년 창단연주회는 700만원의 적자가 났는데, 정기연주회마다 거의 그만한 수준의 적자를 각오해야 했다. 표면적으로는 힘찬 출발과 음악적 발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었지만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늘 재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년 내내 속을 태워야 했다. 반면 단원들은 단원들대로 늘 적은 급여에 힘들어했다. 처음 40여명으로 시작했던 오케스트라는 87년 무렵 이미 2관 편성 70명 수준으로 늘어나 있었다. 국립극장과의 전속계약으로 연간 4억원 가량이 확보되었지만 오케스트라는 간신히 연명하는 정도였다. 홍연택은 1991년 '객석'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티켓판매 수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뼈를 깎듯이 운영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 환경과 실정을 무시하지 못해요. 어떡하든 표 한

장이라도 더 팔아야 우리 악단의 프로정신이 살아나는 것인데, 표 파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적자만 늘어나고 후원자들에게 부담만 더 안겨주는 이 단체를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갈등은 더욱 증폭되어갔다.

1988년

3월 2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개관기념음악제 지휘 홍연택

3월 29일 제30회 청소년음악회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지휘 임헌정 플루트 오정아 하프 박희영 첼로 정지윤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제2번, 디터스도르프 하프 협주곡
생상스 첼로 협주곡 제1번, 라벨 '파반느' 서곡, 렌토

8월 17일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개막제 공연 국립극장 대극장
지휘 홍연택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9월 20일 서울국제음악제 올림픽 평화의 날 기념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홍연택 소프라노 이규도, 아만다 테인, 메조소프라노 김신자
테너 미구엘 코르테즈 핫산 카미, 바리톤 케웨이 왕, 피에리스 자르마스
바그너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서곡
생상스 '삼손과 델릴라' 중에서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모차르트 '돈 조반니' 중에서 '마다미나', 푸치니 '라보엠' 중에서 '그대의 찬 손'
베르디 '운명의 힘' 중에서 '주여 평화를 주소서'
로시니 '세빌리야의 이발사' 중에서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가는 이발사' 외

11월 14일 제1회 특별초청시리즈 연주회 성가의 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홍연택 소프라노 김영미 베이스 오현명

12월 28일 제27회 정기연주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송년음악회
지휘 홍연택 소프라노 김영미 메조 소프라노 김신자,
테너 박세원 베이스 오현명
베르디 '레퀴엠'

1988년은 대한민국 교향악 역사에 길이 남을 해였다.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2,608석 아레나형 클래식 전용 음악당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이 개관되었다. 2월 16일 KBS교향악단이 김정길 작곡 관현악을 위한 축전 서곡과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연주하며 시작된 개막기념축제는 3월 31일까지 28개의 음악회가 열렸다. 첼리스트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독주회를 비롯 무지카 안티콰 쾰른, 파리페스티벌체임버오케스트라가 해외에서 초청되고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들도 새로운 교향악의 터전에 올랐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도 이 역사적인 무대에 초청되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개막 사흘째인 9월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올림픽 평화의 날 기념연주회를 맡았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을 비롯하여 올림픽 VIP들과 개막식에 참여한 각국 정상 및 그에 준하는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이 연주회에서 소프라노 아만다 테인, 테너 미구엘 코르테즈, 핫산 카미, 바리톤 케웨이 왕, 피에리스 자르마스 등 대륙과 피부색을 뛰어넘은 출연진이 5대륙의 화합을 상징하는 오륜의 의미를 더했다. VIP들은 한국 정상의 교향악단과 세계의 성악가들이 빚어내는 화음에 갈채를 보냈다.

1989년

1월 24일
포항 효자음악당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 신년음악회
지휘 홍연택 메조소프라노 백남옥 테너 신동호 바이올린 정찬우
스메타나 '팔려간 신부' 모음곡, 슈베르트 교향곡 제8번 '미완성'
사라사테 '집시의 바이올린' 외

3월 28일
제1회 교향악축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볼커 레니케 피아노 김형규
모차르트 교향곡 제36번 '린츠', 슈만 피아노 협주곡 a단조
리하르트 슈투라우스 교향시 '죽음과 변용'

3월 29일
제2회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실내악연주회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4월 18일
제2회 특별초청시리즈 권해선 초청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홍연택 소프라노 권해선

5월 23일
'90청소년공연예술제 청소년음악회 (국립극장 대극장)

6월 9일
제30회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고마쓰 가즈히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모음곡 외

7월 11일
제32회 정기연주회 '시민을 위한 팝 콘서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홍연택 소프라노 곽신형, 메조소프라노 강화자, 테너 신영조
바리톤 김관동, 베이스 오현명
영화 'ET' '웨스트사이드스토리' '남태평양' '티파니에서 아침을'
뮤지컬 '라만차의 사나이' 비틀즈 '예스터데이' 외

7월 18일
제3회 특별초청시리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데오 메르덴 금관5중주단

7월 20일~30일
용평리조트 제1회 용평 서머뮤직캠프 페스티벌

8월 12일
제4회 특별초청시리즈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박은성 바이올린 유니스 리
베토벤 '피델리오' 서곡,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11월 13일
제2회 성가의 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홍연택 유병무 테너 박세원 바리톤 김성길 베이스 오현명 한국남성합창단

12월 2일
잠실 실내체육관 제1회 국민대단합을 위한 5천명 대합창연주회
지휘 홍연택 합창지휘 나영수 연합합창단

1989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일대 변화를 맞게 된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쌍용그룹이 반세기에 걸맞는 일을 찾다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를 후원하기로 한 것. 동아그룹의 방계 동아건설(후에 주식회사 예음 설립)이 공연전문 잡지 객석을 창간하고 대우그룹이 대우합창단을 만들었으며 삼성그룹이 호암아트홀을 건축한 데 이어 럭키금성이 올림픽을 전후해 무용단을 만들었으며 신동아그룹이 횃불합창단을 창단하는 등 기업들의 문화계 진출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던 때였다. 프로야구단이나 프로축구단 운영하듯 기업의 이미지 마케팅용으로 문화예술을 곁눈질한다며 사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솔솔 새어나올 때였다.

1988년 송년음악회 때 처음 협찬으로 한발 들이밀고 들어온 쌍용은 1989년 3월 10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아무 조건 없이 3억원씩 5년간 후원한다는 계약을 체결한다. 매년 국립극장 전속계약에 버금가는 예산을 새로이 확보하게 된 코리안심포니는 이 재정을 지렛대 삼아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부족한 재정에 채워 넣으면 매년 운영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자금이었다. 하지만, 당시 운영위원회는 홍연택이 이 지원금은 당장의 운영비가 아니라 코리안심포니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자, 이후의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함께 해주었다. 기존의 후원조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상비는 모두 원래의 재정대로 운용하되, 쌍용그룹의 후원금은 거의 특별회계의 별도사업으로 진행했다. 그렇게 해야 곶감 빼먹듯 목돈을 쏙쏙 빼먹지 않고, 후원의 뜻을 제대로 살려 미래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성장하는 장기 비전을 실천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올림픽의 감동이 채 가시기 전인 1989년 한국문화계를 흔들었던 거대한 역사가 새로 시작된다.

먼 꿈으로만 생각했던 여름 뮤직캠프 페스티벌과 5000명 대합창연주회, 음악학교 설립을 위한 기초작업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단지 후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여름휴가의 절정인 시기에 용평리조트를 뮤직캠프에 내어주는 등 여러 방면에 걸친 쌍용그룹과의 아름다운 인연은 10년간 계속되었는데, 이후의 이야기는 두 번째 10년을 다루는 다음 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세계와 나란한 꿈 용평 서머 뮤직캠프 페스티벌

홍연택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부하다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이 탱글우드 페스티벌이었다. 홍연택과 코리안심포니의 꿈이 어떤 것이었는지 살피기 위해 탱글우드 음악제를 잠깐 알아보자. 매년 여름 매사추세츠주 레녹스(Lenox)에서 열리는 탱글우드 음악제는 콘서트를 주로 하지만 진면목은 여름 음악아카데미에 있다. 세계각지에서 온 젊은 음악도들이 연주, 마스터 클래스, 워크숍 등을 통해 집중적인 훈련을 받으며 네트워킹 경험을 쌓는다. 탱글우드의 모든 활동은 210에이커에 이르는 넓은 초원과 부속건물에서 이루어진다.
초원은 1936년 보스턴의 명문 태판(Tappan)가족이 기부했다. 창시자를 기념하는 쿠세비츠키 음악창고(Koussevitsky Music Shed 1938년)와 세이지오자와 홀(1994년 건립) 등 2개의 주공연장과 음악도서관 이외에 소극장과 실내악 홀, 기타 리허설 룸 등이 구비된 아론 코플란드 도서관에서 진행된다. 이 여름캠프에는 매년 1,500여명이 응모하여 그중에서 150여명만이 선발되어 기숙사에서 한달간 훈련을 받는다. 지금까지 탱글우드를 거쳐간 음악도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거나 솔리스트로 눈부시게 활약해 오고 있다.

제1회 대회는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것이 이루어진 셈이지만 실제 대회의 진행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총감독 홍연택과 음악감독 최동선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매달렸고, 개막을 한달 앞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참가자 모집에 나설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걱정을 뛰어넘어 성황이었다. 당시 해외뮤직캠프에 참가하려면 30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 큰 부담이 되던 상황에서 15만원의 합리적인 수강료에 클래스당 20여명 내외만을 받는다는 운영방침 때문에 성악과 피아노 전공은 예상을 넘어 6대 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호응이 좋았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중을 기약할 수 있었던 지라 쌍용그룹과 코리안심포니는 이 결과에 고무되었다. 첫 행사의 팜플렛을 보자.

용평 서머 뮤직캠프 페스티벌을 주최하며

개장 14주년을 맞이한 용평리조트는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여 이제 사계절 종합휴양지로서 손색이 없는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용평리조트는 국내 청소년 음악도들이 대자연과 더불어 마음껏 음악적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매년 각종 뮤직 캠프를 유치, 운영해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올여름에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국제적 규모의 제1회 용평 서머 뮤직캠프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오는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세계정상급 음악교수 및 음악인들을 초빙하여 중, 고, 대학생들과 일반 음악도의 연주지도를 위한 음악강좌와 함께 다채로운 연주회가 열리게 될 이번 용평 뮤직캠프 페스티벌은 음악도에게는 물론 음악을 사랑하는 일반인에게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훌륭한 음악행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음악도들의 축제의 장이 될 이번 제1회 용평 서머 뮤직캠프 페스티벌은 하나의 음악타운으로서 용평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드리게 될 것이며 국내 음악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1회 용평 서머 뮤직캠프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힘써주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음악제가 한국 음악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예비 음악도에게 바람직한 음악교육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쌍용양회주식회사 사장 **김채겸**

끝없는 자기수련의 계기가 되기를

예술의 세계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스스로를 가다듬고 그리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리안심포니가 주관하는 제1회 용평 서머 뮤직캠프 페스티벌은 음악도들에게 있어 이러한 자기수련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수많은 음악캠프가 있었지만 필요한 시설을 갖춘 대규모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음악분야가 함께 하는 종합 음악캠프의 개최는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쌍용그룹에서 운영하는 용평리조트에서 시설 및 장소와 음악캠프 개최에 따른 제반문제를 흔쾌히 협조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종합 음악캠프의 개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미 각국에는 크고 작은 각종 음악캠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보스턴 심포니가 주축이 되어 개최해오고 있는 미국의 Tanglewood 뮤직캠프는 전세계 음악도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음악축제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용평 서머 뮤직캠프 페스티벌은 준비사정으로 8개 강좌만 개설하지만 내년부터는 음악 전분야에 걸쳐 강좌를 개설, 일본을 비롯 동남아권의 음악도 및 음악애호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명실공히 동양최대의 종합 음악캠프를 마련할 것입니다.

끝으로 용평 서머 뮤직캠프 페스티벌을 주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쌍용그룹 측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음악캠프가 음악도들에게 있어 음악적 기능과 예술적 감각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수련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용평 서머 뮤직캠프 페스티벌
음악총감독 **홍연택**

교수진

요슈아 엡스타인(바이올린, 독일)–자르브뤼켄 국립음대 교수
율리우스 베르거(첼로, 독일)–뷔르츠부르크 음악원 교수
쟝–클로드 반데네인덴(피아노, 벨기에)–브뤼셀 왕립음악원 교수
니도리 타케히코(오보에, 일본)–동경 성덕음대 교수, NHK 교향악단 수석
테오 메르텐스(트럼펫, 벨기에)–로테르담 음대 교수
프랑수아 반 케르크호벤(트럼펫, 벨기에)–안트베르프 로얄 플레미쉬 음악원 교수, 데오 메르텐 단원
알렉스 반 애켄(호른, 벨기에)–안트베르프 오페라단 단원, 데오 메르텐 단원
제라르드 피터스(튜바, 벨기에)–로테르담 음대 교수, 데오 메르텐 단원
이수호(콘트라베이스, 한국)–코리안심포니 수석

초청연주자

홍연택(지휘, 한국) 한양대 음대 교수–코리안심포니 음악감독
W. 카즈아키(지휘, 일본)–재팬필하모닉 부지휘자, 궁성 필하모닉 상임지휘자
박은성(지휘, 한국)–서울시향 부지휘자, 서울소년소녀 교향악단 지휘자
요슈아 엡스타인(바이올린, 독일)
정찬우(바이올린, 한국)–연세대 음대 교수, 동경필하모닉, KBS교향악단 악장 역임
율리우스 베르거(첼로, 독일), 니도리 다케히코(오보에, 일본),테오 메르텐스(트럼펫, 벨기에)
프랑수아 반 케르크호벤(트럼펫, 벨기에),알렉스 반 애켄(호른, 벨기에)
K. 메르텐스(트럼본, 벨기에)–데오 메르텐 금관5중주단원
제라르드 피터스(튜바, 벨기에)–로테르담 음대 교수, 데오 메르텐 단원
M. 프로스페리(소프라노, 이탈리아)–로마에서 활약중인 현역 오페라 가수
박세원(테너, 한국)–바티칸 1984년 올해의 테너 선정, 이탈리아에서 활동중
R. 마그냐니(바리톤, 이탈리아)–로마에서 활약중인 현역 오페라 가수
쟝–클로드 반데네인덴(피아노, 벨기에)
김용배(피아노, 한국)–미국 카톨릭대 박사과정
권경순(피아노, 한국)–국립합창단 반주자

연주프로그램

7월 21일 요슈아 엡스타인 바이올린독주회 바흐 샤콘느 외
7월 22일 율리우스 베르거 첼로 독주회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외
7월 23일 쟝–클로드 반데네인덴 피아노 트리오 하이든 트리오 2번 외
7월 24일 니도리 타케히코 오보에 독주회 텔레만 소나타 a단조 외
7월 25일 데오 메르덴 금관5중주 연주회 로드리고 아다지오 외
7월 26일 성악 조인트 리사이틀 로시니 '알제리의 이탈리아인' 외
7월 27일 오케스트라 야외음악회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 외
7월 28일 협주곡의 밤 수강생 중에서 협연자 선발
7월 29일 오케스트라 야외음악회(아리아의 밤) 푸치니 '토스카' 외

용평리조트는 1975년 한국 최초의 스키장으로 개장한 이후 이 즈음에는 골프장과 호텔, 콘도, 테니스장, 수영장, 캠프장을 갖춘 4계절 종합휴양지로 성장해 있었고, 해발 750미터의 고원지대에 위치해 시원한 데다 모기도 없어 천혜의 장소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첫회에는 폭우로 인해 계획된 야외무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주최측은 부랴부랴 5백여석밖에 되지 않는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연주하게 되었다. 1회의 이런 악운이 전화위복이 되었는지 용평 하계 음악캠프는 이후 1995년까지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제2회에는 코리안심포니 말고도 일본의 노부하라 다케하루가 이끄는 텔레만 실내악단이 단체 단위로 참여하여 이전에 8개 강좌 160명을 수료시킨데 비해 강좌당 15명씩 더 깊이있는 17개 강좌가 열리고 음악회도 독주, 실내악, 현악 오케스트라, 풀 편성 오케스트라, 성악 앙상블 등 훨씬 다양한 조합으로 공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7월 8일~22일로 기간도 늘어나고 쌍용그룹 우덕창부회장이 페스티벌 총재로 영입되었으며, 교수진도 더 풍부하게 보강되었다. 교수진의 면면을 보면 국제적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올라왔음을 느낄 수 있다. 7월12일~22일 기간에는 하루 2개의 연주회가 열렸는데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어 클래식 팬들에게 바로 코앞에서 펼쳐지는 대가와 유망주들의 공연을 즐기는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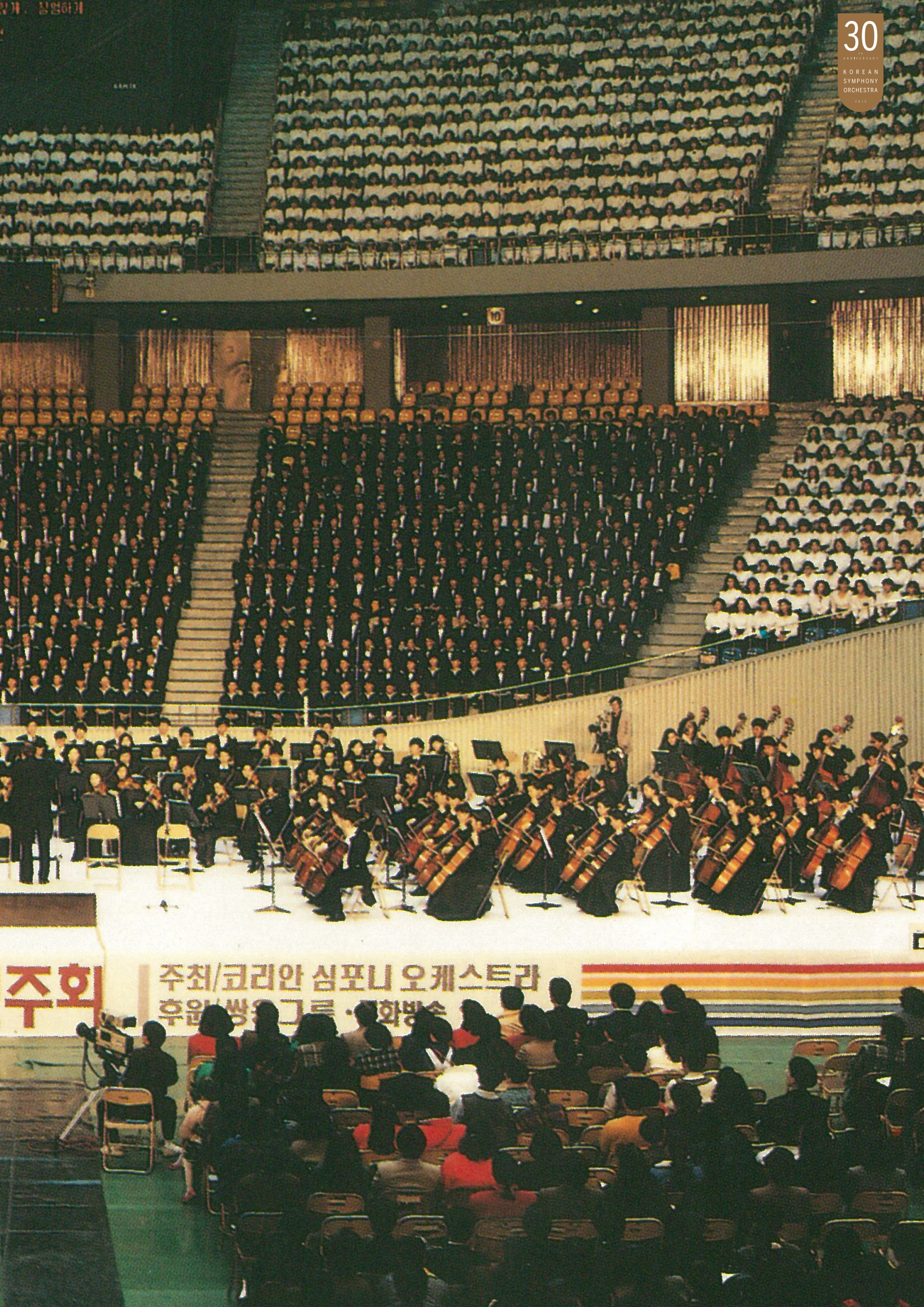
교수진

홍연택(지휘, 한국)–한양대 교수
최승한(지휘, 한국)–연세대 교수
D.E. 페로(성악, 미국)–줄리어드 음대 교수
R. 하베니트(피아노, 독일)–멘델스존 콩쿠르 1등,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교수
윤미경(피아노, 한국)–한양대 교수
이영인(피아노, 한국)–연세대 및 한양대 출강
임동창(피아노, 한국)–김자경 오페라단 상임 피아니스트
이다 비엘러(바이올린, 독일)–아마데우스 현악4중주단원 겸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교수
K. 엘리지어스(바이올린, 독일)–탱글우드 페스티벌 마스터클래스 교수
라이너 목(비올라, 독일)–탱글우드 페스티벌 마스터클래스 교수
조영창(첼로, 한국)–독일 에센폴크방 국립음대 교수, 쾰른방송교향악단 수석 역임
김창국(플루트, 한국)–일본 동경예술대 교수, 독일 하노버 국립오페라 관현악단 수석 역임
A.M. 질리오티(클라리넷, 미국)–커티스 음대 교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김동진(클라리넷 실내악, 한국)–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목관앙상블 단원
P.W. 파이트(오보에, 독일)–에센폴크방 국립음대 교수, 에센필하모닉 수석 역임
G. 피첸마이어(바순, 독일)–칼스루에 국립음대 교수, 쾰른방송교향악단 수석 역임
G. 스탠들리(호른, 미국)–시카고 심포니 수석 역임
L. 오팔레스키(트럼펫, 미국)–템플대 교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D.W. 에델만(트럼본, 미국)–템플대 교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토니 프라이스(튜바, 미국)–아메리칸 심포니 단원 역임

홍연택은 1991년 객석과의 인터뷰에서 음악교육에 대한 지론을 이렇게 밝혔다.
“음악은 조기교육이 꼭 필요한 것이고 가정에서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시키고 있지요. 그리고 사정에 의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일찍이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유학생들이 그리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성공한 음악가는 잘 나오고 있는 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빨리 출세만 시키려고 지향하다 보니까 공부를 바닥부터 철저히 하지 못해서이지요. 그저 콩쿠르에 나가 이기면 부모의 자랑거리고, 인기를 끄는데 급급했지요. 우리는 어려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배웠으면서도 사는 동안 자꾸 망각하는 것 같아요. 거북이가 나중에 앞서는 것을 알면서 토끼가 되려고 하지요.”



[제1회 5000명 대합창연주회 장면 1989.12.2]


30
KOREAN
SYMPHONY
ORCHESTRA
주최/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초빙으로 동계 예술영재 교육을 위한 특별강좌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음악의 조기교육은 악기 하나 남보다 좀 빨리 시작했다는 차이가 아니지요. 기본바탕인 청각훈련이나 솔페즈 훈련 등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 한계는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어요. 청음 시창은 물론이고 음정 잡고, 음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세계수준의 연주자를 길러내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은 그는 1990년 연초 코리안심포니 부설로 영재교육원을 개설한다. 보스턴심포니를 거쳐 빈국립오페라극장까지 맡게 된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도 알고 보면 도호음대 영재교육원에서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만 4살 어린아이를 입학시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악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노래와 율동을 익히며 음악과 친숙해집니다.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이 나이의 음악경험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5세가 되면 관을 제외한 바이올린, 피아노 등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인 음악교육은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8년 동안 지속됩니다.”

1월에 학기를 시작한 영재음악원은 5세부터 입학이 가능해 그야말로 소질을 보이는 초기부터 기초를 단단히 잡아주는 교육을 지향했다. 주4회 등원해 전문 연주자와 음악교육자로부터 배우는 이 영재교육원은 권순정 선생이 맡아 운영했고, 홍연택 별세 후 코리안심포니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94년 10월 당시 120명의 재학생이 있었으며,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거대한 화음 5천명 대합창연주회

창단 5년만인 1989년 6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다. 용평 서머 뮤직캠프 페스티벌이 이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던 뮤직캠프의 종합판이자 세계수준의 캠프음악제를 국내에서 재현한 것이었다면 이런 초대형 음악이벤트는 단언컨대 한국 최초이자 코리안심포니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 실제로 코리안심포니도 89년과 90년 단 두 번만 실행한 일대사건이었다.
처음 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코리안심포니 내부는 물론 외부의 음악계 사람들을 넘어 문화계 전체와 일반인들까지 그 실행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러나 해야 할 이유가 생긴 이상 할 수 있느냐는 환경의 문제보다 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진 홍연택은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예의 그 스타일대로 밀고나갔다.
코리안심포니에서 자체 발간한 월간지 89년 7월호에 실린 홍보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민대단합을 위한 5,000명이 부르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대공연에 즈음하여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는 국민의 대단합을 위하여 5,000명이 부르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요즘 우리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위화감 속에 사회가 혼탁해지고 질서가 어지러워져가고 있으며 서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는 노래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1989년 12월 2일(토) 오후 3시
· 장소 : 잠실 실내체육관
· 지휘 : 홍연택
· 합창단 : 5,000명 (지방 8개도 참가)
· 오케스트라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코리안심포니청소년오케스트라 (200명)

참가요령(합창단)

1. 신청서 접수 및 마감 : 7월 18일~8월 12일까지

2. 자격
   · 남녀 18세 이상 60세까지 (외국인도 가능)
   · 악보를 읽을 줄 알고, 과거나 현재 합창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을 환영함

3. 신청방법
   · 개인별 또는 단체별로 신청할 수 있음
   · 희망자는 코리안심포니 사무국에서 발부하는 신청서 1부 제출하면 됨
   (※사무국으로 전화연락하시면 신청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4. 참가금 : 1인당 5,000원

5. 연습방법
   · 연습은 9월 초부터~11월 말까지
   일주일에 한번꼴로 전부 12회가 됩니다.
   · 단체는 (30명 이상) 단체별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단체별로 함.
   · 개인은 국립극장내 코리안심포니 연습실에 모여서 하며 매일 저녁 시간에 한함.

6. 악보
   · 신청하시는 분에게 합창악보를 드립니다.

7. 지도방법
   · 단체는 그 단체 지도자나 지휘자의 지도, 지휘에 의해 연습이 가능하며 부재시에는 주최측에서 지휘자를 파견시킴.
   · 개인은 국립극장내 코리안심포니 연습실에서 주최측에서 지명한 지휘자가 지도를 담당함.

8. 이외에도 상세한 것을 알고저 하시는 분은 코리안심포니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국내에서 클래식은 그저 무대 위의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었지, 청중이 함께 노래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코리안심포니는 클래식의 대중화와 생활화라는 명분 아래 기획을 했고, 홍연택의 리더십 아래 거의 한국음악계의 역량을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이 공연을 만들어낸다.

코리안심포니의 시도 이후 국내에서는 서울모테트합창단이 유럽의 전통을 따라 헨델의 '메시아' 싱얼롱 연주회를 시도한 것이 2006년이고 매년 12월 지속적으로 만들어 이제 거의 하나의 전통처럼 굳어지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싱얼롱 콘서트의 전통이 꽤 쌓여있다. 교회합창의 전통이 강한 영국의 경우 200년 가까이 유서깊은 교회들을 중심으로 헨델의 '메시아'를 싱얼롱 콘서트로 해왔는데, 주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주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부활절을 전후하여 연주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절기를 가리지도 않는다. 미국의 경우 19세기 후반부터 '메시아'와 베토벤 교향곡 '합창'이 페스티벌 이벤트 형태로 싱얼롱 콘서트로 진행되어왔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중에서 '환희의 송가'는 1985년 유럽연합이 일종의 유럽연합 국가로 이 곡을 선정한 바 있고,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인 1989년 12월 25일에 레너드 번스타인이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구소련 등의 음악가들과 함께 이 곡을 연주한 바 있다. 역시 체코 혁명 직후인 1989년 12월, 코리안심포니와 거의 같은 시기에 바츨라프 노이만의 지휘로 프라하에서 공연되었다. 또 한때는 아프리카의 신예 독립국 짐바브웨의 국가이기도 했던 만큼 많은 교향곡들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담는다.

일본에서도 제9번 교향곡 사랑은 유별나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메시아'보다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 4악장의 싱얼롱이 이루어져 왔는데 2차대전의 동맹국이었던 관계로 독일에게 많이 받았던 당연

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1875년 첫 음악학교가 생긴 이래 아리마 다이고로가 빈에 유학해 정통지휘자 수업을 받고 귀국한 1930년대 중반, 그의 지휘에 의해 처음으로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이 12월 31일 밤에 연주되었다. 베토벤 제9번은 태평양전쟁의 와중에도, 종전 후 참혹한 폐허 위에서도 변함없이 연주되어 일본 재건의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고, 이후 일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으로 우뚝 섰다. 일본에서는 '다이쿠'(大九), 즉 위대한 9번이라는 의미를 가진 고유명사로 불릴 정도가 됐다. 스티븐 와이스만이 1990년 12월 29일에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그달에만 도쿄에서 NHK 심포니, 도쿄 심포니, 재팬 필하모닉이 도합 29번의 연주가 있었고 도쿄 외곽의 우라야스 시민회관에서는 1천명이 15달러의 참가비를 내고 제9번 싱얼롱에 참여했으며, 2월에는 도쿄 북부의 체육관에서 5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다이쿠' 싱얼롱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주류회사 산토리가 후원하여 1983년 오사카에서 시작된 '1만명의 합창'은 그 절정을 이룬다. 1만 5000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오사카성 홀에서 무려 1만명이 모여 "형제여, 그대들의 길을 달려라. 영웅이 승리의 길을 가듯"이라고 노래하는 것은 이벤트 차원을 넘어, 어떤 이들에게는 또 그 노래를 부르는 착한 일본인들의 표정에도 불구하고 전체주의의 기이한 열병을 느끼게 했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12월 연말의 제9번 공연은 연례행사처럼 되어 발레 팬들이 '호두까기인형'을 보아야 한해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처럼 클래식 팬들은 베토벤 제9번을 들어야만 새해를 맞는다고 할 정도가 되었다. 실제로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은 물론 전국의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제야음악회 또는 오케스트라의 송년음악회에는 으레 베토벤의 제9번을 연주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처럼 되었다.

사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의 4번째 악장에 포함된 합창은 기술적으로 쉬운 곡이 아니다. 우리나라 합창단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독일어 발음에다 템포가 빠른 부분도 많고, 성부를 가리지 않고 고음이 많이 나와 그것을 버텨줄 수 있는 호흡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성악전공자들에게도 간단치 않은 일인데, 아마추어 합창단과 일반인까지 참여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무리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 일은 기획 당시부터 음악의 질과는 무관하게 전국민의 대화합의 상징적 연출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기획팀은 음악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일본처럼 10년 이상 참여하는 참가자와 성악전공자들이 3분의 2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었고, 따라서 첫해에 5천명이라는 상징적 숫자를 채우는 일은 나름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었다.

이날 공연 팜플렛에는 각계 인사들의 기대가 실려있다. 그중 몇 개를 뽑아 본다.

음악이 추구하는 이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모든 인류가 함께 동참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천만이 하나가 되어 환희의 대합창을 부를 수 있다면 한국민의 이상일 것이고 이의 실현을 위한 5천명의 합창은 우리의 이상을 실천하는 첫발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인다. – 강석희 작곡가

유난히 풍파와 파란이 많은 우리의 민족사에서 이 기회를 통해 민족의 화합과 교역을 표현하고 도약의 웅비를 토해내는 벅찬 소리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이 노랫소리가 북녘까지 울려퍼져 우리 전체를 감동시키는 행사이길... – 김경상 화가

언제부턴가 나날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는 아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동하여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번에 그 바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다.

– 박종은 교사

모든 연령층을 포괄하는 5,000명의 대합창연주회는 그 프로그램의 구성만으로도 문화적 창조였다. 충격이 있고 신선하고 발전적이다. 노래가 있는 사회, 그리고 그보다 건전하게 노래부르는 사회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에게도 희망을 준다.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부르려는 모든 소박한 마음은 더욱 값진 희망이다. 모든 국민이 평균적으로 문화창조자이기를 바라는 진보적 문화발전 개념에서는 바로 이러한 국민의 대합창제가 그 발전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다.

– 이중한 언론인

5천명의 대합창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감기 하나에도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고, 또 그만큼 사람들이란 제각각이라고 믿어왔는데 학창시절 막 낙엽이 지던 때의 대학합창반의 그 감동적이었던 공연이 생각난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성숙한 느낌의 감동을 체험해야겠다.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 이현상 약사

각박한 현실을 극복하는 문화적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이런 우렁참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기반을 이루어야겠다. – 이희우 주부

많은 국가를 방문했던 프랑스 신부가 말하기를 "지구상에 가무를 즐겨하는 민족으로 한국인과 필리핀인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고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사실 음악은 우리의 길흉사를 막론하고 생활 깊숙이 스며든 예술임에 틀림이 없다. 음악은 우리의 시대를 대변한다. 시대적 상황과 운명과 짙게 연결되면서 때로는 우리의 갈 방향을 암시해주곤 한다. 갈라진 목소리, 다양한 의견과 격앙된 감정을 통합에 이르게 할뿐 아니라 우리의 심성을 순화시키는 음악의 사회적 기여를 감안할 때 음악의 대잔치 5000명 대합창연주회의 우렁찬 하모니는 음악인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의 목소리임에 틀림이 없다. – 허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조병화 시인은 이날을 기리는 축시를 실었다.

위대한 하나로

여기 5,000명 대합창이 울려퍼지는 소리
역사 이래 처음 듣는 국민 대단합의 소리

지역을 넘어서 하나로
계층을 넘어서 하나로
세대를 넘어서 하나로

뭉쳐서 흐르는 조화롭고 우렁찬 합창소리
그것은 우리 온 민족의 소망이
온천지에 울려퍼지는 겨레의 절규

이쯤되면 하늘에서, 땅에서
온국토 38선을 넘어서, 진동하는
가슴으로 가슴으로의 뜨거운 열망
한겨레, 한사랑, 한목숨
한 생존의 절규가 아니랴

오 겨레여
역사이래 우리 오천년, 면면히
이어내리는 끈질긴 그 한 줄기,
한 부모, 형제, 자매
어찌 우리 서로 흩으러져
헤어져 살 수 있으랴

한 땅, 한 하늘, 한 산천, 한 겨레,
한 나라, 한 부모, 형제, 자매,
한 피의 가족,
어찌 너고, 나고가 있으랴

오, 여기 5000명, 민족 대단합의 합창소리
길이 길이 넓게 넓게 멀리 멀리
온 겨레에게, 선진미래로 높이 높이 울려 퍼져라
그 위대한 하나로.

위르겐 클라이너 주한 독일대사는 축하의 말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여러 지역, 계층 및 세대를 총망라하는 5000명의 합창단과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함께 음악회를 개최하시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얼마나 화합을 불러오고 여러 가지 경계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언어로 누구에게나 이해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는 화합과 평화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작품들이 시대와 문화권을 초월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은 전통적으로 인간 사이에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외침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이것은 쉴러의 시 "환희의 송가"에서 그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낳은 위대한 작곡가 안익태는 "코리아 환타지"에서 곡절이 많은 한민족의 역사적 발전을 인상깊게 음악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애국가의 작곡가인 그분에게는 한국민의 화합이야말로 가장 많이 염두에 두어온 일이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에게 특히 지휘를 맡으신 홍연택 음악감독과 오케스트라 단원, 합창자 여러분께 성공적 연주를 빌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던 1989년 후반,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인 심포니' 4악장의 연습소리가 들렸다.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확실해졌지만, 합창단의 5천명 달성과 음악의 질에 대해서 근심의 소리가 높아져갔다. 아쉽게도 참여한 일반인은 없었고, 학교와 교회, 기존의 합창단들 중심으로 참가자가 모아져서 마침내 66개 단체 5,463명의 합창단이 구성되었다!

당일 팜플렛에 실린 합창단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나인코러스(75명), 광주시립합창단(53명), 운경합창단(38명), 에스터콰이어(30명), 서울음악교사합창단(62명), 수원난파합창단(45명), 오라토리오합창단(65명), 노엘합창단(24명), 남성합창단 울바우(21명),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합창단(50명), 챔버코랄(34명), 거제 필그림합창단(41명), 중소기업은행합창단(39명), 한국기독남성합창단(51명), 인천 한국기독인합창단(54명), 국립합창단(50명), 묘동교회 합창단(32명), 홀리크로스합창단(65명), 남서울교회 합창단(65명), 전북 이리 홀리보이스합창단(54명), IBM 합창단(20명), 한국남성합창단(81명), 인천 부광감리교회 합창단(21명), 금화제일교회 합창단(45명), 대구 필그림합창단(47명), 인천 부평중앙감리교회 합창단(46명), 인천 산곡감리교회 합창단(60명), 잠일침례교회 합창단(107명), 대성교회 합창단(103명), 세광교회 합창단(31명), 인천 부평중앙장로교회 합창단(24명), 인창교회 합창단(28명), 상동교회 합창단(54명), 의정부 성암교회 합창단(48명), 우이동감리교회 합창단(47명), 은광교회 합창단(62명), 경원대학교(57명), 부산 고신대학교(46명), 인천 화도감리교회 합창단(48명), 수표교교회 합창단(50명), 장충장로교회 합창단(55명), 화곡동교회 합창단(92명), 국민대학교(70명), 강남대학교(192명), 강원대학교(48명), 장로회신학대학(194명), 청주대학교(92명), 추계예술대학(82명), 한양대학교(220명), 성결교신학대학(94명), 대한불교합창단(43명)
명단을 싣지 못한 참가단체 : 대신대학, 대성교회, 명지실업전문대, 배재대학교, 서원대학교, 세종대학교, 에바다노래선교단, 온누리교회 합창단,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 조계사합창단, 청룡사합창단, 피어선신학대학, 해군군악대합창단, 호서대학교

이렇게 많은 합창단이 전체 리허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각자 합창단에서 나름대로 연습해오고, 당일 1시 리허설에 3시반 공연 시작으로 정리되었다. 12월 2일 잠실 실내체육관은 초겨울답게 싸늘했고, 전날 밤부터 체육관 바닥에 무대를 세우고 음향과 조명을 설치하느라 스태프들은 녹초가 되었다. 오전에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10여개 지방 합창단들이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여 버스로 올라왔다. 곱은 손을 호호 불며 배정받은 스탠드의 합창단석은 제법 차가웠다. 순서대로 도시락을 지급받아 먹는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1시 리허설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연되었고, 합창단 참가자들 중에는 불편

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나왔다. 간신히 시작한 리허설에서 합창단도 지휘자도 당황했다. 오케스트라는 그나마 가까워서 지휘자의 비트를 따라가지만 스탠드 꼭대기에 자리잡은 합창단원의 경우 거리가 멀어 지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홍연택 지휘자는 지휘동작을 최대한 크게 할 테니 '너무 악보에만 고개를 박고 있지 말고 지휘를 꼭 봐주실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연습이 충실하게 되어있지 않은 팀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어찌 하랴.

합창단 숫자보다 적은 관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공연은 오케스트라만 연주하는 1~3악장이 연주되는 동안 합창단원들은 호호 손을 불어가며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베이스 오현명의 선창에 따라 테너 안형일, 소프라노 이규도, 메조 소프라노 강화자가 차례로 합류하여 앙상블을 이루고 마침내 5,000명의 합창이 울려퍼졌다. 잠실체육관은 그 순간 체육관이 아니라 거대한 화음이 소용돌이치는 음악의 전당으로 변했다. 시야의 한계와 웅웅 울리는 체육관이라는 음향조건 때문에 음악은 지나치게 잔향시간이 길어져 메아리져 들렸지만 지휘자나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나 객석이나 모두 감격으로 가득찼다.
수많은 언론들이 대서특필한 가운데 동아일보 오명철 기자는 "이날 합창연주회는 5천명의 합창단과 2백여명의 대규모 오케스트라단 등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청중들을 압도, 듣는 음악회로서는 물론 보는 음악회로도 주목됐다. 7천여 관중으로부터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연초부터 구성된 특별준비위원회를 이끌며 연출을 맡은 최영석(전 국립오페라단 본부장)의 당시 회고가 후일 월간 객석에 실렸다.
"각 파트별 악보를 방방곡곡으로 보내고, 행사 전날엔 예비군 수송버스 70대를 각 지역으로 보냈어요. 음악회 당일 출연자들의 도시락도 큰 문제여서, 김밥 6000개를 서울 시내 김밥집 곳곳에 나눠 주문했죠. 학생들을 동원해 체육관 자리마다 김밥을 놓는 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음악회 당일, 라디오의 10분짜리 단막 드라마 속 등장인물 대화에서 '5000명 대합창 연주회'가 언급될 정도였으니 국민의 관심이 엄청났죠."

이듬해에는 기상조건이 좀 더 나은 10월 27일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솔리스트는 소프라노 넬리리, 메조소프라노 방현희, 테너 박성원, 바리톤 김성길이 나왔다. 전회의 성공에 자극받아 더 많은 팀들이 참가했는데 참가단체들은 아래와 같다.
가나안교회, 강남대, 강원대, 경신고, 경찰대, 공군군악대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광화문감리교회, 음악교사합창단, 국립합창단, 국민대, 금화제일교회, 길르앗성가단, 나인코러스, 난파합창단, 늘사랑선교단, 단국대, 대광고, 대림감리교회, 대신대, 대학연합합창단, 대한불교연합합창단, 동암장로교회, 롯데어머니합창단, 목포시립합창단, 목우회, 믿음의집교회, 부광김리교회, 부천시립합창단, 산곡감리교회, 상투스합창단, 샬롬선교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서울예술신학교, 서원대, 성결교신학대, 성남시립합창단, 성남어머니합창단, 성문성결교회, 성암교회, 성체칠리아합창단, 수원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 신동교회, 신성장로교회, 신용산교회, 아주국교어머니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약수교회, 양정고, 양천여성합창단, 에바다선교합창단, 에스터코랄, 연세대 트리니티합창단, 염창교회, 영복감리교회, 에멜합창단, 오라토리오합창단, YMCA여성합창단, 와이즈메넷남성합창단, 용두감리교회, 육군군악대합창단, 운경합창단, 웨스트민스터신학대, 은성장로교회, 인창교회, 인천순복음교회, 장로회신학대, 장충교회, 제주시립합창단, 종암장로교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합창단, 챔버코랄, 청주시립합창단, 총신대, 추계예대, 충현교회, 코랄필리아합창단, 피어선대, 한국기독남성합창단, 한국남성합창단, 한미은행합창단, 한신교회, 한양대, 해군군악대합창단, 홀리보이스합창단, 홀리크로스합창단, 화곡동교회, 화광교회, 화도감리교회, 횃불합창단, 효성교회

두 번의 공연을 경험한 코리안심포니와 합창계의 인사들은 음악적 한계와 기획진행상의 어려움을 들어 3번째 5000명 대합창연주회는 추후 환경이 조성되면 재개하기로 한다. 그러나 참가자들의 감격과 문화계의 반응은 놀라운 것이었다. 이 2번의 공연은 클래식음악 역사의 한 장을 수놓았다.
2009년 5월 코리안심포니 홈페이지에 당시 참가자가 올린 글이 있어 여기 옮겨본다.

감사와 회고

안녕하세요..
늘 좋은 연주를 보여주시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9년 제1회 5000명 대합창연주회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늘 코리안심포니를 접할 때 마다 그때를 회고하곤 합니다. 혹시나 자료가 있나 찾아봤는데 기억을 되살려줄 자료가 없군요.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병 때였는데 국립극장에서 모여 연습을 할 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많았고 예쁜 언니 오빠들이 어쩜 그리 노래들을 잘하는지 어쩐지 기가 죽었었지요.
신문을 보고 지원한 저는 전공자는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어린이 성가대를 대학생 때부터 10년간을 지도했는데도...이제 40대 중반의 나이로 문득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니 많은 감회가 새록새록 합니다.
국립극장까지 오르는 길은 참 길고 지루했던 것 같아요. 2회로 그친 대합창연주회...
경기침체에 연일 사건사고로 민심이 흉흉한 이때 뜻을 모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를 한민족 대합창연주회로 만들어보심은 어떨지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20년이나 지난 지금 제3회 한민족 대합창회를 기획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창단 1회 때의 멤버들을 중심으로 다시 모여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나누며 힘차게 합창을 부른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물론 천국에서 응원하실 분들도 계시겠지요?

1990년

2월 20/21/23일 특별기획 시리즈 새봄맞이 노래의 향연
소프라노 권해선 초청독창회, 바그너의 밤, 오페라하이라이트의 밤

5월 3일 숙명여자대학교 강당 코리안심포니 초청 특별연주회

5월 4일 명지대 용인캠퍼스 체육관 '90함박골 음악의 대향연 코리안심포니 초청 특별연주회

7월 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특별초청시리즈 클라리넷 질리오티 초청연주회
지휘 홍연택 클라리넷 질리오티

7월 9일~21일 용평리조트 제2회 용평 서머 뮤직캠프 · 페스티벌

8월 15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광복45주년 기념
민족 대교류 경축 만남과 화해의 큰마당
지휘 홍연택 외 솔리스트 박동진, 박인수, 안숙선, 박병천, 넬리 리,
서용석, 김청만, 박웅, 김성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국악원, 국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성남시립합창단, 한양대 음대, 콘서트콰이어, 선명회어린이합창단,
세계혼성합창단,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88 서울예술단,
동랑댄스앙상블, 서울예술전문대 민속연구회, 연극과, 대한롤러스케이팅연맹

10월 27일 잠실 실내체육관 제2회 5000명의 대합창연주회
지휘 홍연택 소프라노 넬리 리, 메조소프라노 방현희,

테너 박성원, 바리톤 김성길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안익태 '코리아 환타지'

12월 0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44회 정기연주회 '제3회 성가의 밤'
지휘 홍연택 소프라노 이성숙 한국오라토리오합창단

세계최초 찬송가 전곡 디지털녹음

1991년은 모차르트의 해였다. 모차르트 서거 200주년을 세계는 기념했다. 모차르트 열풍이 불어닥쳤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코리안심포니는 봄이 시작되는 3월 11일~12일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모차르트 오페라 갈라콘서트로 모차르트의 해를 열었다. 국립오페라단은 이어서 5월 23일~28일에는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를 상연했다. 당시 독일문화원장으로 재직하던 지휘자 한스 유르겐 나겔의 지휘로 코리안심포니가 관현악을 맡았다. 마지막 음악회였던 12월 27일의 EBS 개국 1주년 기념 송년음악회도 전체 프로그램이 모차르트였다.

1991년

3월 11일~12일 국립극장 대극장 모차르트 서거 200주년 기념
국립오페라단 제64회 정기공연 모차르트 오페라 갈라

4월 1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 6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46회 정기공연'
지휘 홍연택 바이올린 이순익, 피호영 첼로 한혜선, 양성원 오보에 김학영
클라리넷 이창수, 호른 大野良雄 바순 장명규 피아노 권경순

7월 8일~20일 용평리조트 제3회 용평 서머 뮤직캠프 · 페스티벌

9월 1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50회 정기연주회
지휘 홍연택 바이올린 이순익 첼로 조영창
모차르트 교향곡 제35번 '하프너', 하이든 첼로 협주곡 C장조, 비발디 '사계'

10월 2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51회 정기연주회 '브람스의 밤'
지휘 오마치 요이치로 바이올린 김양준

11월 0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재외유명연주자 초청연주회 안트리오

11월 12일 연세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연세대학교 초청 코리안심포니 특별음악회

11월 2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4회 성가의 밤
지휘 홍연택 소프라노 김영미 베이스 오현명 바흐합창단

12월 01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제50회 청소년음악회
지휘 정치용 피아노 이정아 석현주 홍지민

12월 2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코리안심포니와 함께 하는 EBS 개국 1주년 기념 송년음악회
지휘 홍연택 합창지휘 나영수 피아노 오경란 소프라노 박경신 석금숙
테너 김선일 베이스 김요한 국립합창단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D장조, 피아노협주곡 제21번, 대미사 c단조

1991년은 모차르트의 해만이 아니라 코리안심포니에게는 또다른 역사적 족적을 창조해낸 해였다. 최초로 '찬송가 대전집'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녹음을 개시한 것이다. 그 후반작업은 이듬해까지 이어져 1992년 가을이 되어서야 CD 30장에 통일찬송가 558곡이 오롯이 담은 전집을 내놓게 되었다. 이 대작업에 대해 월간 객석은 92년 12월호에 보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

"그것은 음악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다."

1년에 걸친 기획과 편곡, 2년에 걸친 녹음과정 동안 당시로서는 거액인 총 13억의 예산이 들었다. 기획의 동기는 한국인의 특별한 종교적 성향이었다. 5,000명 대합창연주회에서 경험했듯이 교회 합창단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목표 달성이 어려웠다는 점도 감안되었지만 매일 새벽기도회를 하는 민족은 세계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음악전문가들이 성가대나 앙상블을 지휘하는 중대형 교회들을 제외하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형 교회들은 음악적 자질이 부족한 목사나 장로들이 틀리게 잘못 불러도 전교인이 따라서 배우는, 음악적으로 아주 부족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또 하나는 1984년 한국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가 당시 여의도광장에서 100만 신도를 동원해 성공적으로 열렸고, 1992년은 한국어 찬송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는 점이었다. 기존에 피아노 반주의 찬송가 전곡 녹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대규모 관현악 반주로 찬송가 전곡을 녹음하여 음반을 만드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초유의 일이었다. 80년대 이후 개신교의 부흥과 교회음악의 수요확대에 따라 교계와 음악계 일부에서 찬송가 연주의 고급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나, 규모의 방대함 때문에 늘 기대와 소망의 수준에서 번번이 끝났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연주가들이 만든 최고 수준의 아름다운 찬송가는 당시 신도 1천만을 자랑하는 한국 개신교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이고 음반판매로 인해 코리안심포니의 재정도 개선되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91년 가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홍연택 음악감독은 이렇게 포부를 펼쳤다.

"이번 찬송가의 편곡과 연주의 고급화 작업은 우리의 기독교음악운동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작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방대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이 작업에 모든 관계자는 한국음악의 결산작품을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음악으로는 세계최고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90년부터 기획된 작업은 초기에는 윤해중, 고희준, 공석준, 최동선, 안재성, 김용진 등 18명의 관현악 편곡진 선정과 편곡작업 진행이 순조로웠으나, 가장 먼저 녹음실 선정에서 문제에 부딪쳤다. 그동안 국내 음반시장의 협소함으로 인해 70명의 교향악단과 50여명의 합창단이 동시에 들어가 녹음을 할 만한 스튜디오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전용녹음실을 마련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일본의 건축음향 전문가 둘을 초청해 예술의전당 오케스트라 리허설룸을 보여줬다. 공간도 충분하고 천장도 높았지만 너무 울려서 어쿠스틱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던 이곳에 대해 그들은 오히려 녹음장소로 최고라고 평가했다. 어차피 오케스트라 반주에 합창을 더빙하는 방식이 아니라 라이브로 동시녹음을 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에코를 넣을 필요 없이 홀 자체의 울림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평가였다. 국립극장의 코리안심포니 연습실 역시 같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600여석 규모의 IBK홀로 바뀌어있는 오케스트라 리허설룸은 악기를 옮기고 사용료도 내야 하고 해서 다른 민간 교향악단들이 거의 잘 쓰지 않는 장소였기 때문에 예술의전당 측과 협의를 거쳐 기자재를 설치해 놓고 다른 오케스트라가 대여하게 되면 장비설치 상태 그대로 이용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녹음방식이 문제가 되었다. 기왕 하는 것 제대로 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자는 기획의도에 부합하게 일본 야마하 음향센터의 간나리 엔지니어와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톤마이스터학과 주임교수인 빌리히 엔지니어가 초청되어 자문과 설치를 맡게 되었다. 기존의 음반들이 녹음-믹싱-마스터링 과정에서 상당수가 ADD(녹음만 아날로그, 후반작업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었으나 음질을 위해 최신 기술인 DDD(전체 과정이 완전 디지털) 방식을 채택하고 이에 걸맞는 장비를 구매한다. 폭2인치 테이프가 장착된 다채널 녹음기와 DAT 녹음장비를 갖춘 첨단음향설비의 구입에만 5억여원이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 1991년 11월에 들어서야 첫 녹음을 할 수 있었다.

녹음 진행중 또다른 문제가 발견되었다. 녹음실인 오케스트라 리허설룸 바로 아래 음악당 기계실이 위치해 녹음된 데이터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끼어들어있는 점이었다. 기술적으로 최대한 기계의 저주파를 제거해 감상음질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제작의 주체가 바로 음향에 가장 민감한 음악가들이었기에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무릅쓰고 장비 일체를 국립극장의 코리안심포니 연습실로 다시 옮겨 재설치했다. 그리하여 200여곡은 예술의전당 오케스트라 리허설룸에서, 350여곡은 국립극장 코리안심포니 연습실에서 녹음이 이루어졌다.

찬송가 대전집 참여단체 및 솔리스트

국립합창단(지휘 나영수), 서울레이디스 싱어즈(지휘 윤학원), 횃불합창단(지휘 백선용)
기독여성합창단(지휘 오세종), 선명회합창단(지휘 윤학원)
소프라노 – 곽신형, 김미정, 김영애, 나은숙, 노성혜, 박경신, 박미애, 박미자, 박순복, 배서영
백효정, 석금숙, 송영옥, 오혜숙, 윤순하, 이규도, 이미성, 이인영, 장영숙, 정동희
정현진, 진지영
알토 – 구혜령, 김미경, 방현희, 백남옥, 안병희, 최미란, 황화자
테너 – 김보용, 김태현, 김현수, 목진학, 박성원, 박치원, 송재진, 신동호, 윤철환, 이단열, 임정근
최덕식, 최승태, 한병진
바리톤 – 고성현, 김관동, 김성길, 김장현, 나유창, 노형건, 박수길, 백준현, 송현상, 이종석, 조창연
베이스 – 김요한 오현명

"이 찬송가 전집이 나오기까지 가장 수고한 분들은 나영수 지휘자와 국립합창단원, 홍감독과 코리안심포니 단원들이지요. 그밖에 함께 도와준 합창단과 성악가들도 많은 수고를 해주셨지만 아마 그들도 신앙의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현재 코리안심포니는 80%의 단원이 기독교인이고 국립합창단원은 100% 전원이 기독교인입니다."
92년 당시 코리안심포니 사무국장으로 이 일을 진행했던 이운환 씨의 객석 인터뷰 내용이다.

1992년 10월, 드디어 완전 DDD방식으로 제작된 한국 최초의 음반이자 한국 음반역사상 가장 대규모 세트인 30장의 CD로 된 전집이 완간되었다. 홍연택 감독은 객석 92년 12월호 인터뷰에서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했다.
"한국찬송가 대전집은 대편성 오케스트라의 반주를 기본으로 삼아 찬송가 558장 전곡을 수록했고, 국립합창단을 비롯한 정상급 합창단들이 천상의 노래를 듣는 듯한 환상의 코러스를 선사하여 그 은혜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유명 크리스찬 성악가들이 자신의 애창 찬송가를 중심으로 합창단과 최상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이 CD전집이 1천만 성도들의 영혼에 생수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

앙생활이 되게 할 것은 물론 목회와 성가대에게도 예배찬송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미 '세계 명성가곡 선집'을 제작,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친 바 있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오랜 기도 끝에 한국찬송가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 완성을 보게 된 '한국찬송가 대전집'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1천만 성도들에게 충만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992년은 코리안심포니에게는 녹음의 해로 기억될 만큼 한국찬송가 대전집과 세계 명성가곡 선집 두 개의 시리즈를 녹음하면서 정기연주회를 포함한 통상의 공연들을 모두 해야 했기 때문에 무척이나 힘든 한 해였다. 당시 국내외의 유명 오케스트라들은 녹음과 음반판매에 따른 인세수입이 총 운영비용의 50%를 넘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의 오케스트라를 지향하던 코리안심포니에게 다양한 음반의 제작과 이에 따른 장기적인 수입원의 발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40만원의 CD세트와 별도로 12만원의 카세트테이프 세트도 발매했지만 적극적인 의도와는 달리 판매는 부진했다. 초유의 기획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3년의 노력 끝에 돌아온 결과는 오히려 코리안심포니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되고 말았다.

1992년

1월 1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신년축하연주회
3월 1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2교향악축제 지휘 노버트 토마스 플루트 송여진 멘델스존 서곡 '핑갈의 동굴',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 슈트라우스 교향곡 작품53 '가정'
6월 8일	리틀엔젤스예술회관 청소년 협주곡의 밤 지휘 박은성 클라리넷 김현지, 바이올린 신연수, 피아노 박지원, 소프라노 안수경, 첼로 이현정, 피아노 김성훈
7월 6일~8월 1일	용평리조트 제4회 용평 서머 뮤직캠프 · 페스티벌
8월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2세계합창제 세계합창의 밤 지휘 임원식 그리스 폴리포니아 아테나움 합창단, 독일 칼 오르프 합창단, 미국 캘리포이나 챔버싱어즈, 일본 키타큐슈 합창단, 이태리 암브로지아나 합창단,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 부천시립합창단, 수원시립합창단, 한국 챔버코랄, 서울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베토벤 교향곡 제9번 4악장 외
8월 29일	국립극장 대극장 난파의 달 기념음악회 지휘 나영수 홍난파 즉흥곡, 론도(봄), 동양풍의 무곡 외 가곡들
10월 05일	국립극장 대극장 서울평화상 제2회 시상식
10월 06일	국립극장 소극장 고 이수호 1주기 추모음악회 (이수호는 국립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하고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유학후 귀국과 동시에 코리안심포니 창단에 참여 더블베이스 수석 겸 인스펙터로 재직하다 47세로 별세했다)
11월 2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59회 정기연주회 '한국찬송가 대전집 발간기념 제5회 성가의 밤' 지휘 나영수 테너 박세원 바리톤 신경욱 가수 나윤선 김성기 국립합창단 옹기장이 선교단
12월 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60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지휘 키이스 클락 플루트 이혜경 베토벤 레오노레 서곡,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 브람스 교향곡 제2번

새로운 세기를 향한 비전의 확립

코리안심포니 제1기 1985-1994를 관통하는 주제는 '위대한 꿈의 시작'이다. 이 기간의 주요이벤트를 중심으로 서술하다 보니 이 장의 마지막으로 순서가 밀리기는 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1990년 4월 창단 6주년 기념호 월간 코리안심포니지는 판형도 연주회 해설 팜플렛보다 커졌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다. 권두칼럼으로 '우리나라 예체능 교육제도의 개혁'(홍연택 감독), 기념사로 '코리안심포니 창단 6주년을 맞으며'(전봉초 이사장), 축사를 조경희 당시 예술의전당 이사장과 여석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의 글이 실렸다. 그 다음에 실린 글들이 의미심장하다. 특별좌담 : 민간 오케스트라의 운영방안(이상만, 한명희, 임연철 김경희), 2000년을 향한 코리안심포니 10개년 계획안(홍연택), 각국의 음악정책 : 프랑스의 음악정책이 그것들이다. 후반부에는 코리안심포니의 새로운 얼굴들과 제1회 5,000명 대합창연주회 참가자들의 수필과 조병화의 축시 및 명망가들의 기대의 글들, 제2회 용평 서머 뮤직캠프 · 페스티벌 안내와 한상우 음악평론가의 촌평, 홍연택 감독의 일본 PIPERS지(89년 9월호) 인터뷰를 번역 전재한 내용 등이 실렸다. 웬만한 클래식음악 전문지에나 실릴 만한 무게의 기사들이었다.

그중 주목할 내용은 '2000년을 향한 코리안심포니 10개년 계획안'이다. 요약된 내용으로 살펴보자.

2000년을 향한 코리안심포니 10개년 계획안 1990~1999

1. 단원확충

   현재 단원수 70명은 완전한 2관 편성 수준이다. 우수한 재원의 발굴 및 영입을 위해 항상 문호를 개방해 둔다. 완전한 4관 편성 100명의 단원구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심포니의 예산과는 별도로 추진될 것이다. 우수한 한국인 연주자의 유치 외 당분간은 우수한 외국인 연주자들을 계약제로 영입할 것이다. 이미 뉴욕필 고정 엑스트라인 H. 윌리엄이 호른 파트에, 에드워드 로번슨이 바순에 들어와 있다. 9월에는 헝가리의 리스트 음악원 주임교수 타보르 폰그라치가 비올라 수석으로, 게오르기 데리가 첼로 수석으로, 일디코 하야우가 제2 바이올린 수석으로 계약되어 들어온다.

2. 음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단원의 해외연수

   코리안심포니에서는 단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년전부터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단원의 개별 장기연수 및 그룹별 단기연수를 포함한다. 자체 연수계획 프로그램에 의해 현재 구라파(유럽)에서 개별 장기연수를 받고 있는 단원은 3명이고, 또 그동안 일본에서 그룹별 단기연수를 받은 경우는 2건에 이른다. 이러한 국부적인 해외연수 계획을 본격화하여 연차적으로 단원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음악수업을 필한 자로 구성할 계획이다.

3. 코리안심포니 전용 녹음실 설치

   교향악단이 독자적인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되는 물론 교향악단이 재정적으로 자생력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레코딩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4. 정기연주회 및 일반연주회 횟수 확대 실시

   89년 기준으로 연평균 70회 정도 연주하고 있다. 앞으로 프로 교향악단에 걸맞게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전에서 한국작곡가의 창작 포함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에도 힘써나갈 계획이다.

5. 단원 급여 및 복지 개선

현재 단원들의 급여사정은 KBS향이나 서울시향등의 국공립단체에 비해 열세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순수한 민간오케스트라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1993년부터 국내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와 더불어 퇴직금 및 그밖의 복지관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6. 세계각국 순회연주 실천

꾸준한 단원의 질적 향상과 확충계획이 93년까지 일단 마무리되면 창단 10주년에 접어드는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매년 해외연주를 할 계획이다.

7. 심포닉 코러스 창설

92년 또는 늦어도 93년까지 코리안심포니 부설단체로 150명 규모의 심포닉 코러스를 창단할 예정이다. 앞으로 우수한 합창음악, 즉 오라토리오, 칸타타, 미사곡, 나아가서 오페라 합창 등 본격적인 합창음악을 연주하고자 하는 뜻에서 시도되는 작업이다. 기존 프로합창단의 운영방법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특별한 아이템이 있을 때마다 그 작품의 실현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본격적인 연습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 프로 합창단의 단원까지도 이 심포닉 코러스에 영입시켜 단원을 구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다.

8. 민관 2원화 운영체제에 의한 운영

현재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국내유일의 비영리 사단법인체로 된 순수 민간주도의 교향악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시에 현재 국립극장과의 전속계약에 의해 국립극장에서 필요로 하는 오페라, 발레, 합창단과의 협연관계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케스트라 명칭을 국립교향악단 또는 국립관현악단으로 함이 보기에도 좋고 틀을 갖춘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립극장의 공식단체로 편입시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심포니의 자율적인 연주활동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민간교향악단으로 운영 활동케 하는 2원화 운영방법을 실시케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고로 운영되는 국립극장의 예산절감과 코리안심포니의 음악활동의 자율성을 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대부분의 유럽-미국 교향악단에서 하고 있는 운영방법으로 이 계획을 적극추진할 것이다.

9. 코리안심포니 전용 심포니회관 건립

늦어도 1995년까지 3000~3500평 규모의 심포니 전용회관의 건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심포니 종합연습실, 실내악연습실, 개인연습실, 1000석 규모 연주홀, 주차장, 편익시설, 전문녹음 및 편집실, 기타 사무실 등이 포함된다.

홍연택은 이 글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실천가능한 것들을 뽑았다고 부연하고 있다. 이렇게 위대한 꿈을 꾸었던 코리안심포니는 그 이후 자체적으로든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든 이 비전의 상당수를 이루었다.



['92교향악축제 1992.3.27_지휘 홍연택]



['92교향악축제 1992.3.27_지휘 홍연택]

1993년

2월 15일~20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예술의전당 전관개관 기념축제
개막공연 국립오페라단 '시집가는 날'
작곡 지휘 홍연택 소프라노 이윤숙, 김미옥,
테너 김범진, 최덕식, 목진학 바리톤 임승종, 유희문,
베이스 김요한 국립무용단, 국립합창단, 한양대 콘서트콰이어

2월 2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전관개관 기념음악회
지휘: 홍연택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 외

3월 12일~14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예술의전당 전관개관 기념축제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지휘 최승한

3월 1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3교향악축제
지휘 모미야마 가즈아키 피아노 장형준
쇤베르크 현악6중주 '정화된 밤',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스트라빈스키 무용모음곡 '봄의 제전'

4월 14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목관5중주단 창단연주회

7월 12일~8월 1일 용평리조트 제5회 용평 서머 뮤직캠프 · 페스티벌
음악감독 홍연택 음악부감독 서현석
교수진 성악 다니엘 페로(미국) 진귀옥(한국), 피아노 G. 그루츠만,
R. 마이스터(독일) 바이올린 H.슝크(독일), R. 다비도비치(미국),
P. 크렙스(독일), 비올라 F. 슈바르츠(독일), 첼로 조영창(독일),
R. 쿤체(독일), 콘트라베이스 C. 브라운(미국), 오보에 R. 로즈만(미국),
바순 M. 드레셔(독일), 트럼펫 R. 포퍼(미국), 지휘 최승한(한국),
피아노 반주교수 구자은, 심영지, 라정혜, 최승혜, 조양명

8월 27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금관5중주단 창단연주회

11월 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67회 정기연주회 백운창 회갑기념
지휘 모미야마 가즈아키 바이올린 백운창
차이코프스키 발레모음곡 '잠자는 숲속의 미녀', 하이든 바이올린 협주곡 A장조,
베토벤 교향곡 제8번, 카발레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C장조
(백운창은 공군교향악단, 국립교향악단, 서울시향의 악장을 역임하고
코리안심포니의 창단 악장으로 9년간 계속 봉직했다. 이날 하이든과
카발레프스키의 두 개 협주곡을 한국초연하여 아카데믹한 노익장을 과시했다)

12월 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70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지휘 정치용 바이올린 이유라, 유승현
차이코프스키 이탈리아 기상곡, 교향시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랄로 스페인 교향곡

1993년 코리안심포니에 첫 번째 위기가 닥쳐왔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차명자금들을 운용하던 기업들에 자금경색이 왔고 그 여파가 문화예술계까지 넘어왔는데 코리안심포니도 예외는 아니었다. 연간 3억씩 5년간 지원을 약속한 쌍용그룹에서 지원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왔다. 그러자 문화계 뿐만 아니라 사회사업 부문에서도 읍소와 반발이 이어졌다. 93년 11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다수 문화예술인들은 '기업 측에 문화예술지원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주장에 이의를 달지 않으면서도 쌍용이 대기업이고 또 지원하던 단체의 존립여부에 관계 없이 단호히 생명줄을 끊으려 한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다. 이렇게 여론의 분위기가 수혜자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로 흐르자, 코리안심포니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이미지 측면에서 거둔 적이 적지 않았던 쌍용그룹은 다른 기업들이 지원을 거두는 마당에 오히려 94~5년도 2년간 1억원씩을 증액하여 각 4억원씩 지원하기로 통 큰 결정을 내린다. 위기가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그러나 녹음사업에서의 손해는 지속적으로 코리안심포니에 부담으로 작용해 2000년 맞이 10개년 계획의 단원 처우에 대한 약속은 계속 지연되었고 홍연택은 이 부분에 대해 늘 미안해 했다.

1994년

3월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4교향악축제
지휘 닐 바론 바이올린 윤수영 첼로 송영훈
슈트라우스 모음곡 '장미의 기사', 브람스 이중협주곡, 홀스트 '행성'

4월 14일~21일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발레단 제78회
국립합창단 제64회 정기공연 '카르미나 부라나'
지휘 오세종 안무 페르디난드 놀트

4월 27일
국립극장 소극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호른4중주단 창단연주회

5월 5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제60회 청소년음악회
지휘 정치용 피아노 유지영, 하프 오상협, 피아노 문정재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서곡, 멘델스존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디터스도르프 하프 협주곡 A장조,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제1번

7월 17일~31일
용평리조트 제6회 용평 서머 뮤직캠프 · 페스티벌
음악감독 홍연택 음악부감독 최승한
교수진 바이올린 표트르 밀렙스키(미국), 비올라 유진 베커(미국),
첼로 제프리 솔로우(미국), 콘트라베이스 클라우스 트룸프(독일),
피아노 콘스탄스 킨(미국), 성악 제인 클라비터(미국),
플루트 막상스 라리외(프랑스), 클라리넷 로렌 키트(미국), 지휘 최승한(한국),
성악 박세원, 이순희, 피아노 반주교수 심영지, 최유정, 김성희, 조양명
(막상스 라리외는 당시 현역 세계 정상급 플루티스트여서 이해 플루트 수강생의 오디션은 매우 치열했다)

7월 18/20/23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외 조수미 독창회

9월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75회 정기연주회
지휘 파울 폴리브니크 피아노 장인정
베를리오즈 로마의 사육제 서곡, 맥다월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말러 교향곡 제5번

10월 18일
호암아트홀 코리안심포니 유망주를 위한 음악회
지휘 최승한 바이올린 조가현, 플루트 이정선, 피아노 김보영

10월 22일
리틀엔젤스 예술회관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 EBS 관현악의 밤
지휘 최승한
주페 '시인과 농부' 서곡, 비제 '카르멘' 모음곡, 생상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
시벨리우스 교향시 '핀란디아', 거슈인 "랩소디 인 블루",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

11월 05일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평택문화예술회관 개관1주년 기념음악회
11월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EBS 개국 4주년 기념음악회 가곡의 밤
11월 23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푸른 산 푸른 강 자연을 그대로 '94 메아리 콘서트
12월 20일~27일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발레단 제80회 정기공연 '호두까기인형'

창립 10년차인 1994년 당시 코리안심포니의 월간 예산은 1억원, 그러나 정기연주회 수입은 1백만원대 수준이었다. 수장인 홍연택 음악감독은 '단원들 볼 낯짝이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되는 기막힌 현실을 '하나님이 도우사'라고 표현했다. 1994년 한 단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급여요?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다 함께 고생하는 건데요. 그나마 급여날짜를 한번도 어긴 적이 없는 것이 또한 기적일 따름이지요.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코리안심포니의 단원들은 홍연택 선생님과 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부심이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아닐까요?... 그 혼이 아니면 저희들은 진작에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5년만인 1989년 창립 50주년을 맞은 쌍용그룹의 후원, 대한민국 문화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10년간의 동행이 시작되면서 그 꿈은 더욱 위대해졌다. 쌍용그룹 실무자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코리안심포니는 지원을 받으면서도 언제나 당당합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늘 감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만들며 살아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행보는 한발자국 내딛을 때마다 대한민국 최초였고 대한민국 문화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갔다.



[호른4중주단 창단연주회 1994.04.27]



['94 교향악축제 1994.2.18_지휘 닐바론]



[금난새와 함께하는 테마음악여행 1995.10.15_지휘 **금난새**]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창단10주년 기념행사 1995.3.30]

1985년 한 사람의 꿈이 40여명이 같이 꾸는 꿈이 되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태어났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 평가했지만 코리안심포니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행보를 계속 펼쳐 그들을 놀라게 했다.

1995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음악회 (국립중앙박물관)

3월 8일 국립극장 대극장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한 제1회 명사음악회
지휘 박은성 바이올린 김용제 테너 김원년 박웅서 홍인기
바리톤 오세응 현대자동차합창단 임명진 하프앙상블 소프라노 유미숙 테너 박세원

3월 11일 세종문화회관 대강강 신원에벤에셀앙상블 창단공연
지휘 박은성 신원에벤에셀앙상블 대학생선교합창단 테너 신영조

3월 1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5 교향악축제
지휘 다나카 요시카즈 바이올린 이성주 첼로 양성원 피아노 김대진
브람스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베토벤 3중 협주곡
레스피기 교향시 '로마의 소나무'

4월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지휘 홍연택 소프라노 이규도
메조소프라노 김신자 성남시립합창단 한양대 음대합창단
말러 교향곡 제2번 '부활'

4월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삼성문화재단 창립30주년 기념음악회
지휘 금난새 소프라노 곽신형 박미혜 바리톤 고성현
트럼펫 안희찬 한국예술종합학교 바이올린앙상블

4월 17 횃불선교센터 사랑성전 교회음악 원로 곽상수 교수
연세대학교회 봉사 20년 한국 교회성가대 지휘 50년 기념 교회음악연주회
지휘 곽상수 오르간 곽동순 연세대학교회 성가대

4월 19일~26일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발레단 제81회 국립합창단 제68회 합동공연 카르미나 부라나
지휘 오세종 안무 페르난드 놀트

4월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창립1주년 기념
장한나 특별초청 메세나음악회
지휘 박은성 첼로 장한나, 삶과꿈 싱어즈

5월 10일 KBS홀 제80회 정기연주회
지휘 임평룡 피아노 김수경 윤경련
베토벤 피델리오 서곡,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제10번, 슈베르트 로자문데,
무소르그스키 교향시 '민둥산의 하룻밤'

5월 16일 IPI총회 (국제언론인협회) 연주회

6월 1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금난새와 함께 하는 테마음악여행 '음표로 그린 그림 – 미술과 음악'
지휘 & 해설 금난새 피아노 김도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2번, 무소르그스키 모음곡 '전람회의 그림'

6월 10일~7월 1일 바리톤 고성현 전국순회 연주회 (서울, 부산, 광주, 제주, 전주, 대전)

7월 9일~30 제7회 용평 뮤직캠프 · 페스티벌
교수진 바이올린 노만 캐롤 (커티스 음대 교수),
비올라 라마르 알솝 (뉴욕발레오케스트라 악장),
첼로 롤란드 쿤체 (만하임 국립음대 교수),
콘트라베이스 클라우스 트룸프 (자르브뤼켄 국립음대 교수)

피아노 존 오코너 (아일랜드 왕립음악원 교수),
성악 다니엘 페로 (줄리어드 음대 교수),
오보에 부르크하르트 글래츠너 (베를린음악원 교수)
바순 키릴 소콜로프 (상트 페테르부르크 음악원 교수)

7월 21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코리안심포니 현악4중주단 창단연주회

8월 27일, 29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광복50주년 기념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연주회
지휘 칼 솔락

9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5 서울국제음악제 한국유망연주가 초청음악회
지휘 박은성 소프라노 박미혜 첼로 홍세라
베버 '오베론' 서곡, 프로코피에프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드보르작 '루살카'중 '달에게' 외

10월 6일~7일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합창단 제70회 정기공연
광복 50주년 기념 창작칸타타 '용비어천가'

12월 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EBS-FM 개국기념 음악회 '성가의 밤'
지휘 홍연택 소프라노 박미혜 테너 신동호 베이스 오현명 바하합창단
정기 10회 오페라 발레반주 42회 청소년음악회 9회 특별 기타연주 36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흔히 격동의 역사라고 한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혼란스러웠던 해방정국, 그리고 바로 이어 닥쳐온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동족상잔의 비극 6.25 한국전쟁, 폐허 위에 재건하느라 바쁜 와중에 겪은 4.19와 5.16 그리고 10.26, 12.12, 5.18 비극을 거쳐 87년 6월항쟁으로 형식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국내외로부터 받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시기의 경제발전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치단결한 위대한 국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을 모두 이룬 20세기 유일한 국가로 우뚝 서게 된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10년은 경제의 신탁통치 격인 IMF 관리체제를 경험하며 국가경제의 추락과 회복을 겪는 시기와 일치한다. 매년 억대의 적자를 끌어안고도 기적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생존을 해오던 코리안심포니였지만 다른 기업이나 기관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전혀 하지 않는 쌍용그룹은 외환위기를 맞아 그룹이 해체되는 비극을 겪었고, 그에 따라 용평 서머 뮤직캠프 · 페스티벌도 중단의 아픔을 겪게 되는 동시에 코리안심포니의 야심찬 사업들의 젖줄이었던 지원금도 끊어졌다. 생존 자체가 절박해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창단부터 위대한 꿈을 함께 꾸었던 동지들이 하나둘씩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오케스트라를 떠나는 모습 또한 보아야 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스포츠 명언처럼 포기하지 않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에게 2001년 3월 재단법인화와 함께 예술의전당 상주오케스트라 지위가 주어졌고, 이를 통해 흔들리는 위상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다. 그러나 목숨보다도 아끼던 오케스트라를 떠나보낸 홍연택은 사람의 에너지를 다 소진했는지 두달 후 타계한다.

구심점을 잃은 코리안심포니는 흔들렸고, 운영과 처우 문제로 내부 혼란을 겪는다. 2003년 혼란의 수습을 위해 초대 이영조의 뒤를 이어 2대 이사장이 된 김민은 수습에 온 힘을 기울였고 2005년 예술의전당 사장이 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이사장을 겸하는 쪽으로 정리된다.

진정한 친구는 함께 고난을 겪어보아야 안다고 했다. 코리안심포니의 단원들과 후원자, 팬들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결국 함께 잡은 손을 놓지 않았고, 다가오는 새로운 10년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다시 기초를 다졌다.

창단 10주년 의욕적인 재정비와 환경의 변화

의욕적으로 첫 10년의 여정을 마치고 두 번째 10년으로 접어든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에게 이 시기는 국내외적으로, 또 악단 내외적으로 조정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 1989년 쌍용그룹의 지원 개시와 더불어 의욕적인 대형 이벤트들을 시작했다. 그중 용평 서머 뮤직캠프 · 페스티벌은 국내 음악계와 교육계의 수요를 정확히 짚어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안착했지만, 국민대화합을 위한 5,000명 합창연주회는 2번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연간예산 이상으로 큰 비용을 들여 추진한 녹음사업은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실적만 기록하면서 지지부진하였다. 1991년 CD 5장 세트 세계 명성가곡 선집, 1992년 CD 5장 세트 한국 명가곡 선집, CD 2장 세트 성가의 밤 연주실황, CD 6장 세트 복음성가, CD 30장 세트 한국찬송가 대전집을 차례로 내놓았지만 시중의 반응은 달랐다. 한국가곡은 70년대 엄정행이 몰고왔던 열풍 이후 인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던 시기였고, 복음성가 쪽에서는 '경배와 찬양' 스타일의 밴드음악이 확산되기 시작하던 터라 역시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던 시기였다. 한국찬송가대전집이야말로 야심찬 기획이었으나 교회들의 구매 열기는 뜻밖에 달아오르지 않았다. 1993년 후반부터 연주 이외의 다른 활동이 다소 위축된 분위기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창단 10주년을 맞이한 1995년 2월 1일 전봉초 선생의 뒤를 이어 2대 이사장으로 이세중 선생이 취임하면서 코리안심포니는 분위기의 반전을 시도한다. 음악계의 거물이었던 전임자와는 달리 이세중 이사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임기를 바로 마치고 장기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활동중이었던 사회 명망가였다. 1995년 약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이슈에 응답하거나 사회단체와의 협업으로 하는 공연들이 많아졌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저변을 넓혀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은 이렇게 이어졌다.

1995년 4월 1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10주년 기념음악회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45명의 단원으로 시작해 75명의 유급 단원을 거느리게 된 코리안심포니는 홍연택의 지휘로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을 연주했다. 이규도(소프라노), 김신자(메조소프라노), 성남시립합창단, 한양대음대합창단 등 300여 명의 출연진이 함께 한 이날의 연주는 5악장에 나오는 '삶을 위해 나는 죽지 않으리라'라는 노랫말처럼 언제나 관객 곁에 있겠다는 코리안심포니의 다짐이 됐다. 공연 팜플렛에 두 개의 의미있는 글이 실려있어 그대로 옮겨본다.

인사말 오직 음악에 대한 열정만으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홍연택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교향악단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창단 10주년을 맞는 자리입니다. 10년전 이 땅에 처음으로 순수한 민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동분서주하던 때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무량한 감회를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은 한 해 한 해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궁핍한 재정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단원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오직 음악에 대한 열정만으로 서로 의지하며

위로하면서 보다 나은 예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 교향악단을 밀어주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바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자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갓 걸음마를 배워 한발씩 걸음을 떼는 듯 한데 더 먼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더욱 무거울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못다한 인사를 드리며 부족한 언변으로 감사의 뜻을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간에 계속 베풀어주셨던 사랑을 보내주셔서 성년의 완숙함으로, 세계 굴지의 오케스트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간교향악운동으로 이룩한 새로운 지표, 피나는 노력으로 이룩한 창단 10주년

김형주 한국음악평론가협회장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그 나라가 육성한 교향악단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적 관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향악단이 방대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작업이자 그를 육성할 수 있는 정신문화의 오랜 역사와 전통, 이에 사회여건의 토양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향악운동은 고도의 정신문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국력의 총체적인 집약체입니다. 그러기에 구미의 선진국들은 앞을 다투어 교향악단 육성정책을 국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국력을 기울여 길러왔고 투자해 왔습니다.그 결과 오늘날 선진국들은 우수한 교향악단을 보유하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국내 정치권이나 행정권의 인식부족도 그러하려니와 교향악단이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 사회여건이나 토양이 조성되지 못했고 경제 일변도의 정책에 밀려 교향악운동이 설 땅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85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황무지에서 교향악단이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연주할 때 잠시 모였다가 끝나면 흩어지는 아마추어 단체가 아니라 전문 연주인이 모인 직업단체로 매월 보수를 받는 상설 전문 연주단체로 말입니다. 국립이나 시립 같은 행정기관에 소속된 단체도 운영이 어려운 마당에 순수한 민간단체로 그것도 재단설립이나 재원이 보장된 것도 아닌 맨주먹으로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무모하리만큼 시작한 모험에 당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 못 가 문 닫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쓰러지지 않고 버티어 왔고 민간교향악운동의 새로운 지표를 세운 당당한 교향악단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는 확실히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10년 세월 하루같이 홍연택 감독을 비롯한 운영진, 그리고 단원 모두가 강인한 의지와 피나는 노력으로 이룩한 값진 결과입니다. 특히 홍연택 감독과 단원들의 합주훈련은 물론이고 재원 염출을 비롯한 운영 전반에 걸쳐 노심초사, 동분서주하는 모습은 정말 눈물겨운 바가 있었습니다. 정부를 비롯 행정기관을 찾아다니며 행정지원을 청원하고 각 기업체를 쫓아다니며 재정지원을 호소하는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그 집념에 머리가 수그러졌습니다. 결국 그는 쓰러져 병원 신세를 몇 번 지기도 했으나 그의 이 형극의 길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고 이 순간에도 작업은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년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간 여러 어려운 장애물도 있었고 걸림돌도 생겼으리라 생각되나 지난 해 주 스폰서였던 쌍용그룹의 지원중단 설은 가장 어려웠던 시련중의 하나였지 않나 생

각됩니다. 한 때 단체의 해체설까지 나올 정도로 극한 상황까지 갔으나 다행히 쌍용그룹의 지원계속 결정으로 다시 소생하게 되어 음악계를 비롯,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다행이다', '잘 됐다', '잘 했다' 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어 쌍용그룹에 대한 찬사와 환영의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홍보효과가 있었다면 밑 없는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틀림없이 독에는 밑이 있다고 이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 속에 기업이 존재하고 국민의 문화의식이 향상되어야 기업이 산다는 불가분의 등식을 생각한다면 기업계의 음악단체 지원은 필연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프로 운동선수 몇 사람의 계약금만 가지고도 8,90명의 연주인이 활동하는 교향악단 하나를 운영할 수 있고 그 홍보효과는 몇 배의 방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결코 밑 없는 독에 물 붓기가 된다고 아쉬워 할 것이 못 됩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정말 감개무량하고 장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튼 역사적으로 최초의 민간 직업 교향악단이라는 명분도 그러려니와 몇 가지 의미 부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첫째는 민간 직업 교향악단도 우리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제 여타의 민간 악단이 코리안심포니에 자극과 용기를 얻어 그후 많은 창단을 보게 된 실제 상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코리안심포니가 민간 교향악운동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지표를 열어주었다는 점입니다. 세째로는 코리안심포니가 단시일에 합주기능이나 운영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와 전체 교향악계의 규범이자 활력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로는 교향악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악단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개선해왔고 바꿔놓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주기능 면에서 단시일에 선배인 서울시향이나 KBS교향악단을 따라잡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은 실로 경이적입니다. 그렇다고 이들 선배 악단을 크게 앞지를 정도로까지 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코리안심포니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야를 넓혀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명실공히 국제 수준을 갖는 세계적 교향악단으로 나가기를 빕니다.

이상만 음악평론가는 예전에 한 좌담에서 코리안심포니의 존립으로 비로소 대한민국에 교향악문화가 정착되고 교향악단 경영이 문제로 제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그 사례로 전후 영국에 공공지원을 받는 로얄필, BBC심포니가 있을 때 민간 악단인 런던심포니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생겨 교향악문화에 활력이 생겼던 것을 들고 있다. (런던심포니는 유한합자회사 형태의 독립기업이다.) 신일본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창단 사무국장이 재정문제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를 들어 민간 교향악단 경영의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다며 교향악단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KBS향과 서울시향의 양대 악단, 그리고 지방의 시립교향악단들의 타성화라는 걸림돌은 민간 악단과의 건전한 경쟁관계만이 교향악 생태계의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복지의 필수요소라고 주장했다.
1995년 교향악축제를 살펴보면 시립교향악단들 외에 민간 교향악단으로 서울 로얄심포니, 한국심포니, 뉴서울필하모닉, 서울아트심포니, 서울아카데미심포니, 서울심포니에 코리안심포니까지 총 7개의 악단이 참여하고 있다. 코리안심포니의 생존 및 활약에 힘입어 연주행사 때만 잠깐 모이는 페스티벌 성의 오케스트라들이 저마다 상설 오케스트라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1996년

1월 21일~2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청소년을 위한 겨울방학음악축제

2월 23일 국립극장 대극장 김두완 박사 작곡 50주년 기념 아가페 코랄 연주회
지휘 김명엽 소프라노 박경신 최인애, 알토 박영선
테너 김선식 최태성, 바리톤 조인원

3월 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88회 정기연주회 '창단 11주년 기념연주회'
지휘 홍연택 테너 박치원 메조소프라노 김신자
말러 교향곡 제10번, '대지의 노래'

4월 8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96 부활절 기념음악회
지휘 김명엽 소프라노 박경신 테너 최진호 베이스 김윤식 CBS연합합창단

5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90회 정기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지휘 박은성 피아노 고명주 박주연, 플루트 이수진, 하프 김서원
차이코프스키 이탈리아 기상곡, 멘델스존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모차르트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5월 20일~23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글로리아오페라단 창단 5주년 및
예수탄생 2000년기념 제7회 정기공연 '삼손과 데릴라'

7월 4일 리틀엔젤스 예술회관 제70회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유망주를 위한 음악회
지휘 박은성 플루트 김정은 첼로 홍주완
글라주노프 장엄 서곡,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제2번
보로딘 '이고르공' 서곡, 생상스 첼로 협주곡 제1번

7월 14일~28일 용평리조트 제8회 용평 뮤직캠프 · 페스티벌
예술감독 홍연택 예술부감독 최승한
교수진 바이올린 아라 보그다니안 (모스크바 국립음악원 교수)
비올라 라이너 목 (쾰른 국립음대 교수)
첼로 율리우스 베르거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제 하계음악학교 및 마인츠 국립음대 교수)
콘트라베이스 레프 라코프 (모스크바 국립음악원 교수)
피아노 존 오코너(아일랜드 왕립음악원 교수)
성악 미뇽 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 심사위원 및 맨하탄 음대 교수)
플루트 안드라쉬 아도리안 (쾰른 국립음대 교수)
클라리넷 발터 뵈이켄스 (로테르담 음악원 교수)
피아노 반주교수 백경화, 신민자, 이현자, 조양명

8월 31일 지방순회연주 사랑의 음악여행 광주공연

9월 7일 지방순회연주 사랑의 음악여행 울산공연

9월 12일~15일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발레단 제85회 정기공연 '쁘띠빠 명작발레의 밤'

10월 1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술의전당이 제공하는
재외유명연주자 초청시리즈 제7회 허트리오 초청연주회

11월 2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EBS 개국 6주년 기념음악회
지휘 금난새 바이올린 김현미 색소폰 이희선 소프라노 박미혜
메조소프라노 장현주 테너 신동호 바리톤 최현수 서울필하모닉 오페라코러스
번스타인 '캉디드' 서곡,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4번, 사라사테 치고이네르바이젠 외
정기 9회 오페라 발레반주 49회 청소년음악회 5회 특별 기타연주 23회

1997년

3월 1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국제전자센터 개점 축하 신원에벤에셀앙상블 정기연주회
지휘 최승한 사회 장은영
신원에벤에셀앙상블, 대학생연합합창단

4월 1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7 교향악축제
지휘 카를로 빨레스끼 첼로 이종영
푸치니 '마농 레스코' 간주곡,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브루크너 교향곡 제7번

4월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98회 정기연주회 '창단 12주년 기념연주회'
지휘 홍연택 테너 최진호
말러 교향곡 제9번, 브리튼 세레나데

5월 10일
충남대학교 대운동장 젊음과 꿈이 있는 사랑의 음악여행
지휘 금난새 소프라노 박정원 테너 신동호
클라리넷 이창수 마림바 정지혜
가수 김완선, 김돈규

5월 31일
동해시 종합경기장 동해시민을 위한 사랑의 음악여행
지휘 박은성 소프라노 박정원 테너 신동호
트럼펫 퀼리노프 바이올린 피호영
가수 김완선 김돈규

7월 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00회 정기연주회
지휘 박은성 피아노 에리카 킬혀
바그너 '방황하는 화란인' 서곡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4번
슈트라우스 교향시 '영웅의 생애'

7월 13일~27일
용평리조트 제9회 용평 뮤직캠프 · 페스티벌
예술감독 홍연택 예술부감독 최승한
교수진 바이올린 강동석 (재외 유명연주자)
피아노 에리카 킬혀 (데트몰트 국립음대 교수)
성악 신시아 호프만 (맨하탄 음대 교수)
플루트 레이몽 귀오 (로마 아카데미음악원 교수)
피아노 반주교수 신민자, 정혜선, 조양명

10월 1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코리아환타지의 밤 '97 안익태음악회
지휘 박은성 테너 박세원 첼로 이소정
성남시립합창단, 대학연합합창단
안익태 한국환상곡, 니콜라이 '윈저의 명랑한 아낙네들' 서곡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외

10월 18일
국립극장 대극장 장충동 국립중앙극장 개관 24주년 기념콘서트 가을나비의 비행
지휘 최승한
소프라노 박경신 배기남 메조소프라노 김현주
테너 김영환 류재광 바리톤 고성현
비제 '카르멘' 서곡, 레온카발로 '마티나타', 라라 '그라나다' 외

11월 18일
문예회관 대극장 제29회 서울음악제 창작관현악의 밤

지휘 최승한
신유진 '아악', 박영근 '떠남, 상실, 그리고 돌아옴'
길일섭 '관현악을 위한 8월의 전주곡', 백의현 교향시 '빛'

12월 3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5인의 명연주자 갈라 콘서트
지휘 박명기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영환 바리톤 최현수
베이스 김요한 바이올린 이성주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브람스 헝가리 춤곡 제5번 외

12월 16일~1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국립합창단 제80회 정기공연
사랑과 평화의 하모니 '송년음악회'
지휘 이상길
레빗 페스티벌 미사, 루터 마니피카트,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곡

12월 22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97 쌍용그룹 제9회 송년음악회
지휘 금난새
소프라노 박미혜 메조소프라노 김정화 테너 신동호
베이스 김요한 마림바 정지혜 바하합창단
슈트라우스 '박쥐' 서곡
사라사테 '치고이네르바이젠'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4악장 외
정기 8회 오페라 발레반주 30회 청소년음악회 4회 특별 기타연주 23회

단단한 합주력과 어느 지휘자든 빠르게 호흡을 맞추는 적응력, 어떤 환경에서도 일정수준 이상의 음악성을 발휘하는 능력 등의 내부적인 강점과는 달리 외부적 환경은 달랐다. 90년대 중반까지 쾌속질주를 하던 대한민국 경제는 97년부터 급격히 흔들렸다. 과도한 수출의존 경제와 차입의존 기업회계 위에 세워진 고도성장은 외환의 흐름이 바뀌자 일거에 무너졌다.
국제금융투기자본의 음모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경제에 걸맞는 금융자유화 스탠다드를 명분으로 1997년 태국이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매일 시세가 바뀌는 변동환율제로 바꾸면서 태국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연쇄적으로 통화가치가 30~40% 평가절하 되면서 신용경색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신용불안은 국제자본의 회수 움직임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단기외채시장에서의 차입연장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각국정부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강도 높은 금융개혁을 요구받았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졌으며,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는 1999년에 들어서야 진정국면을 맞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각국의 견실하던 기업들이 국제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7년 한보철강이 5조 짜리 제철소를 4조를 빚내 건설하려다 부도를 일으켰다. 기아그룹, 한신공영 등 대기업들이 뒤이어 연쇄부도를 일으켰다. 급격한 외환유출이 일어나고 해외에 지급해야 할 달러가 없어 급기야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자,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거의 신탁통치에 가까운 금융개혁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해 12월에는 환율이 한해 안에 2배인

1달러당 2천원으로 폭등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파산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 뇌물을 바치고 정치권이 은행대출을 주선하는 이른바 정경유착 · 관치금융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생존을 위한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의 여파로 문을 닫은 회사와 공장들이 속출했고 다음해인 1998년에는 대량실업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대한민국은 김대중 정부 시대가 시작되면서 금모으기 운동 등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견디며 노력을 기울인 결과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은지 3년 8개월이 지난 2001년 8월 23일, 1억 4천만 달러를 상환함으로써 IMF 체제에서 벗어나는 세계 최단기간의 모범적인 외환위기 극복 사례를 기록했다. 기업체질은 강화되었으나 그 후로도 실물경제 불황은 지속되었고 2003년에는 카드대란을 겪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창업 60주년을 바라보고 있던 쌍용도 이 외환위기에 휩쓸렸다. 1939년 김성곤(金成坤)이 대구에서 설립한 삼공유지(三共油脂)를 모태로 1940~1950년대의 면방직, 보험, 무역, 1960년대의 시멘트, 제지, 해운, 1970년대의 정유, 중공업, 종합상사, 건설, 1980년대의 컴퓨터, 증권,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기초기간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한때 용평리조트를 포함해 30개 기업을 거느리던 기업집단이었다. 육영사업과 국내 문화진흥사업으로 국민대학교와 현풍중고교, 성곡(省谷)언론문화재단, 성곡학술문화재단, 성곡미술문화재단, 그리고 대구문화방송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때 재계 서열 6위에까지 오를 만큼 승승장구했던 쌍용그룹이었지만 뚜렷한 주력사업이 없는데다 무리한 자동차 산업 진출과 외국 자동차 회사 인수 이후 1992년부터 쌍용자동차에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함과 동시에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된 것이 문제였다. 마침내 외환위기가 닥쳐오자, 그룹 전체가 위기를 맞이했고 결국 1997년 쌍용제지를 시작으로 2004년 3월 쌍용양회와 쌍용정보통신만 남게 되면서 쌍용그룹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1989년 그룹 창업 50주년을 계기로 코리안심포니를 3년간 3억원씩 아무 조건 없이 후원하기로 계약한 쌍용이었다. 이 자금으로 홍연택은 오케스트라를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자 했다. 코리안심포니와 쌍용그룹의 공동 개최로 운영된 용평 뮤직캠프 · 페스티벌은 총 9회 동안 170여명의 교수들이 1,600여명의 학생들을 수료시켰다. 쌍용그룹은 오케스트라 지원금과는 별도로 행사 예산으로 매년 3억 원가량을 지원했다. 이 덕분에 당시 300여만원 대의 해외연수를 나가야 했던 학생들은 평균 10만~15만 원 안팎의 비교적 싼 참가비로 실력을 키울 수 있었고, 1년 전부터 출연을 섭외한 유명 강사진의 성실한 강의가 참가자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졌다.
코리안심포니는 1989년과 2000년 5,000명 대합창연주회를 기획 실행할 수 있었고, 레코딩과 음반으로 자립재정을 실현해보고자 시도해 볼 수 있었다. 1990년 이탈리아 출신 지휘자 카를로 팔레스키를 수석 객원지휘자로 맞이했고, 단원 여섯 명을 보강해 드디어 정식 3관 편성 체제를 갖추게 됐다. '후원하되 간섭이 없어' 문화예술 지원의 가장 이상적인 사례로 칭송을 받던 쌍용의 지원으로 코리안심포니는 날개를 단 듯 보였다.
계약 기간인 3년이 지난 후에도 쌍용은 매년 코리안심포니에 대한 후원을 연장했고, 1995년까지 총 24억 원을 지원했다. 이 기간 중 재벌기업들은 거의 이름을 걸고 하던 문화사업을 접었다. 대우합창단이 가장 먼저 사라졌고, 럭키금성무용단이 해체되었으며 신동아그룹이 운영하던 횃불합창단도, 방송국이 하던 CBS합창단도 같은 운명의 길을 걸었다. 이후 기업이 직접 문화예술단체를 설립 운영하는 일은 없었다.

1995년 말 쌍용그룹과 코리안심포니는 어느 때보다 지원 계약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4월 그룹 총수가 김석원 회장의 동생인 김석준 회장으로 바뀐 데다 코리안심포니와의 재계약도 세 차례 연장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사내에서 지원반대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결국 지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오히려 지원금이 증액되었다. 1994~1995년에는 4억 원, 그리고 1996~1997년엔

전년 대비 40% 증액된 5억5000만 원이 지원됐다. 1998년 쌍용은 IMF 관리체제 하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안심포니에 2억 원을 지원했으나, 그것으로 마지막이었다. 쌍용그룹은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 모든 지원을 멈추게 된다.
1995년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및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를 목적으로 문화예술 후원중 또는 후원의도가 있는 기업들이 모여 한국메세나협회가 발족되었다. 현재 20주년을 넘긴 이 단체에는 230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다. 쌍용은 초기부터 참여해온 회원사로 다른 회원사들에게 문화예술지원의 모범답안을 보여주었다. 문화선진국은 창작과 공연, 그리고 후원과 감상이 균형을 맞추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쌍용의 코리안심포니의 아름다운 동행은 10년만에 막을 내렸지만 이후 가장 바람직한 기업과 문화의 관계를 정립했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이 없어도 음악은 멈출 수 없다

쌍용그룹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멈추자, 그룹이 코리안심포니에 제공하던 한해 최대 10억에 이르던 유무형의 모든 지원도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1998년 후원회의 개인후원자들에게도 그 어려움을 비켜가지 않았다. 당장 나가야 할 단원급여 포함 운영비는 1998년 연초부터 위기경보를 울리고 있었다. 일찍이 늘 만성적인 재정부족에 시달리며 언제 해체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코리안심포니에게 이번 외부로부터 닥쳐온 외환위기의 물결로부터 생존하는 것은 미증유의 도전이었다. 그러나 코리안심포니는 외부 연주의뢰가 속속들이 취소되는 가운데에도 이미 결정된 음악회를 거르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도 공연장을 찾아주는 소수의 팬들에게 최상의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남아있는 마지막 의무인 듯 최선을 다했다.

1998년

2월 1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개관10주년 기념음악회

3월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05회 정기연주회 '창단 13주년 기념연주회'
지휘 홍연택
소프라노 김인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시 '맥베드', 4개의 마지막 노래,
교향적 환상곡 '이탈리아에서'

4월 1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8 교향악축제
지휘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첼로 이숙정
박영근 관현악 '비가',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교향곡 제6번 '비창'

6월 1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소프라노 박미혜 음악회

6월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테너 김영환 음반출시 기념 독창회

8월 2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코리안심포니와 친구들
'이 작은 무대가 코리안심포니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휘 정명훈
소프라노 김영미 전효신
테너 임정근 바리톤 고성현 김장현 베이스 김요한
푸치니 '라보엠' 하이라이트,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4번

8월 30 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10회 정기연주회 지휘 임원식 피아노 송진민 우종갑 관현악을 위한 전주곡,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교향곡 제1번
9월 16 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선음악회 '베토벤의 밤' (실업자 지원기금 모금) 지휘 강동우 피아노 김대진 베토벤 코리올란 서곡, 피아노 협주곡 제3번, 교향곡 제7번
9월 27일~10월 2일	국립극장 대극장 국립오페라단 제91회 정기공연 정부수립 50주년 오페라 50주년 기념공연 '순교자'
10월 21 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러시아 명지휘자 알렉세예프 알렉산더 초청 제112회 정기연주회 지휘 알렉세예프 알렉산더 피아노 박수현 바르톡 피아노 협주곡 제3번, 차이코프스키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서곡 교향곡 제5번
11월 18일	국립극장 소극장 제30회 서울음악제 창작관현악의 밤 지휘 박은성 김서윤 '가을, 겨울, 봄, 여름밤', 조훈희 관현악을 위한 '멘토' 박재은 '관현악을 위한 범가', 이만방 '관현악 시선' 서경선 관현악을 위한 '궁성의 뜰에', 김정길 '근원형상'
10월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오페라 데뷔 30주년 기념 소프라노 이규도 독창회 지휘 김덕기
12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회 한민족 창작음악축전 지휘 최승한 김기범 교향곡 제2번, 김주풍 '기의 예찬', 안승필 교향적 서곡, 임지선 '개벽'
12월 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영재초청 연주회 지휘 임헌정 정기 9회 오페라 발레반주 45회 청소년음악회 1회 특별 기타연주 15회

1998년의 약사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8월 25일 "이 작은 무대가 코리안심포니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부제가 붙은 '코리안심포니와 친구들' 공연이다. 이 공연에는 코리안심포니 단원들 외 지휘자 정명훈, 소프라노 김영미 전효신, 테너 임정근 바리톤 고성현 김장현 베이스 김요한이 함께 출연했다. 공연 팜플렛에서 의미있는 글들을 여기 옮겨본다.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뒤, 음악계에는 참으로 우울한 소식이 떠돌았습니다. 쌍용의 지원 중단으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곧 해체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들려온 소식은 모든 단원들이 월급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과 단 한 명도 그로 인해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악인들에게 코리안심포니는 더없이 좋은 음악친구입니다. 코리안심포니는 국립극장 전속 관현

악단으로서 국립오페라단과 국립합창단의 반주를 전담해 왔습니다. 자연히 우리 성악인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교향악단이 코리안심포니입니다.
이 작은 무대가 우리의 오랜 친구인 코리안심포니에게 힘이 되기를, 나아가 코리안심포니를 향한 온국민의 성원과 격려가 거대한 물결로 넘쳐나기를 고대합니다. 홍연택 감독님과 모든 단원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 김영미, 전효신, 임정근, 고성현, 김요한, 김장현

우리는 건국이후 국가적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모든 사람들이 실의에 차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문화예술계입니다. 오늘의 국가적 위기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술단체를 지원해주던 기업들도 모두들 몸을 움츠리게 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최초의 민간교향악단으로 1985년 출범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도 역시 창단 이후 최대의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련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만의 문제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같은 시련의 나날을 어렵게 지나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일제의 탄압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예술가들을 굴하지 않고 자신의 혼을 불태웠습니다. 경제발전 우선의 정책 속에서는 경제우선 논리의 그늘에서 정당하고 충분한 지원조차 없는 풍요 속의 빈곤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든 순수 문화예술단체들은 이같은 시련의 나날을 겪으며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싹터 올라오던 기업의 예술지원, 음악을 사랑하던 사람들의 후원의 손길마저 경제위기라는 한파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우리가 뿌려온 예술의 씨앗은 헛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직면한 이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알게 된 여러 성악가들은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에 무보수 출연을 제의했고, 지휘자 정명훈 씨는 이러한 취지에 동참하여 사상 유례 없이 무보수 출연 지휘를 맡아주었습니다. 예로부터 십시일반이라 하였고 한 집안의 어려움은 가장 가까운 이들이 먼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에 민간 교향악단의 재정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13년간의 어려움을 딛고 오늘의 자리에 이르른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코리안심포니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계기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각계의 많은 분들의 동참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홍연택

우뚝 선 민간교향악단의 상징

미국처럼 사회지원 제도가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럽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민간단체나 개인의 연주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거기에 정신문화는 뒷전이고 일관된 경제 우선정책과 경제대국이 선진국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 여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경시풍조가 아직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의 어려운 여건에서 오직 해보겠다는 의욕만으로 시작한 연주단체가 바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다.
재단이 설립된 것도 아니고 누가 영구히 재정보장을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무모하리만큼 무턱대고 일을 저질렀다고 할까. 교향악운동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정열을 가진 홍연택 감독을 중심으로 몇몇 동지적인 음악인들이 맨주먹으로 모인 것이다. 이리하여 13년전 1985년 3월 30일 유일한 민간 교향악단으로 황무지에서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모두 회의적인 시각으로 봤고 음악계 내에서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주변에서도 사서 고생을 한다고 말리는 사람

도 있었다. 뚝심 세고 고집 센 홍연택 감독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 몰랐다"고 토로하듯이 악단 운영이란 쇠사슬에 얽매여 기나긴 형극의 길을 걷게 된다. 악단의 존립이란 중책이 양 어깨를 짓누른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말이다.

그가 조급하게 생각한 것은 피나는 훈련으로 하루 속히 기존 악단에 못지 않은 우수한 연주기능을 만드는 악단으로 만드는 일이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짐이 되는 것은 단원들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말이 없는 홍감독이지만 "단원들의 봉급날만 다가오면 잠이 안오고 피가 마를 지경이다"라고 고충을 털어놓은 것으로도 짐작이 간다. 부단히 일감을 찾아 동분서주해야 했고 코리안심포니는 정기연주회는 기본이고 오페라, 합창, 오라토리오, 무용, 협연, 자선음악회, 기업체 연주, 지방공연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열심히 뛰었다. 아마 연간 국내 교향악단중 가장 많은 연주기록을 갖는 악단의 하나일 것이다. 그는 또한 정계는 물론 행정과 기업체를 돌아다니며 지원요청을 하고 진정도 하고 탄원도 하며 호소하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무뚝뚝하고 사교성이 없는 그가 어찌하여 자존심도 버리고 도와달라고 돌아다니며 아쉬운 소리 하고 손 내미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만 해도 신기한 일이다. 이는 오직 한가지 생각, 단체 코리안심포니를 살려야겠다는 그 집념 하나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간 과로로 몇 번 쓰러졌고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다. 코리안심포니는 그간 주된 스폰서가 지원을 중단하려고 하여 몇 차례 문을 닫을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운영진을 비롯, 후원회, 단원들이 합심해서 스폰서 측에 대한 설득작업은 물론 정계를 비롯 행정 관계 요로에 진정도 하는 노력 끝에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얼마를 투자하면 그 투자에 이윤을 붙여 회수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일 진대 눈에 보이는 이윤이 없다고 투덜대는 것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좁은 시야다. 왜냐 하면 첨단산업을 움직이는 사람도 고도의 문화의식을 갖는 사람이여야 하고 첨단제품을 구매하는 국민도 문화의식이 높아야 구매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문화의식을 누가 길러야 하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선전 홍보효과를 이윤계산에 넣어야 할 것이다.

코리안심포니는 13년의 눈물겨운 노력과 각고 끝에 이제는 민간 교향악단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선두주자로서 또한 민간 교향악단의 상징으로서 우뚝 서 있다. 그간 좌절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해산 위기도 여러 차례 부딪쳤다. 그때마다 홍 감독을 중심으로 운영진과 단원이 합심해서 피나는 노력으로 헤쳐왔다. 어느 어려움이 닥쳐와도 홍 감독을 믿고 참아주었던 단원들의 신뢰와 화합의 정신이 코리안심포니의 저력이자 오늘을 떠받치고 있는 지주가 된다. "하도 힘들어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모처럼 좋은 단원들을 만났는데 어찌 문을 닫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는 홍 감독의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코리안심포니는 많은 업적도 남겼다. 단시일에 연주기능도 급진전으로 향상시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우리나라 우수 악단으로 성장했고, 자주 연주되지 않는 바그너를 비롯, 한 작곡가의 작품을 집중시리즈로 연주하고 발굴하는 작업, 그리고 국내 작품발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기획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의 "5,000명 대합창연주회", 성가전집, 가곡집, 찬송가전집을 비롯 연주녹음의 출반 등 그밖에 많은 민간 교향악단의 창단을 유도하는 자극제 모델 케이스가 되었고,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발레단 반주를 전담하는 국립교향악단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코리안심포니는 IMF로 인하여 주된 스폰서의 지원이 중단되어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코리안심포니 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지휘자 정명훈을 비롯 출연진이 무료 출연한다니 고마운 일이며 이 운동이 널리 전개되어야 하고 나아가 연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재단법인이 하루 빨리 설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음악평론가협의회 회장 김형주

재정상황으로만 보면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아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13년을 버티어왔고 그 원동력은 음악이었다. 음악으로 단련되고 하나가 된 단원들은 1998년의 그 엄혹한 상황에서도 아무도 코리안심포니를 떠나지 않았고 월급제를 포기했다. 월급제 대신 수당제로 전환한 1999년은 코리안심포니 최대 위기의 해였다. 연주회마다 악장 20만 원, 수석 15만 원, 평단원 10만~13만 원을 공연수당으로 받으며 생활을 꾸려나갔다. 한국음악평론가협의회는 제7회 국민음악상을 코리안심포니에 안기며 그동안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한국 교향악운동의 르네상스에 기여해온 공로를 치하했다.
하지만 위기는 오케스트라의 유연성과 외연을 넓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사실 명지휘자 스토코프스키가 이끄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경우 선구적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판타지아'에 직접 출연했고 미국 오케스트라들은 물론 런던심포니 등 유럽의 유수한 교향악단들도 '미션' 등 경영과 홍보 측면에서 수많은 영화음악을 녹음해왔다. 1999년 코리안심포니는 영화 '쉬리'의 O.S.T를 맡으며 이전까지 신시사이저나 컴퓨터 음악, 소규모 실내악이 주를 이루던 국내 영화음악 풍토에서 '처음'이라는 수식어를 얻는다.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오케스트라의 인지도 역시 높아졌고, 이후 영화와의 인연은 '태극기 휘날리며'로 이어진다.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절, 작은 온기라도 함께 뭉치면 따뜻해지고 약한 나무젓가락 하나도 묶음이 되면 부러지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함께 악단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돈이 없지 음악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단원 모두가 영업사원처럼 움직였다. 고난의 세월이 얼마나 길어질 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함께 할 동지들이 있어서 계속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1999년

1월 30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제7회 국민음악상 시상식
2월 2일~7일	국립극장 소극장 제1회 소극장 오페라축제 '결혼', '델루조 아저씨'
3월 17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는 조인트 리사이틀 이병두-이재환
4월 1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9 교향악축제 지휘 박은성 피아노 김형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말러 교향곡 제5번
5월 20일~6월 4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99 서울오페라페스티벌 윤이상 '심청',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7월 1일	리틀엔젤스예술회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지휘 박은성 피아노 고경아 고경민
9월 4일~5일	국립극장 대극장 오페라 갈라 1999 지휘 최승한, 김덕기 소프라노 박정원, 박경신, 곽신형, 유미숙, 김향란, 배기남, 신지화, 이은순, 이규도 메조소프라노 김신자 테너 신동호, 강무림, 박성원, 이현, 안형일, 김영환, 김태현, 박세원 바리톤 변병철, 김관동, 김명지, 김범진, 고성현, 장유상, 김성길 베이스 김인수, 오현명
9월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9 서울국제음악제 지휘 금난새 바이올린 엘리사 리 콜죠넨 임지선 '개벽', 글라주노프 바이올린 협주곡, 브람스 교향곡 제1번

9월 25일~10월 10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아름다운 꿈 오페라페스티벌
구노 '파우스트'

10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8회 '99 사랑과 영혼의 노래
지휘 장윤성
첼로 다니엘 리 바하합창단 새사람합창단
드보르작 '침묵의 숲', 차이코프스키 '페초 카프리치오소',
브루흐 '콜 니드라이', 파야 '불의 춤' 외

12월 4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호세 카레라스 내한연주회 '밀레니엄 콘서트'

12월 31일~2000년 1월 1일
새천년맞이 특별기획공연 국립극장 새천년 문화축제
정기 4회 오페라 발레반주 56회 특별 기타연주 8회

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의 출범과 예술의전당 상주오케스트라

밀레니엄, 새로운 천년은 세상 모든 컴퓨터가 먹통이 될 수도 있다는 Y2K의 위협 속에 시작되었지만, 새 천년의 첫 해가 떠올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이란 실제 환경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웬지 희망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 코리안심포니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새 천년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려는 문화부의 정책에 따라 국립극장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예술의전당이 비영리재단법인에서 특별법인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국립극장 전속단체 가운데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이 재단법인으로 독립하여 예술의전당 상주단체로 이동하고 국립극장은 국립극단,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4개 단체가 남아 전통예술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 교향악단이자 사단법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독립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이 모두 예술의전당으로 옮기는데, 그들 단체와 전속 반주 계약이 되어있는 코리안심포니만 국립극장에 남아있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했다.

새해 벽두부터 코리안심포니는 예술의전당에서 가장 많은 연주를 하는 단체로 떠올랐고, 정부와 예술의전당, 코리안심포니는 상반기 내내 이 문제로 회의와 조율을 거듭한 결과 마침내 5월 30일에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를 예술의전당 상주 오케스트라로 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예술의전당은 2001년부터 문화부에서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아 단원 인건비를 제외한 대관료 · 홍보비 · 기획 공연 출연료 명목으로 코리안심포니에 연간 10억 원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코리안심포니의 법인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키로 한다. 당시 예술의전당에서 배포한 발표문에는 서로의 이해와 필요가 어떻게 만났고 향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계획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예술의전당, 코리안심포니와 상주계약 체결

2000년 5월 30일 예술의전당(사장 최종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 교향악단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이사장 이세중)와 상주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주계약으로 예술의전당이 기획, 제작하는 모든 공연의 음악부문은 코리안심포니가 맡게 되었으며 코리안심포니는 민간 교향악단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기관을 홈씨어터로 하는 교향악단이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재단법인 예술의전당과 사단법인 코리안심포니 두 법인체가 체결한 약정은 다음 사항을 담고 있다.

· 코리안심포니는 예술의전당이 오케스트라를 필요로 하는 공연을 전담한다.
· 예술의전당은 코리안심포니의 사무공간과 연습공간을 제공한다. 코리안심포니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예술의전당 내에 상주공간을 마련하여 완전 이주한다.
· 코리안심포니는 예술의전당과 합의하여 상임지휘자를 조속히 선임하여 상임지휘자 중심으로 운영한다.
· 코리안심포니는 한국 대표기관 상주 교향악단의 이름에 걸맞게 연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예술의전당 및 코리안심포니의 대표를 포함한 코리안심포니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향악단의 발전을 도모한다.
· 명칭은 그대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로 한다.

코리안심포니는 1985년 창단한 이래 1,000여회의 연주활동을 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 교향악단이자 최초의 민간 직업 교향악단. 그동안 많은 지휘자와 연주자를 배출하고 교향악단 창단 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우리 교향악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연주력에 대한 평가와 음악계에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코리안심포니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후원기업의 지원이 끊어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단부터 현재까지 홍연택 씨가 음악감독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으며 상임지휘자는 공석 상태. 지난 87년부터 국립극장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해온 코리안심포니는 이번 예술의전당 이전으로 전당 기획공연 및 국립오페라단과 발레단과의 협연이 활동의 중심축을 이루게 된다.

한편 예술의전당은 음악당 개관 초기인 1988년부터 상주 교향악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몇 차례 독자적인 교향악단 운영을 도모한 바 있었으나 그때마다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상주 교향악단 창단은 좌절되었다. 1993년 오페라하우스를 개관하면서 본 궤도에 오른 예술의전당은 음악당의 연주회 뿐만 아니라 발레, 오페라 등 기획공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교향악단은 점점 중요해졌다. 더욱이 지난 1월 국립오페라단, 발레단, 합창단 등 서양음악 장르를 주로 하는 3개의 국립예술단체들이 국립극장에서 예술의전당으로 베이스를 옮기면서 예술의전당의 상주 교향악단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외국의 경우에도 국제적인 수준의 연주장은 수준급 교향악단이 직접 운영하거나 상주 또는 전속의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뉴욕필(링컨 센터의 에버리 피셔 홀), 베를린필(베를린필 음악당), 빈필(무지크페라인잘), 런던심포니(바비칸센터 콘서트홀) 등 연주장은 예외 없이 유명 교향악단의 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페라하우스 역시 반주를 위해 전속 또는 계약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동안 교향악단의 연주가 필요한 연간 40여회의 기획공연에 매번 외부 교향악단들을 초청해온 예술의전당은 코리안심포니의 상주계약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연을 기획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술의전당은 코리안심포니와 함께 음악교육 프로그램, 대중적인 교향악 프로그램, 축제 프로그램, 야외 콘서트, 그리고 다양한 실내악 프로그램 등 기회공연의 폭을 넓혀가면서 동시에 연주력으로도 최고의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과제를 안았다.
예술의전당과 코리안심포니는 이번 상주계약으로 새 천년 한국 음악계가 또 한 번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00년

1월 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콘서트 2000 신년음악회
지휘 곽승
첼로 지안 왕 피아노 김윤지
번스타인 '캔디드' 서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우종갑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외

1월 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0 신년음악회
지휘 박은성
바이올린 이성주 한울림예술단
에네스쿠 2개의 루마니아 랩소디 제1번,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강준일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마당'

2월 3일~28일
국립극장 소극장 제2회 서울 소극장오페라 축제
지휘 홍연택, 정성수, 박영민, 윤상운, 김정수, 강기성, 양진모, 김홍식
국립오페라스튜디오, 코믹오페라단, 오페라무대 신, 음악친구들, 캄머오퍼21,
예울음악무대, 서울오페라앙상블

3월 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코리안심포니 초청음악회
지휘 장윤성
피아노 임상희, 이효주, 한상일 플루트 이지영
모차르트 '돈조반니' 서곡, 본 카르멘 환타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3월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19회 정기연주회 창단 15주년 기념연주회
지휘 곽승
메조소프라노 김신자 서울바하합창단 성니콜라 소년합창단
포스트혼 안희찬 박영근 관현악을 위한 '변용', 말러 교향곡 제3번

4월 5일
세종문화화관 대극장 '듣는 영화 보는 음악' 2000영화음악축제
지휘 홍원표
출연 안성기, 강수연, 박중훈, 심혜진, 한석규, 박영규, 김명곤, 이미자, 유열, 이정화
소프라노 강혜경, 신애령, 이효진 테너 강무림, 고성호, 이강호, 바리톤 최현수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대부', 노팅힐', '타이타닉', '접속',
'미워도 다시 한번', '겨울 나그네', '서편제', '8월의 크리스마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쉬리', '바보들의 행진'

4월 1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0 교향악축제
지휘 카를로 팔레스키
피아노 오경혜
우종갑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9번

5월 1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20회 정기연주회
지휘 보구슬라브 마데이
피아노 최수미
베버 '마탄의 사수' 서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 프랑크 교향곡 d단조

5월 30일
예술의전당과 상주 오케스트라 계약 체결

7월 2일~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3회 재외동포 서울예술제
지휘 함신익
피아노 김진희, 바이올린 김진수, 블루트 이혜성 소프라노 에스터 옥소리
이요한 슈트라우스 '박쥐' 아리아, 오펜바흐 '호프만의 이야기' 아리아,
라벨 '치간느', 마스네 '타이스의 명상곡',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
프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지휘 박태영 트럼펫 박은도 첼로 이상경 소프라노 루드밀라 남 피아노 배원준
훔멜 트럼펫 협주곡,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비레 '카르멘' 아리아, 김동진 '신아리랑' 외

8월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0 예술의전당 여름 가족음악축제 '베스트 클래식 2'

9월1일~3일 국립발레단 재단법인 출범 및 예술의전당 상주단체 이전 기념공연 '로미오와 줄리엣'

9월16일~19일 / 10월 6일, 8일, 18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서울오페라페스티벌 국립오페라단 '피가로의 결혼'

9월 23일, 26일 / 10월 7일, 15일, 20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서울오페라페스티벌 국제오페라단 '토스카'

10월 13일, 17일, 21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서울오페라페스티벌 국립오페라단 '심청'

10월 2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10월 음악축제 신영옥 독창회

10월 27일~29일 국립극장 대극장 제3회 ASEM 정상회의 서울 개최 기념 특별공연 오페라 '시집가는 날'
정기 5회 오페라 발레반주 50회 특별 기타연주 14회

2000년 3월 30일 희망 속에 열린 15주년 기념연주회에는 김형주 한국음악평론가협의회 회장과 문일근 음악평론가의 글이 실렸다. 문일근 6인비평가그룹 간사의 글을 여기 옮겨본다.

세계 속의 코리안심포니를 기다리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지난 1985년 홍연택 선생을 상임지휘자로 맞으며 창단된 지 어언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의 15년은 청소년기이지만 교향악단의 15년 연륜은 성큼 원숙의 경지로 치달아가는 시기다. 그리고 그 코리안심포니의 '15년 연륜'은 이미 원숙한 음악미를 구사하고 있다.
한 교향악단의 성장배경에는 직간접적으로 문화적, 사회적인 여건이 많은 작용을 한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성원이 크면 클수록 반대급부로 사회에 미치는 여파는 더욱 지대하다. 우리의 사회적 현실이 아직 교향악운동을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런 어려움 중에도 코리안심포니의 15년을 한국 교향악의 중심에 세우기까지의 고충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으뜸은 단연 경제적 어려움이었을 것이다. 단원들에 대한 예우나 오케스트라를 위한 장소 확보 등에서부터 그 어려움은 시작된다. 특히 교향악의 특성상 연습시간이 많을수록 음악미나 앙상블능력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조성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기 마련이다. 음악만을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시켜도 모자랄 그 귀한 시간을 환경조성에 빼앗기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코리안심포니가 그동안 들려준 음악미는 항상 최상의 아름다움이었다. 특히 각 작곡가의 작품에 따른 성격이나 음악적 미의식을 올바르게 전해줄 수 있었던 사실은 한국음악계를 위해서나 음악미의 올바른 가치전파

를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것이었다. 물론 그런 모든 것이 지휘자 홍연택 선생을 위시한 단원들의 최고의 음악을 위해 자신을 불사르려는 의지의 소산이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코리안심포니의 진정한 위상은 한국 오케스트라의 르네상스를 선도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98년말 불어온 IMF 사태로 인하여 그동안 다소 침체기를 맞기는 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도 이제 민간 오케스트라가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오케스트라에 관심 있는 모두에게 심어준 것이다. 그것은 IMF 이전까지 수없이 생겨난 그 많은 오케스트라가 그 사실을 말해준다. 그 표본이 코리안심포니요, 척박한 환경과의 고통스러운 싸움의 선봉에 서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었던 것도 코리안심포니였다. 특히 각 시나 KBS 등에서 지원하는 교향악단이 비교적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음악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음악적 완성도라는 면에서 코리안심포니가 보여준 모범은 기대 이상이었다. 그것은 예술가들의 긍지를 꿋꿋이 지켜나가려는 단원들의 의지와 홍연택 선생의 열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 국내 음악계에 우뚝 선 코리안심포니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니 돌이켜 볼 때 코리안심포니의 15돌은 매우 뜻깊은 의미를 한국음악사에 새길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 정의가 이제는 미래학자나 사회학자들만의 지론이 아니고 일반인들에게도 보편화 되어있는 당연한 현실이다. 특히 서구인들은 그 나라 그 도시 문화의 척도를 살필 때 오케스트라의 질적 수준에 큰 비중을 둔다. 이제 우리도 문화의 세기에 사는 세계 속의 민족임을 당당히 내세우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라의 활성화를 위해 거국적으로 노력할 때이다. 그것만이 우리 민족이 5000년을 문화민족으로 살아온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 우뚝 선 코리안심포니의 역할에 거는 기대와 바램은 그만큼 높은 것이다. 이제 한국 속의 코리안심포니에서 세계무대에 우뚝 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DAYLIGHT studio_ Cho Nam Ryong · Kim Sung Ryong

제2부 | 재단화와 예술의 전당 (2001~2006)

홍연택과의 이별

2001년 1월 1일, 드디어 코리안심포니가 예술의전당에 입성한다. 그리고 2월부로 문화관광부 산하의 재단법인으로 재출범한다. 초대 이사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장을 역임한 작곡가 이영조 교수가 맡고 창단 때부터 고락을 함께 하던 이운환 씨가 단장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실상 모든 운영을 떠맡다시피 하면서 15년의 긴 세월동안 코리안심포니를 지켜온 홍연택 음악감독은 그동안의 부담을 벗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좋은 일로 보이는 것이 실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홍연택 선생에게는 코리안심포니의 운영, 특히나 무겁던 자금의 책임을 내려놓은 일이 그랬다. 애지중지 키운 딸을 시집보낸 서운함 같은 것이 무척이나 컸던 모양이다. 부인 김영환 여사는 후일 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와버린 듯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집에 들어오면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회상했다. 마치 삶의 에너지가 넘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표를 잃어버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리둥절함과 허탈함이 그이를 사로잡은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역할의 축소를 두고 이제야 맘 편하게 음악감독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겠다고 덕담을 했지만 홍연택에게는 그것이 아니었다. 10년간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군사정권에 의해 하루 아침에 빼앗긴 국립교향악단의 상처가 깊게 남아있었다. 대학교수 정년 은퇴 후 6년을 포함해 15년 긴 세월을 모든 것을 던져 코리안심포니를 이끌어오며 매달 월급날이 저승사자가 오는 날 같다며 늘 마음 졸이던 그가 갑자기 그 일이 사라졌다. 좋게 해석하면 잘 키운 딸을 시집보내는 아버지이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영혼의 자식, 분신과도 같은 존재를 자신의 의지와 달리 외부의 환경에 의해 할 수 없이 넘겨주어야 했던 일이었다.

2001년 5월 17일은 한국 음악계에 통한의 날이었다. 새벽에 예술의전당 공연예술감독인 오페라연출가 문호근 씨가 사망했다. 그날 오후에는 집에서 작곡을 하던 홍연택 감독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홍핏대'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그는 음악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타협도 없이 곧은 사람이었다. 국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시절, 대개 그랬듯이 관행적으로 협연자가 인사차 보낸 돈과 케익을 다시 돌려주며 혼을 냈던 그였다. 대강 하던 연주를 싫어해 단원들의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려 개인연습과 합주를 끝없이 밀어붙이던 그였다. 나중에는 단원들이 감복하여 그저 음악의 제단에 몸과 마음을 바친 사제와도 같다며 그를 따르게 만들었던 사람이었다.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했던 그이지만 코리안심포니를 창단하고 난 후로부터는 무려 16년 동안을 한결같이 매달 단원들의 급여를 마련해주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이며 부탁을 하는 일을 마다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창단 당시부터 쌍용그룹이 후원을 마감하기까지 14년 동안 코리안심포니는 단 한 번도 단원들의 월급이 날짜가 지나 지급된 적이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라 했고 어떤 사람들은 지독하다 했다. 월간지 객석은 1994년 '한국예술의 원로를 찾아서' 시리즈 기사에서 지휘자 홍연택에 대한 기사제목을 이렇게 뽑았다. "신도 뜻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음악에의 의지와 정열".

홍연택이 세상을 떠나자 무뚝뚝한 말투와 표정, 직언에 독설로 때로는 그에게 호의를 가졌던 사람까지도 한숨을 쉬게 만들었던 그는 자신의 딸 승혜 씨가 촉망받는 소프라노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그를 자신이 지휘하는 무대에 세우지 않았음은 물론 자신의 제자가 지휘하는 공연에도 피하게 했다. 결국 그

딸은 해외에서 거주하며 자신의 음악성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엄격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사심이 없음을 확신했고, 그가 코리안심포니와 관련해서 부탁을 해오면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도 한다.
코리안심포니는 이제야 겨우 매달 존속과 해체 사이의 경계에서 살얼음판을 걷던 그동안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 경사와 마주하여 아버지와도 같던 존재를 잃게 되었다. 음악적 구심점이었을 뿐 아니라 단원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한데 뭉쳐 단단한 응집력을 유지하게 해주던 기둥이 사라진 것이다.

1년 후 그의 1주기 추모음악회 팜플렛에 실린 문일근 음악평론가의 글을 옮겨본다.

성공한 음악가 홍연택 선생 1주기를 기리며

음악가로서의 홍연택 선생은 행복한 분이셨다. 선생은 진정 성공한 음악가였고 자신이 원한 모든 일을 성취한 예술가였다. 교육자(한양대)로서, 작곡가로서, 지휘자로서뿐 아니라, 오케스트라 경영자였고, 교향악운동의 계승자였다. 1972년 국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한국음악의 중심에 서면서 선생의 이런 행보는 시작되었다. 그것은 성공의 서막이었고 성취를 위한 대장정의 첫발이었다. 홍연택 선생의 지휘자로서의 시작은 그렇게 화려한 삶의 지평을 예고한 것이었다. 그리고 선생에게 그 시기의 그 자리는 한국교향악의 역사로 볼 때도 중요한 시기였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와야 할 때였다.
그동안 한국 교향악운동은 그 특성상 국가적인 정책보다는 몇몇 뜻있는 예술가들의 열정에 의한 것이기 마련이었다. 즉 국가적으로는 아직 교향악이나, 아니 음악 그 자체도 서양악이라고 하여 바다를 건너온 음악으로 치부 국악의 반대 개념이 팽배한 때인 만큼 행정가들의 뇌리에 그 필요성이 자리할 리가 없었다. – 물론 그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 열의 있고 끈기있는 음악가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놓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들 행정가들을 설득하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경성방송관현악단(1936년)이나 서울교향악단(1948년) 등을 만들었고, 그런 노력과 열성들이 바탕이 되어 1956년 중앙방송국 소속의 KBS관현악단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국립교향악단으로 발전했고 임원식 선생에 이어 제2대 상임지휘자로 자리한 홍연택 선생으로서는 역사적인 사명감 내지는 의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때까지 고전음악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교향악단의 레파토리 영역을 넓히는 것이 그 시작이었다. 특히 독일음악이 갖는 전통적인 울림과 음악미를 지닌 브루크너, 말러 등의 낭만음악을 택함으로써 표현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그런 선생의 노력은 국립교향악단의 한 나라의 음악의 중심에 있는 오케스트라로서의 위상을 빛내도록 발전시키는 역할도 충실히 했다.

82년 국립교향악단이 해체되었고 KBS교향악단으로 재창단되는 과정에서 선생이 선택한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창단의지는 또 다른 의미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민간 교향악단이 활발히 창단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 그것인데 1940년에 박경호 선생을 지휘자로 설립된 최초의 민간교향악단인 '조선교향악단' 창단 이후 실로 45년만에 진정 관의 틀에서 벗어나 민간 차원의 독자생존의 가능성을 제시한 시도였다. 그것은 교향악에 뜻을 둔 많은 음악가들을 고무시켜 수많은 민간 교향악단 창단의 중심축 역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작곡가로 또는 교육자로서 한양대학에 재직했고 학장의 보직을 맡으면서는 공부해야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는 면학 분위기도 만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에 서양음악의 도입시기부터 의욕적으로 펼쳐왔던 우리 음악인들의 예술에 대한 열정의 소산인 교향악운동의 계승자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교향악운동이 발전적인 요소가 되도록 운영의 묘를 실천함으로써 성공한 교향악단의 모범을 보여줬다. 선생의 이런 일인 5역의 성공적인 수행은 흔히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영역의 성공에 진력하는데 반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음악계가 안고있는 많은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엊그제까지도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리했던 홍연택 선생의 서거 1주기가 돌아온다.
2015년의 월간 객석은 코리안심포니가 홍연택이 있던 시절 절반, 없는 시간 절반을 보낸 후 그의 삶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코리안심포니 30년 역사에서 가장 선명한 발자취를 남긴 이는 단연 지휘자 홍연택이다. 한국 지휘계 1세대로 1985년 문화 예술의 불모지에서 첫 민간 오케스트라를 태동시킨 그의 발자취에는 기쁨과 고뇌가 공존한다.
1927년 황해도 은율에서 태어난 홍연택은 1953년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1963년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로 떠난다. 유학 중 지휘와 작곡을 배운 그는 귀국 후 안익태 · 김생려 · 임원식 · 김만복 등과 함께 1세대 지휘자로 활약하며 당시 국내에 거의 연주되지 않던 후기 낭만파 작품을 암보로 지휘하곤 했다. 바그너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탄호이저'를 비롯해 브루크너 · 말러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곡이 그의 손을 거쳐 국내 초연됐다. 이후 홍연택은 1972년 국립교향악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했지만 10년 후 국립교향악단 운영권이 KBS로 넘어가면서 상임지휘자 자리에서 물러난다. 하지만 '교향악에 미쳐 있던'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민간 교향악단'이란 단어가 생소하던 시절,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연습하고 연주하며 코리안심포니가 창단된 과정을 지켜본 이들은 홍연택의 '모든 것을 오케스트라에 쏟아부은 정신, 연주력을 갖추기 위한 피나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건넸다.
코리안심포니를 움직이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2001년 5월 17일 타계하기까지 그가 '객석'과 주고받은 이야기, '객석'이 바라본 그의 발자취를 다시 들여다본다.

오케스트라 연습 현장에서 그의 철저한 음악관에 언급한 기사 중 홍연택은 오케스트라 연습과정에서 남다른 정열을 가지고 프레이즈마다 "다시!" "다시 한 번!" "한 번 더!" 등의 말을 수없이 써가면서 혹독하리만큼 반복된 연습을 강요해 나간다. 오케스트라 연습 바톤을 손에 쥐면 그는 카리스마있게 단원들을 리드해 나간다. 숨이 막히도록, 아니 손끝이 저리도록 단원들에게 연습, 연습, 연습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서 각 프레이즈와 파트의 부분연습이 끝나면 그때부터 그는 끝없이 흐르는 가락과 화음 속에 절도가 있거나 유연한 리듬에 그의 혼을 실어 본격적인 예술의 재창조 작업으로 들어간다. 여기서부터 그는 관현악적 음악 밸런스와 형식미를 살려가기 시작한다. 그는 음악적 조화의 맥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짚어간다. 그러다가도 어쩌다가 단원의 실수가 발견될라치면 여지없이 신경질적인 발언을 참고 지나는 일이 없다. 음악의 재창조에 있어서는 '적당히'라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인 듯하다.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음악가가 될 수 없다는 지론을 이야기하며, "음악에 있어서 조기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고, 가정에서 나름대로 또 그렇게 시키고 있지요. 그리고 사정에 의해 국민학교나 중학교 때 일찍이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유학생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성공한 음악가는 잘 나오고 있는 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빨리 출세만 시키려고 지향하다보니, 공부를 바닥부터 철저히 하지 못해서죠. 그저 콩쿠르에 나가 이기면 부모의 자랑거리고, 인기를 끄는데 급급했지요. 우리는 어려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배웠으면서도 사는 동안 자꾸 망각하는 것 같아요. 거북이가 나중에 앞서는 것을 알면서 토끼가 되려고 하지요."
1990년대 후반 국내 교향악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묻는 질문에, "너무들 연습을 안 해. 지휘자는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지휘를 할 때만 해도 브루크너고 말러고 모두 암보했어. 지금은 그런 곡 제대로 연주도 안 하잖아? 도대체가 고전주의 레퍼토리를 넘어서질 못해. 어떻게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만 하고 베토벤만 해서 크길 바래? 바그너 · 브루크너 · 말러 · 스트라빈스키를 연주하지 않고서는 훌륭한 교향악단이 될 수 없어."

2000년 코리안심포니 창단 15주년 인터뷰 당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만감이 교차하지. 그래도 10주년 때는 리셉션이라도 할 여유가 있었고, 내가 직접 말러 2번을 지휘할 수 있었어. 이제는 봉급도 못 주고 있는 게 벌써 2년째야. 건강 때문에 지휘도 못하고. 난 이렇게 15주년을 맞은 게 기적 같아."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코리안심포니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유가 있겠어. 음악에 미치고, 교향악에 미친 게 큰 죄라면 죄지."
'객석'이 건강으로 인해 지휘를 그만둔 지 오래된 그에게 다시 지휘봉을 잡을 생각이 있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반드시 다시 무대에 설거야. 그때는 코리안심포니를 데리고 브루크너 교향곡 8번을 연주하고 싶어. 1971년에 내가 전 KBS교향악단(국립교향악단 전신)을 데리고 국내 초연한 곡인데, 지금 다시 연주하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

(2000년 5월호에서 발췌, 이하 생략)

2001년

1월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01신년음악회 지휘 박정호 바이올린 강동석 첼로 조영창 피아노 백혜선 바흐 토카타와 푸가, 베토벤 3중 협주곡, 김희정 '백두산 천지' 외
3월 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베를린심포니 상임지휘자 리오 삼바달 초청 베토벤 스페셜 지휘 리오 삼바달 피아노 김형규 바이올린 정준수 첼로 이종영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3중 협주곡, 교향곡 제7번, 우종갑 오케스트라를 위한 환상곡
3월 1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코리안심포니 예술의전당 상주기념 연주회 '창단 16주년 기념, 제124회 정기연주회' 지휘 곽승 브람스 교향곡 제4번, 레스피기 로마의 소나무
4월 3일	예술의전당콘서트홀 '01 교향악축제 지휘 카를로 팔레스키 금호 현악 4중주단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 벤자민 현악 4중주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4월 14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부활절 기념 CBS음악축제 지휘 염진섭 소프라노 이현정 테너 김남두 국립합창단, 안산시립합창단
4월 25일~29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국립오페라단 제97회 정기공연 '시몬 보카네그라'
4월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뉴욕 메트로폴리탄 주역가수 초청 2001 베르디 갈라 대공연 지휘 박동명 소프라노 제인 마쉬, 메조소프라노 주디스 엥겔, 테너 브루스 리드, 바리톤 클레이튼 브레이너드, 국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5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소프라노 홍혜경 초청독창회
5월 1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한국교회음악협회 50주년기념 신작 칸타타 '사도신경' 지휘 김명엽 소프라노 김영미 메조소프라노 김정희 테너 최상호 베이스 김명지 서울바하합창단 작사 이상윤 작곡 이영조
5월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회원음악회 '아름다운 친구들'

지휘 박은성 사회 황인용 초청가수 해바라기 객원지휘 최상묵, 송자
회원협연 조성대, 김인순, 윤명선, 박병대
요한 슈트라우스 봄의 소리 왈츠, 레오폴드 모차르트 장난감교향곡,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 2악장 외

6월 22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3테너 콘서트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특별출연 서혜경 피아노'

7월 29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조수미 독창회
지휘 최선용

9월 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1 서울국제음악제 폐막연주 '베토벤의 밤'
지휘 임원식 피아노 이경숙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9월 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미추홀예술진흥회 15주년 기념음악회
지휘 곽승 바이올린 알리사 박 첼로 루이스 클라렛
스메타나 '몰다우',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슈트라우스 교향시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10월 15일~28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001 서울오페라페스티벌 모차르트 '여자는 다 그래'

10월 31일~11월 04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001 서울오페라 페스티벌 베르디 '가면무도회'

11월 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히사이시 조 첫 내한공연 '수퍼 오케스트라 나이트'
지휘 김홍재 피아노 히사이시 조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콰르텟', '브라더' 외

12월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초겨울 소리푸리
지휘 정치용 사물놀이 한울림 바이올린 이보연
글린카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브루흐 스코틀랜드 환상곡,
강준일 사물놀이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푸리2

12월 3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1 송년 & 제야음악회 조수미 콘서트
지휘 김덕기 소프라노 조수미 테너 정호윤
정기 6회 오페라 발레반주 40회

거인이 사라진 빈 자리는 의외로 매우 컸다. 재정난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되리라 기대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건강을 자랑하며 방심하는 순간, 몸살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오랜 재정난 속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은 코리안심포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월간지 객석에 의하면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해 예술의전당 상주 오케스트라로 '입성'하게 된 과정을 두고 단원들 사이에 온갖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남들이 모두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이벤트인 2002 한일 FIFA월드컵의 분위기에 들떠있는 사이, 코리안심포니의 몸살은 더욱 깊어졌다.

17번째 월드컵 대회가 5월 3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프랑스 대 세네갈의 개막전으로 시작되자, 전국은 월드컵 열풍에 휩싸였다. 그러나 대회가 한참 진행중인 기간, 대한민국이 폴란드를 이기고 강적 포르투갈에게도 승리를 거둬 16강 진출을 이룩하며 세살박이 어린아이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붉은 상의를 입고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쳐부르고 있을 그 무렵, 코리안심포니에서는 민간 오케스트라로는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노동조합은 조직되자마자 재정난으로 단원들의 월급은 최저임금 규정에 저촉될 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이운환 단장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직 단원들은 두 달 치 월급을, 퇴직 단원들은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중 하나였다. 노조 측은 오케스트라 운영 예산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단장과 단원 간 불신은 사퇴 요구 및 고소, 고발로 이어졌다. 월드컵 분위기로 활발했던 2002년 상반기의 코리안심포니는 여름이 지나가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예술의전당 기획공연과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의 반주 말고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이 불편한 상태에는 빨리 돌파구가 필요했다. 언제까지나 음악감독과 상임지휘자의 자리를 비워두고 계속해서 임시방편으로만 때울 수는 없었다.

2002년

1월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신년음악회
지휘 김홍재 피아노 임동혁 가야금 지애리 장구 김정수 소프라노 박미혜
글린카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최성환 관현악 아리랑, 황병기 가야금과 관현악을 위한 '새 봄'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4악장 외

2월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2 FIFA월드컵 한국-일본 100일 전야 음악축제
'카르미나 부라나'
지휘 가보르 홀레룽 소프라노 히시키 에미 테너 신동호 바리톤 헨릭 뵘 국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대구시립합창단 대전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스위트펄 소년소녀합창단 한국 아카데미소년소녀합창단

2월 22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코리안심포니 스트링챔버앙상블 창단연주회

3월 2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30회 정기연주회 '창단 17주년 기념연주회'
지휘 카를로 팔레스키
슈베르트 교향곡 제5번, 브루크너 교향곡 제9번

4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2 교향악축제
지휘 카를로 팔레스키 첼로 이유홍 소프라노 서경숙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 첼로 협주곡 제1번, 말러 교향곡 제4번

4월 19일~21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다이나믹 코리아 페스티벌 국립극장 사랑대축제 오페라 '춘향'

4월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추모음악회 '레퀴엠의 밤'
지휘 김홍재 바이올린 김영욱 오르간 채문경 소프라노 김방술 테너 박상혁
바리톤 백준현 국립합창단 성남시립합창단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합창단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포레 레퀴엠

5월 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2 아시아현대음악제
지휘 곽승 첼로 장한나 가야금 지애리
나인용 도약, 윤이상 첼로 협주곡, 타카하시 Word Spirit 외

5월 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중앙음악콩쿠르 귀향음악회
지휘 김봉 피아노 김대진 바이올린 피호영 첼로 김이선

5월 1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고 홍연택 음악감독 추모음악회
'제131회 정기연주회'
지휘 김홍재
이영조 현을 위한 레퀴엠, 말러 교향곡 제5번

5월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2 한일월드컵 성공기원을 위한 월드컵 전야음악회
'희망의 코러스 2002'
지휘 이기선 피아노 최승혜 소프라노 김인혜 메조소프라노 장현주 테너 박세원
바리톤 이재환 성남시립합창단
베토벤 합창환상곡, 교향곡 제9번 4악장, 본 윌리암스 '도나 노비스 파쳄'

6월 6일~9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다이나믹 코리아 페스티벌
국립오페라단 특별공연 '전쟁과 평화'
원작 톨스토이 작곡 프로코피에프 지휘 최승한

6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로베르토 알라냐 – 안젤라 게오르규 듀오콘서트
지휘 안톤 과다뇨

7월 1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월드컵 성공기념 대음악회 '영광의 그날'
지휘 박은성 소프라노 박미혜 테너 김남두 수원시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대전시립합창단 천안시립합창단 한국남성합창단
서울레이디스싱어즈 아주여성합창단
베르디 '개선행진곡', 안익태 '한국환상곡', 월드컵 응원가 메들리 외

8월 8일~1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팝스콘서트
지휘 박정호 소프라노 이태원 테너 마이클 맥과이어 바리톤 더그 라브렉
'007' 시리즈 테마모음, 존 윌리엄스 영화음악 시리즈 '스타워즈', '레이더스' 외,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하이라이트, 앤드류 로이드 웨버 '오페라의 유령' 외
정기 6회 오페라 발레반주 59회 특별 기타연주 26회

리빌딩, 새로운 희망 '김민 음악감독의 시대'

2002년 하반기부터 단장과 단원(노조)의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코리안심포니의 운영 자체가 어려움에 빠지자 우여곡절 끝에 2003년 초 단장과 이사진이 전원 사퇴했고, 서울바로크합주단을 오랫동안 이끌어온 김민이 신임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초대 예술감독이었던 홍연택이 타계하며 내부의 갈등과 재정 악화로 해체위기에까지 몰리는 등 코리안심포니의 3번째 위기가 시작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영입된 터라 '잘 해야 본전, 못하면 욕 먹을 자리'였다. 당시 서울대 음대 학장이었던 김민은 두 번째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소감을 낙관 80% 걱정 20%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를 결속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며 코리안심포니 재건의 의지를 표명했다.

사실 김민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독일로 건너가 함부르크 국립음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후 독일에서 활동하며 정착하고 있었는데, 홍연택 선생이 간곡하게 불러서 1979년 급거 귀국과 동시에 국립교향악단 악장을 맡았다.

국립교향악단이 해체되고 KBS교향악단으로 재창단되는 과정에서 KBS교향악단의 악장을 하게 되어 홍연택 선생과 헤어지기는 했지만, 홍연택 선생은 그를 매우 아꼈다. 1981년 그는 서울대로 옮겼고 KBS교향악단 악장을 1993년까지 수행한 후 2003년부터 2005년 2월까지 서울대 음대 학장을 역임했다. 1980년부터 서울바로크합주단 음악감독을 맡아 이끌어오고 있어 그는 악단 운영에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이유 때문에 김민 이사장의 등장은 이 혼란스런 상황을 그나마 수습하고 정리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장 눈에 띄는 정비는 쉽지 않았지만 운영진과 단원

들 사이에서 그는 해법을 찾으려 애썼다. 이사진은 상주단체로 있는 공연장의 운영주체가 조금 더 깊숙이 단체운영에 들어오는 것이 코리안심포니에 도움이 되리라고 뜻을 모았고, 해가 바뀐 2004년 김용배 예술의전당 사장이 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결론을 보았다. 이로써 상주단체로서의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게 되어 이를 통해 재정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예술의전당 기획프로그램 연주를 전담하는 등 공연의 폭을 넓히기도 하였다. 2004년은 오산문화예술회관과 대전 예술의전당 개관기념공연에 초청받아 연주하면서 대한민국 대표공연장 상주 오케스트라로서의 위상이 더욱 확인된 나름의 성과도 거두었던 해였다.
그리고 원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김민은 그동안 공석이던 음악감독으로 취임해 예술적인 부문을 책임지는 체제로 정리했다. 하지만 김민은 전문지휘자가 아니었고, 일이 많아 바쁘기도 했지만 지휘에 욕심을 내지도 않았다. 그러다보니 계속된 상임지휘자의 부재는 법인격과 재정문제가 해결된 다음 코리안심포니의 가장 큰 숙제였다.

이 사이 창단 당시의 단원들은 나이도 들었고 학교로 진출하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해외로 나가기도 했으며, 홍연택 타계 후 그만 두기도 했다. 오케스트라가 연륜이 쌓이면서 단원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혼란스러운 재정비 기간을 겪으며 많은 단원들이 나가고 또 새로 들어와 많은 얼굴이 바뀌었다. 물론 최승한이나 박은성, 곽승 그리고 외국인인 카를로 팔레스키 등 코리안심포니가 필요로 할 때 다른 스케줄을 제쳐놓고 달려와 지휘봉을 잡는 '홍연택의 동지들'이 아직 건재했으나 음악행정을 책임지는 음악감독보다 실제 오케스트라를 연습시키고 연주하는 상임지휘자의 부재는 오케스트라의 음악성 조련과 합주력 향상에는 늘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결국 2007년에 가서야 박은성이 제3대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하면서 6년 만에 해결을 보게 된다.

한겨울 가장 추울 때도 강바닥 얼음장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때가 되면 얼음이 풀리듯 코리안심포니에도 가장 혹독했던 세 번째의 위기는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추위를 견딘 나무가 나이테 켜가 좁고 결이 굳어 좋은 목재 구실을 할 수 있듯이 코리안심포니의 남은 단원들은 그렇게 단련되고 있었다. 언젠가는 다시 찾아올 재도약과 비상을 기다리면서.

2003년

2월 11일	포항 효자음악당 포스코 초청 신년음악회
3월 2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3 교향악축제 지휘 피오트르 보르코프스키 피아노 김원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제1번 '고전',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보로딘 교향곡 제2번
5월 3일~8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예술의전당과 국립발레단의 발레 '백조의 호수'
8월 7일~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3 예술의전당 팝스콘서트 지휘 박정호 뮤지컬 배우 조슈아 핀켈, 가수 유열, 서영은, 카밀라, 밴드 비틀즈 매니아
8월 27일	대구 오페라하우스 2003 오페라갈라 콘서트
8월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유럽 오페라단 주역가수 초청 2003 오페라 갈라 콘서트

지휘 구자범 소프라노 김혜진, 박은주, 장미순 메조소프라노 쏘냐 리
테너 이정원, 정호윤 바리톤 이광근, 한명원 베이스 사무엘 윤
푸치니 '투란도트', 베르디 '라트라비아타',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모차르트 '마술피리' 외

9월 1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메트로폴리탄의 보석 홍혜경 독창회
지휘 김덕기

9월 2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3 서울국제음악제 유로-코리안 아티스트 초청연주회
지휘 김봉 피아노 김세정 바이올린 김신경 소프라노 조윤조 테너 배재철

10월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40회 정기연주회
지휘 최희준 피아노 주희성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브람스 교향곡 제4번

12월 15일 세라믹팔레스홀 코리안심포니 송년음악회
지휘 피오트르 보르코프스키 피아노 라정혜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멘델스존 피아노협주곡 제2번, 슈베르트 교향곡 제5번
정기 6회 오페라 발레 합창반주 55회 특별 기타연주 18회

2004년

2월 5일, 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바비 맥퍼린 콘서트
지휘 겸 보컬 바비 맥퍼린

3월 8일~10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유니버설발레단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라 바야데르'

3월 22일 통영시민회관 대극장 윤이상국제음악제 오페라 '영혼의 사랑'

3월 30일 바이로이트 100주년 기념 'Ring' 주역 소프라노 귀네스 존스 첫 내한공연
지휘 아드리안 뮐러 소프라노 귀네스 존스
바그너 '로엔그린' 1막 전주곡, '트리스탄과 이졸데' '사랑의 죽음'
'탄호이저' '성스러운 전당이여', '신들의 황혼' '희생의 노래' 외

4월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4 교향악축제
지휘 로버트 올슨 바이올린 제니퍼 고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바그너 대사 없는 반지 (4부작 악극 '니벨룽의 반지' 의
관현악 연주회용 축약판. 로린 마젤 편집)

4월 21일 ~24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볼쇼이발레 내한공연 '백조의 호수'

4월 28일 오산문화예술회관 오산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공연

5월 8일 ~15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5월 가족과 함께 보는 초대형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7월 18일, 8월 7일, 9월 19일, 10월 3일
덕수궁 함녕전 2004 덕수궁 가족음악회

8월 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아테네올림픽 성공기념음악회

9월 19일 대전예술의전당 개관기념음악회

11월 13일~12월 1일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악기들의 올림픽 (대구, 안산, 평창, 안양)
정기 6회 오페라 발레 합창반주 60회 특별 기타연주 15회

창단 20주년 그리고 발전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코리안심포니는 2001년 3월 재단법인화되면서 예술의전당 상주 오케스트라로 새롭게 출발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역할은 국립교향악단이지만 법적 지위는 민간 교향악단이라는 미묘한 위상은 2000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서양 공연예술 관련 국립단체들이 예술의전당 상주단체로 넘어올 때 코리안심포니는 같이 오지 못했다. 그리고 정부와 문화예술계, 예술의전당 사이의 갑론을박 끝에 반년이 지나서야 코리안심포니가 예술의전당 상주단체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 다소 복잡했던 내부상황이 정리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제2대 이사장은 맡은 김민은 긴 시간 동안 단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을 향해 한발자국씩 나아갔고, 오케스트라 자체는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단원들의 뜻도 작용해 창단 20주년을 맞이하는 코리안심포니의 기상도는 다시 '흐린 후 갬'으로 돌아갔다. 이 갈등과 정리의 터널을 통과하며 단원들도 스태프들도 어느 정도 면면이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코리안심포니의 내부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면서 김민 이사장은 예술의전당 측과 상주 오케스트라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수없이 논의했다. 그 자신이 피아니스트로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던 김용배 예술의전당 사장이 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의 제3대 이사장을 맡기로 했다. 그리고 2년간 이사장 직을 수행하며 어려운 일을 해낸 김민은 공석이던 제2대 음악감독이 되면서 그동안 거의 돌보지 못했던 일, 즉 코리안심포니의 음악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작업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로써 상주기관과 상주 악단이던 관계가 훨씬 가까워져 형제와 같은 관계로 진전되었다. 예술의전당은 오케스트라가 필요한 기획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하고, 가끔 외부 악단에게 맡기던 것도 거의 모두 코리안심포니에게 돌렸다. 상주 오케스트라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받게 된 코리안심포니는 경영 측면에서는 창단 25주년인 2005년이 지난 10년의 움츠림이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것이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셈이었다.

외환위기 IMF 관리체제의 소용돌이를 지나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르면서 코리안심포니는 연간 90회 수준의 공연을 올리고 폭넓고 유연한 레퍼토리를 소화시키는 탄탄한 실력으로 국내 3대 교향악단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1년 예술의전당 상주 오케스트라 입주와 함께 일어난 홍연택 음악감독의 사임 및 타계 후에 음악감독 자리는 4년간 공석으로 비어있었고,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중심을 잡아주는 그 역할의 빈 자리는 의외로 보이지 않는 영향이 컸다. 김민의 이사장에서 음악감독으로의 변신은 그런 의미에서 코리안심포니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자, 도약의 조건이기도 했다.

몇 년 앞을 내다본 기획과 그를 뒷받침하는 음악행정은 해외의 선진 교향악단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다. 베를린필, 뉴욕필, 런던 심포니, 로얄 콘세르트허바우 등 대부분의 세계적인 교향악단들은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일년간 하는 연주의 절반 이상은 전임 및 객원지휘자들이 다양한 음악성을 선보인다. 그러나 유명 지휘자들 및 솔리스트의 스케줄은 항상 몇 년씩 미리 잡혀있어서 기획 또한 몇 년을 내다보고 미리 날짜와 장소, 레퍼토리를 확보해야 한다. 독일에서의 10년 활동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개근 멤버로 인정받던 김민에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폭넓은 음악가들의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었다. 제2대 김민 음악감독의 역할은 코리안심포니의 음악에 대해 중장기 비전을 다시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기초를 다시 다지는 일이었다. 김민은 당시 서울대 음대 학장이자, 서울바로크합주단(영문명 Korea Chamber Orchestra)의 리더로서 업무가 폭주하는 상황이었으나, 어려운 일을 떠맡는 처지를 마다하지 않았다.

연간 예정되어 있는 연주를 다 해내야 하면서도 물밑으로 상임지휘자를 영입하는 일은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았다. 혼란의 터널을 이제 막 빠져나오려는 오케스트라에 선뜻 상임지휘자로 나서려는 재목을 찾

기 어려웠다. 코리안심포니가 원하는 후보는 고사하고, 조금 더 숙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들은 그 자리를 원하는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가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부재한 동안 서서히 작은 균열들이 합주력을 야금야금 줄어들게 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사람 찾기에만 골몰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우선 급한 대로 2005년 독일 출신의 로베르트 쾨니히에게 객원 전임지휘자를 맡겨 합주력 재건에 힘을 쏟게 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에는 재일교포이자 러시아 국립교향악단 부지휘자인 박태영을 객원 전임지휘자로 영입했다. 두 전임지휘자들은 재직기간 동안 나름대로 성심을 다하여 코리안심포니를 이끌었지만 여전히 상임지휘자의 필요성은 남아있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통상 창립 5주년, 10주년, 15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는 대개 해당 연도의3월, 늦어도 4월에 열렸는데, 20주년인 2005년에만 간신히 12월 15일에 해를 넘기지 않고 뒤늦게 치러졌다. 음악계에서는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있는 코리안심포니를 찬탄의 눈으로 또 안타까움과 격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실린 이상만 음악평론가의 글에는 이러한 다양한 시각이 담겨있는데, 여기에 옮겨본다.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20년을 버티어온 코리안심포니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생적 교향악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자생력과 음악을 하고자 모여든 예술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곳이 코리안심포니입니다.
20년은 강산이 두 번 변했고 또 사람으로 보아서는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자라는 동안 거름도 제대로 못 주고 영양실조가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엿하게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

1985년 3월 30일 코리안 심포니가 창단이 되었습니다.
설립자인 고 홍연택 초대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의 집념이 아니었던들 이 교향악단은 탄생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1985년 이 교향악단은 필연적으로 탄생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5공화국 정부가 들어서고 언론통폐합을 단행했었습니다.
이병철 씨가 설립한 동양방송(라디오, TV)의 문을 닫고 동아일보가 운영하던 동아방송도 폐쇄되고 이를 한국방송공사에 합병시켰습니다. KBS는 거대한 공룡이 되었습니다.
국립교향악단은 이 과정에서 KBS로 이관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체되어 KBS교향악단이 재창단되었습니다.
지금의 KBS교향악단의 기원은 1956년 당시 공보실 산하에 있던 서울중앙방송국에 소속되었던 실질적 국립교향악단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60년 민주당 정권 때 해체되어 민간 교향악단인 한국교향악단이 되었다가 1962년 5.16 이후 다시 KBS로 복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국립교향악단이 되었으면서도 운영의 주체는 KBS였다가 1973년에야 실질적으로 국립극장으로 이관되었고 그 마지막 시기의 국립교향악단 책임자를 홍연택 씨가 맡고 있었습니다.
홍연택 씨는 KBS교향악단 재창단 과정에서 탈락된 40여 명 단원들의 살 길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코리안심포니는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여 명이 주동이 되었으나 이미 몇 명의 단원들은 수원시립교향악단으로 갔고, 몇몇 단원들은 홧병에 못 이겨서 세상을 떠났고, 몇 명의 단원들은 음악계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맨주먹으로 오직 열성만으로 창단된 것이 코리안심포니였습니다. 공공지원은 가망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쌍용그룹의 김석원 회장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홍연택 씨는 당시 음악계의 지도자였던 전봉초 씨의 손을 잡고 악단을 키워나갔습니다. 코리안심포니가 생기자 우후죽순처럼 지역 교향악단과 민간 교향악단들이 난립했습니다.
홍연택 씨는 문을 활짝 열어 일본, 러시아, 동유럽의 우수한 연주자를 영입했습니다. 그것이 코리안심포니의 연주역량을 증강시켰습니다.
궂은 일도 불사했고 큰 운동장에서의 대형공연을 시도...대중과 가까이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찬송가 전곡도 녹음했습니다.
변호사 이세중 씨가 이사장을 맡아 홍연택 씨를 도왔습니다. 홍연택 씨는 병고와 싸우면서도 그의 교향악단 사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는 이 교향악단을 생각했습니다.
이영조 이사장, 이운환 단장 체제의 재단법인 창립 그 후 김민 씨가 이를 맡아 비범한 경영 능력, 그리고 탁월한 음악적 역량으로 김용배 이사장(3대) 김민 음악감독의 굳건한 체제로 코리안심포니를 궤도에 올렸습니다.
코리안심포니의 영광, 창단 때의 그 정신으로 계속 이어지기 바랍니다.

코리안심포니의 음악감독을 찾는 노력은 그 후로도 계속 되었다. 결국 2006년을 끝으로 수원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의 임기를 마치는 박은성이 제3대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를 맡기로 한다. 우리나라 최초로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지휘전공으로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박은성은 코리안심포니 초창기부터 객원지휘자로는 가장 많은 출연을 해온 바 있고, 한양대 음대에서는 故홍연택의 후배 지휘전공 교수였다. 여러 가지로 인연이 많았던 터라 김민의 간곡한 설득에 그는 무거운 자리를 수용하게 된다. 이후 코리안심포니의 합주력은 혼란기에 비해 훨씬 안정된 사운드를 들려주게 된다.

2005년

1월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5 신년음악회
1월 14일	포항 효자아트홀 POSCO 신년음악회 지휘 박은성 첼로 김정현 소프라노 김금희 베이스 임용석 드보르작 사육제 서곡, 브루흐 콜 니드라이, 슈트라우스 봄의 소리, 황제 왈츠
1월 25일~29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가면무도회'
3월 3일~12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라 보엠'
3월 17일	통영시민문화회관 통영국제음악제 개막연주회 지휘 뤼디거 본 바이올린 강동석 소프라노 피아 콤지 베이스 니콜라스 이셔우드 서울모테트합창단 윤이상 에필로그, 진은숙 칼라, 몬테베르디 마드리갈,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3월 29일	충무아트홀 충무아트홀 개관연주회
5월 25일~11월 30일	한국전력 연주회 총 10회
5월 3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교향악축제 지휘-정재동,피아노-신수정,국립합창단, 부천시립합창단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 베토벤 '합창 환상곡', 브루크너 교향곡 제7번
8월 1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광복 60주년 경축 대 음악회

8월 20일~21 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팝스콘서트

9월 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47회 정기연주회 [제15회 한미친선음악회]
지휘-최희준, 바이올린-야이르 클레스
베버 오베론 서곡, 바르토크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슈트라우스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

9월 2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울국제음악제 만하임극장 & 코리안심포니 갈라 콘서트
지휘-페터 좀머, 소프라노 재니스 딕슨, 테너 박현재
베이스바리톤 마르쿠스 마르콰르트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돈 죠반니, 베르디 루이자 밀러, 아이다 하이라이트

9월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호세 카레라스 독창회

10월 5일~9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볼쇼이발레단 내한공연 '지젤-스파르타쿠스'

10월 28일~31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안드레아 셰니에'

11월 1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적십자창립 100주년 기념음악회

11월 2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앤드류 토마스 초청연주회
지휘 앤드류 토마스, 바이올린 미하일 잠 마림바 사이몬 보야르
토마스 Loving Mad Tom, 김솔봉 Illumination (세계초연),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델리어스 관현악을 위한 2개의 작품

12월 1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창단 20주년 기념 연주회 (149회 특별정기연주회)
지휘 이대욱 테너 리하르트 데커 소프라노 프란시스 진저 메조소프라노 김여경
바리톤 전태상 베이스 양희준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콘체르탄테 한국 초연
정기 4회 오페라 발레 합창반주 59회 특별 기타연주 31회

2006년

1월 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6 신년음악회

1월 10일~12월 11일 한국전력 연주 총 15회

2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크론베르크 아카데미 인 서울 첼로 빅4 콘서트
지휘 김봉
첼로 아르토 노라스, 안토니오 메네시스, 개리 호프만, 프란스 헬머슨
하이든 첼로 협주곡,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번스타인 로스트로포비치에게 헌정한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미사 중 3개의 명상곡
엘가 첼로 협주곡

3월 11일~1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오페라극장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결혼' 창작초연

4월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6 교향악축제
지휘 박태영 피아노 최연희
조인선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 VI',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10번

4월 2일 충무아트홀 개관1주년 기념 연주

4월 20일~23일 '돈 조반니'

5월 3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 150회 정기연주회 지휘 Johannes Goritzky 피아노 Robert Blocker, 김희균 베토벤 레오노레 서곡 제3번, 모차르트 2 피아노 협주곡, 페렝크 교향곡 제3번 (한국초연)
6월 9일~9월 2일	국립오페라 '투란도트' 순회공연 (창원 성산아트홀, 춘천 문화예술회관,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구 오페라하우스)
8월 19일~20일	팝스 콘서트
10월 3일,5일	일본문화청 초청 무대예술페스티벌 '아시아 오케스트라 위크' 도쿄 & 오사카 지휘 박태영 바이올린 주디 강
11월 7일~11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돈 카를로'
12월 5일~6일	해설이 있는 모차르트 오페라 이야기 (평택, 서산)
12월 16일	중국 심양 초청 연주회 정기 3회 오페라 발레 합창반주 53회 특별 기타연주 41회

세계를 무대로, 세계적인 스타를 우리 무대로

2006년은 코리안심포니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국제화의 물결이 반가운 해였다. 故홍연택 음악감독은 1990년 당시 2000년을 바라보는 코리안심포니 10개년 발전계획의 하나로 해외순회공연을 꼽았었다. 그 꿈은 1998년 외환위기 IMF 관리체제에 의해 저멀리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처럼 보였다. 그 이후 혼란과 수습의 길고 지난한 과정 속에서 해외공연은 요원해 보이기만 했던 꿈이었다.
그러나 다시 운영 면에서 안정을 찾고 다시 음악에 집중하게 된 코리안심포니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혹은 미개발 상태였던 잠재력을 다시 증명하려는 몸짓을 보였다. 그리고 그 시도는 2006년 봄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한 독일 나들이에 이어 가을의 일본 문화청 초청 무대예술페스티벌에서 도쿄와 오사카에서, 그리고 겨울에 혹한의 중국 만주 심양에서 교향악단의 단독 연주를 통해 첫 결실을 얻게 된다.
코리안심포니의 세 번째 10년 기간동안 해외 유명연주자와의 첫 만남은 2006년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였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세계 최고의 첼로 축제로 마스터클래스와 유명 첼리스트의 연주회로 꾸며지는 이 첼로 페스티벌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연주자들과 다음 세대를 끌어갈 첼리스트들을 배출하며 명망있는 산실로 자리매김 해왔다. 2004년에 처음으로 유럽을 벗어나 서울에서 개최되어 성공을 거둔 후 다시 서울로 온 것이었다. 파블로 카잘스가 "뛰어난 첼리스트만이 아니라 고귀한 아티스트"라고 격찬했던 애제자이며, 보자르 트리오 멤버로 32년간 연주활동을 해온 버나드 그린하우스(Bernard Greenhouse)는 아카데미 음악감독으로 참여한 이 행사의 마지막 날인 2월 12일 폐막연주회로 '빅4 콘서트'가 열렸다. 마스터클래스의 교수이자 이날 협연자로 나선 첼리스트들의 면면을 보자.

퀼른 음대와 마드리드 소피아 왕립음악원의 저명한 교수 프란스 헬머슨(Frans Helmerson), 로스트로포비치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북아메리카인 최초로 우승하고 인디애나 음대의 최연소 교수로 기록된 게리 호프만(Gary Hoffman), 현존하는 최정상 첼리스트 중 한 사람이며, 세계 유명 콩쿠르(차이코프스키, 카잘스,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 등)의 주요 심사위원이기도 한 아르토 노라스(Arto Noras), 그리고 뮌헨 콩쿠르와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1위 수상자 출신으로 그린하우스의 뒤를 이어 보자르 트리오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안토니오 메네세스(Antonio Meneses)가 첼리스트 출신 지휘자 김봉의 지휘

로 코리안심포니와 협연했다.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 C장조 (안토니오 메네세스),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1번 Eb 장조 작품 107 (아르토 노라스), 번스타인 로스트로포비치에게 헌정한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미사곡" 세계의 명상곡 (게리 호프만) [한국초연], 엘가 첼로 협주곡 e단조 Op. 85 (프란스 헬머슨)가 연주된 이날의 공연은 청중에게도 코리안심포니에게도 빅4 첼리스트에게도 훌륭한 경험이었다. 이 크론베르크 아카데미는 이후에도 몇 번 더 실행되었고, 언제나 율리우스 베르거 등을 포함한 거장 첼리스트들의 협연 파트너는 코리안심포니였다.
첫 첼로 빅4 콘서트로부터 한달도 안된 3월에는 국립오페라단의 독일 공연에 반주 오케스트라로 동행했다. 각광받던 작곡가 임준희의 오페라 '결혼'의 창작 초연이 프랑크푸르트 국립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초청공연으로 올려진 것이다. 오영진의 희곡 '맹진사댁 경사'를 이상우의 대본, 양정웅의 연출로 제작된 2막 8장 구성의 이 작품은 독일을 무대로 한창 활동하던 임준희의 노력으로 이루어졌고, 늘 반주 오케스트라로 호흡을 맞추던 코리안심포니 역시 오페라공연의 필수 인원으로 함께 동행했다. 공연은 '한국의 서정과 미학이 살아있는 오페라 부파', '풍부한 한국의 문화와 유럽적인 요소의 이상적인 결합'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 작품은 2014년 제5회 대한민국 오페라페스티벌에 3막 짜리로 개작되어 '천생연분'이라는 타이틀로 다시 공연되었다. 교향악의 나라 독일에서 코리안심포니와 국립오페라단 가수들의 뛰어난 호흡은 독일의 오페라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교향악단 단독으로 이루어진 첫 해외공연은 2006년 10월 일본 문화청에서 매년 주최하는 무대예술페스티벌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만드는 이 축제의 '아시안 오케스트라 위크' 행사는 매년 아시아 각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을 초청하여 관동과 관서의 대표도시인 도쿄와 오사카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이 '아시안 오케스트라 위크'는 유럽과 미국 일색의 교향악계에 아시아의 저력을 보여주고 일본 문화계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2002년 월드컵의 해에 처음 시작되었던 야심찬 행사로, 5년째인 2006년에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코리안심포니가 초청된 것이었다. 그 의미는 일본 문화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코리안심포니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다. 이해 중국의 하얼빈 흑룡강교향악단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심포니도 초청되어 '보이지 않는 경연대회'처럼 진행되었다고 한다. 지휘자 박태영은 재일교포 출신으로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에서 지휘전공으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러시아 국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재직했던 경력을 지녔기 때문에 이 공연으로 금의환향을 한 셈이 됐다. 협연자로 나섰던 캐나다 교포 바이올리니스트 주디 강은 이 공연을 계기로 후에 코리안심포니의 2010년 미국순회공연에도 협연자로 함께 하게 되는 인연을 맺는다. 10월 3일 도쿄 오페라시티 콘서트홀, 이틀 후 오사카 심포니홀에서 열린 두 번의 공연에서 코리안심포니는 한국 교향악의 자존심을 십분 살려 청중들을 감동시켰다.

12월의 북만주는 이미 혹한의 계절이다. 이해 12월 16일 코리안심포니는 요녕성의 성도이자 일제강점기에 봉천이라 불렸던 도시, 연변 자치주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조선족 동포들이 거주하는 옛 독립운동의 도시 심양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 중국은 모든 해외 연주자나 단체들의 공연이 사실상 공산당과 중앙정부 문화부서의 허가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양 공연은 중국정부의 공식초청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코리안심포니는 이해 심양에서 펼쳐진 서양음악 공연중 최고의 연주였다는 찬사를 받으며 5개월 후 2007 교향악축제에서 코리안심포니와 중국 요녕성 교향악단과의 합동연주를 선보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전 국민이 널리 알만 한 해외 유명 클래식 스타들과의 만남은 1999년 12월 호세 카레라스의 '밀레니엄 콘서트' 내한공연으로 시작되었고, 1990년 로마월드컵 이후 월드컵의 또다른 상징처럼 되어버린 3테너 콘서트가 한일 월드컵을 한 해 앞둔 2001년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것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코리안심포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반주를 잘 하는 오케스트라로서 이후 이어진 호세 카레라스와 플라시도 도밍고의 각각 단독 내한콘서트에도 늘 함께 했다. 그들은 한국 공연에서 코리안심포니의 반주를 원했고 한번도 다른 오케스트라와 연주한 적이 없다는 것이 코리안심포니의 또다른 강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동안 성악 쪽에서는 메트로폴리탄 주역가수 초청 베르디갈라 대공연, 바그네리안 소프라노 귀네스 존스와 프란시스 진저,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트로이카 조수미, 홍혜경, 신영옥이 코리안심포니의 반주로 편안한 노래를 불렀다. 오페라에서 비주얼이 중요해진 비디오 시대 최고의 미녀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는 한번의 독창회와 제4의 테너로 불렸던 한때의 남편 로베르토 알라냐와의 듀오 공연 때도 코리안심포니를 파트너로 선택했다. 테너에서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의 3테너 말고도 바그네리안 테너 리하르트 데커, 또다른 제4의 테너로 불렸던 호세 쿠라가 코리안심포니와 호흡을 맞추어 노래했다.

보자르 트리오의 창설자이자 피아니스트의 전설로 존경받는 최고령 현역 피아니스트 메나헴 프레슬러는 89살의 몸으로 내한해 코리안심포니와 협연하며 농익은 연주와 노익장의 해석을 과시했고,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 라두 루푸는 한번 연기되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내한에서 독주회에 이어진 협주곡 연주회의 파트너로 코리안심포니와 함께 하며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2000년대의 인기 피아니스트 페터 야블론스키도 협주곡에서는 코리안심포니를 찾았고 2015년 한국 최초의 쇼팽콩쿠르 우승으로 클래식 붐을 다시 주도하고 있는 조성진도 영재를 알아본 코리안심포니와의 협연으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정상의 오보이스트 알브레히트 마이어는 지휘하면서 협주곡을 협연하는 솜씨를 보여주었고, 제임스 골웨이와 엠마누엘 파위의 뒤를 이어 베를린필의 플루트 수석이 된 벤젤 푹스는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아 코리안심포니와의 찰떡궁합을 과시했다.

특이한 협연자로는 바비 맥퍼린과 히사이시 조, 스팅을 빼놓을 수 없다. 바비 맥퍼린이 처음 한국 팬들에게 알려진 것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첼리스트 요요마와 함께 한 'Hush' 앨범의 수록곡 "Don't Worry, Be Happy"를 통해서였다. 이후 악기를 능가하는 보컬리스트로서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오보에와도 음색을 겨루면서 클래식을 넘어 세계음악 팬들의 찬탄을 불러일으켰던 그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지휘를 통해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드러냈다. 코리안심포니와 함께 한 2004년의 공연에서도 첼리스트 양성원과 바흐/구노의 "아베 마리아"를 한번은 첼로 멜로디(구노), 보컬 반주(바흐) 한번은 보컬 멜로디(바비 맥퍼린), 첼로 반주(양성원)으로 연주해 청중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그의 관현악 해석 또한 독특하고 신선한 호소력을 선보였다.

대중음악 쪽에서 히사이시 조와 스팅은 특별한 이벤트였다. 2010년 거장 사이먼 래틀이 이끄는 베를린필과 함께 '심포니시티' 음반을 발표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런던 심포니와 함께 대규모 순회공연을 열어 공전의 히트를 친 스팅은 이듬해 1월 아시아 투어의 첫 기착지로 한국을 방문해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성공적인 내한공연을 치른다. 그룹 폴리스와 스팅의 곡들이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색채로 펼쳐진 공연에서 코리안심포니는 클래식을 넘어선 음색을 들려주며 대중음악에도 솜씨를 발휘하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오케스트라임을 입증했다.

감성적인 애니메이션으로 세상의 동심뿐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지브리 스튜디오와 25년간 함께 한 영화음악가 히사이시 조는 그 함께 한 15년을 기념하는 아시아 투어의 마지막 장정을 코리안심포니와 함께 했다.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지브리의 유명 애니메이션과 더불어 국내 영화 '웰컴 투 동막골', 드라마 '태왕사신기' 음악으로 더욱 친숙해진 그는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공연을 지휘해 서정적인 멜로디와 아름다운 음색으로 코리안심포니와 함께 청중을 매료시켰다.

2005년 러시아가 세계에 자랑하는 모스크바 볼쇼이발레단과 2012년 유럽 드라마 발레의 대명사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의 내한공연에도 파트너는 코리안심포니였다. 볼쇼이발레단은 네 번째 내한 끝에 녹음에 의한 공연을 내려놓고 코리안심포니와 반주를 맞추게 되었다. 가장 여성적인 발레 '지젤'과 가장 남성적인 발레 '스파르타쿠스'의 두 작품이 공연된 가운데 코리안심포니는 아당과 하차투리안이라는 춤만큼이나 음색과 스타일이 전혀 다른 두 작품의 음악을 훌륭히 소화해 내어 발레단으로부터 감사를 전해받았다.

2012년은 국립발레단이 50주년을 맞이하여 50주년 기념공연과 대한민국 발레축제가 어우러졌고, 아메리칸발레씨어터, 마린스키발레단이 내한한 발레의 해였다. 그리고 강수진의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의 내한공연까지 열렸다. 존 노이마이어의 1978년 안무작으로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의 대표작이자 '예프게니 오네긴'과 더불어 이듬해 국립발레단의 새로운 예술감독으로 취임하는 강수진의 대표작이기도 한 '카멜리아 레이디'가 무대에 올려졌다. 화려한 안무와 더불어 쇼팽의 음악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피아노 독주곡과 협주곡이 교차해야 해서 좁은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반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작품이었다. 그러나 코리안심포니는 국립발레단과의 25년에 걸친 협연으로 다져진 능력으로 1999년 강수진에게 무용가들의 올림픽 금메달인 '브누아 라 당스' 상을 안겨준 이 작품을 무용수들의 리듬에 맞춘 유려한 반주로 작품을 받쳐주었다. 2010년 창단 25주년을 맞아 실행된 유명 오케스트라들의 각축장인 미국 순회연주와 2013년의 태국과 싱가포르를 잇는 동남아시아 순회연주를 통해 코리안심포니는 또 다른 해외연주의 이정표를 세운다.
이는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교향악단이 자력으로도 제대로 된 해외연주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도전한 일이었다.



[교향악축제 2005.5.31 _ 지휘 **정재동**]



[교향악축제 2005.5.31 _ 지휘 **정재동**]



[제149회 특별정기연주회 (창단20주년) 2005.12.15 _ 지휘 **이대욱**]



[제149회 특별정기연주회 (창단20주년) 2005.12.15 _ 지휘 **이대욱**]



©DAYLIGHT studio_ Cho Nam Ryong · Kim Sung Ryong

제3부 | 음악감독들의 시대 (2007~2014)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시스템은 일정한 시간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 탄생기 다음에는 조정기가 있고 조정기를 지나면 성장기에 접어든다. 이후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한찬 성장가도를 달리다 중도에 크고 작은 도전을 만나면 다시 조정기를 거치고 그 조정기를 현명하게 넘기면 두 번째 성장기를 만나고 그렇지 못하면 쇠퇴기에 접어들게 된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첫 10년을 탄생기로 본다면, 코리안심포니는 대한민국 음악계의 우량아였을 것이다. 초창기 젖몸살을 앓긴 했지만 국립극장 전속단체가 되고 쌍용그룹의 지원을 만나 용평 뮤직캠프 · 페스티벌, 5,000명 대합창연주회, 꿈이 컸던 녹음사업 등 여타 국공립 교향악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던 일들을 꿈꾸고 도전했고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이룩해냈다.
조정기라고 볼 수 있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두 번째 10년은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체제를 경험하며 국가경제의 추락과 회복을 겪는 시기와 일치한다. 쌍용그룹이 외환위기로 인해 그룹이 해체되면서 모든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활동이 위축되며 단원들도 많이 바뀌었다.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어 길거리로 내몰린 속에서 어쩌면 코리안심포니의 생존 자체가 기적과도 같았다.

마침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01년 3월 재단법인화와 함께 예술의전당 상주 오케스트라로 입주하면서 역전의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목숨보다도 아끼던 분신을 떠나보낸 코리안심포니의 정신적 지주 홍연택이 5월에 타계했고 구심점을 잃은 코리안심포니는 내부 갈등을 겪는다. 2003년 2대 이사장이 된 김민은 혼란한 상황의 수습에 노력했고, 2005년 예술의전당 사장을 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이사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자신은 공석이던 음악감독을 맡기로 한다.

창단 25주년을 맞는 2010년까지 5년간 예술의전당 사장이 취임과 함께 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다 2010년 벽산엔지니어링 김희근 회장을 제7대 이사장으로 맞아들이면서 겸임 이사장 시대를 마감한다. 역할은 국립교향악단이라 할 수 있지만 존재방식과 법적 지위는 민간 교향악단인 코리안심포니로서는 본래의 정신을 회복했다 할 수 있겠다. 2011년 예술의전당 야외무대가 있던 자리에 국립예술단체이자 예술의전당 상주단체 전용 연습동이 개관하며 코리안심포니는 오케스트라에 최적화된 전용연습실을 확보하게 되었다.

역할을 다한 김민 음악감독의 뒤를 이어 2007년 박은성이 제3대 음악감독으로 취임하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는다. 국내에서는 볼쇼이 발레단 내한공연, 3테너 내한공연, 도밍고와 카레라스의 각자 내한공연, 안젤라 게오르규 내한공연, 라두 루푸 내한공연, 히사이시 조 내한공연, 스팅 심포닉 콘서트 등 세계 유명 연주자 및 공연단체의 내한공연에 파트너로 참여했다.

故홍연택 감독이 꿈꾸었던 해외공연은 코리안심포니가 2006년 10월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페스티벌에 한국 대표 교향악단으로 참가하면서 그 서막을 알렸고, 중국 심양 초청연주회에 이어 국립오페라단 '천생연분'의 중국 베이징 공연에 동행한 후 미국 뉴욕 카네기홀과 LA 세리토스 센터 공연, 태국 방콕 국립극장과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문화예술센터 공연까지 이어지며 일정 부분 성취된다.



박은성

제3대 코리안심포니 음악감독 · 상임지휘자
(2007.12~2011.1)

새롭고 신선한 기획들로 국내 음악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최희준 제4대 예술감독의 뒤를 이어 국내 최초로 말러 사이클을 완주하여 말러 붐을 일으킨 주역이자 부천필하모닉을 25년간 지휘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임헌정 제5대 예술감독을 맞이하며 코리안심포니는 음악면에 있어서도 완연하게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세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클래식 음악은 사양길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공연장에는 사람이 줄고 음악단체에는 후원이 줄고 음반사들은 판매가 줄어들어 모두가 클래식 문화의 위기라고 이구동성 말한다. 그러나 늘 전쟁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경제위기 속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은 있다.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음악계는 수요의 포화와 공급의 과잉 속에서도 많은 젊은 세대들이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저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음악은 솔리스트들보다 오케스트라가 음악문화의 저변과 수준을 증명한다. 그리고 공급이 많다고 해서 질적 수준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 지점이 코리안심포니가 지난 10년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조정기를 맞은 서울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 수장이 바뀌며 뒤늦게 조정기를 맞은 부천필하모닉 등과 함께 선의의 경쟁 속에서 함께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화수준을 끌어올려야 하는 사명과 만나는 곳이다.

지난 30년을 탄생-조정-성장의 사이클로 살아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에게는 이제 앞으로의 30년은 어떻게 스스로를, 그리고 나아가서 창의성이 넘치는 나라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해야 할 나라 대한민국의 음악문화와 세계의 클래식 문화를 조성하고 구축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숙제를 풀어가야 하는 시기다.

다시 날개를 펴는 코리안심포니

세 번의 해외연주를 통해 창단 당시 목표로 했던 국제수준의 교향악단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한 2006년이 지나고 2008년을 목전에 둔 2007년 12월 한양대 음대 교수이자 수원시향 상임지휘자였던 박은성이 코리안 심포니의 3대 음악감독으로 취임한다. 교향악계에 독한 조련으로 소문난 박은성이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되자 단원들은 한숨을 쉬고 외부에서는 코리안심포니의 음악적 안정을 예감했다고 한다. 그의 재임 4년간 코리안심포니는 상임지휘자의 존재감을 느끼며 더욱 단단해진 음악적 조직력을 갖추게 되었다.

박은성의 취임 직후인 2007년 12월 12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 대형사고가 일어났다. 국립오페라단의 '라보엠' 공연도중 로돌포가 원고지를 벽난로에 태워 몸을 덥히는 장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무대세트와 커튼을 타고 삽시간에 무대 전체로 번졌다. 이로 인해 무대장치와 조명기구, 기타 무대시설이 소실되었고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연주중이던 코리안심포니 단원들은 불길과 새까만 잿더미 속에서 신체와 악기의 안전을 지키며 급히 빠져나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0분간의 화재로 인한 손실은 매우 컸다. 극장은 270억의 예산을 들여 예정보다 4개월 지연된 2009년 3월 다시 재개관하게 되었지만, 이미 예정된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바람에 공연단체와 출연자들, 기획사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사실 시설 개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던 상태에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상주'극장'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은 개보수 후 오케스트라 피트가 약간 더 넓어지고 음향문제도 개선되었다.
화재 당시의 장르였던 오페라는 재개관 기념공연에도 주역이었다. 2006년 영국 런던 코벤트가든의 로얄오페라하우스가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버전의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을 들여와 예술의전당 직접 기획 제작으로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이 작품 바로 다음으로 국립발레단의 '신데렐라'가 공연되었다. 두 개의 공연 모두 오랜 파트너인 코리안심포니가 관현악을 맡았음을 두말 할 것도 없다. 이 사건은 그동안 대강 덮고 지내던 공연장의 안전 문제에 경종을 울려 특히 취약했던 대학로의 소극장들이 모두 소방안전점검을 받고 정부가 소방개선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 등 이후 영향이 적지 않았던 사건으로 기록된다.

코리안심포니의 재난 피해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2011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우면산 일대에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산 위쪽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예술의전당 일부를 덮쳤다. 예술의전당은 오페라극장의 공연을 취소하고 모든 전시장과 아카데미와 식음료 공간은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콘서트홀과 리사이틀홀 공연, 토월극장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그러나 관객들은 예매해놓고도 언론을 통해 산사태의 처절한 현장이 보도되자 거의 오지 않았고, 일대에는 정전이 일어났으며, 콜센터와 통신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하자 공연을 위해 대관한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공연을 취소하기도 했다. 바로 옆에 위치한 국립국악원은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둘 사이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예술의전당의 공연장 및 전시장 내부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공용공간인 비타민스테이션, 오페라극장 로비, 주차장 및 주변 도로에 토사가 쌓인 상태였다. 코리안심포니 역시 산 경사 위쪽 방향의 오페라극장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이 침수되고 쌓인 토사 때문에 일부 자료들이 손실을 입고, 당일 리허설이 급하게 취소되기도 했다. 군-관-민이 총출동해 복구작업을 벌인 결과 이틀이 지난 7월 29일부터 예술의전당에서 예정된 모든 공연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전시장도 3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예술의전당 상주 오케스트라인 코리안심포니로서는 예술의전당과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재난들이었다.

2008년 코리안심포니는 그동안 소강상태였던 대학탐방연주회 기획을 재개해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를 방문하는 한편, 200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오페라극장에서 초연한 임준희 오페라 '결혼'이 개작되어 태어난 '천생연분'의 공연을 위해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한다. 이 공연은 2008년 8월 8일 개막한 베이징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해 100일전부터 성대하게 열린 올림픽 문화예술축전 행사 중의 하나였다. 코리안심포니는 베이징 세기대극원에서 한국적 사랑의 아름다운 정신을 그린 음악을 선보였다.

2007년

1월 5일 2007신년음악회

1월 19일~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국립3개 단체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갈라 콘서트

1월 25일~11월 21일 한국전력 연주 총 15회

2월 9월~10일 KNN 초청 신년음악회 (부산 / 창원)

4월 2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7 교향악축제 코리안심포니 +랴오닝 교향악단 합동 공연
지휘 멍신 바이올린 류원지 피아노 박휘암
쉬잔하이+류휘 오페라 '대초원' 서곡, 허잔하오+천강 바이올린 협주곡 '나비 연인',
라벨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

8월 18일~1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팝스콘서트

9월 15일~16일 통영시민문화예술회관 윤이상평화재단 윤이상 국제음악제

11월 14일~17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카르멘'
정기 4회 오페라 발레 합창반주 38회 특별 기타연주 33회

2008년

1월 4일 2008신년음악회

2월 23일~24일 첼로 BIG4콘서트

3월 1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57회 정기연주회 '박은성 음악감독 취임기념연주회'
지휘 박은성 바이올린 백주영
모차르트 돈죠반니 서곡,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4월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8 교향악축제
지휘 박은성 바이올린 김남윤 피아노 이경숙 소프라노 김인혜
구레츠키 교향곡 제3번 '슬픔의 노래', 멘델스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차이코프스키 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4월 11일 마포문화센터 MAC 마포문화센터 개관 기념 연주회

4월 2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4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최종결선

6월 13일 코리안심포니초청 소프라노 신지화 & 테너 박현재 초청음악회

6월 29일~30일 중국 베이징 세기대극원 국립오페라단 '천생연분'

8월 2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음악인생 45년 테너 신영조와 젊은 그들의 노래

9월 17일~21일 통영시민문화예술회관 윤이상평화재단 윤이상 국제음악제

10월 1일 대학탐방연주회 고려대학교

10월 29일 대학탐방연주회 한양대학교

11월 1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60회 정기연주회 – 3대 교향곡 특별 연주회
지휘 박은성
베토벤 교향곡 '운명', 슈베르트 교향곡 '미완성'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비창'
정기 4회 오페라 발레 합창반주 21회 특별 기타연주 28회

1996년 토월오페라 시리즈를 제작하기 시작한다. 대극장 오페라는 1997년 '박쥐'를 제작하였다. 예술의전당 오페라는 당시까지 학연 중심으로 캐스팅되던 오페라계의 관행을 벗어버리고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배역을 결정했다. 선진 오페라 제작시스템을 도입해 만들어진 오페라는 질적으로도 우수했고 예술의전당이라는 브랜드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된다. 첫 작품은 '피가로의 결혼'으로 영국 로얄오페라하우스의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새 버전이었다. 소프라노 신영옥, 바리톤 윤형, 카운터네터 이동규, 바리톤 조르지오 카두로 등이 출연한 이 오페라극장 재개관 특선작에서 코리안심포니는 오페라 가수들을 받쳐주는 특유의 호흡으로 공연을 더욱 빛나게 했다.
2009년은 1만 5천석 규모의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공연, 4500석 규모의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호세 카레라스 내한공연에 코리안심포니가 오케스트라를 맡은 해이기도 하다. 이해부터 코리안심포니는 예술의전당 팝스콘서트에 출연하며 영화 '쉬리'와 '태극기 휘날리며'에 이어 본격적인 대중음악 장르로도 레퍼터리를 넓혀가는 해가 된다. 여름에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했던 팝스콘서트는 인기를 타고 11월에 대전 예술의전당에서도 하게 되었다.

2009년

1월 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9 신년음악회
1월 13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공연 지휘 유진 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소프라노 이지영 메조소프라노 캐서린 젠킨스
3월 6일~14일	예술의전당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3월 1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코리안심포니 초청 바리톤 우주호 독창회
4월 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9 교향악 축제 지휘 박은성 바이올린 서민정 서순정 그린 힐 판타지('청산에 살리라' 주제에 의한 환상곡),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교향곡 제2번
4월 25일~2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5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최종결선
5월 12일	경희대 평화의전당 호세 카레라스 내한공연 지휘 데이비드 히메네스 테너 호세 카레라스
8월 10일	예술의전당 베스트 클래식
9월 0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64회 정기연주회 지휘 박은성 클라리넷 벤젤 푹스 '베를린필 수석' 니콜라이 윈저의 명랑한 부인들 서곡,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브루크너 교향곡 제6번
09월 2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팝스콘서트
10월 11일	탐방음악회 정동제일교회 창립 124주년 기념음악회
10월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9 대한민국 국제음악제 지휘 박은성 바이올린 다니엘 게데 첼로 율리우스 베르거 피아노 올리버 케른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9번, 브람스 바이올린과 첼로 2중 협주곡 베토벤 3중협주곡
11월 1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음악회

11월 29일 대전예술의전당 팝스콘서트(대전)
정기 5회 오페라 발레 합창반주 44회 특별 기타연주 23회

2010년은 코리안심포니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였다. 창단한 지 꼭 25주년이 되던 2010년 3월 30일 기념연주회에서 상임지휘자 박은성과 코리안심포니는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협연 조성진), 모차르트 '마술피리 서곡'을 선보였다. 창단 기념 해를 맞아 작고한 초대 음악감독 홍연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고른 레퍼토리였다. 이날 협연한 16살 피아노 영재 조성진은 5년 후인 2015년 4년마다 폴란드에서 열려 피아니스트들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피아노 분야의 최고 권위 쇼팽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는 쾌거를 올린다. 그동안 산적했던 숙제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단은 정리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기에 더욱 성대했던 25주년 기념음악회 팜플렛에 실린 김형주 음악평론가의 글을 통해 살펴보자.

교향악운동의 위상으로 우뚝 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오늘날 교향악운동은 문화 선진국의 상징이자 경제대국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교향악단의 육성과 운영은 고도의 정신문화의 산물이자 필수적인 문화예술의 발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기능이자 막대한 경제적 지원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특수한 사회기능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수한 교향악단을 보유하고 교향악운동이 활발한 나라는 모두 강대국이자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에서는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교향악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정부가 먼저 나서서 우수한 교향악단 육성과 지원으로 교향악운동을 이끌고 있다. 그러기에 유럽 선진국의 교향악단이나 오페라단 같은 음악단체들은 거의 국립으로 운영하며 정부가 직접 챙기고 있고 단원들은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사회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많은 문화재단의 지원을 정기적으로 받아 교향악단들이 운영되고 있다. 하다못해 시민 개개인이 자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시립교향악단을 운영하는 지방도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들처럼 정부가 나서서 운영이나 지원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처럼 기부문화가 정착된 사회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장 어정쩡한 나라, 음악활동 하기가 가장 힘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척박한 사회 여건 속에서 그것도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25년 전에 순수한 민간 교향악단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탄생한 것이다. 문화공보부 산하 공연단체로 국립극장 소속이었던 국립교향악단이 1981년 KBS로 이관되자 상임지휘자로 있던 홍연택 감독이 스스로 물러나 당시 이관과정에서 동의하지 않고 사임한 단원들을 다시 규합, 비장한 각오로 민간단체인 코리안심포니를 창단하게 되었다. 그것도 이합집산 하는 단체가 아니라 상설 전문 직업단체로서 말이다. 운영기금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등을 기댈 만 한 스폰서가 있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시작한 모험을 자청한 것이다.

그때부터 홍연택 감독은 형극의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 자나깨나 단체운영에 온몸과 마음을 쏟아부어 국회를 비롯, 정부, 문화예술진흥원(현 문화예술위원회), 기업체 등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호소하는 것이 일과가 되어버렸다. 연주회를 위해 단원들과 연습을 해야 할 지휘자가 연습은 뒷전으로 운영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녀야 하고, 그것도 사교성이 없는 무뚝뚝하기로 이름난 자존심 강한 성격에 구

걸하듯 여기저기 손 내미는 행위는 죽기보다 싫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단체를 살리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는 이따금 만나면 "단원들의 봉급날이 다가오면 피가 바싹바싹 말라요." 또는 "결산일이 가까워지면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요." 하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때론 "어렵더라도 참고 따라주는 단원들이 고마워요" 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결국 과로가 겹쳐 쓰러지고 만다.
그는 그의 마지막 여생을 온 영혼과 몸을 던져 단원들과 힘을 모아 오직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확고한 자립의 터전을 만들어놓고 떠난 것이다. 그렇기에 창단 25주년의 오늘의 영광은 땀과 피가 마르는 노력으로 가시밭길을 인내하며 극복하고 오늘을 있게 한 고 홍연택 감독과 단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다행으로 국내 지휘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박은성 감독을 영입한 이래 견실한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세계정상급 합주기능은 아니더라도 서구 선진들의 청중들이 들을 만한 연주기능은 가지고 있다고 보아진다.
글로벌 시대를 지향하는 시대의 요청이라면 코리안심포니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해외연주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국제무대에서의 비상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본다.
끝으로 창단 2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오늘의 위대한 영광을 일구어낸 고 홍연택 감독과 단원들에게 이 글을 바치는 바이다.

2010년 6월에는 드디어 그렇게도 고 홍연택 초대 음악감독이 꿈꾸었던 일이 일어났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단독으로 뉴욕 카네기홀과 LA 세리토스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미국 순회공연을 가졌다. 뉴욕 공연은 바이올리니스트 주디 강, LA 공연은 피아니스트 홍국희가 협연자로 나섰다.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 공연은 특히 뜻깊었다. 1891년 개관되어 미국 클래식문화의 요람으로 알려진 곳, 1960년 링컨센터 개관 이전까지 뉴욕필을 상주 오케스트라로 거느리고 있었으며, 뉴욕필 이주 이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들이 미국공연의 연주장으로 선택하던 '또 하나의 거대한 악기' 카네기홀에서 가장 큰 메인홀, 1997년 이 공연장을 살려낸 바이올리니스트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2800여석의 아이작 스턴 홀에 박은성과 코리안심포니가 올랐던 일이기 때문이다. 불과 4개월전, 뉴욕필이 카네기홀 개관 120년 기념연주회를 했던 그 페렐만 스테이지에서 코리안심포니는 창작관현악 서순정의 '유현', 브람스 바이올린협주곡,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의 가장 정통적인 교향악 레퍼터리를 올렸다. 바이올린 협연은 2006년 일본 문화성 초청 무대예술페스티벌 아시아 오케스트라 위크에서 함께 했던 캐나다 교포 주디 강이었다. 모든 것이 초토화되었던 6.25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건설과 민주주의를 둘 다 이룩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의 문화적 저력을 드러낸 이 공연에 대해 뉴욕타임즈의 스티븐 스미스 기자는 "인상주의적인 색채와 제스처로 가득한 초현실적인 분위기, 거기에 속삭이는 듯한 목관과 확신에 찬 금관의 사운드, 그리고 희미하게 빛나는 금속 타악기가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는 무대였다" 라는 평으로 당시의 무대를 극찬한 바 있다.
6일후 LA 세리토스홀에서 개최된 공연은 협연이 재미 피아니스트 홍국희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으로 바뀌었다. 이 공연 역시 LA 타임스를 비롯한 현지언론의 격찬을 받는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로서는 뉴욕필과 LA필이 버티고 있는 교향악의 고장에서 수준 높은 현지 클래식 팬들과 음악전문 기자들에게 호평을 이끌어내면서 스스로의 음악성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한편 이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욕적으로 진행한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시리즈가 실행되는데 사실상의 국립교향악단 역할을 해내고 있는 코리안심포니도 여기 참여하여 거제 옥포문화예술회관, 양평군민문화회관, 고창문화예술회관, 홍성 홍주문화회관에서 연주한다. 이는 문

화소외지역을 방문해 납세자들인 국민들에게 고급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1월 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0신년음악회

1월 9일 고양아람누리 신년음악회
지휘 여자경 소프라노 신영옥 테너 나승서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1월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창작관현악축제
지휘 박은성
정승재 현을 위한 세레나데, 신성아 Windtree:Hymn for theWest,
정현수 메타오케스트라, 김자애 오케스트라를 위한 '꿈을 찾아서'
이근형 Ritual Seasons

3월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66회 정기연주회 '창단 25주년 기념연주회'
지휘 박은성 피아노 조성진
모차르트 '마술피리' 서곡,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4월 1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0 교향악축제
지휘 김덕기 바이올린 김현미 첼로 박경옥
박영근 관현악 '전쟁포로',
브람스 바이올린과 첼로 2중 협주곡, 슈만 교향곡 제4번

4월 2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6회 서울국제 음악콩쿠르 최종결선

5월 4일 아람누리 아람음악당 호세 쿠라 리사이틀
지휘 마리오 데 로제 테너 호세 쿠라 소프라노 김인혜

5월 2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67회 정기연주회 '미국순회공연 기념연주회'
지휘 박은성 바이올린 양고운
서순정 '유현', 브람스 바이올린협주곡,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6월 1일 뉴욕 카네기홀(Stern Auditorium/Perelman Stage) 코리안심포니 미국순회 공연
지휘 박은성 바이올린 주디 강

6월 7일 L.A 세리토스센터 코리안심포니 미국순회 공연
지휘 박은성 피아노 홍국희
서순정 '유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교향곡 제2번

9월 1일~11월 29일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관현악 연주회'
거제 옥포문화예술회관, 양평군민문화회관
고창문화예술회관, 홍성 홍주문화회관

10월 17일 정동제일교회 창립 125주년 기념음악회

10월 2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70회 정기연주회 'The Romantic'
지휘 최희준 첼로 양성원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샤르카', 슈만 첼로 협주곡
드보르작 교향곡 제8번

11월 1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호세 카레라스 내한콘서트
지휘 데이비드 히메네스 테너 호세 카레라스 소프라노 강혜정

12월 29일~31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국립오페라단 '갈라 콘서트'
지휘 김주현 소프라노 박은주, 임세경, 김상은, 황수미
메조소프라노 정수연, 최종숙,
테너 김재형, 정호윤, 전병호, 강신모, 카운터테너 이동규,
바리톤 고성현, 우주호, 김주택, 베이스 박준혁
정기 6회 오페라 발레 합창반주 38회 방방곡곡 4회, 특별 기타연주 16회

코리안심포니가 일으킨 새로운 바람

박은성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미국에서 대서양 연안의 대표도시 뉴욕과 태평양 연안의 대표도시 LA에서 코리안심포니 단독 순회공연을 통해 교향악의 본고장에 격찬을 받고 돌아오는 등 3년간에 걸친 재임을 마치고 그 뒤를 이을 다음 리더는 국내 음악계로서는 다소 의외의 인물이었다. 2011년 1월 독일 작센주립극장의 수석지휘자 최희준이 당시 국내 최연소 상임지휘자라는 명예를 안으며 제4대 예술감독(음악감독에서 명칭변경)으로 취임한 것이다.

그는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지휘과 및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료했고, 드레스덴 국립음대 개교 이래 최초로 지휘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2003년에는 독일 전 음대 지휘 콩쿠르에서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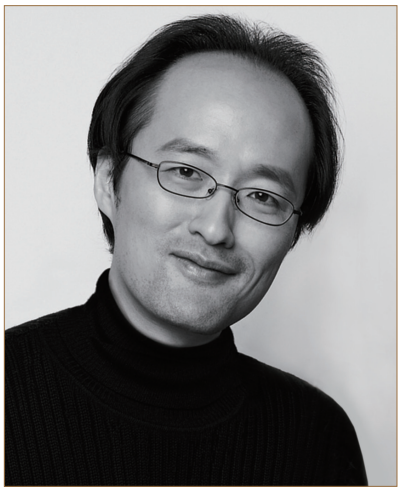
[창단25주년 기념음악회 2010.3.30 _ 지휘 박은성]

위원 만장일치로 카라얀상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으며, 2005년에는 바트 함부르크 지휘 콩쿠르에서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최희준은 베를린 심포니(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예나필하모니, 카셀, 브란덴부르크, 라인란트 팔츠 등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했고, 뮌헨 국립 가극장, 하이델베르크 오페라 하우스, 안나베르크 오페라 하우스 등에서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를 비롯한 다수의 오페라 공연을 성공적으로 지휘해 유럽에서 각광받는 젊은 지휘자였다. 특히 라인스베르크 궁 가극장에서는 Joern Arnecke의 '세 영웅'(Drei Helden)을 초연한 후 독일의 유력일간지 '베를린 모르겐포스트'로부터 "지휘자 최희준은 연주자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는 지휘자"라는 평을 받으며 독일 교향악을 이끌어갈 10대 유망지휘자에 선정되는 등 독일에서 단단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특히 최희준은 간간이 국내에 들어와 코리안심포니를 비롯한 다양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을 잡았는데, 성년을 넘기고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필요한 코리안심포니에게 적합한 지휘자라는 판단에 의해 예술감독으로 영입되었다.

그 새로운 바람은 3월 30일 열린 취임연주회에서부터 실감할 수 있었다. '아는 만큼 들린다!! 공연의 또 다른 재미!! 장일범과 함께하는 렉처 콘서트(Lecture Concert)'라는 부제가 붙은 본공연의 사전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2011년 열리는 모든 정기연주회에서는 19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음악평론가 장일범이 나서서 그날 연주될 프로그램과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작곡가들의 숨은 얘기들을 먼저 들려주어 '아는 만큼 들리는' 감상과 아울러 공연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전했다.
이 젊고 패기 넘치는 수장은 클래식의 본고장 유럽에서도 청중의 고령화와 감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도된 '대중과 클래식의 거리 좁히기'에 더욱 발벗고 나섰다. 그 결과로 국내 교향악단 최초로 클래식음악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자체 제작해 생후 36개월부터 공연관람이 가능하게 한 "키즈 콘서트"가 태어났다. 2012년 5월 시작된 키즈 콘서트는 여름방학 때 "앙코르 키즈 콘서트"를 해야 할 만큼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이미 꾸준히 해오던 청소년음악회나 협주곡 콘서트와는 다른 형태로 신인아티스트들의 등용문이 되고있는 "라이징 스타" 등 획기적인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이로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쉼없이 진일보하는 오케스트라'라는 평을 받게 되었다.

최희준은 지휘자로서 느낀 코리안심포니의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코리안심포니는 국내 어느 교향악단보다 연주회 횟수가 많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집중이나 응집력이 매우 강하다. 어떤 지휘자가 오더라도 적응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다양한 지휘자와 함께 작업할 기회가 많다보니 지휘자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물론 평가는 매우 정확하다. 그래서 예술감독으로서 항상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말이 있다. '어떤 지휘자가 오더라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 지휘자가 바뀌더라도 항상 일정 수준의 음악을 들려주어야 한다"

('객석' 2012년 1월호).



최희준

제4대 코리안심포니 예술감독 · 상임지휘자
(2011.1~2014.1)

2011년

1월 11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스팅 '심포니시티 콘서트'
1월 1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히사이시 조 내한공연 지휘 및 피아노 히사이시 조
1월 25일	서산문화회관 초청 '신년음악회'
3월 5일	2011 신춘음악회
3월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72회 정기연주회 '최희준 상임지휘자 취임기념' 지휘 최희준 하이든 교향곡 제88번, 말러 교향곡 제5번
4월 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1 교향악 축제 지휘 성기선 피아노 강충모 김지향 범패승을 위한 협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제5번
5월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안젤라 게오르규 내한공연 지휘 이온 마린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 테너 스테판 마리안 포프
5월 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한국-호주 수교 50주년 기념 서울국제음악제 지휘 아리엘 주커만 바이올린 양고운, 첼로 리웨이 퀸, 피아노 이안 먼로, 리코더 주느비에브 라이시 비발디 리코더 협주곡, 마르티누 3중 협주곡, 드보르작 교향곡 제7번
6월 12일~28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국립발레단 '제1회 대한민국발레축제'
8월 3일~11월 24일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오케스트라의 밤' 논산문화예술회관, 평창문화예술회관, 제천문화예술회관, 예산문화예술회관 곡성문화예술회관, 장성문화예술회관, 완도예술의전당
8월 8일	2011기획공연-청소년을위한 협주곡 시리즈
8월 12일	예술의전당 야외무대 오픈 기념공연
8월 21일	예술의전당 가족음악축제
8월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1 대한민국 국제관악제 지휘 요한 데 메이 '반지의 제왕 교향곡 작곡'
9월 1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75회 정기연주회 지휘 최희준 첼로 라즐로 페뇌 글린카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제1번,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4번
9월 24일,27일,28일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현대캐피탈 조수미 파크콘서트 '데뷔 25주년 기념' 지휘 스티븐 머큐리오 소프라노 조수미 테노 조셉 칼레야 팝페라 가수 임태경 비올라 리차드 용재 오닐 기타 밀로쉬 바이올린 이현웅
10월 9일	정동제일교회 창립 126주년 기념음악회
10월 2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향기로운 음악회
10월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심포닉시리즈

12월 29일,31일　국립오페라단 '송년갈라콘서트'
정기 기획연주회 7회, 오페라 발레 합창반주 43회
방방곡곡 7회, 특별 기타연주 27회

숙원이던 전용연습동의 개관

2011년은 최희준 제4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취임도 코리안심포니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지만 또 하나의 뜻 깊은 일이 있었다. 드디어 전용 오케스트라 연습실을 갖게 된 것이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정확하게 창단 26주년을 맞이한 2011년 3월 30일 예술의전당 야외무대가 있던 우면산 자락에 6,344㎡, 9개 공연스튜디오를 가진 국립예술단체 연습동이 개관했다.

2000년 정부정책에 따라 예술의전당 상주단체로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이 입주하고 한 해 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뒤따라 입주하고 10년후 또 하나의 상주단체 국립현대무용단이 창단되어 예술의전당은 5개 상주 예술단체를 품은 공연예술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10년에 걸친 세월동안 코리안심포니와 국립예술단체들은 예술의전당 부속 공간을 활용해 공연 연습을 해왔으며, 각 단체들은 연습 공간의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량을 연마해 온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2009년 1월에 착공해 이날 개관한 연습동은 오페라, 발레, 합창, 현대무용, 오케스트라 전용의 9개 공연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어 무대와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음은 물론, 서로 다른 성격의 예술 단체들이 한 공간에서 연습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서로 다른 장르 간 교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예술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전용 연습실을 사용하게 된 코리안심포니는 최신식의 쾌적한 합주연습실과 소형연습실에서 다양한 편성의 연습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어 한층 안정된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문화복지를 내세운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코리안심포니 시네마천국'은 아주 인기가 높아 무려 14곳에서 코리안심포니를 초대했다. 이 해 이미 한 차례 취소된 후 두어 해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라두 루푸가 내한하여 독주회에 이어 베토벤 협주곡 제3번과 4번을 연주하는 협주곡 콘서트가 있었다. 물론 코리안심포니가 함께 했다. 영원한 파트너 국립발레단의 50주년 기념공연도 뜻 깊은 이벤트였다.

2012년

1월 10일　2012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음악회

4월 2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2 교향악 축제
지휘 최희준 하프 곽정
김승림 교향 정경 '여전히 울리고 있는…'
마리오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 : 하프,
현악 4중주와 세 대의 클라리넷을 위한 소협주곡 (안성민 현악 합주 편곡판)
바르토크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4월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최종결선

5월 2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2기획공연시리즈I-키즈콘서트 지휘 정주영 스토리텔러 션 (가수) 피아노 조재혁, 오윤주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림스키-코르사코프 셰헤라자데
5월 25일	2012 아람누리 심포닉 시리즈
6월 1일~11월 14일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코리안심포니 시네마천국' 김제 지평선문화예술회관, 순천문화예술회관, 한천초등학교, 진천문화예술회관, 담양문화예술회관, 사천문화예술회관, 옥종초등학교, 경남문화예술의전당, 나주문화예술회관, 나주중학교, 부여 백제문화예술회관, 울진문화예술회관, 문경문화예술회관,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6월 8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국립오페라단 '창작오페라갈라'
6월 15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강수진 &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카멜리아 레이디'
6월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80회 정기연주회 지휘 테오 월터스 호른 김영률 멘델스존 서곡 '헤브리디즈', R.슈트라우스 호른 협주곡 제2번 브람스 교향곡 제2번
8월 2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앙코르 키즈콘서트 Summer Special Concert
9월 8일	제2회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캠프 & 콩쿠르 결선
10월 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2 안익태 기념음악회 지휘 정치용 첼로 이강호 테너 김남두 서울시합창단, 안산시립합창단 안익태 논개, 한국환상곡, 생상스 첼로 협주곡 제1번, 임준희 어부사시사
10월 29일~30일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 (부산문화예술회관, 서울)
11월 10일~11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국립발레단 창단 50주년 기념공연
11월 1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라두 루푸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 지휘 이대욱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4번
12월 29일~30일	국립오페라단 '송년갈라' 정기 기획연주회 10회, 오페라 발레 합창반주 43회 방방곡곡 14회, 특별 기타연주 21회

2013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 광장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공연
4월 3일	연세대학교 100주년기념관 백양콘서트홀 재개관 페스티벌-오프닝 갈라 콘서트
4월 1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3 교향악축제 지휘 최희준 피아노 임효선 스메타나 '팔려간 신부' 서곡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드보르작 교향곡 제8번
4월 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개관25주년-코리안 월드스타 시리즈 '장한나' 지휘 장한나 가야금 황병기 라벨 라발스, 황병기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8번

5월 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애니메이션 위드 오케스트라 : 키즈콘서트
지휘 정인혁 피아노 조재혁, 오윤주 나레이션 박성태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림스키 코르사코프 '셰헤라자데'

5월 10일~11월 25일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브로드웨이 뮤지컬 콜렉션'
가야초등학교, 함안문화예술회관, 의령초등학교, 의령군민문화회관
화순하니움문화센터, 서산시문화회관, 부춘초등학교, 문명고등학교
경산시민회관,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5월 1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국립합창단 창단40주년 기념 합창갈라콘서트

5월 19일 덕수궁 2013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덕수궁 고궁음악회

6월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라이징스타 시즌Ⅱ
지휘 서진 클라리넷 김주현 바이올린 이희명
베버 '마탄의 사수' 서곡, 코플란드 클라리넷 협주곡
하차투리안 바이올린 협주곡

7월 26일 아람누리 하이든홀 2013아람누리 심포닉시리즈

10월 17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그랜드 오페라 '아이다'

11월 2일 태국 방콕 국립극장 2013코리안심포니 아시아투어
: 태국 '태국 한국문화원 개원기념음악회'
지휘 최희준 피아노 김태형
임준희 댄싱 아리랑,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5번

11월 4일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문화예술센터 2013코리안심포니 아시아투어
: 싱가포르 '싱가포르 한인50주년 기념음악회'

11월 13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ARKO한국창작음악제

12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3송년음악회
지휘 요하네스 프리츠
소프라노 김영미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이원준 베이스 손혜수
베토벤 서곡 '레오노레' 제2번, 교향곡 제9번 '합창'

12월 29일~30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국립오페라단 '2013오페라갈라'
정기 기획연주회 9회 오페라 발레 합창반주 41회 방방곡곡 10회,
특별 기타연주 19회

2013년 코리안심포니의 역사는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공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찬바람 몰아치는 한강변 여의도의 야외에서 단원들은 곧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소중한 악기가 받을 영향을 걱정하고 무대에 올랐지만, 코리안심포니에게는 때와 장소와 환경을 가리지 않고 음악이 필요하다면 달려가는 창단 때부터 내려오는 정신이 있기에 역사의 현장을 마다하지 않았다.

예술의전당 개관 25주년을 기념하는 월드스타 시리즈에 첼리스트로 더 유명한 장한나가 지휘대에 올라 코리안심포니를 지휘한 것도 기억할 만하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가야금 명인 황병기가 자신이 작곡한 가야금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연주에 직접 협연을 했고 스메타나와 드보

르작 교향곡이 연주되었다. 키즈콘서트는 조금 더 진화되어 '애니메이션과 함께 하는 키즈 콘서트'가 되었고 역시 매진을 기록했다.

최희준과 코리안심포니는 2013년 11월 동남아시아 순회공연을 맞이한다. 한국문화원 개원 기념음악회 (태국 방콕 국립극장)와 싱가포르 한인 50주년 기념음악회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국립문화센터)로 아시아 투어를 가졌다.

2010년부터 매년 연말에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에 이어 송년 오페라갈라 공연을 해오던 천생의 파트너 국립오페라단과는 국내 초연작 프란시스 풀랑의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 (2011), 베르디의 '파르지팔' (2013)에서도 호흡을 맞추어 호연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립발레단 역시 국내 초연작 '봄의 제전' (2014)을 함께 하면서 호평을 받았다.



[2013코리안심포니 아시아투어_태국 2013.11.2 _ 지휘 최희준]



[2013코리안심포니 아시아투어_태국 2013.11.2 _ 지휘 최희준]



[2013코리안심포니 아시아투어_싱가포르 2013.11.4 _ 지휘 **최희준**]



[2013코리안심포니 아시아투어_싱가포르 2013.11.4 _ 지휘 **최희준**]



임헌정

제5대 코리안심포니 예술감독상임지휘자
(2014.01 ~)

©DAYLIGHT studio_ Cho Nam Ryong

새로운 30년에 거는 기대

창단 30년째를 맞는 2014년 1월 코리안심포니는 제5대 예술감독으로 임헌정을 맞아들인다. 사람으로 치면 약관을 지나 뜻을 세우는 나이다. 이미 한국의 3대 교향악단으로 자리잡은 코리안심포니에 부천필하모닉에서의 성공적인 25년을 보내고 취임한 임헌정은 월간지 객석과의 인터뷰 (2015)에서 뜻밖에 코리안심포니의 열악한 임금 구조에 대해 언급했다.

"사회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우선 음악가로서 할일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일단 연주를 잘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공감을 얻겠죠."

예술감독 임헌정의 고민은 30년 전 오케스트라 창단 시절 홍연택 음악감독의 고민과 일면 맞닿아 있는 듯하다. 이미 한 오케스트라를 조련하여 만인이 인정하는 수준까지 올려놓은 바 있는 임헌정과 함께 코리안심포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거듭나고 있다. 3년간 예술의전당과 함께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연주에 도전하는 브루크너 시리즈가 2014년 시작되었고, 취임과 함께 상주 작곡가 제도를 도입해 첫 번째로 김택수를 위촉했다. 상주작곡가로서 김택수가 새로 작곡한 오케스트라 편성의 두 작품은 2015년에 초연되었다. 그리고 미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이수연도 상주작곡가로 맞아들였다. 기존의 정통 클래식 레퍼터리 외에도 교향악이 시대정신을 반영한 음악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곡들은 물론 새로운 신작의 창작과 아울러 날로 늘어나는 교향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편곡들도 필요해 교향악단 상주작곡가 제도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널리 일반화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코리안심포니도 여기 발맞추어 두 상주작곡가와 함께 가기로 했다.

최희준 예술감독 시대의 히트작이 키즈 콘서트였다면 진지함의 대명사 임헌정 예술감독 시대의 대표 상품은 아마도 '철학'을 주제로 음악과 인문학이 만나는 형태의 공연인 '토킹 위드 디 오케스트라'가 될 것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출신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의 해설로 진행하는 이 시리즈는 철학적 테마를 공유하는 여러 작곡가의 작품들을 모아 그 시대정신을 들여다보고 음악으로 확인하는 형태로 유럽에서도 흔치 않은 신선한 기획으로 받아들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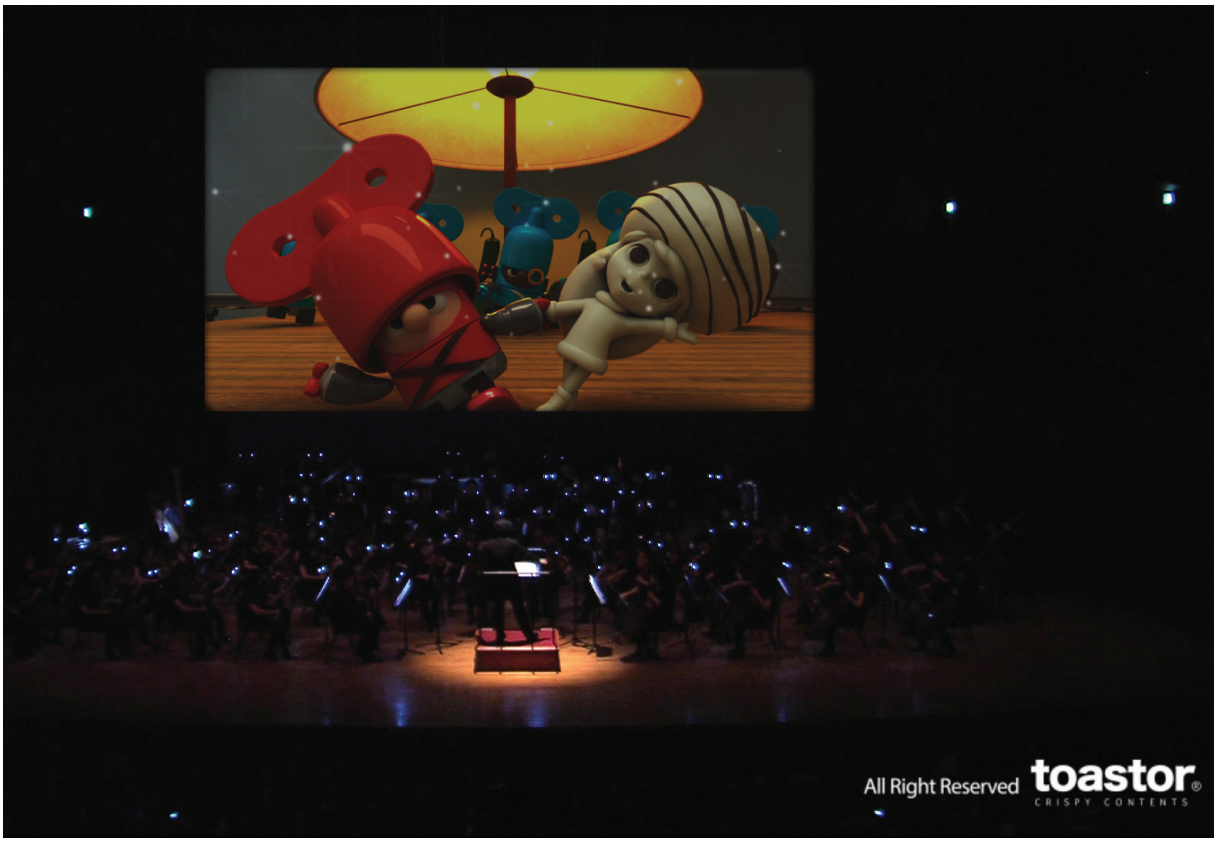
2014년 2월에 코리안심포니는 소치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동계올림픽의 폐막식 때 사용할 연주를 녹음하였다. 다음 대회인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기에 다음 대회 호스트인 평창이 폐막식 후반부를 담당해 다음 대회를 알리는 이 자리에서 코리안심포니는 동서양을 넘나드는 사운드로 전 세계에서 직접 또는 TV로 폐막식을 지켜본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현재 코리안심포니는 정기 및 특별연주회, 청소년음악회와 전속반주 계약단체들의 공연 외에도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획공연 15~39세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연주자를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해 실력 있는 신인 연주자를 발굴하는 프로젝트 '라이징 스타'는 2012년에 시작되었다. 오디션에서 최종 선발한 연주자는 '라이징 스타' 시리즈 공연을 통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코리안심포니와 협연 무대를 갖는다. 2014년부터는 인문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관현악 작품을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의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토킹 위드 디 오케스트라'를 마련해 음악과 인문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지방공연 '방방곡곡 문화공감'을 통해 매년 레퍼토리를 달리하며, 재정자립도 40% 미만인 지방 문예회관 및 소외 시설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치고 있다. 현악 4중주 · 금관 5중주 등 실내악 편성에 해설을 곁들여 서울 · 경기 지역 소외 계층 시설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역시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예술의전당의 기획프로그램인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연주 시리즈에 이어 '11시 콘서트', '제야음악회', '콘텐츠영상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코리안심포니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교향악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모든 기획프로그램과 상주 오케스트라로서의 연주에 있다.

2014년

1월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90회 정기연주회 지휘 최희준 피아노 박종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2월 13일	세종시문화예술회관 세종시 신년음악회
2월 23일	러시아 소치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 연주 (녹음)
3월 29일~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동아일보 서울국제음악콩쿠르 결선
4월 1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4 교향악축제 지휘 이병욱 피아노 허승연 바그너 리엔치 서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4번, 생상스 교향곡 제3번 '오르간'
5월 2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애니메이션 위드 오케스트라 : 키즈콘서트 지휘 이병욱 피아노 조재혁, 이효주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인형 모음곡
6월 1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제191회 정기연주회 임헌정 예술감독 취임연주회 지휘 임헌정 첼로 마르틴 뢰어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
7월 12일	성남분당중앙공원 성남파크콘서트 '한여름밤의 클래식이야기'
7월 21일~12월 2일	방방곡곡문화공감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정읍사예술회관, 제주문예회관, 속초시문화회관 서천문예의전당, 당진문예의전당
8월 1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세계합창제 폐막연주회
9월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취임연주
10월 3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Talking with the Orchestra Ⅰ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지휘 임헌정 해설: 최은규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 R. 슈트라우스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1월 21일	예술의전당 브루크너 시리즈 I 정기 기획연주회 9회, 오페라 발레 합창반주 47회 방방곡곡 5회, 특별 기타연주 26회



[키즈콘서트 2014.05.24_지휘 **이병욱**]



[제191회 정기연주회 2014.06.19_ 지휘 **임헌정**]





[아시아투어_싱가포르 2013.11.4 _ 지휘 최희준]

제4부 | 예술조직과 경영조직의 분리 (2015~현재)

2015년 창단 30주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15년 창단 30주년을 맞이하여 새해 벽두부터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다. 1월 2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음악회는 오페라, 발레, 교향악을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답게 각 장르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무대를 채웠다. 모차르트 '돈 조반니'의 아리아들은 바리톤 염경묵(돈조반니), 바리톤 공병우 (레포렐로), 소프라노 강혜정 (체를리나)이 불렀다. '발레' 무대는 국립발레단과 함께 매년 선보이고 있는 '백조의 호수' 중 6곡을 선별해 만든 연주용 모음곡을 연주했다. 마지막 '교향악'은 관객들이 선정한 다시 듣고 싶은 앙코르곡 말러 '교향곡 제9번' 중 4악장이었다.
코리안심포니 창단 30주년은 2015년 음악계 이슈였다. 2014년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 오케스트라와 철학의 만남을 주도한 '토킹 위드 디 오케스트라'는 2015년엔 문학을 주제로 리스트의 파우스트 교향곡을 연주했다.
'라이징스타 시즌Ⅳ'에 새로이 발굴될 바이올린과 금관 (트럼펫 또는 트롬본)부문 신예들의 무대였다. 2014년 11월부터 시작했던 예술의전당 기획시리즈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 사이클'은 임헌정 음악감독과 단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공연으로 음악애호가들을 사로잡았다. 2015년 코리안심포니의 힘을 보여준 최고의 음악이었다.

유럽투어도 다녀왔다. 10월,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의 '브라티슬라바 뮤직 페스티벌'과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릴 '브루크너 페스티벌'의 폐막 공연에서 연주했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서곡을 시작으로 코리안심포니 상주작곡가 김택수의 창작곡 '솔로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코오'를 국제무대 초연했으며,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도 연주했다.
제1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북에서 발췌한 홍연택 초대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창단 취지문과 30주년 기념음악회에 실린 재단법인 코리안심포니의 제2대 이사장이자 4년간 공석이던 제2대 음악감독을 맡았던 김민의 축사를 이어서 놓고 보면 지난 30년의 고단하면서도 자랑스런 역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코리안심포니의 창단취지

약 1세기의 짧은 서양음악의 도입과 발달 과정을 거쳐온 우리나라에서도 문화민족으로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 오케스트라의 창단을 한두번 시도해 왔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결국 정부차원의 지원에 의해서만 오케스트라의 활동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조국 창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세계에 선포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86, '88올림픽을 통해 집중된 세계인의 이목에 비춰질 문화국의 모습을 준비해야 된다는 외침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급격히 향상된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과 두터워진 사회 중산층의 성장으로 인해 고도의 기술을 연마한 오케스트라 인재들을 길러왔습니다. 여기에 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최초의 민간 오케스트라로 발족하는 중요한 창단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1985년 3월 30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창단 공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간 오케스트라의 운동이 활발히 꽃 피우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발전시키며 향유코자 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새로이 출범하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이 나라 음악문화의 향상을 위해 힘껏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985. 3 홍연택

축사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창단 30년을 맞는 2015년 본인은 축하하는 마음과 함께 떠오르는 감회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를 탄생 시키신 창단자이자 초대 상임지휘자인 故홍연택 선생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979년 당시 국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이셨던 홍연택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본인은 10여년의 독일 음악 생활을 뒤로하고 국립교향악단의 악장으로 취임하면서 홍연택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에서의 음악 인생을 시작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1985년 홍 선생님에 의해 창단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선생님께서 17여년을 끊임없는 도전과 집념으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셨다. 한없이 무뚝뚝하고 과묵하신 홍연택 선생님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사랑과 정열은 어느 누구라도 감동하기에 충분하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창단 30주년은 그 동안 30년의 세월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민간 오케스트라의 험난하고 어려운 여정의 시간들에 초대 상임 지휘자 홍연택 선생님과 함께 젊은 오케스트라 연주자로 뜻을 같이한 단원들의 열정이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큰 혼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오케스트라를 향한 단원들의 강한 애착과 긍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또 한 번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민간 오케스트라의 성공 의지와 도의를 위하여 지금까지 역량 있는 상임지휘자가 영입되면서 미래의 명실공히 한국의 3대 교향악단이라는 카테고리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롭게 되길 바란다. 또한 한 때나마 잠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를 위해 봉사하였던 나는 본 오케스트라의 연주 영역이 끝없이 세계무대로 향하는 발전을 기대해 본다.

다시 한 번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창단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코리안심포니는 창단 25주년을 맞이한 2010년에 미국 순회 공연에 이어 창단 30주년이 되는 2015년에 임헌정과 함께 클래식음악의 본고장인 유럽 순회공연을 했다. 고 홍연택 음악감독의 꿈이 전용 연습장과 함께 다시 한번 이루어진 것이다. 9월 30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를 방문해서는 바트로슬라브 리신스키 콘서트홀에서 연주했고 10월 2일에는 초청받은 슬로바키아 가을 페스티벌 초청연주회로 슬로박 필하모닉홀에 섰으며, 이틀 후에는 오스트리아 브루크너 페스티벌에 정식 초청 오케스트라로 브루크너하우스 메인홀에 올랐다.

모차르트 '마술피리' 서곡,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과 함께 상주작곡가 김택수의 솔로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코오'가 세계초연되었다. 이 작품에는 비올리스트 이유라가 함께 했다. 클래식의 본고장 유럽무대에서 그것도 브루크너의 본고장인 린츠에서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 완주에 도전하고 있는 코리안심포니가 연주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다.

코리안심포니가 걸어온 길은 일찍이 대한민국 음악사에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다. 동시에 지난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음악을 향한 열정과 집중력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 국제수준에 도달하여 국민들에게 최고의 음악을 선사해온 나날들을 만들었다. 지난 30년의 역사처럼 코리안심포니의 행보는 앞으로도 한국 교향악의 역사가 될 것이다.

예술조직과 경영조직의 분리시대

역사는 흔히 수레바퀴에 비유된다. 그 수레바퀴를 돌리는 동력이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다. 경제사학자들은 그 동력을 '생산력'이라 하고 마르크스 사학자들은 '인민'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수레는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앞으로 똑바로 나아갈 수 있다. 두 바퀴의 크기가 다르면 아무리 큰 원을 그리더라도 결국 수레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만다. 발전이 없는 정체 내지 순환만 있는 셈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다.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과 프랑스의 축구시즌은 세계 5대 리그로 불린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은 한 대회당 TV시청자 수가 지구 인구수와 맞먹는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중계권료는 한해 8조 5천억원에 달하며, 2015년 포브스지 발표에 의하면 레알 마드리드 축구단은 구단가치 3조 7천억원으로, 야구단으로 유명한 뉴욕 양키스 구단가치 3조원을 제쳤다. 최대 이적료 1566억원은 가레스 베일이 잉글랜드 토트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때 받은 기록이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은 우승상금과 중계권료 배당 포함 약 700억원을 챙길 수 있다. 명문 구단들은 팬들의 관심과 돈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해 선수와 감독을 영입한다. 자체 유소년클럽을 운영하여 미래의 선수들을 키우고, 비시즌 투어 경기와 부대사업을 통해 선순환을 만들어간다.

유럽에서는 삶의 질을 말할 때, 그 도시가 어떤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는가를 내세울 때가 많다. 브루나이나 쿠웨이트처럼 GDP만 높은 나라가 아니라, 문화와 국격 면에서 '선진국'에는 진정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칼럼니스트 최은규는 이들 오케스트라가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된 복합적인 요인은 대체로 세 가지 조건이 전제되고 있다고 말한다. 좋은 지휘자, 좋은 단원, 좋은 경영조직이다. 연주자치고 재정이 안정되고 음악적으로 우수한 오케스트라에서 음악활동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지휘자치고 경영이 안정되고 좋은 단원들을 거느린 오케스트라에서 지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랴. 그러나 경영조직은 드러나지 않는 음지에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이다. 오케스트라에서 경영문제는 종종 간과되어 왔다. 하지만, 청중을 모으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후원자를 모집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사무국이다. 무대 위에 오르지 않는 제3의 연주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 아무리 좋은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라 해도 음악가들을 받쳐주는 경영조직과 후원체계가 튼튼하지 않다면 연주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

오케스트라 경영은 뉴욕 필하모닉의 활약이 눈부시다. 거의 단원 숫자와 맞먹는 수의 전문 경영진과 스태프들을 갖춘 뉴욕 필은 개성 있는 프로그램과 충실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합리적인 티켓 가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다른 오케스트라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해설이 있는 청소년음악회'와 공연 전에 연주할 곡에 대해 해설하는 '프리 토크',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뉴욕 필의 충실한 프로그램은 유럽의 오케스트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842년 유렐리 코렐리 힐 (Ureli Corelli Hill)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주축이 되어 뉴욕 시에 필하모닉협회를 설립함으로써 출발한 뉴욕 필은 오늘날 7인의 이사회 (이사장 Matthew Van Besien) 이하 예술기획 (4명), 국제 아카데미 (1), 자료관 (2), 커뮤니케이션 (4), 개발 (8), 대외협력 (7), 프로그램 운영 (9), 홍보 (4), 교육 (3), 재정 (6), 노무 (1), IT (6), 마케팅 (6), 고객관리 (10), 미디어 (6), 운영 (5), 오케스트라단무 (2), Special Projects (1)로 20개 분야에서 90여명이 경영조직에서 일하고 있다.

음악기획자였던 헤르만 볼프가 19세기 말에 기초를 세우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살아남은 단원들이 운영조직을 만들어 재건한 베를린 필의 경우 한동안 시립으로 운영되다 2002년 재단법인으로 독립되었다. 음악감독 사이먼 래틀과 이사장 마르틴 호프만을 포함한 4명의 이사와 2명의 부이사로 구성된 이사진, 9명의 위원과 8명의 예비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산하 각종 부대사업 포함 총 140명에 이르는 경영조직을 운용하여 세계 최정상 악단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 콘서트홀'은 카라얀 시대부터 정평이 난 베를린 필의 미디어 친화력을 최대로 발휘해 갈수록 사양화되는 클래식 시장에서 베를린 필의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용료를 통해 수익사업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원래 '오케스트라 (ορχήστρα)'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합창단이 노래하고 춤추던 장소였으나 바로크시대에 다시 부활하여 연주자 집단을 의미하게 되었다. 음악사를 살펴보면 오늘날 관현악단의 기원은 16세기경 귀족의 궁정에 고용된 합주단과 교회 및 왕실의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중요한 행사를 위해 모인 기악 연주자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오케스트라 음악은 관현악단과 작곡가를 고용할 수 있는 재력 있는 귀족과 왕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낭만시대에 이르러 부유한 부르주아들이 나타나고 음악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클래식음악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예를 들어 말러는 350명의 어린이 합창단 뿐 아니라, 500명의 합창단과 7명의 독창자와 증원된 관현악단을 위한 작품으로, '천인 교향곡'으로 불리는 제8번을 작곡했다.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커지면서 비용도 따라 증가했고, 소속 궁정만으로는 유지가 어려워진 오케스트라는 부유한 음악애호가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필요한 비용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많은 청중을 수용하기 위하여 더욱 큰 연주회장이 세워지는 순환으로 이어졌다. 20세기 음반과 방송의 보급으로 클래식 시장은 커졌고 애호가들도 늘어나 오케스트라들은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다시 클래식 음악은 위기에 처해 있다.
유명 오케스트라들의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필하모닉의 어원은 '음악애호' 또는 '음악애호가'이며, 약 19세기부터 음악애호가들이 주축이 되거나 주요 직위를 맡아 창립시킨 '필하모닉협회 (philharmonic society)'의 산하 관현악단으로 창단된 악단들을 일컫는다. 국립 혹은 시립 악단 가운데에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악단들이 있으나, 그것은 설립의 기원보다는 음악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필하모닉이나 심포니 대신 상주 공연장 명칭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로열 콘세르트헤바우나 라이프치히게반트하우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더 단순하게 지역 명칭만 쓰는 파리 관현악단이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도 있다. 로열 필의 경우에는 명칭처럼 왕립 악단은 아니며, 로열필하모닉협회라는 음악단체의 이름을 빌려 창단했을 뿐이다.
오늘날 많은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은 독립된 협회 또는 재단을 통해 운영되고 중앙정부 또는 주나 시정부의 공공지원과 기업 및 개인후원자들의 민간지원을 통해 유지된다. 예술경영이 예술과 경영 사이에 발을 걸치고 양 부문 모두를 아우르면서도 독특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듯이, 클래식음악의 시장상황이 열악해진 현재의 상태에서 경영조직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장대한 역사의 단체도 페이지 너머로 사라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15년간 홍연택이라는 선구자에 의해 창단되고 발전해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새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법인화되고 예술의전당을 상주공연장으로 정하게 되어 일대 전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격변기에 음악감독 없이 운영조직 위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어나가던 시기,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으며 교훈을 얻어야 했다. 음악감독들의 시대가 도래하여 오케스트라는 음악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의 30년을 위해서는 경영 측면에서도 도약과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할 시점이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15년 5월11일 이원철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음악조직은 예술감독-오케스트라로, 경영조직은 오케스트라의 모든 예술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대표이사-사무국 체재로 진용을 갖추었다. 물론 이 체재가 획기적인 것은 아니며 어느 오케스트라나 있을 수 있는 조직이다. 하지만 경영과 예술이 믿음을 갖고 서로 분리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경영의 예술성'과 '예술의 경영성'이 조화를 이뤄야만 가능한 것이다.

현재의 사무국은 경영관리팀 (2), 공연기획팀 (5), 공연지원팀 (3)으로 단출하지만 소박한 규모로 큰일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일당백이란 말이 있다. 한 사람이 백 사람의 몫을 해오며 바쁜 나날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코리안심포니는 실력이 부쩍 늘면서 한국 오케스트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듯이, 오케스트라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30년동안 쌓아온 악단 경영의 노하우이며 음악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 한쪽이 작으면 제대로 날지 못한다. 음악적으로 발전하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에게는 경영조직의 보이지 않는 날개짓이 그만큼 힘차게 커져야 하는 이유다. 양 날개가 제대로 펴지는 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우뚝 설 것이다.



[2015 코리안심포니 유럽투어(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2015.10.02_ 지휘 **임헌정**]



[2015 코리안심포니 유럽투어(크로아티아 자그레브) 2015.09.30 _ 지휘 **임헌정**]



[2015 코리안심포니 유럽투어(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2015.10.02_ 지휘 **임헌정**]



[2015 코리안심포니 유럽투어(오스트리아 린츠) 2015.10.04_ 지휘 **임헌정**]



[2015 코리안심포니 유럽투어(오스트리아 린츠) 2015.10.04_ 지휘 **임헌정**]



[2015 코리안심포니 유럽투어(오스트리아 린츠) 2015.10.04_ 지휘 **임헌정**]



[2015 코리안심포니 유럽투어(오스트리아 린츠) 2015.10.04_ 지휘 **임헌정**]

SUPPLEMENT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연혁
주요지휘자 / 출연자 레퍼토리 리스트




30
TH
ANNIVERSARY
KOREAN
SYMPHONY
ORCHESTRA
2015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연혁

1985년	
창단 연주회	1985년 3월3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 홍연택 피아노/신수정 Smetana / Die Moldau W.A.Mozart / Piano Concerto No.17 L.v.Beethoven / Symphony No.3 'Eroica'
제2회 정기 연주회	1985년 6월 18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모리 다다시 M.Sop./김신자 Ten/박세원 박영근 / Nostalgia for Orchestra (초연) Berlioz / Les Nuit D'e Te A.Dvorak / Symphony No.9 (from the New World)
제3회 정기 연주회	1985년 7월 14일 세종문화회관대강당 '시민을 위한 프롬나드 콘서트' 지휘 / 홍연택 성악가 다수
제4회 정기 연주회	1985년 9월 3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 모리 다다시, 바이올린 / 德永二男, 첼로 / 김 봉 J.Brahms / Double Concerto P.Thaikovsky / Symphony No.6
제5회 정기 연주회	1985년 12월 15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 홍연택 J.S.Bach / Weihnachts-Oratorium 중 에서 홍연택 편곡 /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
청소년음악회 (8회)	기획 연주 12월 20일 송년음악회 국립극장 대극장
오페라 · 발레 반주	9월 6일, 18일 국립오페라 '라보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0월 1,2,4,5,7,8일 국립창작 오페라 '결혼' 국립극장 대극장 11월 22~25일 국립오페라 '토스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기타 연주회	6월 24일 국제하계음악학교협연 백남음악관 8월 21일 시온합창단협연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1986년	
제6회 정기 연주회	1986년 3월 20일 세종문화회관대강당 지휘 / 홍연택 피아노 / 이경숙 L.v.Beethoven / Symphony No.5 L.v.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M.I.Glinka / Ruslan and lyudmila P.Tchaikovsky / Swan Lake
제7회 정기 연주회	1986년 4월 8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 Yoshikazu Tanaka 첼로 / 조영창 J.Haydn / Cello Concerto in D Major L.v.Beethoven / Symphony No.5

제8회 정기 연주회 (제2회 정기금오음악회)	1986년 5월 9일 (금) 국립극장 대극장 해설 / 홍연택 지휘 / 임헌정 피아노 / 이경숙 소프라노 /이규도 L.v.Beethoven / Symphony No.5 L.v.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G.Bizet / Carmen Suite
제9회 정기 연주회	1986년 5월 23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 홍연택 C.Saint-Saens / Le Carnaval des Animaux B.Mendelssohn / Violin Concerto in e minor S.Prokofiev / Peter and Wolf an Orchestra Fairy Tale
제10회 정기 연주회	1986년 6월 27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 이남수 바이올린 / 최민재 박정선 / NEXUS Ⅷ '나의 사랑하는 나라' (한국초연) B.Mendelssohn / Violin Concerto in e minor j.Brahms / Symphony No.1
제11회 정기 연주회	1986년 11월 1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 Vanco Cavdarski 피아노 / 김형규 문성희 / 'GUTT' (한국초연) L.v.Beethoven / Piano Concerto No.4 L.v.Beethoven / Symphony No.7
제12회 정기 연주회	1986년 12월 16일 국립극장 대극장 지휘 / 홍연택 이규도,김학남,박성원,오현명 이병욱 / 소용돌이 (한국초연) J.S.Bach / Weihnachts-Oratorium 중에서 홍연택 편곡 /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
청소년음악회 (9회)	3월 28일 제1회 금오음악회 힐튼호텔컨벤션센타 5월 9일 제2회 금오음악회 힐튼호텔컨벤션센타
오페라 · 발레 반주	2월 15일, 17일 한 · 일 오페라 페스티벌 '노르마'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2월 16일, 18일 한 · 일 오페라 페스티벌 '나비부인' 국립극장 대극장 3월 9~10일 오페라 '토스카' 부산시민회관 3월 14~16일 서울오페라단 '돈파스쿠알레'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4월 27~30일 국립발레 '공기의정' 국립극장 대극장 5월 15~18일 유니버셜발레 '라실피드' 리틀엔젤스회관 7월 29~30일 서울오페라단 '원술랑'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9월 11~12일 국립발레 '춘향의 사랑' 국립극장 대극장 9월 21~22일 유니버셜발레 '심청전' 리틀엔젤스회관 10월 3~6일 아시안게임 개막 예술제 '시집가는 날'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0월 13~15일 국립발레 '춘향의 사랑' 국립극장 대극장 11월 20~23일 오페라 '사랑의 묘약'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2월 22~23일 국립합창단 '천지창조' 국립극장 대극장
기타 연주회	1월 5일 가곡과 오페라 공연 국립극장 대극장 2월 26일 새봄맞이 대음악회 힐튼호텔컨벤션센타 4월 1일 포항 지방연주회 포항제철효자음악당 5월 24일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덕수궁 8월 20~21일 문화행사공연 세종문화회관대강당 12월 6일 포항 지방연주 포항제철효자음악당

1987년	
제13회 정기 연주회	1987년 2월 12일 세종문화회관대강당 지휘 / 홍연택 해외 한국인 성악가 오페라 아리아의 밤
제14회 정기 연주회	1987년 3월 20일 국립극장 대극장 지휘/Yoshikazu Tanaka, 피아노 / 백미영 P.Thaikovsky / 'Romeo and Juliet Overture' C.Frank / Variations Symphoniques for Piano and Orchestra P.Thaikovsky / Symphony No.5
제15회 정기 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987년 5월 27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 홍연택 B.Britten / Young person's Guide to the Orchestra G.Bizet / Petite Suite-Jeux d'en fants Op.22 外
제16회 정기 연주회	1987년 7월 3일 국립극장 대극장 지휘 / Omachi Yoichiro L.v.Beethoven / Symphony No.6
제17회 정기 연주회 (시민위안의 밤)	1987년 7월 18일 국립극장 놀이마당 지휘 / 홍연택 G.Rossini / Guillaume Tell Overture ,그리운 금강산,박연폭포 外
제18회 정기 연주회	1987년 10월 12일 국립극장 대극장 지휘 / 박은성 바이올린 / 한경순 B.Mendelssohn / Overture to A Midsummer' night W.A.Mozart / Violin Concerto No.5 C.Frank / Symphony in d minor
청소년음악회 (10회)	
오페라 · 발레 반주	2월 12~13일 국립오페라 '아리아의 밤' 국립극장 대극장 4월 12,14,17,19일 국립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국립극장 대극장 4월 13,15,18,20일 국립창작 오페라 '루치아' 국립극장 대극장 5월 22~24일 오페라 '토스카' 국립극장 대극장 9월 10~13일 국립발레 '백조의 호수' 국립극장 대극장 10월 8~11일 국립오페라 '전화' '델루조' 국립극장 대극장 11월 1~6일 국립오페라 '처용'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17~18일 국립합창 '엘리야'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21~25일 국립발레 '호두까기 인형' 국립극장 대극장
기타 음악회	1월 27일 신년음악회 문공부 주최 2월 16일 '주한외국인을 위한 밤' 국립극장 대극장 3월 4~6일 88예술단 '새불'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4월 4일 포항연주 포항제철효자음악당 6월 3일 울산공단연주 8월 3일 수재의연금 모금대연주회 국립오페라단,국립합창단 8월 29일 '청소년을 위한 실내악의 밤'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9월 14일 청소년음악회 호암아트홀 9월 23일 서울국제음악제 '오페라 아리아의 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0월 23일 문화의 달 음악회 국립극장 대극장 10월 23일 포항지방연주 포항제철효자음악당 11월 24일 KBS 가곡 공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2월 1~2일 MBC 가곡과 파퓰러연주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988년	
제19회 정기 연주회	1988년 3월 2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요시까즈 다나까 바이올린 /정찬우 Brahms / Violin Concerto in D Major Brahms / Symphony No.4
제20회 정기 연주회 (말러의 밤)	1988년 5월 6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홍연택 엘토 /김청자 테너 /박성원 바리톤/박수길 G.Mahler / Des Knaben Wunderhorn G.Mahler / Lieder einers fahrenden Gesellen G.Mahler / Das Lied von der Erde
제21회 정기 연주회 (청소년 음악회)	1988년 5월 31일 (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임헌정 P.Tchaikovsky / Capriccio Italian F.Suppe / 'Dichter und Bauer' Overture 外
제22회 정기 연주회	1988년 6월 22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고이즈미 히로시 R.Strauss / Don Juan O.Respighi / Pini di Roma
제23회 정기 연주회	1988년 7월 1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Watanabe Gazuaki L.v.Beethoven / Symphony No.1 P.Musorgsky / Pictures at an Exhibtion
제24회 정기 연주회 (시민을 위한 프롬나드 콘서트)	1988년 7월 12일 국립극장 대극장 지휘 / 홍연택 테너/박인수 소프라노/송광선 M.Ravel / Bolero 물망초 外
제25회 정기 연주회	1988년 9월 2일 (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박 영 근 / 오케스트라를 위한 엘레지 (한국초연) D.B.Kabalevsky / Cello Concerto No.1 P.Tchaikovsky / Symphony No. 4
제26회 정기 연주회	1988년 10월 15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 고마쯔 가즈히꼬 Mahler / Symphony No.1
제27회 정기 연주회	1988년 12월 28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 홍연택 소프라노 / 김영미 메조소프라노 / 김신자 테 너 / 박세원 베이스 / 오현명 G.Verdi / Requiem
청소년음악회 (9회)	
기획 연주회	11월 14일 제1회 초청시리즈 '제1회 성가의 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오페라 · 발페 반주	2월 9~14일 국립오페라 '노르마' 국립극장 대극장 3월 5~8일 오페라 '리골레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4월 27~28일 오페라 '아리아의 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월 17~18일 국립발레 '호두까기 인형' 국립극장 대극장 8월 21~22일 국립발레 '왕자 호동' 국립극장 대극장 10월 2~5일 국립오페라 '불타는 탑' 국립극장 대극장 11월 22~27일 국립오페라 '돈카를로'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2~5일 국립오페라 '성춘향을 찾습니다'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13~16일 국립발레 '호두까기 인형' 국립극장 대극장
기타 연주회	1월 2~4일 신춘음악회 '오페라하일라이트' 국립극장 대극장 1월 27일 신년음악회 국립극장 대극장 4월 13일 서원대학교 연주회 노천극장 4월 14일 구미코오롱단 연주회 우정관 4월 15일 과학기술대학 연주회 대강당 5월 8일 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국립극장 놀이마당 5월 20일 연세대학교 연주회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 5월 28일 야외연주회 국립극장 놀이마당 8월 17일 올림픽문화예술음악제 국립극장 대극장 9월 20일 서울국제음악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월 18일 유한양행 연주회 유한양행강당 10월 19일 단국대학교 연주회 난파음악당 11월 9일 전남대학교 연주회 전남대음악당 11월 10일 경북대학교 연주회 경북대음악당 11월 14일 제1회 초청시리즈 '성가의 밤'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989년	
제28회 정기 연주회	1989년 3월 9일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지휘 / Volker Renicke W.A.Mozart / Symphony No.36 R.Stauss / Tod und Vorklarung
제29회 정기 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989년 5월 24일 (수)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 휘 / 박종혁 피아노 / 이아람,김은정 바이올린 / 채유미,박혜성 F.Schubert / Symphony No.8 A. Dvorak / Symphony No.9 L.v.Beethoven / Egmont Overture
제30회 정기 연주회	1989년 6월 9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 고마쯔 가즈히꼬 P.Tchaikovsky / Romeo and Juriet P.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G.Mahler / Symphony No.5
제31회 정기연주회	1989년 6월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요셉 엘 시시 바이올린 / 배은환 P.Tchaikovsky / Overture 'Romeo and Juliet' P.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P.Tchaikovsky / Symphony No.5

제32회 정기 연주회 (시민을 위한 팝콘서트)	1989년 7월 11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 홍연택 곽신형, 강화자, 신영조, 김관동, 오현명 My Way,Summer Time, 제비, 물망초, 무정한 마음 外
제33회 정기 연주회	1989년 9월 2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Kurt Redel 비올라 / 우즈카 도시유키 W.A.Mozart / 서곡 '후궁으로 부터의 도주' P.Hindemith / Viola Concerto 'Der Schwanendreher' R.Strauss / Symphonic Pome 'Don Quixote' 
제34회 정기 연주회	1989년1 0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쿠르트 레델 피아노 / 김보경,신혜주 M.C.Redel / 브룩크너-엣세이 작품 31 W.A.Mozart / Two Piano Concerto K.365 L.v.Beethoven / Symphony No.3 'Eroica' 
제35회 정기 연주회	1989년 12월 28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 고마쯔 가즈히꼬 W.A.Mozart / 대관 미사 C major W.A.Mozart / 춤추라 기뻐하라 행복한 넋이여 C.Saint-Saens / Symphony No.3 
청소년음악회(6회)	3월 29일 제2회 실내악의 밤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5월 22일 제3회 실내악의 밤 문예회관 대극장 8월 31일 제4 회 실내악의 밤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11월 14일 제5회 실내악의 밤 문예회관 대극장

기획 연주회	용평뮤직캠프 (8강좌 레슨) 4월 18일 제2회 초청시리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7월 19일 제3회 초청시리즈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7월 21일 바이올린 독주회 용평 리조트 7월 22일 첼로 독주회 용평 리조트 7월 23일 피아노 독주회 용평 리조트 7월 24일 오보에 독주회 용평 리조트 7월 25일 브리스앙상블연주회 용평 리조트 7월 26일 보컬조인트리사이틀 용평 리조트 7월 27일 오케스트라 야외음악회 용평 야외무대 7월 28일 청소년을 위한 협주곡의 밤 용평 야외무대 7월 29일 이태리 성악가 초청음악회 용평 야외무대 9월 12일 제4회 초청시리즈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1월 13일 제2회 성가의 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2월 2일 5000명 대합창 연주회 잠실실내체육관
오페라 · 발레 반주	2월 23~28일 국립오페라 '노르마' 국립극장 대극장 5월 9~14일 오페라 '리골레토' 국립극장 대극장 5월 15~23일 오페라 '아리아의 밤' 국립극장 대극장 6월 23~26일 국립발레 '호두까기 인형' 국립극장 대극장 9월 28~29일 국립오페라 '환향녀' 국립극장 소극장 10월 29~11월 3일 국립발레 '왕자 호동' 국립극장 대극장 10월 31~11월 1일 국립발레 '왕자 호동' 국립극장 대극장 11월 7~10일 국립오페라 '돈카를로'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15~18일 국립오페라 '성춘향을 찾습니다'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21~22일 국립발레 '호두까기 인형' 국립극장 대극장
기타 연주회	1월 23일 공단연주 (포항종합제철) 효자음악당 4월 13일 국민투자신탁음악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4월 21~23일 김자경오페라단 '메리위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0월 4일 쌍용 창단기념 음악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1월 20일 공단연주 (포항종합제철) 효자음악당 11월 21일 공단연주 (포항종합제철) 구미공장 우정관 11월 14일 제1회 초청시리즈 '성가의 밤'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990년

제36회 정기 연주회	1990년 1월 20일 리틀엔젤스 예술회관 지휘 / 정두영 바이올린 / 이순익 비올라 / 위찬주 J.Haydn / Symphony No.101 'The Clock' W.A.Mozart / Sinfonia Concertante for Violin Viola and Orch. L.v.Beethoven / Symphony No.7 

제37회 정기 연주회	1990년 2월 2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90 새봄맞이 노래의 향연 
제38회 정기 연주회	1990년 3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모미야마 가즈야끼 바이올린 / 김진 Stravinsky / Firebird Paganini / Violin Concerto No.1 Stravinsky / Petrouchka
제39회 정기 연주회 (제6회 초청시리즈)	(Hermann Baumann 초청연주) 1990년 4월 2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W.A.Mozart / Symphony No.1 W.A.Mozaet / Horn Concerto No.4 최동선 / 대편성오케스트라를 위한 '영가' R.Strauss / Horn Concerto No.2 
제40회 정기 연주회	1990년 5월 31일 세종문화회관대강당 지휘 / 최승한 피아노 / 김현정 B.Britten /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P.Tchaikovsky / Piano Concerto No.1 C.Saint-Saens / Cello Concerto in a minor
제41회 정기 연주회	1990년 6월 26일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지휘 / 닐 바론 피아노 / 강성애 B.F.Mendelssohn / '핑갈의 동굴' 서곡 E.H.Grieg / Piano Concerto in a minor Op.16 R.Strauss /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42회 정기 연주회	1990년 9월 7일 예술의전당콘서트홀 지휘 / 벤자민 잔더 피아노 / 이옥희 C.M.v.Weber / 'Freischutz' W.A.Mozart / Piano Concerto No.23 K.488 B.Bartok / Concerto for Orchestra
제43회 정기 연주회	1990년 9월 2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나오토 오토모 바이올린 / 피호영 L.H.Berlioz / Overture 'Benvenuto Cellini' Op.23 N.Paganini / Violin Concerto No.1 in D Major D.Shostakovich / Symphony No.5
제44회 정기 연주회	1990년 12월 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성가의 밤 
제45회 정기 연주회	1990년 12월 29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 나영수 G.F.Hendel / Messiah
청소년음악회(6회)	3월 26일 제6회 실내악연주회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5월 2일 제7회 실내악연주회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7월 1일 국립현대미술관 초청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11월 24일 제8회 실내악연주회 문예회관 대극장
기획사업	7월 6일 제7회 초청시리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월 27일 제2회 5,000명 대합창 연주회 잠실실내체육관
오페라 · 발레 반주	4월 8~9일 국립오페라 '라보엠' 국립극장 대극장 4월 13~16일 국립오페라 '사랑의 묘약' 국립극장 대극장 5월 11~16일 국립발레 국립극장 대극장 6월 8~12일 국립오페라 '휘가로의 결혼' 국립극장 대극장 9월 1~4일 국립오페라 '휘가로의 결혼' 국립극장 대극장 9월 4~5일 국립합창 국립극장 대극장 10월 12~17일 국립오페라 국립극장 대극장 10월 16~19일 국립발레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14~17일 국립발레 국립극장 대극장

기타 연주회	3월 13~14일 부산초청연주회 부산문화회관 4월 3일 대학순회연주회 숙명여자대학대강당 5월 4일 대학순회연주회 명지대 용인캠퍼스 6월 15일 한국항공화물창립기념음악회 국립극장 대극장 6월 28일 대한항공 제주특별초청연주회 제주 문예회관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 잠실체조경기장 9월 25일 평화의 날 수상 기념음악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9월 26일 쌍용 사은음악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0월 22일 올림픽 기념음악회 올림픽유도경기장 11월 9~10일 지방순회공연 구미 코오롱, 이천 현대전자 12월 22일 예술의 전당
1991년	
제46회 정기 연주회	1991년 4월 1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홍연택 바이올린 / 이순익, 피호영 첼로 / 한혜선, 양성원 피아노 / 권경순 W.A.Mozart / Sinfonia Concertante in E Major L.v.Beethoven / Triple Concerto in C Major J.Brahms / Double Concerto in a minor Op.102
제47회 정기 연주회	1991년 5월 1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벤자민 잔더 피아노 / 구자은 L.v.Beethoven / Overture 'Coriolan' Op.62 L.v.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L.v.Beethoven / Symphony No.5 in c minor Op.67
제48회 정기 연주회	1991년 5월 31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지휘 / 유영재 하프 / 박희영 비올라 / 김상진 G.F.Handel / Harp Concerto in B Major Op.4 P.Hindemith / Viola Concerto [Der Schwanendreher] E.H.Grieg / 'Peer Gynt' Op.46,55
제49회 정기 연주회	1991년 6월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Watanabe Kazuaki G.Mahler / Symphony No.5
제50회 정기 연주회	1991년 9월 1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홍연택 첼로 / 조영창 바이올린 / 이순익 W.A.Mozart / Symphony No.35 'Haffner' F.J.Haydn / Cello Concerto in C Major A.Vivaldi / 'La quattro Stagione'
제51회 정기 연주회	1991년 10월 2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Omachi Yoichiro 바이올린 / 김양준 J.Brahms / Overture 'Tragic' Op.81 J.Brahms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77 J.Brahms / Symphony No.1 Op.68

제52회 정기 연주회 (제4회 성가의밤)	1991년 11월 2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홍연택, 김명엽 J.S.Bach / Cantata No.79 F.B.Mendelssohn / Eliah No.20 아기예수, 하나님의 나팔소리 外 
제53회 정기 연주회 (송년음악회)	1991년 12월 2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홍연택 W.A.Mozart / Dievertimento in D Major K.136 W.A.Mozart / Piano Concerto No.21 W.A.Mozart / Grand Mass in c minor K.427
청소년음악회 (2회)	
오페라 · 발레 반주	3월 5,7,8일 국립오페라 '사랑의 묘약' 국립극장 대극장 3월 9,12일 국립오페라 '갈라콘서트' 국립극장 대극장 3월 28,29일 국립오페라 '에스타' 국립극장 대극장 4월 10~15일 국립발레 '고려애가' 국립극장 대극장 5월 23~28일 국립발레 '돈죠반니' 국립극장 대극장 6월 13~17일 국립발레 '돈키호테' 국립극장 대극장 9월 4일 국립오페라 국립극장 소극장 9월 26~29일 국립발레 '카르멘' 국립극장 대극장 10월 14~15일 국립오페라 '갈라콘서트' 국립극장 대극장 11월 23~28일 국립오페라 '일트로바토레'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21~24일 국립발레 '호두까기 인형' 국립극장 대극장
기타 연주회	3월 23일 교향악 축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7월 19일 용평뮤직캠프 용평리조트 9월 30일 쌍용 사은음악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0월 6~9일 서울오페라 '리골레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0월 19~22일 한국오페라 '토스카' KBS 홀 11월 1일 안트리오 초청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월 8일 지방 순회 연주회 구미 금성사 희망관 11월 12일 대학 순회 연주회 연세대백주년기념관 11월 15일 예술의전당 기획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월 8일 예술의전당 기획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월 9일 오라토리오 합창단 KBS 홀 9월 1~4일 국립오페라 '휘가로의 결혼' 국립극장 대극장 9월 4~5일 국립합창 국립극장 대극장 10월 12~17일 국립오페라 국립극장 대극장 10월 16~19일 국립발레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14~17일 국립발레 국립극장 대극장

1992년	
제54회 정기 연주회	1992년 4월 2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Keith Clark 피아노/이혜정 L.v.Beethoven / Overture 'Egmont' F.Chopin / Piano Concerto No.2 A.Bruckner / Symphony No.4 'Romantic'
제55회 정기 연주회 (특별초청 연주회)	1992년 5월 1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박은성 해설 / 신경욱 플룻 / 민세진 피아노 / 방진, 현혜수 S.S.Prokofiev / Peter and the Wolf Op.67 Devienne / Flute Concerto No.7 e minor B.F.Mendelssohn / Two Piano Concerto Ab Major M.P Mussorgsky / Symphonic Poem
제56회 정기 연주회	1992년 6월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닐 바론 피아노 / 박승민 R.Strauss / 'Till Eulenspiegels lustige streiche' S.V.Rachmaniniff / Piano Concerto No.1 L.v.Beethoven / Symphony No.4 
제57회 정기 연주회	1992년 9월 1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Watanabe Kazuaki R.Strauss / Ein Heldenleben
제58회 정기 연주회	1992년 10월 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니꼴라이 디아디우라 피아노 / 박성미 M.Glinca / Valse-Fantasie F.Chopin / Piano Concerto No.1 P.Tchaikovsky / Symphony No.6 'Pathetique'
제59회 정기 연주회 (제5회 성가의밤)	1992년 11월 2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나영수

제60회 정기 연주회 (송년 음악회)	1992년 12월 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Keith Clark 플룻 / 이혜경 L.v.Beethoven / Overture 'Leonore'No.3 C.Reinecke / Flute Concerto in D Major J.Brahms / Symphony No.2 
청소년음악회 (7회)	
기획 연주회	5월 26일 특별초청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오페라 · 발레 반주	2월 21 ~ 26일 국립오페라 '라보엠' 국립극장 대극장 4월 9 ~ 12일 국립발레 '돈키호테' 국립극장 대극장 4월 30 ~ 5월 3일 국립오페라 '라파보리타' 국립극장 대극장 6월 15 ~ 18일 국립발레 '백조의 호수' 국립극장 대극장 9월 22 ~ 27일 국립발레 '레퀴엠 · 브라보휘가로' 국립극장 대극장 11월 10 ~ 15일 국립오페라 '피델리오'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10 ~ 13일 국립발레 '호두까기 인형'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19 ~ 20일 국립오페라 '오페라 갈라 훼스티발' 국립극장 대극장
기타 연주회	1월 18일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월 11일 선화예고 청소년 음악회 리틀엔젤스회관 3월 17일 교향악축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6월 8일 선화예고 청소년 음악회 리틀엔젤스회관 8월 1일 용평뮤직캠프 페스티벌 용평리조트 8월 28일 세계합창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월 29일 난파음악회 국립극장 대극장 9월 29일 제4회 쌍용 사은음악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0월 5일 서울 평화상 시상식 국립극장 대극장 10월 6일 이수호 1주기 추모음악회 국립극장 소극장 11월 3일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예 술의전당 콘서트홀
1993년	
제61회 정기 연주회	1993년 4월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정치용 바이올린 / 이순익 L.v.Beethoven / Overture 'Prometheus' J.Brahms / Violin Concerto in D Major W.A.Mozart / Symphony No.39

제62회 정기 연주회 (특별초청연주회)	1993년 4월 3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정치용 플룻 / 시게리노 쿠도 C.Debussy / Prelude a l'apres-midi d'un faune W.A.Mozart / Flute Concerto No.2 A.Khachaturian / Flute Concerto 
제63회 정기 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993년 5월 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정치용 L.Bernstein / Overture 'Candide' C.C.Saint-Saens / Le carnaval des animaux W.A.Mozart / Sinfornia Concertante E major 
제64회 정기 연주회	1993년 6월 2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승한 바이올린/강영모 P.Tchaikovsky / Overtur 'Romeo & Juliet' S.Prekofieff / Violin Concerto No.2 P.Tchaikovsky / Symphony No.4
제65회 정기 연주회	1993년 7월 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정치용 피아노 / Rudolf Meister O.Respighi / 'Fontane di Roma' S.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2 M.Ravel / Ma Mere L'oye, Suitte M.Ravel / Bolero
제66회 정기 연주회	1993년 10월 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정치용 바이올린 / 피호영 오보 / 김학영 E.G.Grieg / 'Fra Holbergs tid' Suite J.S.Bach / Concerto for Violin & Oboe L.H.Berlioz / Symphonie fantastuque in C Major

제67회 정기 연주회	1993년 11월 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모미야마 가즈아끼 바이올린 / 백운창 P.Tchaikovskt / Suite 'The Sleeping Beauty' J.Haydn / Violin Concerto in A Major L.v.Beethoven / Symphony No.8 D.Kabalevsky / Violin Concerto in C Major 
제68회 정기 연주회 (서울바하합창단 초청 연주회)	1993년 11월 2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김명엽 Gounod / Messe Solennelle (St.Cecilla)
제69회 정기 연주회 (제6회 성가의 밤)	1993년 12월 1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영철 서울오라토리오합창단 / 박미애, 방현희, 오현명 메시아 하이라이트 생명의 양식, 거룩한 성 등
제70회 정기 연주회	1993년 12월 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정치용 바이올린 / 이유라, 유승현 P.Tchaikovsky / Italian Capriccio F.Mendelssohn / Violin Concerto in e minor A.E.Lalo / Symphonic Espagnole P.Tchaikovdky / Francesca da Rimini 
청소년음악회 (4회)	4월 14일 목관5중주단 창단연주회 구미 금성사 희망관 8월 27일 금관5중주단 창단연주회 연세대백주년기념관  

오페라 · 발레 반주	2월 15~20일 국립오페라 '시집가는 날'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3월 4~7일 한국오페라 '리골레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3월 12~14일 국립발레 '백조의 호수'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5월 22~27일 국립오페라 '결혼 · 보석과 여인' 국립극장 소극장 6월 10~15일 국립발레 '레퀴엠 · 브라보휘가로' 국립극장 대극장 11월 15~20일 국립오페라 '에프게니오네긴' 국립극장 대극장 11월 26~29일 국립합창 '칸타타:산자와 죽은자를 위한 혼례곡'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11월 30~12월1일 국립오페라 '마농레스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12월 17~24일 국립발레 '호두까기 인형' 국립극장 대극장
기타 연주회	2월 23일 예술의전당 전관개관 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3월 17일 교향악축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7월 30~31일 용평뮤직캠프페스티벌 용평리조트 9월 13일 오라토리오 합창단 '천지창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9월 19~20일 한민족체전 초청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월 24일 항공 선교회 '천지창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9월 24일 쌍용 '합창제' KBS 홀 10월 18일 쌍용그룹 사은음악회 KBS 홀 10월 26일 코리안심포니 초청 유망주를 위한 음악회 KBS 홀 11월 25일 협주곡의 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994년

제71회 정기 연주회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의 밤)	1994년 4월 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홍연택 강화자, 고성현, 곽신형 등 성악가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  
제72회 정기 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994년 5월 1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금노상 소프라노 / 김향란 첼로 / 김정현 B.Smetana / Moldau J.Haydn / Cello concerto No.2 E.H.Grieg/Suite 'Peer Gynt'
제73회 정기 연주회	1994년 6월 1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정치용 피아노 / 조현수 B.F.Mendelssohn / Overture to 'Die Hebriden in b minor' M.Ravel / Piano Concerto in G Major G.Mahler / Symphony No.1

제74회 정기 연주회	1994년 8월 2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승한 바이올린 / 박재원 F.v.Suppe / Overture 'Dichter und Bauer' B.F.Mendelssohn / Violin Concerto in e minor L.v.Beethoven / Symphony No.6 'Pastorale'
제75회 정기 연주회	1994년 9월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Paul Polivnik 피아노/장인정 L.H.Berlioz / Overture 'Le Carnaval Romain' E.MacDowell / Piano Concerto No.2 G.Mahler / Symphony No.5
제76회 정기 연주회	1994년 10월 1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고마쯔 가즈히꼬 피아노 / 조성옥 S.Smetana / Overture 'Prodana nevesta' R.Schumann / Piano Concerto in a minor R.Schumann / Symphony No.3 'Rhein'
제77회 정기 연주회 (제7회 성가의 밤)	1994년 11월 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홍연택 이규도,김신자,김태현,신경욱
청소년음악회 (2회)	3월 28일 목관5중주단 연주회(제2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4월 27일 호른4중주단 창단연주회 국립극장 소극장  5월 13일 금관5중주단 연주회(제2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10월 23일 목관5중주단 연주회(제3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11월 27일 금관5중주단 연주회(제3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오페라 · 발레 반주	3월 10 ~ 15일 국립오페라 '외투 · 쟌니스끼끼' 국립극장 대극장 4월 8 ~ 11일 국립오페라 '사랑의 승리' 국립극장 소극장 4월 14 ~ 21일 국립발레 '까르미나브라나' 국립극장 대극장 6월 10 ~ 11일 국립오페라 '갈라페스티벌' 국립극장 대극장 9월 9 ~ 14일 국립발레 '해적' 국립극장 대극장 9월 16 ~ 17일 국립합창 '창작칸타타 들의노래' 국립극장 대극장 10월 7 ~ 12일 국립오페라 '토스카'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13 ~ 14일 국립합창 '송년콘서트'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20 ~ 27일 국립발레 '호두까기 인형' 국립극장 대극장

기타 연주회	1월 8일 두산 '신년 음악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3월 1일 교향악축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월 25일 가곡 · 아리아, 5월 그랜드 콘서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6월 1일 선화예고 청소년음악회 리틀엔젤스회관 6월 29일 유망주를 위한 음악회 국립극장 대극장 6월 30일 협주곡의 밤(2)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7월 18,20,23일 조수미 독창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7월 29~30일 용평뮤직캠프페스티벌 용평리조트 8월 22일 세계합창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월 1,4일 브람스 페스티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월 18일 유망주를 위한 음악회 호암아트홀 10월 22일 코리안심포니 초청 EBS 연주회 리틀엔젤스회관 10월 28일 유망주를 위한 음악회 리틀엔젤스회관 11월 5일 평택문화회관 건립1주년 기념음악회 평택문화회관 11월 9일 제6회 쌍용 사은음악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1월 20일 EBS 개국4주년기념 가곡의 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월 23일 '94 메아리 콘서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2월 10일 메시아 (오라토리오합창단)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월 18일 쌍용양회 송년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995년	
제78회 정기 연주회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회)	1995년 4월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홍연택 이규도.김신자 G.Mahler / Symphony No.2 'Auferstehung'
제79회 정기 연주회	1995년 4월 2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Vanco Cavdarski 피아노 / 이현순 C.M.v.Weber / Overture 'Oberon' F.Chopin / Piano Concerto No.1 D.Shostakovich / Symphony No.9
제80회 정기 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지휘 / 임평룡 피아노 / 김수경,윤경련 L.v.Beethoven / Fidelio Overture W.A.Mozart / Piano Concerto No.10 F.Schubert / Rosamunde 'Princess of Cyplus'중에서 M.P.Mussorgsky / A Night on Bald Mountain
제81회 정기 연주회	1995년 6월 1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Neal Stulberg 첼로 / 이수영 L.v.Beethoven / Overture 'Leonore No.3' E.Elgar / Cello Concerto in e minor P.Tchaikovsky / Symphony No.5
제82회 정기 연주회	1995년 7월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Mathias Husmann 플룻 / 강현주 r L.v.Beethoven / Overture 'Coriolan' C.Reinecke / Flute Concerto L.v.Beethoven / Symphony No.3 'Eroica'

제83회 정기 연주회	1995년 8월 7일(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승한 비올라 / 이지은 이교숙 / 화가의 하루 W.Walton / Viola Concerto L.v.Beethoven / Symphony No.5
제84회 정기 연주회	1995년 9월 28일(목)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정치용 피아노 / 이경희 R.Strauss / Salome"s Dance L.v.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R.Strauss / Don Juan Op.20 W.R.Wagner / Tannhauser Overture
제85회 정기 연주회	1995년 10월 14일(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까를로 빨레스키 첼로 /양성원 M.P.Musorgsky / A Night on Bald Mountain A.Dvorak / Cello Concerto in b minor Rimsky-Korsakov / Sheherazade Op.35
제86회 정기 연주회 (바그너의 밤)	1995년 11월 15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홍연택 소프라노 / 신동의 W.R.Wagner / Overture to The Flying Dutchman The Ride of the Valkyrie Prelude and Isolde's Liebestod Prelude The Meisterginger of Nurenberg Bruenhilde's Immolation scene
제87회 정기 연주회 (성가의 밤)	1995년 12월 11일(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 휘 / 홍연택 합창단 지휘 / 김명엽 테 너 / 신동호, 바리톤 / 오현명, 소프라노 / 박미혜 
청소년음악회 (6회)	5월 17일 금관5중주단 연주회(제4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11월 4일 목관5중주단 연주회(제4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오페라 · 발레 반주	3월 23~28일 국립오페라 '팔스타프' 국립극장 대극장 4월 19~26일 국립발레 '까르미나 브라나' 국립극장 대극장 5월 20~25일 국립오페라 '무당' 국립극장 소극장 7월 4~5일 국립오페라 '갈라콘서트' 국립극장 대극장 9월 16~23일 국립발레 '라바야데르' 국립극장 대극장 10월 6~7일 국립합창 '용비어천가' 국립극장 대극장 10월 27~11월 1일 국립오페라 '파우스트' 국립극장 대극장

오페라 · 발레 반주	12월 1~2일 국립합창 '헨델의 메시아'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23~29일 국립발레 '호두까기 인형' 국립극장 대극장
기타 연주회	1월 18~21일 강미자 녹음 심포니 연습실 2월 8일 쌍용홍보영화촬영 심포니 연습실 2월 9일 대한보증보험 신시가 연주 및 녹음 심포니 연습실 2월 16일 청소년음악회 리틀엔젤스회관 2월 21일 강미자 독창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3월 1일 3.1절 음악회 중앙박물관 3월 8일 명사음악회 국립극장 3월 11일 신원에벨에셀성가단 세종문화회관 3월 14일 교향악축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기타 연주회	3월 15~16일 고성현 녹음 심포니 연습실 3월 18일 고성현 녹음 심포니 연습실 4월 8일 삼성미술문화재단 기념연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4월 10일 고성현 녹음 심포니 연습실 4월 30일 장한나 메세나 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월 16일 IPI 연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월 29일 창원지방연주 창원용지공원 노천무대 6월 15일 고성현 독창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6월 17일 금난새와…테마음악여행 3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6월 28일 신영옥 독창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7월 28~29일 용평뮤직캠프페스티벌 용평 리조트 8월 10일 여름방학축제 예술의전당 8월 20일 사랑의 음악여행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8월 29~30일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공연 올림픽 체조경기장 9월 3일 사랑의 음악여행(대구) 경북대학교 종합운동장 9월 12일 서울국제음악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월 21일 금난새…테마음악여행 6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월 10~11일 서차영발레 '레이몬다'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11월 18일 EBS 가곡의 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월 23일 쌍용 '송년음악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1월 25일 금난새…테마음악여행 7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996년

제88회 정기 연주회 (창단 11주년 기념)	1996년 3월 4일(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홍연택 테너 / 박치원, 메조 / 김신자 G.Mahler / Symphony No.10 G.Mahler / Das Lied von der Erde
제89회 정기 연주회	1996년 4월 25일(목)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David Boukhine 바이올린 / 정원순 F.Liszt / Symphonic pome 'Orpheus' B.F.Mendelssohn / Violin Concerto in e minor S.V.Rachmaninoff / Symphony No.2

제90회 정기 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996년 5월 12일(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박은성 피아노 / 고명주, 박주연 플룻 / 이수진 하프 / 김서원 P.Tchaikovsky / Italian Capriccio B.F.Mendelssohn / Concerto for Two Pianos in E Major W.A.Mozart / Concerto for Flute and Harp in C Major E.B.Britten / The Young Person's Guide to the Orchestra
제91회 정기 연주회	1996년 6월 13일 (목)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카를로 빨레스키 피아노 / 임미수 Rimsky-Korsakov / Spanish Capriccio S.Prokofiev / Piano Concerto No.3 M.Ravel / La Valse M.d.Falla / El Sombrero de tres picos
제92회 정기 연주회 (플루티스트 Andras Adorjan 초청 연주회)	1996년 7월 12일(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카를로 빨레스키 플룻 / 안드라스 아도리안 J.Brahms / Academic Festival Overture J.Ibert / Flute Concerto J.Brahms / Symphony No.2
제93회 정기 연주회	1996년 9월 24일(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카를로 빨레스키 바이올린 / 조민정 L.v.Beethoven / Egmont Overture P.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L.v.Beethoven / Symphony No.7 
제94회 정기 연주회	1996년 10월 14일(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카를로 빨레스키, 비올라 / 박현신 J.Brahms / Tragic Overture B.Bartok / Viola Concerto L.v.Beethoven / Coriolan Overture F.Schubert / Symphony No.4

제95회 정기 연주회	1996년 11월 22일(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홍연택 피아노 / 김영호 바이올린 / 피호영 첼로 / 박상민 L.v.Beethoven / Symphony No.2 L.v.Beethoven / Triple Concerto (Piano,Violin,Cello) L.v.Beethoven / Symphony No.4 
제96회 정기 연주회 (제8회 성가의 밤)	1996년 12월 12일(목)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김명엽 소프라노 / 신애령, 서울바하합창단 이영조 /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구주 예수를 더욱사랑 김두완 / 서로 사랑하자 A.Adams / 오거룩한밤 G.Bizet / 하나님의 어린양 R.R.Bennett / The Robert Shaw Christmas Cantata 
청소년음악회 (5회)	4월 4일 금관5중주단 연주회(제5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12월 15일 목관5중주당 연주회(제5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오페라 · 발레 반주	4월 14~21일 국립발레 '외투 · 돈키호테' 국립극장 대극장 5월 4~9일 국립오페라 '스튜디오' 국립극장 소극장 6월 5~12일 국립오페라 '코지판투테' 국립극장 대극장 9월 12~15일 국립발레 '쁘띠빠야' 명작발레 국립극장 대극장 10월 5~12일 국립오페라 '청교도' 국립극장 대극장 11월 13~28일 국립오페라 '노처녀와 도둑'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13~14일 국립합창 '까르미나 브라나'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21~28일 국립발레 '호두까기 인형' 국립극장 대극장

기타 연주회	1월 21~23일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겨울방학음악축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월 22일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월 23일 아가페 코랄 연주회 국립극장 대극장 3월 11일 신원 에벤에셀 정기연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3월 22~23일 러시아 볼쇼이, 국립합창 합동공연 국립극장 대극장 3월 26일 신춘음악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4월 8일 부활절 음악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5월 19~23일 글로리아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7월 5일 소프라노 김인혜 독창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월 31일 사랑의 음악여행 (광주) 전남대학교 9월 7일 사랑의 음악여행 (울산) 태화고수부지 9월 17일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아리나바키초바'독창회 10월 3일 선교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월 18일 허트리오 초청 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월 22일 백혜선 · 서세원 · 김이선 콘서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월 26일 베르디 그랜드 오페라 콘서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월 27일 EBS 가곡의 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월 3일 쌍용사은음악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997년	
제97회 정기 연주회	1997년 3월 6일(목)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Laurent Petitgirard 바이올린 / 이상희 A.E.Chabrier / Espana Rhapsody H.Vieuxtemps / Violin Concerto No.4 C.A.Franck / Symphony in d minor
제98회 정기 연주회 (창단12주년 음악회)	1997년 4월 28일(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홍연택 테너 / 최진호 E.B.Britten / Serenade Op.31 G.Mahler / Symphony No.9 
제99회 정기 연주회	1997년 6월 26일 (목)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카를로 빨레스키 바이올린 / 김수연 J.Brahms / Hungarian Dances No. 1, 2, 6 J.Brahms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77 J.Brahms / Symphony No. 1 in c minor Op. 68

제100회 정기 연주회	1997년 7월 11일 (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정치용 피아노 / 에리카 킬쳐 R.Wagner / Der Fliegende Hollander Overture W.A.Mozart / Piano Concerto No. 24 in c minor K.491 R.Strauss / Symphonic poem 'Ein Heldenleben' Op.40 
제101회 정기 연주회	1997년 8월 27일 (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임원식 피아노 / 이성옥 J.Brahms / Academic Festival Overture Op. 80 F.Liszt / Piano Concert No. 2 in A Major J.Brahms / Symphony No 2 in D m\Major Op.73
제102회 정기 연주회	1997년 9월 20일 (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승한 피아노 / 김지현 L.v.Beethoven / Overture 'Leonore' NO. 3 Op. 72♭ L.v.Beethoven / Piano Concerto No. 3 in c minor Op. 37 D.Shostakovich / Symphony No. 5 in d minor Op.47 
제103회 정기 연주회	1997년 11월 13일 (목) 예술의전당 음악당 지휘 / J.Vodnansky 첼로 / 이숙정 B.Martinu / Memorial to Lidice S.Prokofieff / Symphonie Concertante for Cello and Orch. in e minor A.Dvorak / Symphony No.8 in G Major
제104회 정기 연주회 (성가의 밤)	1997년 12월 9일 예술의전당 지휘 / 윤학원 영락교회 시온 성가대

청소년음악회(5회)	5월 28일 금관5중주단 연주회(제6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6월 14일 목관5중주단 연주회(제6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오페라 · 발레 반주	4월 8~13일 국립오페라 '결혼청구서' 국립극장 소극장 6월 5~12일 국립오페라 '리골레토' 국립극장 대극장 8월 19~24일 국립오페라 '섬진강나루' 국립극장 소극장 10월 6~12일 국립발레 '신데렐라' 국립극장 대극장 10월 14~15일 국립합창 '세계의 명곡순례' 국립극장 대극장 10월 18일 국립오페라 '갈라콘서트' 국립극장 대극장 11월 7~10일 국립오페라 '아라리 공주'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16~17일 국립합창 '송년음악회'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23~28일 국립발레 '호두까기 인형' 국립극장 대극장
기타 연주회	1월 28일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월 29일 국립극장 신년음악회 국립극장 대극장 1월 31일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3월 10일 신원 에벤에셀 앙상블 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4월 18일 교향악축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월 10일 지방연주 (대전) 5월 31일 지방연주 (동해) 7월 25~26일 용평연주 8월 17일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월 5일 서울국제음악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월 16일 안익태 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월 21일 서혜연 독창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월 26일 박정원 독창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월 1일 숭실합창 연주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1월 18일 서울 음악제 문예회관 12월 3일 5인의 명연주가 '갈라콘서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2월 22일 쌍용그룹 송년음악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998년

제105회 정기 연주회	1998년 3월30일(월) 예술의전당 지 휘 / 홍연택 소프라노 / 김인혜 R.Strauss / Macbeth Op.23 R.Strauss / Vier Itzte Lieder R.Strauss / Aus Italien in G Major Op.16
제106회 정기 연주회	1998년 4월 26일(일) 예술의전당 지휘 / 알렉세이브 알렉산더 소프라노 / 이승희 P.Tchaikovsky / Overture Romeo and Juliet P.Tchaikovsky / Letter Scene from Eugene Onegin

제107회 정기 연주회	1998년 5월 19일(화) 예술의전당 지휘 / 정치용 콘트라베이스 / 정선 피아노 / 박주연 플룻 / 심재연 W.A.Mozart / Overture to La clemenza di tito K.D.v.Dittersdorf / Kontrabass Konzert in E-dur F.Mendelssohn / Concerto in a minor Piano and String C.Reinecke / Flute Concerto in D Major W.A.Mozart / Symphony No.35
제108회 정기 연주회	1998년 6월 27일(토) 예술의전당 지휘 / 박은성 바이올린 / 김수연 첼로 / 전소영 R.Wagner / prelude and Isoldes Liebestod J.Brahms / Double Concerto in a minor J.Sibelius / Symphony No.2
제109회 정기 연주회	1998년 7월 23일(목) 예술의전당 지휘 / 금난새 피아노 / 최양옥 R.Wagner / Overture Die meistersinger von Nurnberg L.v.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P.Tchaikovsky / Symphony No.1
제110회 정기 연주회	1998년 8월 30일 (일) 예술의전당 지휘 / 임원식 피아노 / 송진민 우종갑 / 관현악을 위한 전주곡 J.Brahms / Piano Concerto No.1 J.Brahms / Symphony No.1
제111회 정기 연주회	1998년 9월 14일(월) 예술의전당 지휘 / 최승한 피아노/이루사 F.Liszt / Les Preludes S.Prokofiev / Piano Concerto No.3 A.Dvorak / Symphony No.7
제112회 정기 연주회	1998년 10월 21일(수) 예술의전당 지휘 / 알렉세이브 알렉산더 P.Tchaikovsy / Francesca da Rimini B.Bartok / Piano Concerto No.3 P.Tchaikovsky / Symphony No.5

제113회 정기 연주회 모짜르트의 밤	1998년 11월 24일(화) 예술의전당 지휘 / 홍연택 피아노 / 권석란 W.A.Mozart / Overture to Don Giovanni K.527 W.A.Mozart / Piano Concerto No.17 K.453 W.A.Mozart / Symphony no.39 K.543
제114회 정기 연주회 제10회 성가의 밤	1998년 12월 14일(월) 예술의전당 지휘 / 김명엽 소프라노 / 박경신 9월 21일 목관5중주단 연주회 (제7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기획 연주회	8월 25일 코리안심포니와 친구들 (지휘 / 정명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오페라 · 발레 반주	3월 13~14일 국립합창 '신춘음악회' 국립극장 대극장 4월 4~11일 국립발레 '해적' 국립극장 대극장 6월 6~12일 국립오페라 '돈 카를로' 국립극장 대극장 9월 4~5일 국립합창 연주회 국립극장 대극장 9월 27~10월2일 국립오페라 '순교자' 국립극장 대극장 11월 6~8일 국립발레 '바리' 국립극장 대극장 11월 16~21일 국립오페라 '오텔로'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1~2일 국립합창 '천지창조'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23~27일 국립발레 '호두까기 인형' 국립극장대극장
기타음악회	2월 15일 예술의전당 개관10주년 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정명훈, 금난새) 3월 9일 신춘성가음악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4월 13일 교향악축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4월 18일 한국오페라 50주년 기념 축제 음악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6월 17일 박미혜 독창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6월 30일 김영환 독창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월 20일 한국합창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월 2일 예술의전당 후원의 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월 10일 협주곡의 밤 호암아트홀 9월 16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선 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월 12일 서울음악제 국립극장 소극장 10월 30일 이규도 독창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월 12일 한민족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월 29일 예술의전당 영재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999년	
제115회 정기 연주회	1999년 6월 17일(목)예술의전당 지휘 / 카를로 빨레스키 첼로 / 신상원 P.Tchaikovsky / Overture to Romeo and Juliet P.Tchaikovsky / Variations on a Rococo Theme P.Tchaikovsky / Symphony No.6 Pathetique

제116회 정기 연주회	1999년 7월 13(화)예술의전당 지휘 / 모미야마 가즈아끼 바이올린 / 홍기엽 C.A.Debussy / Prelude a l'apres-midi d'un faune C.A.Debussy / La Mer P.d.Sarasate / Carmen Fantasie Op.25 M.Ravel / Daphnis et Chloe Suite No.2
제117회 정기 연주회	1999년 10월 19일(화)예술의전당 지휘 / 곽 승 피아노 / 안혜선 L.v.Beethoven / Overture to Leonore No.3 L.v.Beethoven / Piano Concerto No.3 L.v.Beethoven / Symphony No.5
제118회 정기 연주회	1999년 12월 14일(화)예술의전당 지휘 / 박은성 바이올린 / Alexander Arenkow, 송상임 최우정 / Orchestra를 위한 Composition W.A.Mozart / Violin Concerto No.3 K.216 J.Brahms/Violin Concerto in D Major Op.77
오페라 · 발레 반주	2월 2~28일 국립극장 소극장 오페라 축제 국립극장 소극장 3월 19~20일 국립합창 '신춘음악회' 국립극장 대극장 3월 30~4월 4일 국립발레 '지젤' 국립극장 대극장 4월 24~27일 국립오페라 '티레지아스의 유방' 국립극장 대극장 5월 22,25,27,30일, 6월 2일 예술의전당 오페라축제 '심청'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5월 23,26,29일/6월 1,4일 예술의전당 오페라축제 '사랑의묘약'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9월 4~5일 국립오페라 '갈라콘서트' 국립극장 대극장 9월 17~18일 국립합창 '레퀴엠' 국립극장 대극장 9월 26,29일/10월 2,8일 예술의전당 오페라축제 '라보엠'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9월 28일/10월 3,6,10일 예술의전당 오페라축제 '파우스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10월 26~31일 국립발레 '돈키호테' 국립극장 대극장 11월 11~14일 국립오페라 '산불' 국립극장 대극장 11월 20~21일 성곡오페라 '이순신'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10~11일 국립합창 '헨델 메시아'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20~26일 국립발레 '호두까기 인형' 국립극장 대극장 12월 31일 국립 '송년음악회' 국립극장 대극장
기타연주회	3월 15일 청소년음악회 리틀엔젤스회관 3월 17일 이재환,이병두 조인트리사이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4월 14일 교향악축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7월 1일 협주곡의 밤 리틀엔젤스회관 7월 19일 이춘혜독창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월 8일 국제음악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월 12일 새사람 선교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월 4일 호세카레라스 초청공연 올림픽 체조경기장

2000년	
제119회 정기연주회 (창단15주년)	2000년 3월 30일 (목)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곽승 엘토솔로 / 김신자 post horn solo / 안희찬서울바하합창단, 성니콜라 소년합창단 박영근 관현악을 위한 '변용' G.Mahler / Symphony No.3
제120회 정기연주회	2000년 5월 17일 (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Boguslaw Madey 피아노 / 최수미 C.M.v.Weber / Overture to 'Freischutz' L.v.Beethoven / Piano Concerto No.3 C.Franck / Symphony in d minor
제121회 정기연주회	2000년 6월 20일 (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박은성 피아노 / 박종훈 유영희 화성 '초연' F.Liszt / Piano Concerto No.1 in Eb major F.Liszt / Totentanz for Piano & Orchestra I.Stravinsky / Ballet Suite 'Firebird'
제122회 정기 연주회	2000년 8월 23일(수)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지휘 / 카를로 빨레스키 피아노 / 김형규 하프 / 윤지윤 A.Borodin / Polovetsian Dances L.v.Beethoven / Piano Concerto No.4 F.A.Boieldieu / Harp Concerto A.Khachaturian / Gayane A.Khachaturian / Spartacus
제123회 정기 연주회	2000년 11월 29일(수)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지휘 / 곽승 클라리넷 / 이상재 G.A.Rossini / Overture to Guillaume Tell C.M.v.Weber / Clarinet Concert No.1 S.V.Rachmaninov / Symphony No.2
교향악 축제	2000년 4월 1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카를로 빨레스키 피아노 / 오경혜 우종갑 /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L.v.Beethoven / Piano Concerto No.4 D.Shostakovich / Symphony No.9
청소년음악회	3월 4일 코리안심포니 청소년음악회 국립극장 소극장 3월10일 코리안심포니 청소년음악회 국립극장 소극장 3월16일 코리안심포니 청소년음악회 국립극장 소극장

오페라 · 발레 반주	2월 3일~20일 국립극장 소극장 오페라 축제 국립극장 소극장 6월 8일~11일 국립오페라 '마농레스꼬' 국립극장 대극장 9월 1일~3일 국립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9월 16,19일 /10월6,8,18일 국립오페라 '휘가로의 결혼'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10월 13,17,21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 축제 '심청'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10월 27일~29일 국립오페라 '시집가는 날' 국립극장 대극장 11월 4일 국립합창 '삶과 죽음의 노래'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11월 7일 국립합창 '삶과 죽음의 노래' 군포시민회관 12월 16,17,23,24,25일 국립발레 '호두까기인형'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기타연주회	1월 3일 신년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월21일 신년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3월 4일 코리안심포니 초청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4월 5일 영화음악축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7월2~3일 재외동포 서울예술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월11일 해피 클래식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월20일 예술의 전당 기획연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9월20일 예술의 전당 기획연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10월7일 성가의 밤 인천문예회관 12월22일 안양시립합창단 '메시아' 안양문예회관

2001년

제124회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상주기념 및 창단16주년)	2001년 3월 4일(수)예술의전당콘서트홀 지휘 / 곽승 J.Brahms Symphony No.4 O.Respighi Pini di Roma
제125회 정기연주회	2001년 6월 2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김홍재 첼로 / 이재은 윤이상 하프와 관현악을 위한 서주와 추상 E.Elagar Cello Concerto in e minor P. Mussorgsky Pictures at an Exhibition
제126회 정기 연주회	2001년7월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쟝 이브 오송스 첼로 / 이강호 C.M.v.Weber Overture to Der Freischutz J.Haydn Cello Concerto in D Major P.Tchaikovsky Symphony No.5
제127회 정기연주회	2001년 8월 2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함신익 피아노 / 박수진 G.Verdi Overture to La Forza del Destino L.v.Beethoven Piano Concerto No.5 D.Shostakovich Symphony No.5
제128회 정기연주회	2001년 9월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곽승 첼로 / 여미혜 김진수 관현악을 위한 귀천 A.Dvorak Cello Concerto in b minor I.Stravinsky Petrouchka

제129회 정기연주회	2001년 11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김홍재 바이올린 / 이정일 O.Nicolai Die lustigen von windsor F.Mendelssohn Violin Concerto in e minor H.Berlioz Symphony Fantasique
교향악축제	2001년 4월 3일 예술의전당 지휘 / 카를로 빨레스키 금호현악4중주단 G.Verdi Overture to La forza del destino Benjamin Lees Concerto for String Quartet & Orchestra L.v.Beethoven Symphony No.5
오페라 · 발레 반주	4월25일~29일 국립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6월1일~6일 국립발레 '백조의호수'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8월27일~9월1일 국립발레 '스파르타쿠스'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10월31일~11월4일 예술의전당 오페라축제 '가면무도회'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12월18일~25일 국립발레 '호두까기 인형'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기타연주회	3월7일 예술의전당 기획연주(리오삼바달 초청연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4월21일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4월30일 메트로폴리탄 주역가수 초청 갈라콘서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월12일 홍혜경 초청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월19일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월25일 예술의전당 기획연주(김대진초청연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6월8일 베르디 레퀴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6월16일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6월22일 파바로티, 도밍고, 카레라스 3테너 콘서트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7월29일 조수미 독창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8월17일 베스트클래식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월2일 국제음악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월7일 미추홀 창립15주년 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월15일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월20일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월8일 히사이시 조 콘서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1월17일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월29일 윤현주 독창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월1일 2002 소리푸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월7일~8일 국립합창 '메시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12월29일 예술의전당 송년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월31일 예술의전당 제야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2년	
제130회 정기 연주회	2002년 3월 2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카를로 빨레스키 F.Schubert– Symphony No.5 A.Bruckner– Symphony No.9

제131회 정기 연주회 '故 홍연택 1주기 추모음악회'	2002년 5월 13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이영조– Reqiuem for Strings G.Mahler– Symphony No.5 
제132회 정기 연주회	2002년 6월 2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함신익 비파 / 장홍옌 J.Brahms – Academic Festival Overture in c minor Op.80 비파와 관현악을 위한 '春江花月夜 (춘강화월야)' G.Mahler – Symphony No.1 in D Major 'Titan'
제133회 정기 연주회	2002년 7월 2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김홍재 피아노 / 이경미 C.A.Debussy – Petite Suite F.Liszt – Ungarische Fantasie Rimsky Korsakov – Sheherazade Op.35
제134회 정기 연주회	2002년 8월 21일 예술의전당 지휘 / 이대욱 바이올린 / 윤경희 R.Stauss–Symphonic poem 'Till Eulenspiegels lustige Streiche' Op.28 J. Brahms–Violin Concerto in D Major Op.77 P. Tchaikovsky–Symphony No.6 in b minor Op.74 'Pathetique'
제135회 정기연주회	2002년 12월 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함신익 S.V.Rachmaninov –Rhapsody on a Theme of Paganini Op.43 Carl Orff –Carmina Burana
2002 교향악축제	2002년 4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카를로 빨레스키 첼로 / 이유홍 D.Shostakovich – Festival Overture Op.96 D.Shostakovich – Cello Concerto No.1 G.Mahler – Symphony No.4

오페라 · 발레 반주	4월 6일~9일 국립발레 (지젤) 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4월 19일~21일 국립오페라 (춘향)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6월 6일~8일 국립오페라 (전쟁과평화)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6월 28일~7월3일 국립발레 (돈키호테)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9월 25일, 26일 국립오페라 (동명성왕)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10월 9일~12일 오페라 페스티벌 (오텔로)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10월 25일~29일 국립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11월 7일~10일 한국오페라단 (리골레토)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12월 21일~29일 국립발레 (호두까기인형) 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2003년	
제136회정기연주회	2003년 5월 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박태영 피아노 / 박수진 P.Tchaikovsky – Overture 'Romeo and Juliet' P.Tchaikovsky – Piano Concerto No.1 in b♭ minor Op.23 A.K.Glazunov – Symphony No.4 in E♭ Major Op.48
제137회 정기연주회	2003년 6월 1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원경수 피아노/최희연 W.A.Mozart – Symphony No.32 in G Major K.318 E.H.Grieg – Piano Concerto in a minor Op.16 Brahms–Dvorak Five Hungarian No.17–21 Z.Kodaly – Hary–Janos
제138회 정기연주회	2003년 7월 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Antonin Kuehnel 바이올린 / 김현아 A.Dvorak – Overture 'Carnival' in A Major Op.92 L.v.Beethoven – Violin Concerto in D Major A.Dvorak – Symphony No.8 in G Major Op.88
제139회 정기연주회	2003년 8월 2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이대욱 플룻/앙드라스 아도리안(Andras Andorian) F. Mendelsshon – Violin Concerto in e mionr Op.64 B.Bartok – Concerto for Orchestra
제140회 정기연주회	2003년 10월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희준 피아노/주희성 C.A.Debussy Prelude a l'apres–midi d' un faune S.V.Rachmaninov Rhapsody on a theme of Paganini Op.43 J.Brahms Symphony No.4 in e minor Op.98

오페라 · 발레 반주	4월 24일~27일 국립오페라 (투란도트) 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4월 3일~8일 국립발레 (백조의 호수)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9월 28,30일/ 10월 2,4일 예당오페라 (리골렛토)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10월 30,31일/ 11월 1,2일 국립오페라 (사랑의 묘약)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11월 25일~29일 예당오페라 (돈죠반니)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12월 20일~27일 국립발레 (호두까기인형)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기타연주	5월 17일 예술의전당청소년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월 25일 예술의전당 회원 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6월 21일 예술의전당청소년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7월 9일~10일 코리안심포니 데뷰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7월 19일 예술의전당청소년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월 8일~10일 예술의전당 팝스콘서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월 13일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기타연주	9월 18일 홍혜경 독창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월 23일 국제음악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0월 18일 예술의전당청소년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월 5일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월 31일 예술의전당 제야음악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04년	
제141회 정기연주회 소프라노 귀네트존스 내한공연	2004년 3월 30일 (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Adrian Mueller , Soprano/Dame Gwyneth Jones R.Wagner *로엔그린 1막 전주곡 Vorspiel 1 Act Lohengrin *로엔그린중 엘자의 아리아 '엘자의 기도' Elsa's Gebet 1 Act Lohengrin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주곡 Vorspiel 1 Act Tristan & Isolde *이졸데의 사랑의죽음 Isoldes Liebestod 3 Act Tristan & Isolde *탄호이져 서곡 Overture & Bacchanale Tannhauser *탄호이져 중 엘리자베드의 아리아 '성스러운 전당이여' Dich Theure Halle 2 Act Tannhauser *신들의 황혼 중 지그프리트의 장송 행진곡 Trauermarsch Gotterdammerung Brunnhildes Schlussgesang
2004년교향악축제	2004년 4월 1일(목)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Robert Olson 바이올린 /제니퍼 고 J.Brahms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77 R.Wagner – The Ring without words
제142회 정기연주회	2004년 4월 15일 (목)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곽승 바이올린 / 권혁주 W.A Mozart–Symphony No.32 in G Major K.318 W.A.Mozart–Violin Concerto No.3 in G Major R.Wagner – Arrival of the guest at Wartburg from Opera Tannhauser R.Wagner –Rienzi Overture R.Wagner – Three excerpts from act 3 'Die Meistersinge'
제143회 정기연주회	2004년 5월 4일(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Janusz Powolny 오보에 / 곽연희 S.Moniuszko – Mazurka B.Martinu – Oboe Concerto S.V.Rachmaninoff–Symphony No.2 in e minor Op.27

제144회 정기연주회	2004년 8월 11일(수)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함신익 피아노 / 박숙련 Ginastera – 'Estancia' Ballet Suite M.Ravel – Piano Concerto in G Major W.A.Mozart – Symphony No. 39 M.P.Mussorgsky – Pictures at an Exhibition
제145회 정기연주회	2004년 9월 15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희준 피아노 / Jakub Cizmarovic F Chopin – Piano Concert No.1 in e mionr Op.11 G.Mahler – Symphony NO.5
오페라 · 합창 · 발레반주	2월 13일~14일 국립오페라단 제주공연 사랑의묘약 제주문예회관 3월 8일~10일 라바야데르 (유니버샬발레단) 세종문화회관 3월 22일 통영국제음악제국립오페라 '영혼의사랑 (윤이상)' 통영문화회관 4월 21일~24일 볼쇼이발레단 백조의호수 (중앙일보) 세종문화회관 5월 11일~16일 국립발레 '잠자는숲속의미녀' 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6월 20일, 22일 오페라 이올란타 L.G.아트홀 10월 7일~11일 국립오페라 아이다 (5회) 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10월 20일~23일 예당오페라 루치아 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10월 29일~11월3일 유니버셜발레 '심청'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11월 21일~25일 국립오페라 사랑의묘약 (5회) 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12월 17일 국립합창 메시아 의정부 예술의전당 12월 18일 국립합창 메시아 예술의전당콘서트홀 12월 21일~28일 국립발레 호두까기인형 예술의전당오페라하우스
기타연주	1월 8일 신년음악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2월 5일, 7일 바비 맥퍼린콘서트 (예당기획) 예술의전당콘서트홀 2월 19일 브람스 축제 (국립합창단) 예술의전당콘서트홀 4월 5일 예술의전당 기획 예술의전당콘서트홀 4월 17일 예당 청소년음악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4월 28일 오산문화회관 개관기념연주회 오산문화회관 6월 25일 음협 수상자 음악회예술의전당콘서트홀 6월 29일 코리안심포니데뷰콘서트 예술의전당콘서트홀 7월 3일 덕수궁가족음악회 덕수궁 함녕전앞 야외특설무대 7월 18일 덕수궁가족음악회 덕수궁 함녕전앞 야외특설무대 7월 29일 코리안심포니데뷰콘서트 예술의전당콘서트홀 8월 7일 덕수궁가족음악회 덕수궁 함녕전앞 야외특설무대 8월 8일 덕수궁가족음악회 덕수궁 함녕전앞 야외특설무대 8월 11일 제144회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8월 20일~22일 예술의전당팝스콘서트 9월 9일 11시콘서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9월 18일 예당 청소년음악회예술의전당콘서트홀 9월 12일 예술의전당회원음악회(2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9월 19일 덕수궁가족음악회 덕수궁 함녕전앞 야외특설무대 9월23일 대전예술의전당 개관기념연주회 대전예술의전당 10월 2일,3일 덕수궁가족음악회 덕수궁 함녕전앞 야외특설무대 11월 13일(대구),14일(안산),29일(평창),12월1일(안양) 성기선과 오케스트라게임 11월 20일 예당 청소년음악회예술의전당콘서트홀 12월 8일 한민죽 창작음악회 국립국악원 예악당 12월 9일 11콘서트 예술의전당콘서트홀

2005년

제146회 정기연주회	2005년 8월 5일(금)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 지휘:금노상 / 오보에 :사토키 아오야마 R.Strauss Oboe Concerto in D Major (시트라우스 오보에 협주곡) A.Bruckner Symphony No.4 in Eb Major 'Romantic' (부르크너 교향곡 제4번 '로맨틱')
제147회 정기연주회	2005년 9월 7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 지휘: 최희준 / Violin: Yair Kless(야일 크레스) C.M.v.Weber Overture to Oberon (베버-오베론 서곡) B.Bartok Violin Concerto No.2 (바르톡-바이올린 협주곡 2번) R.Strauss Till Eulenspiegels Merry Pranks Op. 28 (시트라우스 -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I.Stravinsky Firebird (스트라빈스키 - 무용 모음곡 '불새')
제148회 정기연주회	2005년 11월 10일(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Guido Maria Guida / Piano : Caroline Doerge Daniel Catan 'Florencia en el Amazonas' Suite 2 (카탄 - '아마조네스의 프로렌시아' 제2모음곡-한국초연) F.Liszt Piano Concerto No.1 Eb Major (리스트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A.Bruckner Symphony No.3 in d minor(1899) (브루크너 - 교향곡 제3번)
제149회 특별 정기 연주회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 20주년 기념)	2005년 12월 15일(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 지휘 : 이대욱 / Tristan :Richard Decker / Isolde :Frances Ginzer Brangaene - 김여경 / Konig Marke - 양희준 / Melot - 전태상  
오페라. 발레. 합창 반주	3월 22일~26일 국립오페라단 '마탄의 사수' 총 5회 11월 22일~27일 국립오페라단 '호프만 이야기' 총 5회 4월 13일~17일 국립발레단 '해적' 총 6회 10월 15일~20일 국립발레단 '고집쟁이 딸' 총 5회 12월 23일~31일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총 12회 12월 3일 국립합창 '정기연주회' 1회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1월 1일 2005 신년음악회 1월 25일~29일 오페라 '가면무도회' 1월 27일 11시 콘서트 2월 17일 11시 콘서트 3월 3일~12일 오페라 '라 보엠' 5월 2일 11시 콘서트 5월 31일 교향악축제 6월 9일 11시 콘서트 7월 16일 청소년 음악회 8월 11일 11시 콘서트 8월 15일 광복 60주년 경축 대 음악회 8월 20일~21일 팝스콘서트 9월 10일 청소년음악회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10월 23일 회원음악회 10월 28일~31일 '안드레아 쉐니에' 11월 15일 적십자창립 100주년 기념음악회 12월 8일 11시 콘서트
한국전력 연주회	5월 25일~11월 30일 총 10회
기타 외부 연주	1월 14일 포스코 '신년음악회' –포항 효자 아트 홀– 3월 17일 통영국제음악제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강당)– 3월 29일 충무아트홀 개관연주회 –충무아트홀– 5월1 3일~15일 발레 '돈키호테' –국립극장– 9월 23일 국제 음악제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 9월 30일 '호세 카레라스' 독창회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 10월 5일~10월9일 발레 '지젤–스파르타쿠스' –세종문화회관– 11월 24일 '앤드류 토마스' 초청연주회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

2006년

제150회 정기연주회	2006년 5월 31일(수)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 지휘: Johannes Goritzky / Piano:Robert Blocker, 김희균 L.v.Beethoven Overture to Leonore No.3 (베토벤 – 레오노레 서곡 제3번) W.A.Mozart Concerto for 2 Pianos & Orchestra in Eb Major K.365 (모차르트 –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L.Ferrenc Symphony No.3 in g minor Op.36 (페렝크 – 교향곡 제3번(한국초연))
제151회 정기연주회	2006년 6월 21일(수)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 지휘: Frank Cramer / Violin:박세나 J.Brahms Tragische Overture in d minor Op. 81 (브람스–비극적 서곡) D.Schostakovich Violin Concerto No.1 in a minor Op.99 (쇼스타코비치 –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A.Zemlinsky Die Seejungfrau(Fantasy for Orchestra) (젬린스키 – 인어공주 (한국초연))
제152회 정기연주회	2006년 11월 30일(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 지휘: 박태영 / 바이올린:Robert Frank / 하프:박라나 / 하프:조민정 Rimsky–Korsakov Capriccio Espagnole (림스키 코르사코프 스페인 카프리치오) V.A.E.Lalo Symphony Espagnole in d minor Op. 21 (랄로 – 스페인 교향곡) M.Malecki Concerto in an old style for 2 Harps (말러키 – 2대의 하프와 현악합주를 위한 고전풍의 작은 협주곡) O.Respighi Pini di Rome (레스피기 – 교향시 로마의 소나무)
오페라 · 발레 · 합창 반주	6월 9일~10일 국립오페라 '투란도트' 창원 성산아트홀 6월 23일~24일 국립오페라 '투란도트' 춘천 문화예술회관 6월 30일~7월1일 국립오페라 '투란도트' 의정부예술의전당 9월 1일~2일 국립오페라 '투란도트' 대구 오페라 하우스 10월 13일~16일 국립오페라 '천생연분' 10월 19일~23일 국립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5월 12일~17일 국립발레 '돈키호테'

오페라 · 발레 · 합창 반주	12월 23일~30일 국립발레 '호두까기 인형' 3월 23일 국립합창 '사계' 5월 23일 국립합창 '외솔의 노래' 12월 14일 국립합창 '웰컴 크리스마스'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1월 5일 2006 신년음악회 1월 12일 11시 콘서트 1월 19일 심포닉시리즈 2월 9일 11시 콘서트 3월 3일 심포닉 시리즈 4월 1일 교향악축제 4월 13일 11시 콘서트 4월 20일~23일 돈 죠반니 5월 21일 회원음악회 7월 8일 청소년 음악회 7월 13일 11시 콘서트 8월 10일 11시 콘서트 8월 19일~20일 팝스 콘서트 9월1 4일 11시 콘서트 11월 9일 11시 콘서트 11월 7일~8일, 10일~11일 돈 카를로 12월 9일 청소년음악회
한국전력 연주	1월 10일~12월 11일 총 15회
기타 외부 연주	2월 2일 데뷰 콘서트 2월 12일 첼로 빅4 콘서트 4월 2일 충무아트홀 개관1주년 기념 연주 8월 26일 갈라 콘서트 9월 24일 한경 기업사랑음악회 10월 3일, 5일 아시아 페스티벌 –일본– 12월 5일, 6일 해설이 있는 모차르트 오페라 이야기(평택, 서산) 12월 16일 중국 심양 초청 연주회

2007년

제153회 정기연주회	2007년 3월 20일(화)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김대진 / 피아노 : Ulrich Meining (울리히 마이닝), Damian Zydek (다미안 지덱) M.Ravel Le tombeau de Couperin (라벨 – 쿠프랭의 무덤) C.Saint–Sans Le Carnaval des Animaux (생상스 – 동물의 사육제) J.S.Bach Concerto for 2 Pianos in c minor BWV.1060 (바흐 –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L.v.Beethoven Symphony No.8 in F Major Op.93 (베토벤 – 교향곡 제8번)
제154회 정기연주회	2007년 5월 17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이윤국 / 피아노 : Kurt Seibert (쿠르트 자이베르트) 이윤국 Trauermusik fur Amadeus (이윤국 – 아마데우스를 위한 장송곡) M.Reger Piano Concerto in f minor Op.114 (레거 – 피아노 협주곡) A.Dvorak Symphony No.8 in G Major Op.88 (드보르작 – 교향곡 제8번)

제155회 정기연주회	2007년 10월 18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Frank Cramer (프랭크 크래머) / Oboe : 전미영 F.J.Haydn Symphony No.101 in D major 'The Clock' (하이든 – 교향곡 '시계') W.A.Mozart Oboe Concert in C major, K.314 (모차르트 – 오보에 협주곡 C장조) S.V.Rachmaninoff Symphonic Dances op.45 (라흐마니노프 – 교향적무곡)
제156회 정기연주회	2007년 11월 28일(수)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Robert Konig (로버트 쾨니히) / Piano : 이영희 F.J.Haydn Symphony No.104 in D major 'London' (하이든 – 심포니 제104번 '런던') L.v.Beethoven Piano Concerto No.3 in C minor op.37(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F.P.Schubert Symphony No.4 in C minor, D417 'Tragische' (슈베르트 – 교향곡 제4번 '비극적')
특별연주회	6월 28일 코리안심포니초청 소프라노 서혜연 독창회
한국전력 연주	1월 25일~11월21일 총 15회
기타 외부연주	2월 9일~10일 KNN 초청 신년음악회 (부산 / 창원) 9월 15일~16일 윤이상평화재단 '윤이상 국제음악제'
오페라. 발레. 합창 연주	1월 19일~20일 국립3개 단체 갈라 콘서트 3월 6일 국립합창단 정기연주회 3월 30일~4월2일 국립오페라단 '아이다' 4월 20일~4월25일 국립발레단 '스파르타쿠스' 9월 6일 국립합창단 정기연주회 10월 5일~8일 국립오페라단 '맥베스' 10월 31일~11월 4일 국립발레단 창작발레 '춘향&뮤자게트' 12월 8일~12월 14일 국립오페라단 '라보엠'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1월 5일 2007신년음악회 1월 11일 11시 콘서트 2월 8일 11시 콘서트 4월 12일 11시 콘서트 4월 23일 교향악축제 5월 10일 11시 콘서트 6월 14일 11시 콘서트 7월 12일 11시 콘서트 8월 9일 11시 콘서트 8월 18일~19일 예술의전당 팝스콘서트 9월 13일 11시 콘서트 11월 8일 11시 콘서트 11월 14일~17일 오페라 '카르멘'

2008년	
제 157회 정기연주회	2008년 3월 18일(화)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박은성 / 바이올린 : 백주영 W.A.Mozart / Overture 'Don Giovanni' (모차르트 – 서곡 '돈지오반니') F.Mendelssohn / Violin Concerto in e minor op.64 (멘델스존 – 바이올린 협주곡 e단조) S.V.Rachmaninov / Symphony No.2 in e minor op.27 (라흐마니노프 – 교향곡 제2번 e단조 op.27)
제158회 정기연주회	2008년 6월 19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박은성 / 첼로 : Laszlo Fenyo (라슬로 페뇌) W.A.Mozart / Overture 'Le Nozze di Figaro' (모차르트 – 서곡 '피가로의 결혼') A.Dvorak / Concerto for Cello in b minor op.104 (드보르작 – 첼로 협주곡 b단조 op.104) B.Bartok / Concerto for Orchestra (바르톡 –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제159회 정기연주회 – 가을에 만나는 브람스	2008년 10월 31일(금)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박은성 / 피아노 : Oliver Corenelius Kern (올리버 코넬리우스 케른) Brahms / Academic Festival Overture in c minor op.80 (브람스 – 대학축전서곡) Brahms / Piano Concerto No.1 in d minor op.15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d단조) Brahms / Symphony No.1 in c minor op.68 (브람스 – 교향곡 제1번 c단조)
제160회 정기연주회 – 3대 교향곡 특별 연주회	2008년 11월 19일(수)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박은성 L.v.Beethoven / Symphony No.5 in c minor 'Schicksal' op.67 (베토벤 – 교향곡 [운명] 제5번 c단조 op.67) F.P.Schubert / Symphony No.8 in b minor 'Unfinished' D.759 (슈베르트 – 교향곡 [미완성] 제8번 b단조 D.759) P.I.Tchaikovsky / Symphony No.6 in b minor 'Pathetique' op.74 (차이코프스키 – 교향곡 [비창] 제6번 b단조 op.74)
특별연주회	6월 13일 코리안심포니초청 '소프라노 신지화 & 테너 박현재 초청음악회 7월 4일 코리안심포니 기획시리즈 1 – 데뷔콘서트 7월 15일 코리안심포니 기획시리즈 2 – 협주곡의 밤 10월 1일 대학탐방연주회 – 고려대학교 10월 29일 대학탐방연주회 – 한양대학교 12월 16일 코리안심포니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가족 음악회'
기타 외부연주	2월 23일,24일 첼로 BIG4콘서트 4월 11일 마포문화센터 개관 기념 연주회 4월 27일 서울 국제 음악 콩쿨 9월 17일~21일 윤이상음악회 총4회 외 다수의 연주
오페라 · 발레 · 합창 연주	3월 6일 국립합창단 정기연주회 4월 16일 ~4월 21일 국립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 6월 29일~6월 30일 국립오페라단 '천생연분' – 중국 베이징 9월 2일 국립오페라단 '토스카' 9월 8일 국립오페라단 '투란도트'

오페라 · 발레 · 합창 연주	10월 17일 국립오페라단 '천생연분' – 대구 12월 25일~12월 31일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1월 4일 2008신년음악회 1월 10일 11시 콘서트 2월 14일 11시 콘서트 3월 13일 11시 콘서트 4월 1일 교향악축제 5월 8일 11시 콘서트 5월 15일 예술의전당 기획 공연 6월 12일 11시 콘서트 6월 13일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7월 10일 11시 콘서트 8월 14일 11시 콘서트 9월 11일 11시 콘서트 10월 9일 11시 콘서트 11월 23일 11시 콘서트
2009년	
제161회 정기연주회 '봄을 여는 슈만의 입맞춤'	2009년 2월 24일(화)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박은성 / 바이올린 : Ulf Wallin (울프 발린) R.Schumann (슈만) Overture to 'Manfred' op.115 (서곡 '만프레드') Violin Concerto in a minor op.129 (바이올린 협주곡 a단조 op.129) Symphony No.1 in Bb Major 'Spring' op.38 (교향곡 제1번 '봄')
제162회 정기연주회 'No.3 Beethoven'	2009년 4월 30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박은성 / 피아노 : 유영욱 L.v.Beethoven (베토벤) Overture to 'Leonore' No.3 in C Major op.72 (서곡 '레오노레') Piano Concerto No.3 in c minor op.37 (피아노 협주곡 제3번) Symphony No.3 in Eb Major 'Eroica' op.55 (교향곡 제3번)
제163회 정기연주회 "Ein Heldenleben"	2009년 6월 25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박은성 / 첼로 :이강호 W.A.Mozart / Overture to 'Le Nozze di Figaro' K.492 (모차르트 – 서곡 '피가로의 결혼') A.Dvorak / Cello Concerto in b minor op.104 (드보르작 – 첼로 협주곡) R.Strauss / Symphonic Poem 'Ein Heldenleben' op.40 (슈트라우스 – 영웅의 생애)
제164회 정기연주회 "Mozart & Bruckner"	2009년 9월 4일(금)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박은성 / 클라리넷 : Wenzel Fuchs (벤젤 푹스) O.Nicolai / Overture to 'The Merry wives of Winsor' (니콜라이 / 서곡 '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 W.A.Mozart / Concerto for Clarinet and Orchestra in A Major, K.622 (모차르트 / 클라리넷 협주곡) A.Bruckner / Symphony No.6 in A Major GA106 / (브루크너 / 교향곡 제6번)

제165회 정기연주회 'Tchaikovsky in Love'	2009년 11월 27일(금)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박은성 / 피아노 : Peter Jablonski (피터 야블론스키) P.I.Tchaikovsky (차이코프스키) Overture to 'Romeo and Juliet'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Piano Concerto No.1 Bb minor op.23 (피아노 협주곡 제1번) Symphony No.5 in e minor op.64 (교향곡 제5번)
특별연주회	3월 17일 코리안심포니초청 '바리톤 우주호 독창회' 7월 29일 협주곡 시리즈 10월 11일 탐방음악회 – 정동제일교회
초청연주	1월 13일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공연 4월 25일~26일 서울국제음악콩쿨 5월 12일 호세 카레라스 내한공연 10월 30일 국제음악제 11월 15일 한.러 수교음악회 외 다수의 연주
오페라 · 발레 · 합창 연주	7월 1일~2일 국립발레단 '지젤' 11월 18일~22일 국립발레단 '왕자호동' 12월 9일~13일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12월 18일~24일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7월 17일~25일 국립오페라단 '나비부인' 12월 29일~31일 국립오페라단 '갈라콘서트' 10월 18일~9일 국립합창단 '푸른편지'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1월 2일 2009 신년음악회 1월 8일~9일 11시 콘서트 2월 12일 11시 콘서트 3월 6일~14일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4월 9일 교향악 축제 5월 14일~15일 11시 콘서트 6월 11일 11시 콘서트 7월 9일 11시 콘서트 8월 10일 베스트 클래식 9월 10일 11시 콘서트 9월 20일 영재캠프 & 콩쿠르 9월 26일 팝스콘서트 10월 18일 회원음악회 11월 12일 11시 콘서트 11월 29일 팝스콘서트 (대전)

2010년

제166회 정기연주회 '창단 25주년 기념연주회'	2010년 3월 20일(화)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박은성 / 피아노 : 조성진 W.A.Mozart / Overture to 'Die Zauberflote' K.620 (모차르트 / 서곡 '마술피리') P.Tchaikovsky / Piano Concerto No.1 in b ♭ minor op.23 (차이코프스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G.Mahler / Symphony No.1 in D Major 'Titan' (말러 / 교향곡 제1번'거인') 

제 167회 정기연주회 '미국순회공연 기념연주회'	2010년 5월 27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박은성 / 바이올린 : 양고운 Soonjung Suh / Yu-Hyun (서순정 / '유현') J.Brahms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77 (브람스 / 바이올린협주곡 D장조) S.V.Rachmaninoff / Symphony No.2 in e minor op.27 (라흐마니노프 / 교향곡 제2번)
제 168회 정기연주회	2010년 6월 24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박은성 / 바이올린 : 클라라 주미 강 F.Mendelssohn / Overture 'A Midsummer Night's Dream' (멘델스존 / 서곡 '한여름밤의 꿈') M.Bruch / 'Scottish Fantasy' op.46 (브루흐 / 스코틀랜드 환상곡) C.Saint-Saens / Symphony No.3 'Organ' in c minor op.78 (생상스 / 교향곡 제3번'오르간')
제 169회 정기연주회 'Beethoven Special'	2010년 9월 14일(화)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박은성 / 바이올린 : 이미경 L.v.Beethoven (베토벤) Overture 'Egmont' f minor op.84 (서곡 '에그몬트')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61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Symphony No.7 in A Major op.92 (교향곡 제7번)
제 170회 정기연주회 'The Romantic'	2010년 10월 21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희준 / 첼로 : 양성원 B.Smetana / Ma vlast 'Sarka' (스메타나 / 교향시 나의 조국 중 '샤르카') R.Schumann / Cello Concerto in a minor op.129 (슈만 / 첼로 협주곡 a단조) A.Dvorak / Symphony No.8 in G Major op.88 (드보르작 / 교향곡 제8번)
제 171회 정기연주회	2010년 11월 16일(화)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Christian Ehwald(크리스티안 에발트) / 피아노 : 김태형 W.A.Mozart / Overture 'Cosi fan tutte' K.588 (모차르트 / 서곡 '코지 판 투테') F.Liszt / Piano Concerto No.1 in E♭ Major (리스트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A.Bruckner / Symphony No.4 in E♭ Major 'Romantic' (브루크너 / 교향곡 제4번 '로맨틱')
특별연주회	6월 1일 코리안심포니 미국순회 공연 뉴욕 (Carnegie Hall-Stern Auditorium / Perelman Stage) 6월 7일 코리안심포니 미국순회 공연 L.A (Cerritos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9월 1일 방방곡곡 사업-거제 11월 26일 방방곡곡 사업-양평 11월 27일 방방곡곡 사업-고창 11월 29일 방방곡곡 사업-홍성
기타 외부연주	1월 9일 고양아람누리 신년음악회 1월 30일 창작관현악축제 5월 4일 호세 쿠라 협연 8월 19일 동아일보 청소년 음악회 외 다수의 연주

오페라. 발레. 합창 연주	2월 4일~2월 7일 국립발레단 '차이코프스키' 3월 11일~3월 17일 국립오페라단 '맥베스' 9월 25일~9월 30일 국립발레단 '라이몬다' 10월 8일 국립합창단 정기연주회 10월 22일 국립합창단 지방공연 10월 29일 국립발레단 '왕자호동' 12월 7일~12월 12일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12월 17일~12월 25일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12월 29일~12월 31일 국립오페라단 '갈라 콘서트'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1월 5일 2010신년음악회 1월 14일 11시 콘서트 2월 11일~2월 12일 11시 콘서트 4월 8일~4월 9일 11시 콘서트 4월 15일 교향악축제 7월 8일~7월 9일 11시 콘서트 8월 12일~8월 13일 11시콘서트 9월 9일~9월 10일 11시 콘서트 10월 6일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10월 14일 11시 콘서트
2011년	
제 172회 정기연주회 '최희준 상임지휘자 취임기념'	2011년 3월 30일(수)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희준 F.Haydn / Symphony No.88 in G Major (하이든 / 교향곡 제88번) G.Mahler / Symphony No.5 in c# minor (말러 / 교향곡 제5번)
제 173회 정기연주회	2011년 5월 26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희준 / 피아노 : Wolfgang Manz (볼프강 만츠) Weber / Overture 'Der Freischutz' (베버 / 서곡 '마탄의 사수') Beethoven / Piano Concerto No.3 in c minor, Op.37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3번 c단조) Schumann / Symphony No.2 in C Major, Op.61 (슈만 / 교향곡 제2번 C장조)
제 174회 정기연주회	2011년 6월 21일(화)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희준 / 바이올린 : 김남윤 Mozart / Violin Concerto No.4 in D Major, K.218 (모차르트 / 바이올린 협주곡 제4번 D장조) Shostakovich / Symphony No.8 in c minor, Op.65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8번 c단조)
제 175회 정기연주회	2011년 9월 16일(금)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희준 / 첼로: Laszlo Fenyo(라슬로 페뇌) Glinka / Overture to 'Ruslan and Lyudmila' in D Major (글린카 / 서곡 '루슬란과 루드밀라') Shostakovich / Cello Concerto No.1 in E♭ Major, Op.107 (쇼스타코비치 / 첼로 협주곡 제1번 E♭장조) Tchaikovsky / Symphony No.4 in f minor, Op.36 (차이코프스키 / 교향곡 제4번 f단조)

제 176회 정기연주회	2011년 11월 18일(금)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Michele Carulli (미켈레 카룰리) / 피아노 : Aviram Reichert (아비람 라이케르트) Bernstein / Overture to 'Candide' (번스타인 / 서곡 '캔디드') Gershwin / Concerto for Piano and Orchestra in F Major (거쉬인 / 피아노 협주곡 바장조) Puccini / Preludio Sinfonico in A Major (푸치니 / 심포닉 전주곡) Respighi / Pini di Roma (레스피기 / 교향시 '로마의 소나무')
제 177회 정기연주회	2011년 12월 5일(월)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희준 소프라노 : 김은주, 메조소프라노 : 양송미, 테너 : 박기천, 바리톤 : 정록기 합창단 : 국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Beethoven / Overture to 'Egmont' f minor, Op.84 (베토벤 / 서곡 '에그몬트') Beethoven / Symphony No.9 in d minor, Op.125 'Choral' (베토벤 / 교향곡 제9번 '합창')
기획연주회	8월 8일 2011기획공연-청소년을위한 협주곡 시리즈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8월 3일 방방곡곡 사업-논산 9월 1일 방방곡곡 사업-평창 9월 19일 방방곡곡 사업-제천 11월 1일 방방곡곡 사업-예산 11월 3일 방방곡곡 사업-곡성 11월 4일 방방곡곡 사업-장성 11월 24일 방방곡곡 사업-완도
초청연주	1월 25일 서산문화회관 초청 '신년음악회'
기타외부연주	1월 11일 스팅 '심포니콘서트' 1월 18일 히사이시 조 내한공연 3월 5일 2011 신춘음악회 4월 27일 안젤라 게오르규 내한공연 5월 29일 서울국제음악제 7월 30일 동아일보 청소년음악회 8월 18일 마티네 콘서트 8월 28일 국제관악제 9월 24일, 27일~28일 현대캐피탈 조수미 콘서트 10월 9일 정동교회 창립기념연주 10월 25일 향기로운 음악회 10월 28일 심포닉시리즈
오페라 · 발레 · 합창 연주	2월 24일~27일 국립발레단 '지젤' 3월 16일,18일~20일 국립오페라단 '파우스트' 4월 22일~24일 국립발레단 '왕자호동' 5월 5일~8일 국립오페라단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 5월 19일~22일 국립오페라단 '사랑의 묘약' 6월 12일~28일 국립발레단 '제1회 대한민국발레축제' 6월 14일 국립합창단 '제137회 정기연주회 칸타타 라자로의 노래' 10월 13일~16일 국립오페라단 '가면무도회' 12월 16일~25일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2월 29일, 31일 국립오페라단 '송년갈라콘서트'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2월 10일 11시 콘서트 4월 7일 교향악 축제 4월 14일 11시 콘서트 6월 9일 11시 콘서트 7월 14일 11시 콘서트 8월 11일 11시 콘서트 8월 12일 예술의전당 야외무대 오픈 기념공연 8월 21일 예술의전당 가족음악축제 9월 8일 11시 콘서트 9월 25일 예술의전당 회원음악회 11월 10일 11시 콘서트 12월 8일 11시 콘서트

2012년

제 178회 정기연주회	2012년 1월 19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희준 / 소프라노 : 신지화,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합창단 : 국립합창단, 수원시립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 G.Mahler / Symphony No.2 in c minor 'Resurrection" (말러 / 교향곡 제2번 '부활')
제179회 정기연주회	2012년 3월3 0일(금)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희준 / 바이올린 : Jennifer Koh (제니퍼 고) B.Smetana / Vltava 'The Moldau' from Symphonic Poem (스메타나 / 교향시 '나의조국' 중 '몰다우') J.Brahms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77 (브람스 /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A.Dvorak / Symphony No.9 in e minor, Op.95 'From the New World' (드보르작 /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제180회 정기연주회	2012년 6월 28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Theo Wolters (테오 월터스) / 호른 : 김영률 F.Mendelssohn / Overture to 'Die Heibriden' (멘델스존 / 서곡 '핑갈의 동굴') R.Strauss / Horn Concerto No.2 in E♭ Major (슈트라우스 / 호른 협주곡 제2번) J.Brahms / Symphony No.2 in D Major, Op.73 (브람스 / 교향곡 제2번) 

제181회 정기연주회	2012년 9월 6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희준 / 클라리넷 : Wenzel Fuchs (벤젤 푹스) C.M.v.Weber / Clarinet Concerto No.2 in E♭ Major, Op.74 (베버 / 클라리넷 협주곡 제2번) D.Shostakovich / Symphony No.10 in e minor, Op.93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10번)
제182회 정기연주회	2012년 6월 28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희준 / 피아노 : Menahem Pressler (메나헴 프레슬러) L.v.Beethoven / Overture to 'Leonore' No.3 (베토벤 / 서곡 '레오노레' 제3번) W.A.Mozart / Piano Concerto No.17 in G Major, K.453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제17번) L.v.Beethoven / Symphony No.7 in A Major, Op.92 (베토벤 / 교향곡 제7번)
제183회 정기연주회	2012년 11월 8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Laurent Petitgirard (로랑 프티지라르) / 첼로 : 양성원 C.Debussy / Debussy Prélude à l'après-midi d'un faune (드뷔시 /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A.Dvořák / Cello Concerto in b minor, Op.104 (드보르작 / 첼로 협주곡 b단조) M.Ravel / Gaspard de la nuit [Orch Marius Constant] (라벨 '밤의 가스파르' [Marius Constant 관현악편곡]) M.Ravel / Daphnis et Chloe Suite No.2 (라벨 / '다프니스와 클로에' 제2모음곡) 
	10월 6일 2012 안익태 기념음악회 10월 29일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 (부산문화예술회관) 10월 30일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 (서울)
기획연주회	5월 22일 2012기획공연시리즈I-키즈콘서트 7월 17일 2012기획공연시리즈II-라이징스타 시즌 I 8월 21일 앙코르[키즈콘서트] Summer Special Concert 12월 1일 2012기획공연시리즈III-송년음악회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코리안심포니 시네마천국]	6월 1일 방방곡곡 사업–김제 7월 5일 방방곡곡 사업–순천 7월 6일 방방곡곡 사업 (연계)–한천초등학교 7월 7일 방방곡곡 사업–진천 8월 24일 방방곡곡 사업–담양 9월 14일 방방곡곡 사업–사천 9월 21일 방방곡곡 사업 (연계)–옥종초등학교 9월 22일 방방곡곡 사업–경남 10월 23일 방방곡곡 사업–나주 10월 24일 방방곡곡 사업 (연계)–나주중학교 11월 2일 방방곡곡 사업–부여 11월 12일 방방곡곡 사업–울진 11월 13일 방방곡곡 사업–문경 11월 14일 방방곡곡 사업 (연계)–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타외부연주	1월 10일 2012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음악회 4월 28일 서울국제음악콩쿠르 FINAL 5월 25일 2012 아람누리 심포닉 시리즈 6월 15일 강수진 &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8월 13일 동아일보 청소년 음악회 8월 20일 동아일보 청소년 음악회 9월 20일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10월 6일 2012 안익태 기념음악회 10월 29일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 (부산문화예술회관) 10월 30일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 (서울) 11월 19일 라두루푸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
오페라 · 발레 · 합창 연주	2월 24일 국립합창단 '천지창조' 3월 1일~4일 국립발레단 '지젤' 4월 13일~15일 국립발레단 '스파르타쿠스' 6월 8일 국립오페라단 '창작오페라갈라' 10월 18일~21일 국립오페라단 '카르멘' 11월 10일~11일 국립발레단 창단 50주년 기념공연 11월 28일~12월1일 국립오페라단 '박쥐' 12월 7일~12일 국립발레단 '백조의호수' 12월 18일~25일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2월 29일~30일 국립오페라단 '송년갈라'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1월 12일 11시 콘서트 2월 9일 11시 콘서트 3월 8일 11시 콘서트 4월 21일 교향악 축제 5월 10일 11시 콘서트 7월 12일 11시 콘서트 8월 9일 11시 콘서트 8월 19일 예술의전당 청소년음악회 Special 2012 9월 8일 제2회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캠프 & 콩쿠르 결선 9월 13일 11시 콘서트

2013년

제184회 정기연주회	2013년 1월 31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희준 G. Mahler / Symphony No. 6 in a minor 'Tragic' (말러 / 교향곡 제6번 '비극적') 
제185회 정기연주회	2013년 3월 9일(토) 오후7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희준 / 소프라노 : Romy Petrick (로미 패트릭) R. Wagner / Overture to 'Die Meistersinger von Nurnberg' (바그너 /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서곡) R. Wagner / Wesendonck Lieder (바그너 / 베젠동크 가곡) J. Brahms / Symphony No. 1 in c minor, Op. 68 (브람스 / 교향곡 제1번 c단조 작품 68) 
제186회 정기연주회	2013년 5월 30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Christian Ehwald (크리스티안 에발트) / 비올라 : 김상진 / 첼로 : 조영창 W. A. Mozart / Symphony No. 36 in C Major, K. 425 'Linz' (모차르트 / 교향곡 제36번 C장조 작품 425 '린츠') R. Strauss / Symphonic Poem 'Don Quixote' Op. 35 (슈트라우스 / 교향시 '돈키호테' 작품 35) 

제187회 정기연주회	2013년 7월 18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오보에 : Albrecht Mayer (알브레히트 마이어) J. S. Bach / Concerto for oboe, strings and basso continuo (after BWV 105, 170 und 49) Arr. Albrecht Mayer, Andreas N. Tarkmann (바흐 / 오보에, 현,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협주곡) G. F. Handel / 'Verdi prati' Concerto for oboe d'amore, strings and basso continuo (after HWV 32, 296a und 34) Arr. Albrecht Mayer / Andreas N. Tarkmann (헨델 / 오페라 아리아 중 'Verdi prati'에 의한 오보에 다모레와 현,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협주곡) F. Mendelssohn / Symphony No. 3 in a minor, Op. 56 'Scottish' (멘델스존 / 교향곡 제3번 a단조 작품 56 '스코틀랜드')  
제188회 정기연주회	2013년 8월 22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희준 / 피아노 : Vardan Mamikonian (바르단 마미코니안) J. Sibelius / Symphonic Poem 'Finlandia', Op. 26 (시벨리우스 / 교향시 '핀란디아' 작품 26) F. Liszt / Piano Concerto No. 1 in Eb Major, S. 124 (리스트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Eb장조 작품 124) P. I. Tchaikovsky / Symphony No. 5 in e minor, Op. 64 (차이코프스키 / 교향곡 제5번 e단조 작품 64)
제189회 정기연주회	2013년 11월 21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희준 / 바이올린 : Stefan Pi Jackiw (스테판 피 재키브) W. A. Mozart / Violin Concerto No.5 in A Major, K. 219 'Turkish' (모차르트 /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A장조 작품 219 '터키') D. Shostakovich / Symphony No. 7 in C Major, Op. 60 'Leningrad'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7번 C장조 작품 60 '레닌그라드')

기획연주회

2013기획공연시리즈 I –애니메이션 위드 오케스트라 : 키즈콘서트	2013년 5월 4일(토) 오후2시, 오후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정인혁 / 피아노 : 조재혁, 오윤주 / 나레이션 : 박성태 C. Saint–Saens / The Carnival of the Animals (생상스 / 동물의 사육제) N. Rimsky–Korsakov / Scheherazade (림스키 코르사코프 / 세헤라자데)
2013기획공연시리즈 II – 라이징스타 시즌 II	2013년 6월 8일(토) 오후7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서진 / 클라리넷 : 김주현 / 바이올린 : 이희명 C. M. v. Weber / 'Der Freischütz' Overture (베버 / '마탄의 사수' 서곡) A. Copland / Clarinet Concerto (코플란드 / 클라리넷 협주곡) A. Khachaturian / Violin Concerto in d minor (하차투리안 /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2013기획공연시리즈 III – 2013송년음악회	2013년 12월 12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Johannes Fritzsch (요하네스 프리츠) 소프라노 : 김영미 / 메조소프라노 : 이아경 / 테너 : 이원준 / 베이스 : 손혜수 L. v. Beethoven / 'Leonore' Overture No. 2 in C Major, Op. 72a (베토벤 / 서곡 '레오노레' 제2번 C장조 작품 72a) L. v. Beethoven /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베토벤 / 교향곡 제9번 d단조 작품 125 '합창') 

특별연주회	11월 2일 2013코리안심포니 아시아투어 : 태국 [태국 한국문화원 개원기념음악회] 11월 4일 2013코리안심포니 아시아투어 : 싱가포르 [싱가포르 한인50주년 기념음악회]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브로드웨이 뮤지컬 콜렉션'	5월 10일 방방곡곡 사업(연계)-가야초등학교 5월 11일 방방곡곡 사업-함안문화예술회관 7월 12일 방방곡곡 사업(연계)-의령초등학교 7월 13일 방방곡곡 사업-의령군민문화회관 10월 25일 방방곡곡 사업-화순하니움문화센터 11월 7일 방방곡곡 사업-서산시문화회관 11월 8일 방방곡곡 사업(연계)-부춘초등학교 11월 22일 방방곡곡 사업(연계)-문명고등학교 11월 23일 방방곡곡 사업-경산시민회관 11월 25일 방방곡곡 사업-철원군 화강문화센터
기타외부연주	3월 26일 서울모테트합창단 제89회 정기연주회 4월 2일 김희성 오르간 독주회 4월 3일 백양콘서트홀 재개관 페스티벌-오프닝 갈라 콘서트 5월 19일 2013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덕수궁 고궁음악회 6월 20일 2013성남마티네콘서트 7월 26일 2013아람누리 심포닉시리즈 10월 17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그랜드 오페라 '아이다' 10월 24일 2013성남마티네콘서트 11월 13일 ARKO한국창작음악제
오페라, 발레, 합창 연주	2월 14일~17일 국립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 3월 21일~24일 국립오페라간 '팔스타프' 4월 9일~14일 국립발레단 '라 바야데르' 5월 9일 국립합창단 148회 정기연주회-Song of Arirang 5월 16일 국립합창단 창단40주년 기념 합창갈라콘서트 6월 28일~30일 국립발레단 '차이콥스키:삶과 죽음의 미스터리' 10월 1일~5일 국립오페라단 '파르지팔' 12월 5일~8일 국립오페라단 '라보엠' 12월 18일~25일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12월 29일~30일 국립오페라단 '2013오페라갈라'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1월 10일 11시콘서트 3월 14일 11시콘서트 4월 16일 교향악축제 4월 29일 예술의전당 개관25주년 -코리안 월드스타 시리즈'장한나' 7월 11일 11시콘서트 8월 8일 11시콘서트 9월 12일 11시콘서트 10월 10일 11시콘서트 10월 1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 오페라 - 베르디 'Rigoletto' 11월 14일 11시콘서트

2014년

제190회 정기연주회	2014년 1월 28일(화)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최희준 / 피아노 : 박종화 L. v. Beethoven / Piano Concerto No.1 in C Major, Op. 15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C장조 작품 15) G. Mahler Symphony No. 1 in D Major 'Titan' (말러 / 교향곡 제1번 D장조 '거인')  
제191회 정기연주회	2014 6월 19일(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임헌정 / 첼로 : Martin Loehr (마르틴 뢰어) A. Dvorak / Cello Concerto in b minor, Op. 104 (드보르작 / 첼로 협주곡 b단조 작품 104) A. Dvorak / Symphony No. 9 in e minor, Op. 95 'From the New World' (드보르작 / 교향곡 제9번 e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제192회 정기연주회	2014년 7월 19일(토)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임헌정 G. Mahler / Symphony No. 9 in D Major (말러 / 교향곡 제9번 D장조)  
	제193회 정기연주회	2014년 9월 20일(토)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임헌정 / 피아노 : 김다솔 L. v. Beethoven / Piano Concerto No. 5 in E♭ Major, Op. 73 'Emperor'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5번 E♭장조 작품 73 '황제') L. v. Beethoven /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베토벤 / 교향곡 제5번 c단조 작품 67)
기획연주회	2014기획공연시리즈 I –애니메이션 위드 오케스트라 : 키즈콘서트	2014년 5월 24일(토) 오후2시, 오후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이병욱 / 피아노 : 조재혁, 이효주 C. Saint–Saens / The Carnival of the Animals (생상스 / 동물의 사육제) P. I. Tchaikovsky / The Nutcracker Suite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인형 모음곡)
	2014코리안심포니가 주목하는 신인아티스트 – 라이징스타 시즌Ⅲ	2014년 5월 30일(금)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윤승업 / 첼로 : 박주호, 이강현 J. Brahms / Academic Festival Overture in c minor, Op. 80 (브람스 / 대학축전 서곡 c단조, 작품 80) R. Schumann / Cello Concerto in a minor, Op. 129 (슈만 /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 80) D. Shostakovich / Cello Concerto No. 1 in E♭ Major, Op. 107 (쇼스타코비치 / 첼로 협주곡 제1번 E♭장조 작품 107)
	Talking with the Orchestra I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014년 10월 31일(금) 오후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임헌정 / 해설 : 최은규 R. Wagner / Prelude and Liebestod from Tristan and Isolde (바그너 /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 R. Strauss / Also sprach Zarathustra (R. 슈트라우스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방방곡곡문화공감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7월 21일 방방곡곡 사업–정읍사예술회관 8월 22일 방방곡곡 사업–제주문예회관 9월 23일 방방곡곡 사업–속초시문화회관 9월 25일 방방곡곡 사업–서천문예의전당 12월 2일 방방곡곡 사업–당진문예의전당
기타외부연주	2월 6일 서산합창공연 2월 13일 세종시 신년음악회 3월 20일 성남마티네콘서트 3월 29일~30일 동아일보 서울국제콩쿠르 5월 17일 마스트미디어 피아노독주회 5월 19일 마스트미디어 피아노독주회 (부산) 7월 12일 성남파크콘서트 7월 26일 아람누리 심포닉시리즈 8월 6일 키즈콘서트 8월 13일 세계합창제 폐막 9월 3일 소프라노 오미선독창회 9월 30일 국립합창단 예술감독 취임연주
오페라 · 발레 · 합창 연주	3월 13일~16일 국립발레 라바야데르 4월 10일~13일 국립발레 백조의호수 4월 24일~27일 국립오페라 라트라비아타 6월 26일~29일 국립발레 돈키호테 8월 29일~30일 국립발레 왕자호동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4월 16일 교향악축제 5월 8일 11시콘서트 6월 12일 11시콘서트 7월 10일 11시콘서트 8월 14일 11시콘서트 9월 6일 예술의전당 영재콩쿨 9월 11일 11시콘서트
2015년	
제194회정기연주회	2015년 1월 22일(목) 오후8시예술의전당콘서트홀 지휘 : 임헌정 바리톤 : 염경묵 (돈조반니), 바리톤 : 공병우 (레포렐로) 소프라노 : 강혜정(체를리나) W. A. Mozart / Opera 'Don Giovanni' Highlights (모차르트 / 오페라 '돈조반니' 주요아리아) P. I. Tchaikovsky / 'Swan Lake' Suite (차이코프스키/ '백조의호수' 조곡) G. Mahler / Symphony No. 9 in D Major – Ⅳ. Adagio (말러 / 교향곡제8번4악장)
2015코리안심포니가 주목하는 신인아티스트 –라이징스타시즌Ⅳ	2015년 5월 23일(토) 오후8시예술의전당콘서트홀 지휘 : 최영선 / 트롬본 : 설용빈, 트럼펫 :최민, 바이올린 :박규민 Glinka / Overture to 'Ruslan and Lyudmila' (글린카 / 오페라루슬란과루드밀라서곡) Grøndahl / Concerto For Trombone (그랜달 / 트롬본협주곡) Arutiunian / Trumpet Concerto in A♭ Major (아르투니안 / 트럼펫협주곡) 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5 (차이코프스키 / 바이올린협주곡작품35)

Talking with the Orchestra Ⅱ -파우스트	2015년 8월 25일(화) 오후8시예술의전당콘서트홀 지휘 : 임헌정 / 테너 :이호철/ 해설 : 최은규 H. Berlioz / Opera Marche hongroise (베를리오즈 / 오페라파우스트의저주중 '헝가리행진곡') C. F. Gounod / Opera 'Salut demeure chaste et pure' (구노 / 오페라파우스트둥 '정결한집') F. Liszt / A Faust Symphony (리스트/ 파우스트교향곡)
특별연주회 2015코리안심포니 창단30주년기념 유럽투어	지휘 :임헌정/ 비올라 :이유라 W. A. Mozart / Overture from 'The Magic Flute', K. 620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서곡 K. 620) Texu Kim / 'Ko-Oh' for Solo Viola and Orchestra (김택수 / 솔로비올라와오케스트라를위한 '코오' 초연) A. Dvořák / Symphony No. 9 in e minor, Op. 95 'From the New World' (드보르작 / 교향곡제9번 e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9월 30일크로아티아 [한국/크로아티아친선공연] @바트로슬라브리신스키콘서트홀 (Vatroslav Lisinski Concert Hall)  10월 2일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가을페스티벌] @슬로박필하모닉콘서트홀 (Slovak Philharmonic Concert Hall)  10월 4일오스트리아 [브루크너페스티벌폐막공연] @브루크너하우스메인홀 (Brucknerhaus-Main Hall)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너나들이 문화여행사업	[TV에서만난클래식] 지휘 : 조규진 / 소프라노 : 강혜정, 테너 : 진성원 9월 14일너나들이사업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 9월 15일너나들이사업 @고창문화의전당 9월 21일너나들이사업 @강진군아트홀 10월 31일너나들이사업 @함안문화예술회관 11월 17일너나들이사업 @곡성문화센터
기타외부연주	1월 17일 하남신년음악회 2월 7일 노부스콰르텟 4월 10일~12일 수지오페라단오페라아이다 4월 16일 성남마티네콘서트 9월 1일 국회40주년기념공연 9월 12일 통영IN코리안심포니 10월 15일~18일 성남문화재단오페라라트라비아타 11월 6일~8일 강수진 & 슈투트가르트발레단발레오네긴 12월 28일 고양문화재단브루크너시리즈
오페라 · 발레 · 합창연주	3월 12일~15일 국립오페라안드레아셰니에 3월 25일~29일 국립발레지젤 4월 29일~5월 3일 국립발레말괄량이길들이기 6월 6일~7일 국립오페라주몽 6월 24일~28일 국립발레백조의호수 11월 18일, 20일, 22일 국립오페라방황하는네덜란드인 11월 27일~28일 국립오페라라트라비아타 (천안) 12월 9일~12일 국립오페라라트라비아타 (서울) 12월 18일~27일 국립발레호두까기인형
예술의전당 기획연주	2월 12일 11시콘서트 2월 26일 브루크너시리즈2 4월 1일 교향악축제 4월 9일 11시콘서트 5월 12일 브루크너시리즈3 5월 14일 11시콘서트 5월 30일 창작오페라갈라 6월 11일 11시콘서트 7월 9일 11시콘서트 7월 15~19일 오페라마술피리 8월 13일 11시콘서트 9월 10일 11시콘서트 9월 20일 전당회원음악회 10월 29일 브루크너시리즈4 11월 12일 11시콘서트 12월 15일 브루크너시리즈5 12월 31일 제야음악회

주요 지휘자 및 출연자, 레퍼토리 리스트

● 지휘자 및 협연자

· 지휘자 (74)

홍연택, 모리 다다시, 다나카 요시카즈, 임헌정, 오마치 요이치로, 박은성, 고이즈미 히로시, 와타나베 가즈아키, 고마쓰 가즈히코, 폴커 레니케, 박종혁, 요셉 엘 시시, 쿠르트 레델, 정두영, 모미야마 가즈아키, 최승한, 닐 바론, 벤자민 잔더, 나오토 오토모, 나영수, 유영재, 김명엽, 키스 클라크, 니콜라이 디아디우라, 정치용, 최영철, 파울 폴리브니크, 반코 카브다르스키, 임평룡, 닐 슈텔베르크, 마티아스 후스만, 카를로 팔레스키, 금난새, 로랑 쁘띠지라르, 임원식, J.보단스키, 윤학원,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정명훈, 곽승, 보구슬라프 마데이, 김홍재, 뤼디거 본, 앤드류 토마스, 장 이브 오송스, 함신익, 리오 삼바달, 히사이시 조, 이대욱, 박태영, 원경수, 안토닌 퀴넬, 최희준, 아드리안 뮐러, 로버트 올슨, 야누쉬 포볼니, 바비 맥퍼린, 금노상, 귀도 마리아, 귀다, 요하네스 고리츠키, 프랑크 크레이머, 로베르트 쾨니히, 크리스티안 에발트, 미켈레 카룰리, 스팅, 테오 월터스, 알브레히트 마이어, 정인혁, 서진, 요하네스 피리취, 이병욱, 윤승업, 조규진, 장한나

· 피아니스트 (74)

신수정, 이경숙, 김형규, 백미영, 김보경, 신혜주, 김현정, 강성애, 이옥희, 권경순, 구자은, 이혜정, 방진, 현혜수, 박승민, 박성미, 로돌프 마이스터, 조현수, 장인정, 조성옥, 이현순, 김수경, 윤경련, 이경희, 고명주, 박주연, 임미수, 김영호, 백혜선, 에리카 킬혀, 이성옥, 김지현, 박주연, 최양옥, 송진민, 이루사, 권석란, 안혜선, 최수미, 박종훈, 오경혜, 박수진, 김대진, 이경미, 최희연, 주희성, 박숙련, 야콥 치즈마로비치, 카롤리네 되르제, 로버트 블로커, 김희균, 울리히 마이닝, 다미안 지덱, 쿠르트 자이베르트, 이영희, 올리버 코넬리어스 케른, 유영욱, 페터 야블론스키, 조성진, 김태형, 볼프강 만츠, 아비람 라이케르트, 히사이시 조, 메나헴 프레슬러, 바르안 마미코니안, 조재혁, 오윤주, 박종화, 김다솔, 이혜주, 라두 루푸, 강충모, 임효선

· 바이올리니스트 (41)

德永二男, 최민재, 한경순, 정찬우, 배은환, 이순익, 김진, 피호영, 강영모, 백운창, 이유라, 유승현, 박재원, 정원순, 조민정, 김이선, 이상희, 김수연, 홍기엽, 알렉산드르 아렌코프, 송상임, 이정일, 윤경희, 김현아, 제니퍼 고, 권혁주, 야이르 클레스, 미하일 잠, 박세나, 로버트 프랭크, 백주영, 다니엘 게데, 울프 발린, 양고운, 클라라 주미 강, 이미경, 김남윤, 스테판 키 재키브, 이희명, 강동석

· 비올리스트 (5)

우즈카 도시유키, 위찬주, 김상진, 이지은, 박현신,

· 첼리스트 (24)

김 봉, 조영창, 한혜선, 양성원, 김정현, 이수영, 장한나, 박상민, 서세원, 이숙정, 전소영, 신상원, 이재은, 이강호, 여미혜, 아르토 노라스, 개리 호프만, 안토니오 메네시스, 프란스 헬머슨, 라즐로 페뇌, 율리우스 베르거, 마르틴 뢰어, 박주호, 이강현,

· 베이시스트 (1)

정선

· 클라리네티스트 (3)

이상재, 벤젤 푹스, 김주현

· 플루티스트 (7)

이혜경, 민세진, 시게리노 쿠도, 강현주, 이수진, 안드라스 아도리안, 심재연

· 오보이스트 (5)

김학영, 곽연희, 사토키 아오야마, 전미영, 알브레히트 마이어

· 호르니스트 (2)

헤르만 바우만, 김영률

· 트럼페터 (1)

안희찬 (포스트혼)

· 하피스트 (6)

박희영, 김서원, 윤지윤, 박라나, 조민정, 곽정

· 오르가니스트 (1)

김희성

· 소프라노 (27)

이규도, 송광선, 김영미, 곽신형, 박미애, 김향란, 조수미, 박미혜, 홍혜경, 강미자, 신영옥, 신애령, 알리나 바키초바, 서혜연, 박정원, 김인혜, 이승희, 박경신, 이춘혜, 귀네스 존스, 프란시스 진저, 신지화, 김은주, 안젤라 게오르규, 로미 패트릭, 오미선, 강혜정

· 메조소프라노 / 알토 (9)

김신자, 김학남, 김청자, 강화자, 방현희, 윤현주, 김여경, 양송미, 이아경

· 테너 (21)

박세원, 박성원, 박인수, 신영조, 김태현, 신동호, 플라시도 도밍고, 박치원, 최진호, 김영환, 이병두, 호세 카레라스, 루치아노 파바로티, 리하르트 데커, 로베르토 알라냐, 박현재, 호세 쿠라, 박기천, 이원준, 이호철, 진성원

· 바리톤 (10)

박수길, 김관동, 고성현, 신경욱, 이재환, 전태상, 우주호, 정록기, 염경묵, 공병우

· 베이스 (5)

오현명, 양희준, 손혜수, 김인수, 김요한

· 합창단

국립합창단, 시온합창단, 바하합창단, 서울오라토리오합창단, 신원에벤에셀성가단, 러시아 볼쇼이합창단, 영락교회 시온성가대, 성니콜라소년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 수원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세계합창제 참가 해외합창단 다수

· 허트리오, 금호현악4중주단, 장홍옌 (비파)

● 레퍼터리 [실내악연주회 생략, 일부 자료 유실]

· 주요 교향곡

베토벤 제1,2,3,4,5,6,7,8,9번,
모차르트 제1,25,32,35,36번,39번,40번,41번
브람스 제1,2,4번
말러 제1,2,3,4,5,6,9,10번, 대지의 노래
브루크너 제1,3,4,5,6,8,9번
차이코프스키 1,4,5,6번
드보르작 제7,8,9번
하이든 제88,101,104번
슈만 제1,2,3번
슈베르트 제4,5,8번
쇼스타코비치 제5,7,8,9,10번
멘델스존 제3,4번
프랑크 D장조, 생상스 제3번, 베를리오즈 환상, 라흐마니노프 제2번, 프로코피에프 제5번,
시벨리우스 제2번, 리스트 파우스트 교향곡, 글라주노프 제4번, 구레츠키 제3번 '슬픔의 노래'
페렝크 교향곡 제3번 (한국초연) 외

· 주요 협주곡

피 아 노 : 차이코프스키 제1번, 쇼팽 제1,2번, 베토벤 제1,3,4,5번 라흐마니노프 제1,2,3번, 파가니니 주제 환상곡, 프로코피에프 제3번, 브람스 제1,2번, 모차르트 제9,10,17,20,21,22,23,24번, 2 피아노, 리스트 제1,2번, 죽음의 춤, 헝가리환상곡, 프랑크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교향적 변주, 그리그, 멘델스존 2 피아노, 라벨, 맥다월 제2번, 슈만, 바르토크 제3번, 사라사테 카르멘환상곡, 그리그, 바흐 2 피아노, 레거, 거슈인 외

바이올린 : 비발디 사계, 멘델스존, 베토벤,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시벨리우스, 모차르트 제3,4,5번, 파가니니 제1번, 프로코피에프 제2번, 하이든, 카발레프스키, 랄로 스페인교향곡, 비외땅 제4번, 바르토크 제2번, 쇼스타코비치 제1번, 슈만, 브루흐 바이올린협주곡, 스코틀랜드 환상곡 외

첼　　로 : 드보르작, 하이든 제1,2번, 카발레프스키 제4번, 생상스, 라이네케, 엘가, 프로코피에프 심포니 콘체르탄테,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주제 변주곡, 쇼스타코비치, 슈만, 브루흐 콜 니드라이 외

플 루 트 : 모차르트 제1,2번, 드비앙 제2번, 하차투리안, 이베르 외

클라리넷 : 모차르트, 베버 외

오 보 에 : 바흐, 마르티누, R.슈트라우스, 모차르트, 바흐 오보에 & 현 & 바소 콘티누오 협주곡, 헨델 'Verdi prati'에 의한 오보에 다모레와 현,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협주곡 외

트 럼 펫 : 하이든

호　　른 : 모차르트 제4번, R. 슈트라우스 제2번 외
브람스 이중협주곡, 베토벤 삼중협주곡, 힌데미트 비올라 협주곡, 월튼 비올라 협주곡, 모차르트 이중협주곡,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바르톡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핸델 하프 협주곡, 바흐 바이올린&오보에, 모차르트 플루트&하프, 바르토크 비올라 협주곡, 디터스도르프 콘트라바스 협주곡, 멘델스존 피아노 & 현악 협주곡, 부알디외 하프 협주곡, 윤이상 하프와 관현악을 위한 서주와 추상, 리스, 현악4중주 협주곡, 비파와 관현악을 위한 '春江花月夜(춘강화월야)', 말러키 2대의 하프 & 현악을 위한 고전풍의 작은 협주곡 외

· 주요 관현악곡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코리올란 서곡, 레오노레 서곡, 프로메테우스 서곡, 피델리오 서곡
모차르트 후궁탈출 서곡, 디베르티멘토,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티토의 자비 서곡, 돈죠반니 서곡,
피가로의 결혼 서곡, 마술피리 서곡
슈베르트 로자문데 서곡
멘델스존 한여름밤의꿈 서곡, 핑갈의 동굴, 헤브리디즈
브람스 비극적 서곡, 대학축전 서곡, 헝가리 춤곡 제1,2,5,6번
리스트 교향시 오르페우스, Les Preludes,
로시니 윌리엄텔 서곡, 베버 자유의 사수 서곡, 오베론 서곡, 주페 시인과 농부 서곡,
스메타나 몰다우, 샤르카, 'Prodana nevesta' 서곡, 팔려간 신부 서곡
베를리오즈 Les Nuit D'e Te, 벤베누토 첼리니 서곡, 파우스트의 저주 헝가리 행진곡,
로마의 사육제 서곡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서곡, 발퀴레의 기행, 이졸데의 사랑의 죽음,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서곡, 트리스탄과 이졸데 서곡, 로엔그린 전주곡, 지그프리드의 장송행진곡,
리엔치 서곡, The Ring without words, 바르트부르크의 환영곡
니콜라이 윈저의 명랑한 부인들 서곡
J. 슈트라우스 박쥐 서곡, 황제 왈츠
푸치니 교향적 전주곡
드보르작 카니발 서곡
글린카 로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왈츠 판타지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모음곡, 로미오와 줄리엣 서곡, 잠자는 숲속의 공주 서곡,
이탈리아 기상곡, 현을 위한 세레나데
보로딘 폴로베치안 춤
비제 카르멘 모음곡, 어린이를 위한 작은 모음곡
생상 동물의 사육제
샤브리에 스페인 랩소디
라흐마니노프 교향적 춤곡
프로코피에프 피터와 늑대
무소르그스키 모음곡 전람회의 그림, 교향시 민둥산의 하룻밤
그리그 홀베르그 모음곡, 페르 귄트 모음곡
시벨리우스 교향시 핀란디아
림스키-코르사코프 셰헤라자데, 스페인 기상곡
말러 이상한 아이의 뿔피리, 세상을 떠난 자의 노래
R. 슈트라우스 교향시 돈환, 죽음과 변용,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영웅의 생애, 살로메의 일곱 베일의 춤, 맥베스, 돈키호테
레스피기 로마의 소나무, 로마의 분수
마르티누 Memorial to Lidice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 작은 모음곡, 바다
라벨 볼레로, Ma Mere L'oye, Suitte, 라 발스, 쿠프랭의 무덤,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밤의 가스파르

파야 삼각모자 모음곡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 페트루슈카 모음곡, 봄의 제전
하차투리안 칼의 춤, 스파르타쿠스 모음곡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 재즈 모음곡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입문
코다이 하리 야노슈 모음곡
번스타인 캔디드 서곡
히나스테라 'Estancia' 발레모음곡
M.C.Redel 브룩크너-엣세이 작품 31
모니우슈코 마주르카
카탄 '아마조네스의 플로렌시아' 제2모음곡 (한국초연)
첼린스키 인어공주 환상곡 (한국초연)
이윤국 아마데우스를 위한 장송곡
안익태 한국환상곡
박영근 Nostalgia for Orchestra (초연), 관현악을 위한 '변용'
박정선 NEXUS Ⅶ '나의 사랑하는 나라' (초연)
문성희 'GUTT' (한국초연)
이병욱 소용돌이 (초연)
최동선 대편성 오케스트라를 위한 '영가'
이교숙 화가의 하루
우종갑 관현악을 위한 전주곡,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최우정 Orchestra를 위한 Composition
유영희 화성 (초연)
조인선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 Ⅵ'
김진수 관현악을 위한 귀천
이영조- Reqiuem for Strings
서순정 '유현'
임준희 교향시 용비어천가

· 주요 오페라

베르디 '리골레토', '돈 파스콸레', '돈 카를로', '팔스타프', '오텔로', '시몬 보카네그라', '가면무도회', '아이다', '라트라비아타', '맥베드', 푸치니 '라보엠', '토스카', '나비부인', '마농 레스코', '외투', '쟌니 스키키', '투란도트',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 '돈죠반니', '마술피리', 비제 '카르멘', 벨리니 '노르마', '라파보리타',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루치아',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 '결혼청구서', 레하르 '메리위도', 베토벤 '피델리오', 차이코프스키 '예프게니 오네긴', '이올란타', '스페이드의 여왕', 구노 '파우스트', '로미오와 줄리엣', 베를리오즈 '청교도', 메노티 '노처녀와 도둑', 생상스 '삼손과 데릴라', 바그너 '로엔그린', '트리스탄과 이졸데', '탄호이저', 베버 '자유의 사수', 오펜바흐 '호프만의 이야기', 죠르다노 '안드레아 셰니에', J.슈트라우스 '박쥐', 풀랑 '티레지아스의 유방', '카르멜 수녀들의 대화', 프로코피에프 '전쟁과 평화', 메노티 '전화', '델루조씨', '무당', 륄리 '사랑의 승리', 브리튼 번안 '섬진강나루', 웨이드 '순교자', 홍연택 '시집가는 날', '성춘향을 찾습니다', 공석준 '결혼', 장일남 '원술랑', 이종구 '환향녀', 윤이상 '영혼의 사랑', 이영조 '처용', 장일남 '불타는 탑', 박재훈 '에스더', 박영근 '보

석과 여인', '동명성왕', 최병철 '아라리 공주', 정회갑 '산불', 루콜라노 '이순신', 임준희 '천생연분' 외

· 발레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 '차이코프스키', 민쿠스 '돈키호테', '해적', '라바야데르', 아당 '지젤', 하차투리안 '스파르타쿠스', 프로코프에프 '로미오와 줄리엣', '신데렐라', 쇼팽 '라 실피드', '레 실피드', 피카드 '심청', 모차르트 '돈죠반니', '레퀴엠', '브라보 피가로',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비제 '카르멘', 파야 '쁘띠 파야', 에롤 '고집쟁이 딸', 글라주노프 '레이몬다', 이건용 '바리', 조석연 '왕자 호동', 모차르트 '춘향' (안무 포킨), 바흐 & 차이코프스키 '뮤자게트' (안무 보리스 에이프만), 편집음악 '춘향의 사랑', '고려애가', '외투'

· 주요 오라토리오 /합창 / 성악곡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칸타타 79번, 하이든 천지창조, 헨델 메시아, 멘델스존 엘리야, 베르디 레퀴엠, 모차르트 대관식미사, 기뻐하라 노래하라, 대미사, 구노 장엄미사, 칸타타 : 산자와 죽은자를 위한 혼례곡, 이종구 창작칸타타 들의 노래,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이영조 창작칸타타 용비어천가, 김기영 창작칸타타 외솔의 노래, 이건용 창작칸타타 라자로의 노래, R.슈트라우스 Vier ltzte Lieder, Aus Italien, 브리튼 세레나데, 바그너 베젠동크 가곡집, J. 슈트라우스 봄의 소리 왈츠 외

글을 마치며...

이 책은 한 악단이 30년 동안 걸어온 음악의 길을 따라가며 적은 사료집(史料集)입니다. 음악은 음반으로 기록되지만, 음악인이나 악단의 이야기는 음반에 담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이야기가 30년 동안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것이라면, 그 안에 얼마나 무성한 에피소드들이 남아 있을까요. 하지만 이 책 안에 시시콜콜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료집의 가치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었기에 역사적 사실들을 중심으로 아주 드라이 하게 엮었습니다.

아울러 이 책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30년 예술경영사(藝術經營史)이기도 합니다. 예술경영에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만큼 연구하기 좋은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오늘날 성공적인 예술경영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창단이후 여러 차례 변모를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4개의 시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1985년부터 2000년까지 홍연택 감독이 전직 국향 단원들을 중심으로 민간 직업 교향악단의 토대를 닦았던 시대였습니다. 홍연택 감독은 오케스트라를 매우 사랑한 지휘자였기에 국립극장 여러 예술단들의 무대음악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국립극장 지하에 사무실과 연습실의 둥지도 틀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자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험을 전개해나갔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예술의전당 시대입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사단법인에서 문화관광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체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예술의전당 상주오케스트라로 극장 오케스트라 역할을 하기에 더욱 좋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2001년 5월, 홍연택 감독의 급서로 객원지휘자 체재가 됩니다. 지휘자 없이 법인 이사장과 음악감독이 운영하며 그 과정에서 파란을 겪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지휘자들의 시대입니다. 박은성 최희준 임헌정으로 이어진 바통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에게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한결 정제된 사운드로 세계 수준의 프로그램들을 연주했습니다, 음악은 한층 더 강해지고 악단의 로열티는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음악도들은 누구나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기를 꿈꿉니다.

네 번째는 창단 30년을 맞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를 말해봅니다. 예술과 경영의 분리시대입니다. 여기서 분리란 예술은 예술감독이 맡고 경영은 CEO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야흐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 악단은 한국의 교향악단 환경과 교훈을 잘 알고 있으며 새로운 30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그 30년의 미션은 '강음으로 강국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국가가 부강해지면 사운드가 좋아지는데 그 모습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 악단의 창단과정을 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오늘날처럼 오케스트라가 빛을 내던 시대가 아니었기에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출발에 큰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음악의 친구로서 기대감보다는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원들 스스로 직업 교향악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출발은 그들이 얼마나 오케스트라를 사랑하는지 가늠케 합니다. 그 후로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를 사랑하는지요. 서두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책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경영과 연주활동에 대한 기록물이어서 흥미진진(興味津津)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독자들이, 이 책에서 '사랑'이라는 한 단어를 찾아 읽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코리안심포니에 대한 사랑 말입니다.

배석호





[2015 유럽투어(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2015.10.02_ 지휘 임헌정]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